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 학위논문

隋唐 歷史敍事의 演義化 樣相 硏究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문학전공

이 지 원

국 문 초 록

이 글은 다양한 隋唐 계통 역사연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역사연의라는 서사양식의 보편적인 구성 원리와 특성을 추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역사연의를 소설로 분류하고 그 기원을 설화구연의 기록으로 한정하는 그간의 관점에서 벗어나, 역사연의를 역사서사의 한 부류로 전제한 후 그것의 전체적인 면모를 조망하고 심층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통시기 중국에서 역사서사는 매우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正史부터 志怪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문헌기록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述而不作'이라는 서사원칙을 널리 적용시켰다. 唐代를 지나면서 더욱 규범화되고 체계화된 역사서사의 전통은 宋代《資治通鑑》의 편찬으로 한 번의 전기를 맞이한다.《資治通鑑》은 시간을 연속시키고 공간을 통합함으로써 역사의 총체성을 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明代에 들어 달라진 史學의 풍조, 출판 시장의 폭발적인 확장과 만나면서 通鑑類 史書를 유행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16세기에 들어서면서 通鑑類 史書들의 출간에 특화되었던 建陽 지역의 書坊을 중심으로 역사연의가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역사연의인 按鑑演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隋唐志傳》은 체제와 내용 모두에서《資治通鑑》과《資治通鑑綱目》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나 이와 구별되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다. 시간 표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발생 순서대로 나열하는 編年體와 달리,《隋唐志傳》은 시간 표지를 생략하고 사건들을 서로 연관 지어 계열화함으로써 이를 인과관계가 있는 서사로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사는 定型化되고, 定型化된 서사는 역사적 사건에 손쉽게 논리적 질서를 부여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하였다.

朝代를 기준으로 통감류 사서를 다시 쓴 초기의 역사연의들은 점차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하였다.《隋煬帝艷史》는 황제의 傳記라는 역사서사의 고전적 형식을 차용하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통 역사서사가 아닌 唐宋代의 문언필기를 다시 쓰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구성하였다.《隋煬帝艷史》는 황제의 사치와 향락을

자세히 묘사하여 역사적 사실을 미학적인 감상 혹은 오락의 대상으로 만드는 한편, 사건의 배치를 바꾸어 서사의 맥락을 만들거나 文言을 白話로 고쳐 쓰면서 인물 간의 대화나 심리묘사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隋煬帝艷史》는 역사적 인물의 행위를 통해 隋唐 교체라는 역사적 사실을 서사화하는 동시에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기존의 고정적이며 교훈적인 해석에 균열을 내었다.

《隋史遺文》은 설화구연의 대본을 역사연의의 양식으로 다시 쓴 텍스트이다. 《隋史遺文》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개연성에 따라 허구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이를 확대, 발전시켰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역사적 인물의 공적보다는 그것의 바탕이 되는 품성을 드러내고, 겉으로 드러난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그러한 일이 일어난 까닭을 그려내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개재되어 있다. 《隋史遺文》은 허구적 사건들을 통해 실존한 역사적 인물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는 동시에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보다 근본적인 동기들을 서사화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허구적인 사건에 대한 사실적이고도 생생한 묘사에는 隋唐시기가 아닌 《隋史遺文》가 쓰인 明末의 현실이 투영되어 과거로서의 역사와 살아있는 현재가 겹쳐지게 된다.

《隋唐演義》는 《隋煬帝艷史》와 《隋史遺文》를 원본으로 하고 그 외 隋唐에 관한 다수의 문헌기록들을 편집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隋唐 관련 역사서사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 완결적인 서사구조를 통해 隋唐시기의 역사를 서사화하였다는 점에서 隋唐 계통 역사연의의 典型이라고 할 수 있다. 《隋唐演義》는 隋 煬帝의 再世因緣 서사와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각종 후일담을 통해 왕조의 연대기적 시간이 논리적 인과에 따른 완정한 플롯으로 대치되고, 모든 사건의 보상과 징벌이 마무리되어 인과응보가 완성된다. 서술자는 서사 안에서 역사에 대한 해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작가는 허구적 사건을 통해 질서와 균형을 갖춘 총체적이고 완정한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隋唐 계통의 역사연의는 원천서사인 기존의 역사서사를 자세하고 쉽게 풀어서 쓰는 데에서 시작하였으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사를 완전히 새로 구성하여 역사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 典型에 이르러서는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역으로 허구적인 사건을 만들어내 자기 완결적인 서사구조를 완성하였다. 여러 가지 실험과 시도를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출

간되었던 역사연의가 일정 시기에 이르러 역사서사와 완전히 구별되는 자신만의 서사구조와 의미발생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계열의 역사연의가 隋唐 계통의 역사연의에서 보이는 이러한 演義化 양상을 단계별로 거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模式을 통해 역사연의가 변화하는 방향과 규칙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초기의 역사연의는 경전적 권위를 가진 텍스트를 풀어서 쓰는 '演義'의 문체적 특징을 이어 받아 정통 역사서사를 읽는 이가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인과관계로 재서사화하였다. 이후 역사에 대한 이해가 점차 서사 안으로 들어오면서 역사연의는 개연성을 따라 사건의 배치를 바꾸고 허구적 사건을 삽입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자신만의 서사구조를 만들어나갔으며 결국 역사서사와 구별되는 역사연의만의 자기 완결적인 서사구조를 탄생시켰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역사에 대한 해석을 넘어서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고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데에까지 나아가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演義化의 과정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서사적 실험들은 이후 장편 백화소설에서 폭넓게 활용된다.

주요어 : 역사서사, 역사연의,《隋唐志傳》,《隋煬帝艷史》,《隋史遺文》,
《隋唐演義》,《資治通鑑》, 통속성, 허구성, 演義化, 원천서사, 다시-쓰기

학 번 : 2004-30016

목차

국문초록 ····· i

Ⅰ.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 대상과 기존 연구 ····· 10
3. 연구 방법 ····· 20

Ⅱ. 역사서사의 전통과 역사연의의 출현 ····· **23**
1. 역사서사 편찬 방식의 변화 ····· 23
1.1. 宋代《資治通鑑》과《資治通鑑綱目》의 편찬 ····· 24
1.2. 明代의 史學과 역사지식의 보급 ····· 28
1.3. 通鑑類 史書의 유행과 역사연의의 발생 ····· 31
2. 역사연의의 흥성 ····· 36
2.1. 역사연의의 개념과 범주 ····· 36
2.2. 16-17세기 역사연의의 출간 개황 ····· 43

Ⅲ.《隋唐志傳》:《資治通鑑》다시-쓰기 ····· **50**
1.《隋唐志傳》의 출간과 성격 ····· 50
1.1. 판본과 체제 ····· 50
1.2. 왕조 흥망성쇠의 기록 ····· 53
2. 원천서사의 수용 양상 ····· 57
2.1. 정통 역사서사 :《資治通鑑》,《資治通鑑綱目》 ····· 57
2.2. 공연서사 : 元 雜劇 ····· 66
3. 서사화 방식의 변화와 특징 ····· 71
3.1. 사건의 계열화와 구성적 인과관계 ····· 71
3.2. 定型化된 서사의 활용 ····· 81

Ⅳ.《隋煬帝艷史》: 인물의 행위로 보여지는 역사 ····· 86
1.《隋煬帝艷史》의 출간과 성격 ····· 86
1.1. 판본과 체제 ····· 86
1.2. 향락에 빠진 황제의 傳記 ····· 87
2. 원천서사의 수용 양상 ····· 95
2.1. 정통 역사서사 :《隋書》,《資治通鑑》 ····· 95
2.2. 비정통 역사서사 : 唐宋 문언필기 ····· 97
3. 서사화 방식의 변화와 특징 ····· 108
3.1. 감상의 대상으로 보여주기 ····· 108
3.2. 사건의 재배치와 白話로의 전환 ····· 116

Ⅴ.《隋史遺文》: 개연성으로 만들어진 역사 ····· 128
1.《隋史遺文》의 출간과 성격 ····· 128
1.1. 판본과 체제 ····· 128
1.2. 왕조 교체기 영웅의 遺史 ····· 129
2. 원천서사의 수용 양상 ····· 136
2.1. 정통 역사서사 :《舊唐書》,《新唐書》 ····· 136
2.2. 공연서사 : 설화구연의 대본 ····· 140
3. 서사화 방식의 변화와 특징 ····· 148
3.1. 허구적 사건의 출현과 확대 ····· 148
3.2. 明末 현실의 직접적 투영 ····· 154

Ⅵ.《隋唐演義》: 자기 완결적 구조의 역사 ····· 161
1.《隋唐演義》의 출간과 성격 ····· 161
1.1. 판본과 체제 ····· 161
1.2. 隋唐 계통 역사서사의 집대성 ····· 163
2. 원천서사의 수용 양상 ····· 169
2.1. 이전의 역사연의 :《隋煬帝艷史》,《隋史遺文》 ····· 169
2.2. 기타 문헌기록 ····· 177

3. 서사화 방식의 변화와 특징 ····· 185
3.1. 역사를 해설하는 서술자의 등장 ····· 185
3.2. 질서와 균형을 갖춘 세계의 창조 ····· 191

Ⅶ. 결론 : 演義化의 원리 ····· 200

참고문헌 ····· 213

Abstract ····· 228

[표 차례]

〈표1〉 隋唐 계통 서사 : 문헌기록 • 12
〈표2〉 隋唐 계통 서사 : 공연예술 • 14
〈표3〉 明代 淸江堂에서 출간된 서적의 목록 • 34
〈표4〉 16-17세기에 출간된 역사연의 목록 • 43
〈표5〉 明末淸初에 출간된 時事小說 목록 • 46
〈표6〉《隋唐志傳》의 回目과《資治通鑑綱目》의 綱 비교 • 63
〈표7〉《隋唐志傳》에 수용된 元 雜劇 목록 • 67
〈표8〉《隋煬帝艷史》의 唐宋 문언필기 수용 양상 • 105
〈표9〉《隋史遺文》과《新唐書·秦叔寶列傳》비교 • 138
〈표10〉《隋唐演義》제1회-제70회와《隋煬帝艷史》,《隋史遺文》비교 • 170
〈표11〉《隋唐演義》에 수용된 원천서사의 목록 • 177

Ⅰ. 서론

1. 연구 목적

이 글은 隋唐 계통 역사연의[1]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16세기 무렵 등장한 역사연의라는 서사양식의 보편적인 구성 원리와 특성을 추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역사연의라는 중국 고유의 서사체를 소설로 분류하고 그 기원을 설화구연의 기록으로 한정하는 그간의 연구로는 역사연의의 전체적인 면모를 조망하고 심층의 구조를 파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三國演義》의 등장을 시작으로 明淸代에는 수많은 역사연의가 출간된다. 현존하는《三國演義》의 가장 이른 간본은 明 嘉靖 元年인 1522년에 출간된《三國志通俗演義》이지만 이를《三國演義》의 최초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嘉靖本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증거 또한 남아있지 않다.[2] 다만《三國演義》가 첫째, 공연과 완전히 분리되어 온전히 책상머리 열독을 위해 쓰인 문

---

1) 역사연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역사연의는 새로운 양식에 대한 작가의 의식적인 자각 아래 창작되었다기보다는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수요의 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의 연구들 또한 역사연의에 대해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이 글은 Ⅱ장에서 역사연의의 발생 배경과 출간 양상을 개괄한 후 역사연의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상술할 것이다. 미리 요약하자면, 이 글에서 역사연의는 章回體를 사용하여 이전의 문헌기록이나 공연예술을 다시-쓴 역사에 관한 서사를 가리킨다. 장회체라 함은 소제목을 가진 일정한 길이의 소단위[回 혹은 節]가 이어져 하나의 장편 서사를 이루는 형식을 가리키며, 역사에 관한 서사라고 함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과거에 관한[historical] 서사라기보다는 왕조 교체, 조정의 대사 혹은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historic] 사건을 다루는 서사를 의미한다.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에 관한 기록을 위주로 한 것에서부터 허구적이거나 초현실적 사건이 들어간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2) 《三國演義》의 작가, 成書 시기와 출간까지의 과정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三國演義》의 작가가 羅貫中(대략 1330-1400)이며 元末明初에 지어진 후 필사본으로 200년 가까이 유전되다가 16세기 초에 들어 출간되었다는 것이다.《三國演義》의 성서 과정과 출간 시기에 대해서는 홍상훈,〈《삼국연의》의 정통성에 관한 고찰〉(《중국문학》, Vol.47, 2006) 참고.

자 텍스트이며 둘째, 출판시장의 문화상품으로서 소비되었다는 두 가지 주요한 사실을 고려할 때, 역사연의로서 《三國演義》의 본격적인 출간은 사회적, 문화적 조건이 충족되었던 16세기 무렵에야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3)]

현재까지도 30여 종이 넘는 明刊本이 남아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三國演義》는 당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4)] 이에 이 시기 많은 書坊들은 《三國演義》에 권점을 찍고 삽화와 비평을 추가하는 등 각기 다른 판본을 경쟁적으로 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三國 이외의 시기에 대한 역사연의 또한 다양하게 출간하기 시작한다. 正史를 모방하여 역사를 조대별로 다시 쓰는 按鑑演義[5)]에서 시작된 역사연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역사적 인물이나 가문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 특정한 사건을 집중해서 다룬 이야기 등 여러 유형으로 다양하게 등장하였으며, 초기에 福建 建陽지역에서 주로 출간되던 것이 점차 南京, 蘇州 등의 강남지

---

3) 명 중엽 이후 급격하게 성장한 출판시장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히 축적되어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오키 야스시 著, 고인덕 譯,《중국 명말의 미디어 혁명 : 서민이 책을 읽다》(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黃鎭偉, 《坊刻本》(江蘇古籍出版社, 2002), Cynthia J. Brokaw, Kai-wing Chow ed., *Printing and book culture in late Imperial China*(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를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명 가정연간(1522-1566)부터 출판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여 만력연간(1573-1620)에 절정에 달했다고 지적한다. 오키 야스시와 같은 경우 이를 '미디어 혁명'이라 지칭하고 그 특징으로 '多[출간 서적의 다양화]', '大[출간 서적의 장편화]', '速[출간 시기의 신속함]'을 꼽는다. 물론 인쇄술이 명 중엽에서야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唐代에 불경 등 종교 관련 문건에 처음 사용된 인쇄술은 宋代에 들어서는 유교경전과 사서의 출간에 사용되었으며 元代로 가면 至治연간(1321-1323)에 출간된 全相平話 5종에서 볼 수 있듯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된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 서적의 주류는 여전히 필사본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매우 한정된 소수의 문인만이 서적을 소장할 수 있었다. 명초 침체를 겪은 출판시장은 명 중기인 가정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서적들이 인쇄를 통해 보다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다.

4) 《三國演義》의 판본에 관해서는 黃晉, 〈《三國演義》版本流傳考證〉(《學術論壇》, 第3期, 2012) 참고. 현재 확인 가능한 明刊本이 30여 종에 달할 뿐 아니라 淸初에 나와 통행된 毛宗崗本은 아직까지도 70여 종이 남아있어 당시 《三國演義》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다.

5) 按鑑演義란 史書, 그 중에서도 특히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풀이하였다는 뜻으로, 주로 초기의 역사연의들이 자신의 표제에 내걸었던 표현이다. 按鑑演義에 대해서는 Ⅱ장에서 상술할 것이다.

역으로 확대된다.[6] 明末 이후로 새로운 역사연의의 출간은 감소하지만[7] 淸末까지도 계속해서 지어졌으며[8] 기존에 출간된 역사연의는 꾸준하게 인기를 끌었다.

역사연의, 그 중에서도 按鑑演義가 명청시기 장회체 백화소설 가운데 가장 먼저 출간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전체 장회체 백화소설에서 역사연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점, 그리고 역사연의 이외 다른 유형의 소설들, 예를 들어《水滸傳》등의 영웅전기,《三寶太監西洋記》등의 신마소설,《天妃濟世出身傳》등의 종교소설, 明末 유행한 時事小說 등이 내용적인 측면 혹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역사연의와 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사연의는 장회체 백화소설의 탄생을 견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서사 관습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역사연의의 발생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주로 통시적 관점에서 진행되거나 이를 암묵적으로 전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의 시각은 역사연의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다. 20세기 초 '소설(novel)'이 근대성을 대변하는 보편적인 장르로 인식된 이래로 중국소설사는 '소설'과 '문학'이라는 개념을 먼저 정립하고 이것의 원류를 추적하여 나열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으며, 이러한 소설사의 흐름 속에서 뒤에 등장한 양식은 앞서 등장한 양식이 변화·발전하거나 혹은 그것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 결과 백화소설은 唐代의 變文, 宋元代의 話本에서 이어지는 단선적 흐름 속에 놓이면서 이전시기 설화구연의 기록 혹은 이에 대한 모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역사연의의 경우 宋元의 講史와 平話가 발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졌다. 이처럼 역사연의를 이전시기 설화구연의 전통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이해는 그것이 명대에 들어 문인계층의 손에 의해 정통 역사서사를 참조로 하여 교정과 수정 과정을 거쳤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누적형 서사, 적층문학 혹은 집체 창작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역사연의의 특징은 자연스레 도시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공연에

---

6) 출간 지역의 다양화는 역사연의만의 특징이 아니라 당시 출판시장의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7) 李忠明,《17世紀中國通俗小說編年史》(安徽大學出版社, 2003) 참고. 17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역사연의의 출간은 감소하고 인정소설이나 재자가인소설의 출간이 늘어난다.

8) 대표적인 예로 1905년부터 신문에 연재된 黃世仲(1872~1913)의《洪秀全演義》를 들 수 있다. 총 54회로 1908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서 온 통속성과 민간전설을 수용하는 데에서 비롯된 허구성으로 갈무리된다.[9]

물론 전통시기의 백화소설이 발생 과정에서 설화구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예술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며 이는 역사연의 또한 마찬가지이다. 평화는 回나 節은 아니지만 상단의 그림에 따라 일정한 분량을 가진 서사가 전개되고 그러한 서사들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하나의 텍스트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연의의 장회체와 유사하며 평화에서 사용된 설화투의 상용표현구 또한 역사연의에서 자주 발견된다. 무엇보다 역사연의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三國演義》의 서사 얼개가《三國志平話》에서 왔다는 사실은 역사연의에 대한 평화의 영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10]

그러나 역사연의에 대한 평화의 영향을 강조하는 관점은 역사연의의 다양한 텍스트 구성 방식과 형식적 특징에 대한 편향적인 이해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먼저 텍스트의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按鑑演義와 같은 초기 역사연의 가운데는 講史나 平話와의 관련성이 미약한 작품들 또한 적지 않다. 이들의 경우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에 대한 설화구연보다는 이에 대한 문헌기록, 즉 史書가 더욱 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11] 또한 野史, 雜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문언필기를 비롯하여 동시대에 유행하였던 각종 공연예술도 실제 역사연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에 대폭 수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講史와 平話는 역사연의의 前身 혹은 雛形이라기보다는 역사연의가 실제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 중에 참조하였던 유력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講史에서 그것의 기록인 平話, 그리고 다시 역사연의로 옮겨온 것으로 여겨지는 설화구연의 형식적 특징 또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 가운데 대

---

9) 대표적인 예로 루쉰 著, 조관희 譯,《中國小說史》(소명, 2004), 314-384쪽, 784-796쪽, 北京大學中文系 編,《中國小說史》(人民大學出版社, 1978), 89-92쪽, 石昌渝,《中國小說源流論》(三聯書店, 1994), 290-319쪽을 들 수 있다.

10) 평화와 역사연의의 관계에 관해서는 김진곤,《宋元 平話 硏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특히 'Ⅵ. 演義의 興盛과 平話의 影響' 참고.

11) 특히 송대에 출간된 편년체 사서인《資治通鑑》과《資治通鑑綱目》은 講史, 平話 그리고 역사연의에 직접적인 소재와 줄거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연속되는 시간과 통합된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면서 장편의 역사서사가 탄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통감류 사서와 역사연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Ⅱ장에서 상술할 것이다.

표적인 서술자의 목소리는 오히려 초기 역사연의일수록 서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설화구연의 형식적 특징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詩詞의 삽입 또한 매우 제한적이며 그 기능 또한 장면을 묘사하거나 알기 쉽도록 설명하여 서사의 진행을 돕기보다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평가하는 史贊에 가깝다. 오히려 나중에 등장하는 文人化된 역사연의에서 서술자의 목소리,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상투구, 詩詞의 삽입과 같은 형식적 특징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설화구연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작가[12]가 글쓰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서사 방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 역사연의의 발생에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은 과거에서 온 전통이 아닌 당대의 여러 사회문화적 조건들이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중시하는 史傳전통이 역사연의 발생의 배경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데에 더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당시 출판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역사연의의 작가층과 독자층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실물로서의 각종 보급판 史書들이었다. 마찬가지로 역사연의의 주요한 소재 출처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唐宋代의 문언필기들 또한 과거의 전통으로서가 아니라 이 시기에 들어 類書나 叢書의 형태로 편집·출간되어 널리 읽힌 실물로서 직접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공연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연의가 텍스트의 구성에 平話뿐만 아니라 당시 실제 공연이 현저하게 줄어든 元 雜劇을 참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 《元曲選》 등과 같은 대본의 정리·간행 작업 덕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동시기에 유행하던 여러 희곡과 다양한 양식의 강창 또한 역사연의 텍스트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역사연의 텍스트의 구성 방식을 살펴볼 때 역사연의는 서사가 긴 시간을 거치면서 점층적으로 누적되어 변화하는 소위 적층문학이라기보다는[13] 당시

---

12) 역사연의 작가의 대부분은 텍스트를 스스로 창작하기보다는 기존의 텍스트들을 모아 다시 쓰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작가가 아닌 편집자에 가깝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편의상 편집자적 성향을 가진 작가까지를 포함하여 모두 작가라고 지칭하였다.

13) 《三國演義》를 설명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적층문학이라는 표현은 실은 구비문학 혹은 구술문화를 가리키는 용어이므로 읽을거리, 그것도 상당한 수준을 가졌던 읽을거리로서의 《三國演義》를 지칭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유행하던 역사 관련 각종 문헌기록, 공연예술과 상호 교섭하며 탄생한 새로운 서사양식으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14] 정리하자면 역사연의는 이전 시기의 平話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발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며, 역사서사가 명 중엽 이후 달라진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접근 가능했던 당시의 다양한 문헌기록과 공연예술을 만나 탄생시킨 새로운 서사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전제 아래 隋唐 계통 역사연의가 텍스트를 구성하는 방식과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역사연의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역사연의라는 새로운 서사양식에서 드러나는 변화의 방향성과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변별된다.

첫째, 《三國演義》에 편중되어 있던 기존의 연구를 보완함으로써 역사연의의 전체적인 면모를 조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문학사와 소설사는 《三國演義》에 대한 설명으로 역사연의에 대한 그것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三國演義》가 역사연의 가운데 가장 완성도가 높고 많이 읽혔던 작품임은 분명하지만 당시 왕성하게 창작, 출간된 역사연의의 일반적 특징을 대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역사연의의 양식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三國演義》 외의 보다 다양한 역사연의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문학적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탓에 이들 역사연의에 대해서는 개별

14) “16세기 전후하여 출판되어 나온 중국 소설은 장단편을 막론하고 그 제재나 양식적 특성에 있어서 唐宋代 공연 문화와의 깊은 연관성 속에서 파악되고 이해되어 왔다. 필자 역시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16세기 이후의 중국 소설이 唐宋代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새롭게 변화된 사회경제적 토대와 문화적 조건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중략) 16세기 이후 소설의 비약적인 발달은 특히 江南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상업적인 출판문화의 보급이 본격화되고 독서물을 향유할 수 있는 비교적 통속적 독서 계층이 형성되면서 가능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16세기를 전후하여 중국 소설은 필사본의 형태로 소수의 애호가들에게 의해 제한적으로 유통되던 형태에서 벗어나, 출판업자들에 의해 대량으로 인쇄되어 독자층에게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최형섭, 〈출판문화의 보급과 텍스트, 저자, 독자, 그리고 독서 관습〉(《중국소설논총》, Vol.29, 2009) 193쪽. “각각의 서사물들은 나름대로 당대 현실과의 연관 속에서 탄생한 것으로, 서로 다른 발전 경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조관희, 〈새로운 중국소설사 기술을 위한 이론적 탐색〉(《중국어문학논집》, Vol.15, 2000), 123쪽.

작품에 대한 연구가 드물며, 시기 별로 작품을 묶어서 대체적인 흐름을 설명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한두 개 소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다행히 최근 십여 년 사이에 개별적인 작품을 연구한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대개 작가와 판본 연구, 소재의 기원과 출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인물 형상에 대한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三國演義》외의 역사연의 작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기존 연구의 취약한 부분을 보충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둘째, 역사연의가 출현하게 된 배경과 텍스트의 구성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에 영향을 준 구체적인 원천 텍스트와 그것의 당시 출간 상황까지 같이 검토할 것이다. 이는 이 시기 역사연의를 포함한 백화소설에 나타난 내적 변화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찾는 근래의 연구가 가진 맹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명대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소설의 발생과 변화를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새로운 서사양식의 형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 요소를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이를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증명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서사양식 사이의 필연적인 상관관계를 증명하지 않은 채 백화소설의 등장 원인과 그 성격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혹은 사상적 변화에 바로 연결시킨다.[15] 그러나 이러한 연구 태도는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 혹은 지나친 단순화를 그대로 텍스트에 대한 이해에 적용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16세기 중엽 이후의 중국 사회를 속칭 '자본주

15) "중국 소설의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설명을 살펴보면, 작가와 텍스트를 둘러싼 문화 환경에 대한 이러한 피상적 인식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다. (중략)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일반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즉 1. 陽明學 대두로 인한 性理學的 禁慾主義의 극복, 2. 商人 계층의 대두, 3. 소설의 사회적 지위 향상, 4. 인쇄술의 발전, 5. 과거제도의 부패와 잉여 지식인의 누적으로 인한 폐단 등으로 인해 소설 작품이 창작되어 유통되는 데에 필요한 사회적, 사상적, 기술적 여건과 작자-독자층이 확보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들 다섯 가지 요소들이 독서를 기반으로 하는 문학 양식으로서 소설의 형성을 위한 직접적이고 필요 충분한 조건인지 여부, 그리고 최소한 이들 다섯 가지 요소들 사이의 상호 관계, 나아가 이들 요소들이 독서 문화의 일부로서 소설의 형성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결여된 상태이다." 홍상훈, 〈전통시기 강남지역에서 독서시장의 형성과 변천 : 소설 작품의 생산과 유통을 중심으로〉(《중국문학》, Vol.41, 2004), 129-130쪽.

의의 맹아'로 표현하여 서구의 근대와 유사한 속성과 지향을 가진 시기로 보는 관점은[16] 텍스트를 통한 검증 없이 역사연의의 통속성을 대중화된 독자층과 민간적 사유의 수용 등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작가가 서문에서 자신의 독자를 '愚夫愚婦'로 호명하였다는 사실[17]만 가지고 당시 역사연의의 독자층을 도시의 대중으로 한정할 수는 없으며, 역사연의가 이전의 역사기록에 없는 내용을 서사화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민간 계층의 사유를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역사연의가 발생한 구체적인 맥락과 작가가 역사연의 편찬에 실제로 활용한 텍스트를 살펴보고 이를 그 결과 만들어진 텍스트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역사연의의 통속성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셋째, 그간 역사연의에 대한 연구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소재의 출처를 찾는 작업을 새로운 각도에서 수행하고 이를 통해 演義化의 다양한 양상을 살필 것이다. 그동안 역사연의에서 소재의 출처에 대한 연구는 해당 서사의 기원을 밝히는 작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예로부터 '演義'가 原本이 되는 텍스트의 내용과 의미를 확장하거나 풀이하는 서술 방식 혹은 그러한 방식을 운용하는 문체를 가리킨다고 할 때 역사연의, 특히 초기의 역사연의에서 원천이 되는 텍스트는 단순한 소재의 출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게다가 역사연의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양식의 서사라고 할 때 중국의 전통에서 역사적 사실이란 결국 역사에 대한 기록, 즉 역사서사와 같은 의미이다. 역사란 결국 문헌이든 공연이든 서사를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으며, 특히나 역사기록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중국의 전통에서 국가의 공인을 받은 정통 역사서사는 그 자체로서 역사적 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역사연의가 역사적 사실을 서사화한다는 것은 기

16) 자본주의의 맹아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로는 로이드 E. 이스트만 著, 이승휘 譯,《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중국 사회경제사 1550~1949》(돌베개, 1999), 189-216쪽 참고.

17) '愚夫愚婦'는 林瀚이《隋唐志傳》의 서문에서 사용한 표현이다.("則數朝事實, 使愚夫愚婦, 一覽可概見耳.") 역사연의의 서문을 쓴 이들이 '通俗'의 의미와 역사연의의 독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方正耀 著, 홍상훈 譯,《중국소설비평사략》(을유문화사, 1994), 166-176쪽 참고. 이 글의 본론과 결론을 통해 밝히겠지만 필자는 역사연의를 소설로 간주하고 '愚夫愚婦'의 수사적 측면을 간과하는 方正耀의 견해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본적으로 이전의 역사서사를 재서사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초기 역사연의가 史書를 참조할 때 대개 사건뿐만 아니라 문장 전체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사실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역사연의가 어떠한 역사서사를 가져와 어떠한 방식으로 재서사화했는지를 분석하는 일은 단순히 서사의 기원을 밝히는 것이 아닌 각 텍스트의 실질적인 구성 방식과 원리를 밝히는 작업이 된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각각의 역사연의 텍스트들 사이의 차이뿐만 아니라 역사연의와 그것이 수용한 이전의 역사서사 사이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역사연의의 양식적 속성을 검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역사서사와 문학서사, 사실과 허구를 이항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을 지양할 것이다. 역사연의를 역사서사와 구분하고 그것의 소설사적 위상을 찾아주려는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역사연의에 포함된 허구적 내용을 그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역사학에 대한 근자의 논의들은 역사서사에도 허구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며 역사서사 또한 역사가의 시적 상상력과 비유적 언어에 의존한 문학적 창조 과정의 산물로 본다.[18] 서구의 역사서사를 근거로 한 이러한 주장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전통시기 중국의 역사서사와 역사연의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참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역사서사에 대한 규범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 司馬遷의 《史記》에서도 수많은 대화와 일화에서 허구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19] 사학이 발달한 송대에 나온 《資治通鑑》 또한 司馬光이 《資治通鑑考異》에서 밝히고 있듯 개연성에 따른 추론, 윤리적인 목적에 따른 사료의 취사선택과 자의적 서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 따라서 '述而不作'의 전통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역사서사는 사실, 역사연의는 허구에 대응시키거

18) 대표적인 예로 헤이든 화이트와 폴 벤느 그리고 폴 리쾨르를 들 수 있다. 헤이든 화이트의 이론에 대해서는 안병직, 〈픽션으로서의 역사 : 헤이든 화이트의 역사론〉(《인문논총》, Vol.51, 2004), 폴 벤느의 이론에 대해서는 폴 벤느 著, 김운비 譯,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믿었는가? : 구성적 상상력에 대한 논고》(이학사, 2002), 폴 리쾨르의 이론에 대해서는 폴 리쾨르 著, 김한식·이경래 譯, 《시간과 이야기 1-3》(문학과지성사, 2004) 참고.

19)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시찬, 〈역사와 소설의 경계에 대한 고찰 ―《荊軻傳》과 《燕丹子》를 중심으로〉(《중국문학연구》, Vol.53, 2013) 참고.

20) 안예선, 〈《資治通鑑考異》를 통해 본 '歷史'의 경계 ―〈唐紀〉를 중심으로〉(《중국어문논총》, Vol.85, 2018) 참고.

나, 역사연의에서 어디까지가 역사서사에서 가져온 부분이고 어디서부터가 작가가 지어낸 허구인가를 판별하여 문학성을 판단하는 일[21]은 때로는 불가능하고 때로는 무의미하다. 비록 그것이 역사에 대한 것일지라도 서사에는 항상 사실과 허구가 혼재하며, 때로 허구는 사실에 대립되는 것으로 의식적으로 삽입되기보다는 역사적 사건을 서사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건을 사실과 허구 대신에 역사서사에 기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하는 한편, 그 둘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역사서사에 없는 내용들이 역사연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것들이 역사서사에서 온 내용과 어떻게 어우러지거나 혹은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지, 그것이 텍스트의 전체적인 서사구조와 의미 그리고 해석과정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살핌으로써 역사연의의 다양한 모습과 그 특징을 파악할 것이다.

2. 연구 대상과 기존 연구

이 글은 연구 대상을 16-17세기에 걸쳐 출간된 隋唐 계통 역사연의로 한정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16세기는 역사연의가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이며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전반은 역사연의가 가장 흥성했던 시기이다. 대략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明代에 유행했던 역사연의를 비롯한 장편 백화소설들의 가장 완성도 높은 판본이 나오면서 이전의 다양한 판본들이 정리되고[22] 17세기가 지나 淸 중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역사연의의 출간뿐만 아니라 이전의 역사연의에 대한 새로운 판본의 출간 또한 현격히 감소한다. 이에 이 글은 역사연의의 출현부터 시작하여

21) 대표적인 예로 劉軍, 〈論歷史演義的虛構性〉(《南京理工大學學報》, 第6期, 2003)을 들 수 있다.

22) 明末 葉晝의 《李卓吾評本西遊記》를 시작으로 金聖歎의 《第五才子書水滸傳》(1641), 毛宗崗의 《三國演義》(1679), 張竹坡의 《第一奇書金瓶梅》(1695) 등의 주요 평점본이 나오면서 四大奇書의 이전 판본들은 대부분 통행하지 않게 된다. 隋唐 계통 역사연의의 경우 각각 다른 작품이기에 판본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없지만 가장 완성도가 높은 褚人獲의 《隋唐演義》(1695)가 완성되면서 《隋唐志傳》, 《隋煬帝艷史》, 《隋史遺文》 등은 거의 출간되지 않는다.

다양한 유형의 역사연의가 출간되는 시기를 지나 역사연의의 서사규범이 어느 정도 고정화되고 역사연의의 典型이라 할 만한 작품이 출간되는 안정기까지의 모습을 살피는 데에 집중하기 위해 연구 대상이 되는 시기를 16-17세기로 한정하였다.

연구 대상 텍스트를 隋唐 계통 역사연의로 한정한 것은 우선 隋唐을 다룬 역사서사들이 그 연원이 오래되었으며 正史, 野史, 文言筆記, 傳奇, 講史, 雜劇, 說唱, 彈詞, 話本小說 그리고 역사연의 등 여러 가지 양식으로 나타나 차이를 비교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隋唐 계통 역사연의들은 다른 계통의 역사연의들과 달리 다양하면서 독립적인 작품들을 가지고 있다. 《三國演義》와 《列國志》의 경우 하나의 母本이 있고 異本들은 母本의 기본 서사를 그대로 둔 채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거나 평점을 붙여 출간된 것들이다. 따라서 판본은 다양하지만 서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隋唐 계통 역사연의들은 각기 독립적인 발생 경로를 통해 출간되었으며[23] 앞서 나온 역사연의를 대폭 수용한 《隋唐演義》의 경우에도 편집과 많은 분량의 보충을 통해 완전히 다른 서사를 만들어내었다. 史書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시간 순으로 쉽게 풀어쓴 《隋唐志傳》과 《唐書志傳》, 傳記의 형식으로 隋 煬帝의 일생을 서사화하면서 그의 방탕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통해 역사를 서술한 《隋煬帝艷史》, 隋唐 교체기에 활약한 영웅호걸들에 대한 공연을 읽을거리로 바꾼 《大唐秦王詞話》, 武將이자 唐의 功臣인 秦叔寶를 주인공으로 하여 그의 의로움과 용맹함을 서사의 전면에 부각시킨 《隋史遺文》, 그리고 앞서 나온 역사연의와 각종 역사서사들을 총 망라하여 전면적으로 편집·수정하고 文人化한 《隋唐演義》까지 隋唐 계통 역사연의들은 내용과 형식, 구성에 있어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隋唐 계통의 역사연의들은 중국 소설사에 있어 기념비적 작품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새로운 양식으로서 실험과 모색을 거듭하였던 역사연의의 실질적이면서도 다양한 모습과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역사연의의 전반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 적합한 분석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隋唐 계통 역사서사의 전체 목록을 문헌과 공연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23) 물론 부분적으로 일화를 차용하는 등의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으나 발생 경로가 서로 다른 까닭에 기본적인 줄거리 구성이 전혀 다르다.

〈표1〉隋唐 계통 역사서사 : 문헌기록[24)]

유형	제목	간행시기	편찬자	비고
사서	《隋書》	唐(636)	魏徵 등	85권
	《舊唐書》	後晉(945)	劉昫 등	200권
	《新唐書》	宋(1060)	歐陽修 등	225권
	《資治通鑑》	宋(1084)	司馬光	294권
	《資治通鑑綱目》	宋(1219)	朱熹	59권
문언 필기 류	《隋唐嘉話》	唐	劉餗	3권
	《酉陽雜俎》	唐	段成式	前集 20권, 續集 10권
	《逸史》	唐	盧肇	일부만 유전
	《明皇雜錄》	唐	鄭處誨	2권, 보유1권
	《常侍言旨》	唐	柳珵	1권
	《開天傳信記》	唐	鄭棨	1권
	《次柳氏舊聞》	唐	李德裕	1권
	〈長恨歌傳〉	唐	陳鴻	1권
	〈梅妃傳〉	唐	미상	1권
	〈隋遺錄〉 (〈大業拾遺記〉)	宋	唐 顔師古(假)	2권
	〈海山記〉	宋	唐 韓偓(假)	2권
	〈開河記〉	宋	唐 韓偓(假)	1권
	〈迷樓記〉	宋	唐 韓偓(假)	1권
	〈太眞外傳〉	宋	樂史	1권
	《開元天寶遺事》	五代	王仁裕	2권

역사연의	《唐書志傳》	1553	熊大木	8권 89절
	《隋唐志傳》	*1619	羅貫中	12권 122회
	〈隋煬帝逸遊召譴〉	1627	馮夢龍	《醒世恒言》 제24권
	《隋煬帝艷史》	1631	齊東野人	8권 40회
	《隋史遺文》	1633	袁于令	12권 60회
	《大唐秦王詞話》	만력	諸聖鄰	8권 64회
	《隋唐演義》	1695	褚人獲	100회
	《說唐全傳》	*1783	鴛湖漁叟	10권 68회
	《混唐後傳》	淸	鍾惺(假)	37회
	《說唐三傳》	淸	中都遺叟	88회
	《粉妝樓全傳》	1832	竹溪山人	80회

24) 隋唐시기에 관한 문헌기록은 史部, 子部에 두루 속해있으며 그 수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이 표는 隋唐 계통 역사연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것 위주로 필자가 확인 가능한 한에서 정리한 것이다. 정확한 편찬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 年號나 朝代로 표기를 대신하였다. *표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의 출간시기로, 이보다 전에 初刊되었으리라 여겨지나 실물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였다.

〈표2〉隋唐 계통 서사 : 공연예술[25)]

유형	제목	시기	작가	비고
變文	〈韓擒虎話本〉	唐		
	〈唐太宗入冥記〉	唐		
平話	〈薛仁貴征遼事略〉	宋元		《永樂大全》수록
諸宮調	〈天寶遺事諸宮調〉	元	王伯成	
雜劇	〈薛仁貴衣錦還鄕〉	元	張國寶	《元刊本》수록
	〈程咬金斧劈老君堂〉	元		《脈望館鈔校本》수록
	〈魏徵改詔風雲會〉	元		《脈望館鈔校本》수록
	〈徐茂公智降秦叔寶〉	元		《脈望館鈔校本》수록
	〈長安城四馬投唐〉	元		《脈望館鈔校本》수록
	〈尉遲恭鞭打單雄信〉	元		《脈望館鈔校本》수록
	〈唐李靖陰山破虜〉	元		《脈望館鈔校本》수록
	〈賢達婦龍門隱秀〉	元		《脈望館鈔校本》수록
	〈功臣宴敬德不伏老〉	元	楊梓	《脈望館鈔校本》수록
	〈摩利支飛刀對箭〉	元		《脈望館鈔校本》수록
	〈尉遲恭單鞭奪槊〉	元	尙仲賢	《元曲選》수록
	〈小尉遲將鬥將認父歸朝〉	元		《元曲選》수록
	〈唐明皇秋夜梧桐雨〉	元	白樸	《古名家雜劇》, 《元曲選》등 수록
詞話	〈歷代史略十段錦詞話 : 隋唐(第七段)〉	明	楊愼	
	〈薛仁貴跨海征遼故事〉	明		《明成化刊本說唱詞話》 수록
	《大唐秦王詞話》	明	諸聖鄰	8권 64회

傳奇	《驚鴻記》	明	吳世美	
	《麒麟閣》	清	李玉	2本61齣
	《長生殿》	清	洪昇	2卷50齣

이 글에서는 이 가운데 《隋唐志傳》, 《隋煬帝艷史》, 《隋史遺文》, 《隋唐演義》 네 편의 역사연의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 나머지 隋唐 계통 역사서사를 비교, 참조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三國演義》라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인해 역사연의를 다루지 않는 중국문학사와 소설사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정작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역사연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隋唐 계통 역사연의에 대한 분석은 역사연의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것이 소설사에서 갖는 위상을 파악하는 유의미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 글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기존 연구는 크게 역사연의라는 서사양식 전반에 대해 논의한 것과 隋唐 계통 역사연의를 분석한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자에 대해 살펴보면, 역사연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후 명청시기 백화소설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魯迅의 《中國小說史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루쉰은 이 책의 제14편과 제15편에서 '元明傳來之講史'라는 소제목 아래 역사연의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는 역사연의를 宋元의 講史, 平話가 발전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26] 《三國演義》는

25)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공연전통은 결국 그 대본이 문헌으로 정리되어 전하는 것에 한정되며 明 傳奇와 같은 희곡의 경우 실제 공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 표에서는 공연의 대본을 기록하였거나 혹은 공연을 전제로 창작된 것들을 모두 포함하였고, 공연기록이나 목록만 전하고 대본이 전하지 않는 것은 제외하였다. 《大唐秦王詞話》의 경우 역사연의와 공연예술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표1〉과 〈표2〉에 모두 포함하였다. 또 評話, 評書, 鼓詞, 京劇 등의 청대의 공연기록은 그 수가 너무 많고 이 글의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생략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徐燕, 《隋唐故事考論》(揚州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58-115쪽, 161-197쪽을 참고할 수 있다.

26)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송대 사람들의 '說話'의 영향은 매우 커서, 후대 소설의 90퍼센트는 話本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테면, 첫째, 후대의 소설에서 《今古奇觀》과 같은 단편

《全相三國志平話》와, 《水滸傳》은 《大宋宣和遺事》와 묶어서 서술하였다. 또 그는 '역사연의' 대신 '講史'라는 표현을 썼으며 뒤이어 나오는 神魔小說, 人情小說과 달리 '講史'의 뒤에 '小說'을 덧붙이지 않았다. 이는 그가 《三國演義》 외의 역사연의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27] 루쉰 이후의 소설사들은 점차 역사연의가 전대의 講史와 平話뿐만 아니라 史書를 참조하였다는 사실을 보충하여 설명하였지만 여전히 講史와 平話가 역사연의의 前身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石昌渝는 《中國小說源流論》에서 《三國演義》, 《封神演義》 그리고 隋唐 계통 역사연의를 '눈덩이 굴리기[滾雪球]' 방식의 누적형 서사로 정의하였다.[28]

역사연의의 기원을 강사와 평화에 두는 시각은 齊裕焜의 《中國歷史小說通史》(江蘇敎育出版社, 2000), 紀德君의 《明淸歷史演義小說藝術論》(北京師大出版社, 2000)와 《中國歷史小說的藝術流變》(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2)처럼 서사양식으로서의 역사연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이후의 전문적인 연구서와 각종 논문들에서도 유지된다. 다만 紀德君의 경우 史傳전통, 특히 《資治通鑑》과 《資治通鑑綱目》이 按鑑演義의 소재, 체제, 서사 방식에 준 영향에 대해 계속 천착하면서 점차 기존에 자신이 가졌던 관점을 탈피하고 있다.[29] 한편 이들은 역사연의를 문학으로 분류하며 역사서사와의 차이를 강조한다. 齊裕焜의 경우 역사연의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연구의 편의를 위해

의 서술은 송대의 '小說'을 모방한 것이다. 둘째, 후대의 장회소설에서 《三國志演義》 등과 같은 장편의 서술은 모두 '講史'에 근거한 것이다. 그 가운데 講史의 영향은 더욱 커서 명청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二十四史'가 모두 연의로 만들어졌다." 루쉰 著, 조관희 譯, 《中國小說史》(소명, 2004), 789쪽.

27) "그러나 대개 《三國演義》를 본받기는 하였으나 그에 미치지는 못하였다. 비록 그 가운데 나은 작품이 있다 하더라도, 역사 사실에 얽매여 상투적인 말들을 답습하였다. 그런 까닭에 문장 표현이 형편없었으며, 서술에 있어서도 대담한 것이 결여되었다." 루쉰, 위의 책, 371쪽.

28) 石昌渝, 《中國小說源流論》(三聯書店, 1994), 290-319쪽.

29) 紀德君, 〈"通鑑"類史書 : 中國講史小說之前源〉(《社會科學》, 第8期, 2003), 紀德君, 〈明代"通鑑"類史書之普及與通俗歷史敎育之風行〉(《中國文化硏究》, 春之卷, 2004), 紀德君, 〈明淸歷史演義小說的編創方式及其演變〉(《社會科學》, 第7期, 2008) 참고. 이상 세 편의 논문은 이 글에 많은 계발을 주었다.

역사연의의 범주를 정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하였으나, 역사서사는 과학에 속하며 역사연의는 문학에 속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30] 紀德君 또한 역사연의에 대해 “천근한 언어로 역사인물과 역사사건을 부연하여 그 안에 함축된 이치를 보여주는 소설이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는 것을 핵심적인 문체 규범으로 삼고 동시에 예술적으로 사실과 상상을 융합하여, 역사인물과 사건에 대한 묘사와 서술에 있어서 일정한 새로움과 변화가 있다.”라고 정의하고[31] 역사연의의 서사와 인물형상에서 예술적 특징을 찾는 데 집중한다. 역사연의를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다른 학술논문에서도 대동소이하다. 즉 사실을 위주로 허구를 결합하였으며, 史書를 보충하고 민중을 교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동시에 문학적 성취를 이룬 소설이라는 것이다.[32]

이러한 연구들이 가진 큰 한계는 역사연의가 이전의 역사서사와 달리지는 지점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편찬자와 평점자의 직접적인 언급들과 텍스트의 표면에 드러나는 특징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역사연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구성하고 서사구조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지 않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허구적 내용과 이를 표현하는 기교를 근거로 역사연의의 문학성을 판단한다. 그러나 허구적 내용과 표현 기교는 역사서사와 역사연의를 구분하는 근본적인 표지가 될 수 없으며 역사연의를 반드시 소설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演義’라는 서술 방식과 문체가 가지는 특징을 통해 역사연의를 분석한 楊緒容의 〈事·文·義 : 從歷史到演義〉(《貴陽學院學報》, 第1期, 2013)와 역사연의가 당시에는 역사에 대한 서사로 읽혔음을 논증한 溫慶新의 〈明

30) 齊裕焜, 《中國歷史小說通史》(江蘇教育出版社, 2000), 18-23쪽.

31) 紀德君, 《明清歷史演義小說藝術論》(北京師大出版社 , 2000), 7쪽.

32) 역사연의 전반에 대해 다룬 논문들은 그 수가 많지 않은데,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楊滿仁, 〈從歷史的敘事到文學的敘事 －兼論歷史小說的創作規律〉, 《淮陰師範學院學報》, 第29卷, 2007.

劉曉軍, 〈在小說與史傳之間 －論明代歷史演義的敘事模式〉, 《文藝理論研究》, 第3期, 2008.

龐金殿, 〈明清歷史演義小說的創作特點〉, 《長春大學學報》, 第1期, 2008.

李秋晨, 〈明清歷史演義小說的歷史衍變〉, 《內江師範學院學報》, 第7期, 2010.

蘇丹霞, 〈建陽書坊歷史演義小說刊刻盛衰研究〉, 《黑河學刊》, 第6期, 2018.

人對歷史演義小說的文體定位及啟示〉(《內江師範學院學報》, 第3期, 2019)는 이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隋唐 계통 역사연의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역사연의뿐만 아니라 이전시기 다양한 양식의 隋唐 관련 서사들을 모아 그 계보와 영향 관계를 정리한 연구들이다. 주요한 것으로는 齊裕焜의《隋唐演義系列小說》(遼寧教育出版社, 2000)과 徐燕의《隋唐故事考論》(揚州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이 있다. 齊裕焜의《隋唐演義系列小說》은 隋唐 계통 역사연의를 소개하는 개론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隋唐 계통 역사연의를 ① 역사연의 소설 단계 :《隋唐志傳》,《唐書志傳》,《大唐秦王詞話》② 영웅전기 소설 단계 :《隋史遺文》③ 집대성 단계 :《隋唐演義》,《說唐全傳》④ 속서 단계 :《說唐後傳》,《說唐三傳》의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 책은 隋唐 계통 역사연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바로 앞에서 언급한 역사연의 연구의 한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徐燕의《隋唐故事考論》은 唐代부터 淸代까지의 문헌과 공연을 아울러 모든 장르의 隋唐 계통 서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논문이다. 다만 隋唐 계통 역사연의를 분석함에 있어 앞서 정리한 서지학적 내용들을 이용하지 않은 채 인물형상과 주제가 세속화되는 것에 주목하고, 별다른 분석 없이 그 원인을 '市民階層'과 '下層階層'으로 단정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다른 하나는 隋唐 계통 역사연의의 개별적인 작품을 연구한 논문들로, 최근 십여 년 사이에 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작가, 판본, 소재의 출처, 이후 작품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된 자료를 총망라하여 후속 연구에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고증하는 데 편중되어 있으며 역사연의를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33]

특기할 만한 것은 중국에서《隋唐演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인 1973년에 Robert Hegel 이 쓴 박사학위논문 *SUI T'ANG YEN-I: The Sources and Narrative Techniques of a Traditional Chinese Novel*(Columbia

33) 개별 작품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에 대해서는 편의상 각 장의 제1절에서 간략하게 정리할 것이다. 한편 雷勇, 〈近三十年《隋唐演義》研究的回顧與展望〉(《陝西理工大學學報》, 第4期, 2017)에는 그간 연구의 성과와 한계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University Ph.D. diss. 1973)이다. Robert Hegel은 이 논문에서 《隋唐演義》가 이전의 여러 역사서사와 역사연의를 편집하여 텍스트를 구성하였음을 인지하고 이를 일일이 찾아 확인하였다. 그가 당시 찾아낸 출전들은 이후로 많은 연구가 보완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가치가 있지는 않으나 작가 褚人獲의 글쓰기 방식 자체에 주목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는 그 후 발표한 소논문 "SUI T'ANG YEN-I and the Aesthetics of the Seventeenth-Century Suchou"[34]에서 이처럼 옛것을 고쳐 쓰는 글쓰기 방식을 17세기 蘇州 문인들 전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확장시켜 논의하였다. 다만 그의 박사학위논문과 소논문 모두 《隋唐演義》의 출전에 대한 분석과 그것의 주제와 인물형상 분석을 독립적으로 전개시켜 둘 사이의 관련성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역사연의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개별 작품으로서의 《三國演義》에 대한 연구와 역사연의의 조선 수용에 대한 연구의 두 부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역사연의 전반에 대한 논의와 隋唐 계통 역사연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다만 김진곤의 박사학위 논문인 《宋元 平話 硏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는 平話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이기는 하지만 역사연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여 평화를 분석하였기에 이 글에 많은 시사를 주었다. 그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平話와 역사연의가 기록과 구연의 중첩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공연전통에서 직접적으로 발전하여 나온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지적하였다. 김진곤은 또 〈역사 인식의 변환과 역사소설의 창작〉(《중국소설논총》, Vol.28, 2008)에서 《三國演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역사연의의 양식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隋唐 계통 역사연의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서성의 〈《수양제염사》에 나타난 삽시(揷詩)의 표현 효과〉(《인문과학연구논총》, Vol.39, 2018)와 홍상훈의 〈《紅樓夢》과 명·청 章回小說의 전통 : 최근 중국의 연구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겸하여〉(《중국문학》, Vol.78, 2014) 두 편이 있다. 그러나 전자는 《隋煬帝艷史》 삽화의 뒷면에 실린 시를 분석한 것이고, 후자는 《紅樓夢》을 분석하면서 부분적으로 《隋唐演義》와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둘 다 隋唐 계통 역사연의 자체에 대해서는 분석

34) Andrew H. Plaks ed., *Chinese narrative : critical and theoretical essays*(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c1977), pp.124-159 수록.

하고 있지 않다.

3. 연구 방법

이 글에서는 역사연의가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이전의 다양한 문헌기록과 공연예술을 수용하여 이를 다시-쓰는 방식으로 서사를 구성하였음을 인지하고 이들 원천이 되는 텍스트를 '원천서사'라는 용어로 개념화하였다. 즉 역사연의는 접근 가능한 다양한 원천서사들을 장회체 형식과 백화 혹은 쉬운 문언이나 半文半白으로 다시-쓰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중국의 서사전통에서 원천서사의 수용과 다시-쓰기는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며 그 양상도 무척 다양하다. 예를 들어 唐의 傳奇를 공연대본으로 바꾼 雜劇이나 명청대 희곡인 傳奇의 경우 원천서사에서 인물만을 취하기도 하고 사건만을 취하기도 하는 등 부분적인 수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물의 출신 지역, 시대, 가문은 물론이고 사건의 결말을 바꾸기도 한다. 이때의 다시-쓰기는 소재 제공의 측면이 강하며 원천서사의 존재는 선택적이다.

그러나 역사연의와 원천서사 사이의 관계는 이와는 다르다. 역사적 사실을 다룬다는 근본적인 성격과 '演義'라는 서술 방식 혹은 문체의 특성으로 인해 역사연의는 기본적으로 원천서사의 존재를 전제하며 이에 대한 재서사화를 통해 텍스트를 구성한다. 이 글의 본론에서는 원천서사가 역사연의로 재서사화되는 演義化의 다양한 양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밝힐 것이다. 다만 매끄러운 서술을 위해 '재서사화'와 '다시-쓰기'라는 표현은 원천서사를 특별히 강조할 경우에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서사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임을 밝혀둔다.

한편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론에서는 역사연의가 수용하는 원천서사를 정통 역사서사, 비정통 역사서사 그리고 공연서사로 유형화할 것이다. 정통 역사서사는 국가가 공인한 史書를 가리킨다. 隋唐 계통 역사연의에서 원천서사로 수용된 정통 역사서사로는 기전체 사서인 《隋書》, 《舊唐書》, 《新唐書》와 편년체 사서인 《資治通鑑》, 《資治通鑑綱目》이 있다. 비정통 역사서사는 野史, 雜錄, 筆記, 傳奇 등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해 다룬 나머지 문헌기록 모두를 포괄한다. 이를 비

정통이라고 지칭한 것은 당시의 기준에서 국가의 공인과 이에 부응하는 권위를 얻지 못한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공연서사는 강창이나 희곡 등 역사에 관한 공연예술의 대본을 가리킨다. 이를 따로 분류한 것은 그것이 설사 문헌으로 전할지라도 공연을 전제로 한 서사이기 때문에 문헌기록 전통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상의 개념과 용어를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먼저 宋代에 편찬된《資治通鑑》과《資治通鑑綱目》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할 것이다. 이는 이 두 편의 사서가 역사서사의 전통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후 역사연의의 발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明代 史學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핀 후 이 시기 유행한 通鑑類 史書와 초기 역사연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봄으로써 역사연의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배경을 살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 위에서 역사연의의 개념과 범주를 재정립한 후 이 시기 역사연의의 출간 상황과 그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필 것이다.

Ⅲ장에서 Ⅵ장까지는 개별 작품을 분석한 부분으로, 隋唐 계통 역사연의 가운데《隋唐志傳》,《隋煬帝艷史》,《隋史遺文》,《隋唐演義》를 순서대로 다룰 것이다. 각 장의 첫 번째 절에서는 각 작품의 판본과 체제, 내용 등의 기초적인 사항들에 대해 정리하고 이에 대한 초보적인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각 장의 두 번째 절에서는 각 작품의 원천서사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즉 각각의 역사연의가 어떠한 문헌기록 혹은 공연예술을 원천서사로 삼았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원천서사 가운데 어느 부분이 역사연의의 어느 부분에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었는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다. 작품에 따라서는 정통 역사서사를 원천서사로 삼고 공연서사를 부분적으로 섞어서 수용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정통 역사서사는 서사를 지탱하는 형식적인 틀로만 이용하고 공연서사를 주요 원천서사로 쓰기도 하였다. 또 작품에 따라서는 소수의 원천서사만을 가지고 이를 역사연의로 다시 쓰기도 하였으며, 혹은 다수의 문헌기록을 망라하여 이를 원천서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각 장의 세 번째 절은 각 작품이 원천서사를 재서사화하여 텍스트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분석하고 그 결과 각 작품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다룰 것이다. 역사연의의 작가는 원천서사를 수용하여 텍스트를 구성하면서 때로는 원천서사의 사건을 원래 문장 그대로 옮겨오거나 혹은 문언을 백화로 바꾸기만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사건이 놓이는 서사의 맥락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건의 의미가 이전과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역사연의의 작가는 서사의 목적에 맞춰 원천서사에 있는 사건의 배치를 바꾸거나 내용을 수정·보충하여 서사화하였으며, 점차 서사의 개연성에 따라 허구적 사건을 만들어 넣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원천서사를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각 작품은 자신의 원천서사는 물론이고 이전의 각종 역사서사와는 구별되는 모습과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Ⅶ장은 이 글의 결론으로, 본론에서 분석한 각 작품별 특징을 종합하여 역사연의라는 서사양식 전반의 특징을 밝히는 것으로 논의를 확장시킬 것이다. 즉 다양한 텍스트 구성 방식과 서사화 방식을 통해 드러나게 된 역사연의의 여러 가지 양상들을 관통하는 演義化의 원리를 추론하고, 이를 통해 역사연의가 전통시기 중국 소설사에게 가지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Ⅱ. 역사서사의 전통과 역사연의의 출현

1. 역사서사 편찬 방식의 변화

매우 이른 시기에 등장한 '史'라는 관직과《史記》등과 같은 많은 史書에서 알 수 있듯 중국의 역사서사는 그 기원이 오래되었다. 뿐만 아니라 正史 외에도 六經의 하나로 유교경전에 속하기도 하는《春秋》, 교훈을 주기 위해 편찬된 역사고사집인 劉向의《新序》, 史官의 자세로 기이한 일들을 적은 志怪集인 干寶의《搜神記》에서 보이듯 역사서사는 매우 다양한 양식으로 편찬되었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直書하며 그것으로서 가치판단을 나타낸다'[35]는 역사서사의 규범은 正史 외에도 野史, 筆記, 雜錄 등의 다양한 글쓰기에 두루 적용되었다. 사실에 의거한 서술과 유가적 도덕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합하여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대와 장르, 작가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明 중엽 이후로 '虛'와 '幻'을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문장론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역사서사를 포함한 모든 글쓰기는 큰 틀에서 '사실의 기록'이라는 역사서사의 규범 안에서 쓰이고 읽혔다.

사실의 기록이라는 역사서사의 규범이 이론과 실천을 통해 더욱 체계화된 것은 唐代에 들어서였다. 劉知幾의《史通》은 이러한 경향의 이론적 측면을 대표한다. 그는 역사란 문체의 수사에 신경쓰지 말고 사료에 입각하여 사실 그대로를 명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천의 측면에는 官撰史書의 전통의 수립을 들 수 있다. 唐代부터 왕조는 이전 왕조의 正史를 편찬하는 일을 국가의 과업으로 삼았으며 역사편찬의 주체를 개인이 아닌 집단, 즉 조정이 임명한 史官들로 한정하였다. 이에 개인은 조정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역사를 편찬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역사편찬 과정에 있어서도 편찬자 개인의 문필에 기대지 않고 대부분 해당 왕조가 남긴 공식적인 관변기록에 의존하였다. 그 결과 역사서사는 객관성을 담보하게 되었으며 史官의 개성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

35) 민두기 編,《중국의 역사인식 上》(창작과 비평사, 1993), 9쪽.

었다.[36] 그리고 이처럼 체계화된 역사서사의 규범은 역으로 정통 역사서사와 비정통 역사서사 사이의 경계를 분명하게 만들었다.[37]

宋代에는 紀傳體 斷代史 형식의 正史 외에 編年體 史書인《資治通鑑》과 이를 변형하여 綱目體로 만든《資治通鑑綱目》이 편찬되었다. 이 두 史書는 기존의 正史와 체제, 출간 배경, 출간 주체가 다르다는 그 자체로도 주목할 만하지만, 널리 보급되면서 이후 다른 양식의 역사서사에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資治通鑑》과《資治通鑑綱目》의 특징을 살펴본 후 明代의 史學과 史書 편찬 양상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이는 이 시기에 일어난 역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역사서사의 편찬과 수용 방식의 변화가 16세기 무렵에 출간되기 시작한 역사연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1.1. 宋代《資治通鑑》과《資治通鑑綱目》의 편찬

司馬光(1019-1086)이 황명으로 편찬에 착수하여 元豐 7年(1084)에 완성한《資治通鑑》은 총 294권의 대작으로,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周 威烈王 23년(B.C. 403)년부터 宋 건국 직전인 後周 顯德 6년(959)까지를 다룬 編年體 通史라는 사실이다. 왕조를 기준으로 서술하는 斷代史와 달리 1300년

36) 楊聯陞,〈正史纂修의 構造〉, 민두기 編, 위의 책, 173-192쪽.

37) 홍상훈,《전통 시기 중국의 서사론》(소명, 2004), 131-153쪽. 한편 홍상훈은 唐代에 나타난 이와 같은 역사서사의 규범이 경계 밖으로 밀어낸 서사체들, 특히 唐 傳奇의 가능성에 주목하였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이후의 백화소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같은 책, 162-178쪽. 마찬가지로 역사연의에 있어서도 唐 傳奇는 역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 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예증으로서〈虯髯客傳〉과《隋唐演義》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Ⅵ장에서 상술할 것이다. 한편 錢穆은 劉知幾의《史通》에 대해 역사서사의 원칙을 논했을 뿐 역사적 사실의 배후에 있는 정황과 그 의향인 史意를 밝히는 일에 유의하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錢穆 著, 이윤화 譯,《사학명저강의》, 273-274쪽. 이는 전통시기 중국 사학 전반에 걸친 비판으로 봐도 무방하다. 역사서사가 어떤 규범에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했지만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서사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의 사학이 발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본질보다는 실용적인 방법론을 중시하는 중국의 사유 성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넘는 시간을 하나의 역사로 서술했다는 사실은《資治通鑑》이 역사를 왕조의 흥망에 따라 단절되는 것이 아닌 연속하는 전체로 파악했다는 것을 알려준다.[38] 게다가 시간 표지를 따라 사건을 발생 순서대로 서술하는 편년체는 각각의 사건과 인물을 나누어 서술하는 기전체와 달리 시간을 축으로 하여 이들을 통합하여 서술함으로써 역사의 공시성을 드러내 보인다. 즉《資治通鑑》은 시간을 연속시키고 공간을 통합함으로써 통시적이면서 공시적인 역사의 총체성을 구현하는 서사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사실 중심의 서술과 유가적 도덕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 포폄을 강조하는《春秋》보다는 사실을 중시하는《左傳》을 계승하였다는 사실이다. 司馬光은《資治通鑑》을 편찬하는 과정 중 전례가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사실을 추구하였다. 그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상세한 원고인《資治通鑑長篇》을 만든 후에 이를 편집, 수정, 압축하여《資治通鑑》을 편찬하였을 뿐 아니라,《資治通鑑考異》30권을 남겨 사료를 고증하여 취사선택한 과정을 밝혔다.[39] 물론 이러한 서술 태도가《資治通鑑》이 유교적 윤리관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애초에 사마광은 황제에게 권계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資治通鑑》을 편찬하였다. 다만 그는 도덕적 교훈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그것이 역대 君臣事蹟을 소상히 밝혀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레 드러나도록 하였다.

朱熹(1130-1200)의《資治通鑑綱目》은 총 59권으로 주희가 죽은 후인 1219년 간행되었다.[40] '凡例'에서 밝히고 있듯 주희는 사마광이 정통론을 따르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春秋》의 필법을 계승하여《資治通鑑》을 다시 썼다. 대폭 짧아진 편폭에 주희의 명성까지 더해져《資治通鑑綱目》은《資治通鑑》보다 더 널리 읽혔다. 명대 역사연의의 발생과 관련해서《資治通鑑綱目》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이른바 '綱目體' 서술이다. 사마광의 경우《資治通鑑目錄》30권을 따로 만들어 연

38) 田中謙二,〈資治通鑑의 理解〉와 三浦國雄,〈資治通鑑의 性格〉, 민두기 編, 위의 책, 311-365쪽 참고.

39) 안예선,〈《資治通鑑考異》를 통해 본 '歷史'의 경계 ―〈唐紀〉를 중심으로〉(《중국어문논총》, Vol.85, 2018) 참고.

40) 朱熹는 43세에《資治通鑑綱目》의 서문을 썼으나 실제로 朱熹의 원고를 토대로 책을 완성한 것은 제자인 趙師淵이었다. 錢穆 著, 이윤화 譯,《사학명저강의》(신서원, 2006), 408-411쪽.

표의 형식으로 주요 사건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그 내용이 《資治通鑑》의 몇 권에 있는지를 기록하였다. 이로써 《資治通鑑》의 提要 역할을 하게 하는 동시에 읽는 이가 색인처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비해 주희의 《資治通鑑綱目》은 《資治通鑑》과 《資治通鑑目錄》을 한 데에 모으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綱은 큰 글자로 개요를 간략하게 적은 것이고 目은 작은 글자로 이를 자세하게 서술한 것이다.[41] 주희는 본문에 해당하는 目에서 자신의 史論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綱에 쓰인 연호, 용어 등으로 해당 사실에 대한 명분을 강조하고 포폄을 드러내었다. 또 서술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 부분에는 書法 항목을 따로 두어 이를 보충하여 설명하였다.

이처럼 송대에 등장한 《資治通鑑》과 《資治通鑑綱目》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후의 역사서사 전통에 영향을 끼쳤다. 첫째, 문인들 사이에서의 역사지식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史記》, 《漢書》 등을 제외한 후기의 관찬사서들, 즉 《隋書》, 新舊 《唐書》, 《五代史》 등은 통상적인 읽을거리가 아니었다. 문인들조차 평소에는 이를 읽을 기회가 좀처럼 없었으며 역사 편찬과 관련된 관직을 제수받은 후에나 황실의 서고에서 열람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마광의 《資治通鑑》이나 주희의 《資治通鑑綱目》을 읽음으로써 역사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42] 또한 송대를 기점으로 급변하기 시작한 출판환경[43]과 성리학의 약진으로 인한 교육열기 또한 《資治通鑑》, 《資治通鑑綱目》의 보급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지식 보급은 이후로 이 두 사서에 대한 보충과 교정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통감류 사서의 출간으로 이어진다.

둘째, 《資治通鑑》과 《資治通鑑綱目》은 다른 형식과 장르의 역사서사가 출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宋代 說話四家 가운데 하나로 역사를 전문적으로 구연하였던 講史는 《夢粱錄》의 "講史書라는 것은 《資治通鑑》과 漢唐의

---

41) Ⅲ장 1절에서 상술하겠지만 《資治通鑑綱目》의 강목체는 역사연의 소설의 장회체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즉 '綱-目'의 구조는 장회체의 '回目-본문'에 대응한다.

42) 민두기 編, 앞의 책, 179-180쪽과 346-347쪽 참고.

43) 인쇄술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唐代이지만 처음에서 佛經, 다음에는 유교 경전을 출간하는 데에 이용되었고 史書가 출간되기 시작한 것은 宋代에 들어서였다. 宋元 시기 史書의 출간에 대해서는 劉節 著, 신태갑 譯, 《중국사학사 강의》(신서원, 2000), 393-412쪽 참고. 그러나 명 중엽 이전까지 사서의 주류는 여전히 필사본이었다.

역대 사서에 있는 나라가 흥성하고 망하며 다투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킨다(講史書者, 謂講說通鑑漢唐歷代書史文傳, 興廢爭戰之事.)"[44]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資治通鑑》을 비롯한 각종 사서를 기반으로 하였다.[45] 원대에 들어서 資治通鑑學이 더욱 유행하면서 이에 대한 구연도 증가하였다.[46] 아쉽게도 이상에서 언급한 설화구연은 그 대본이 남아있지 않아《資治通鑑》과《資治通鑑綱目》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원대에 출간된 平話는 판각본이 남아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平話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는 편년체의 서술 방식을 따랐을 뿐 아니라 서술된 사건의 순서와 내용도 의도적으로 변형한 소수의 사건을 제외하고는《資治通鑑》과 일치한다. 특히《新編五代史平話》와 같은 경우 70% 이상의 내용이《資治通鑑》을 직접적으로 푼 것이다.[47] 물론 講史와 平話에는 사서에 없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서사의 전체적인 틀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資治通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이를 모방하였다고 할 수 있다.[48] 이처럼《資治通鑑》과《資治通鑑綱目》은 설화구연을 통해 소수의 한정된 문인계층 밖으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

44) 吳自牧,《夢粱錄》, 卷二十 '小說講經史'

45) 김진곤은 說話四家 중의 '小說'과 달리 講史에 시민계층의 입장이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까닭은 講史가 史書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소설과 달리 강사는 많은 부분을 역사서에 빚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서 서술을 담당하였던 자들의 사상과 역사 이해의 방식은 자연스럽게 강사 속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민간이야기와 민간의 정서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탈색되었을 가능성 역시 농후하나 탈색되고 남은 자취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진곤,《宋元 平話 研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5-6쪽.

46) 김문경,《삼국지의 영광》(사계절, 2002), 126쪽.

47) 紀德君, 〈"通鑑"類史書 : 中國講史小說之前源〉(《社會科學》, 第8期, 2003), 112-114쪽.

48) 宋代 講史에 '문서적 요소'들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講史 설화인은 상당한 신분과 학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사대부 문화와 긴밀한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김진곤,《宋元 平話 研究》, 88-99쪽 참고. "또한 說話가 민간기예와 발생상 긴밀한 친연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이유와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는 說話가 대개 통속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것이 전적으로 신흥의 도시 중인계급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으며 통속적이며 따라서 중국 백화 소설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같은 책, 97-98쪽.

《資治通鑑》과《資治通鑑綱目》이 문인 계층과 非문인 계층에 끼친 영향은 같지 않지만 공통적인 부분도 있다. 바로 이전의 역사서사가 주로 과거의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 혹은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였다면, 이제는 하나의 호흡으로 길게 이어서 역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훗날 역사연의의 출현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1.2. 明代의 史學과 역사지식의 보급

뛰어난 史書나 수준 높은 史論이 나타나지 않은 까닭에 그간 明代의 史學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명대 사학이 이룬 횡적 발전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다. 곧 명대에 들어 넓고 다양해진 문인 계층, 인쇄기술의 발달과 출판시장의 확대, 양명학의 전파에 따른 대중화의 기조 등으로 인해 매우 다양한 史書가 출간되고 이로 인해 역사지식이 널리 보급되었다는 사실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출판환경과 학문적 풍조의 변화로 인해 宋과 元을 거치면서 문인들은 이전보다 사서를 더 많이 접하게 되었으며 학술을 목적으로 역사에 관한 저술을 남기는 일도 많아졌다. 특히 명대에 들어 국가가 개인의 사서 편찬을 더 이상 금지하지 않게 되면서 수많은 私撰史書가 쏟아져 나왔다. 이는 명대에 출간된 역사서적의 수를 이전 시기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명대의 문인들은 이제 황제 일인이 아닌 다수의 독자를 위해 사서를 저술하기 시작하였으며 通史, 前代史뿐만 아니라 當代史까지 다루기 시작하였다.

또 명대에는 기존의 사서를 편집한 다양한 史抄가 유행하였는데, 이는 관료가 되기 위해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文人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초기의 史抄는 높은 관직을 지낸 名士가 주로 집안이나 친족 자제들이 과거시험 과목인 策略을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주요 史書들의 핵심적인 부분을 편집하여 만든 것이었다. 일종의 역사 참고서인 이러한 史抄들은 효율적인 시험준비를 목적으로 하였기에 방대한 사서를 축약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주해를 다는 한편 역사적 사건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덧붙였다.[49] 명대에 들어 과거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면서 과거를 준비하는 이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

자 개인적인 용도로 편찬했던 史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書坊들은 史抄를 상업적 출판물로 출간하기에 이른다. 특히 이 시기에는 관료 사회의 밖에 존재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글쓰기를 했던 주변부 문인들이 경제적 이익 혹은 문화적 명망을 위해 출판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는데[50] 史抄의 편찬 또한 그러한 문인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작업 가운데 하나였다.

이뿐만 아니라 명대에는 이전의 史書에 대한 다량의 평점본이 쏟아졌다. 楊愼(1488-1559)과 李元陽(1497-1580)이 편찬한 《史記題評》(1537), 《史記》와 《漢書》에 대해 언급한 각종 저작들 중에서 해당 부분을 발췌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凌稚隆(1535-1600)의 《史記評林》(1577), 《漢書評林》(1583)[51]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백화체 사서도 출간된다. 元代에 나온 鄭鎭孫의 《直說通略》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 백화로 쓴 교육용 사서로서 당시의 口語가 다수 들어있다. 또 명 만력제 즉위 후 내각의 首輔에 오른 張居正(1525-1582)은 즉위 당시 여덟 살이었던 황제를 위해 《資治通鑑》을 백화로 풀어 쓴 《通鑑直解》를 지어 경연에 사용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사서들 가운데 명대에 가장 많이 출간된 것은 단연코 通鑑類 史書였다. 宋元代에 이미 《資治通鑑》을 보충하거나 수정하거나 편집한 서적들이 대거 등장한다. 《資治通鑑》 편찬에 참여했던 劉恕(1032-1078)는 《資治通鑑》에서 빠진 시기를 정리한 《資治通鑑外紀》를, 휘종 재위 때 江贄는 《資治通鑑》을 축약한 《通鑑節要》를 편찬한다. 이 외에도 북송시기에 이미 《資治通鑑》을 보충하거나 수정한 여러 편년체 사서들이 편찬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통감류 사서들은 황제에게 진상하기 위해, 혹은 자신이 家塾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편찬된 것이었다. 이에 비해 南宋과 元代에 《資治通鑑》을 보충하거나 수정하여 편찬된 책들은 대개 개인이 학술적 의도로 저술한 것들이었다. 朱熹의 《資治通鑑綱目》을 대표로, 李燾(1115-1184)의 《續資治通鑑長篇》, 袁樞(1131～1205)의 《資治通鑑紀事

49) 左桂秋, 〈科舉功能下的史學普及: 析明代綱鑑史書〉(《山東社會科學》, 第7期, 2012), 43-44쪽.

50) 신주리, 《16-17세기 江南의 周邊部 文人 硏究 : 陳繼儒와 李漁의 상업적 글쓰기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4-39쪽.

51) 정지현, 〈《漢書評林》 眉注 初探〉(《중국문학》, Vol.97, 2018), 109-110쪽. 凌稚隆은 생원 출신 출판업자로, 《拍案驚奇》의 저자 凌濛初의 숙부이기도 하다.

本末》, 胡三省(1230-1302)의 《資治通鑑音注》(1285), 金履祥(1232-1303) 《資治通鑑綱目前編》, 王幼學(1275-1368)의 《資治通鑑綱目集覽》, 劉時擧의 《續宋編年資治通鑑》 등의 다양한 통감류 사서들이 이 시기에 출간된다. 주목할만한 것은 이 시기에 나온 통감류 사서들이 북송대에 나온 통감류 사서들과 함께 書坊, 특히 福建 建陽 지역의 서방에서 상업적 이익을 위해 출간, 판매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52]

명대의 문인들 또한 송원대에 나온 통감류 서적들에 주석을 달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등 통감류 사서의 편찬에 대거 참여하였다. 商輅(1414-1486)의 《續資治通鑑綱目》, 王宗沐(1523-1592)의 《宋元資治通鑑》, 劉剡(宣德연간)의 《通鑑節要續編》, 吳震元(?-1642)의 《資治通鑑綱目犖觀》, 張光啓(明末)의 《資治通鑑節要續編》, 嚴衍(1583-?)의 《資治通鑑補》, 王世貞(1526-1590)의 《王鳳洲先生綱鑑正史全編》, 葉向高(1559-1627)의 《鼎鍥葉太史彙纂玉堂綱鑑》, 焦竑(1541-1620)의 《新鍥國朝三元品節標題綱鑑大觀纂要》, 李廷機(1542-1616)의 《新刻九我李太史編纂古本歷史大方綱鑑》, 袁黃(1533-1606)의 《鼎鍥趙田了凡袁先生編纂古本歷史大方綱鑑補》와 같은 통감류 사서들은 큰 인기를 끌며 이전 시기의 통감류 사서들과 함께 여러 차례 출간되었다.[53] 明初 상업적 출판시장의 침체와 조정의 정책적 장려가 맞물려 주로 官刊으로 출판되었던 통감류 사서들은 명 중기 이후로 개인과 書坊 주도로 출간되기 시작하면서 그 수량이 급증한다. 嘉靖연간 이래로 성행하기 시작한 방각본 통감류 사서들은 萬曆연간에 정점에 달하였으며 명말까지 이어지다가 청대에 들어 학술풍조가 변화하면서 점차 감소한다.

이렇게 명 중기 이후 대량으로 출간된 통감류 사서의 특징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해하기 쉬움[通俗化]'이다. 처음 司馬光이 《資治通鑑》을 편찬한 것은

---

52) 남송대의 신유학자들은 자신들의 학술 활동과 강학 활동에 출판을 활용하였으며 각종 저술을 할 때 이미 출간을 염두에 두었으리라 여겨진다. 또 이들이 쓴 史書들은 남송과 원대에 이미 상업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들은 출판을 통해 역사지식을 보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며, 여전히 서적의 주류는 인쇄본이 아닌 필사본이었다. 喬治忠, 〈明代史學發展的普及性潮流〉(《中國社會歷史評論》, 第四卷, 商務印書館, 2002), 참고.

53) 당시의 서방들은 판매 수익을 올리기 위해 명망있는 문인의 이름에 가탁하여 출간하는 일이 많았기에 서적에 표기된 편찬자가 실제 편찬자가 아닌 경우도 많다.

황제가 긴 역사를 보다 손쉽게 御覽하도록 도우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송, 원을 거치면서 통감류 사서의 독자는 황제 일인에서 점차 문하의 제자들, 문인 계층 일반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명대에 들어 과거 응시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면서 통감류 사서의 독자층은 더욱 확대되었다. 게다가 명 조정이 정책적으로 세운 각종 官學들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私學들은 어린 아이까지 史書의 독자층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또 경제적 부의 증가로 상인층 가운데도 여유가 있는 이들은 점차 문인 문화에 참여하려 하였다.[54] 이에 출판업자들은 새로운 독자층에 맞는 다양한 사서를 직접 기획, 편집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 때 출간된 통감류 사서들의 특징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은 '新編', '新刊', '考正', '正誤', '鐫誤', '增修', '增節', '音注', '点校', '备注', '集注', '集議', '音釋' 등 책의 표제에 붙은 각종 표현들이다.[55] 때로 이러한 표현들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과장하여 붙여지기도 하지만 당시 통감류 사서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 재출간된 이 통감류 사서들은 오류를 바로잡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기도 하며, 읽기 쉽도록 표점을 달고 어려운 글자에는 독음을 표기하고 옛 지명, 옛 관직명에는 주를 달았으며 역대의 해석들을 모아두기도 하였다. 이전시기 경전의 주해들이 상세한 풀이를 통해 경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추구하고 이로써 자신의 해석에 권위를 부여하였다면, 이 시기 통감류 사서에 붙은 주해들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 정리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풀이해주는 통속적인 주해라는 점에서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현상은 史書 독자층의 달라진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며, 역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자들은 점점 더 다양한 史書의 수요자로 거듭나게 된다.

1.3. 通鑑類 史書의 유행과 역사연의의 발생

명대 통감류 사서의 유행과 역사연의의 발생 사이에서는 몇 가지 연결 고리가

54) 앤 매클라렌 著, 이지원·조관희·김효민 譯, 〈명말 새로운 독자층의 형성〉(《중국소설연구회보》, Vol.73, 2008)

55) 예를 들어 明 만력 16년(1588)에 張氏의 新賢堂에서 출간된 《資治通鑑節要》의 정식 명칭은 '新刊翰林考正綱目點音資治通鑑節要會成'이며 '江贄 撰, 明 唐順之 刪定, 明 張謙 厘正'이라고 題하고 있다.

발견된다. 앞서 언급했듯 통감류 사서는 남송, 원대에 이미 상업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나, 명초에는 상업적 출판시장의 침체로 인해 관각본 위주로 출간되다가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방각본 통감류 사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역사연의 또한 16세기 무렵 처음 등장하여 이후로 빠르게 증가한다. 역사연의의 시초인《三國演義》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가장 빠른 판본은 嘉靖 元年(1522)년에 출간되었으며 이후 대략 만력연간까지 이를 모방한 많은 역사연의들이 쏟아져 나온다.[56] 그러나 명대 거의 모든 상업적 출판물들이 16세기에 들어 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만력연간에 절정에 달했으므로[57] 이를 통감류 사서와 역사연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둘 사이의 보다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출간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명대에 통감류 서적은 주로 福建의 建陽지역에서 출간되었다. 건양지역은 송대에 이미 주희를 위시한 유학자들의 학술활동과 강학활동으로 인해 서적에 대한 수요가 다른 곳보다 높았다. 더불어 종이와 목판의 생산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 출간된 서적을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기에 유리한 교통상의 이점 등으로 인해 일찍부터 출판업이 발달하였다. 명대 중엽 이후로 南京, 蘇州, 杭州 등의 江南지역이 든든한 문화적 배경과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출판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으나 서방의 수와 출간 서적의 수량에 있어서는 여전히 건양지역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58] 명대 건양에서 출간된 책들은 경전에서부터 역사서, 실용서, 그리고 소설, 희곡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건양에서 출간된 역사서 가운데 통감류 사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다. 명대 건양에서 출간된 서적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醫書, 類書, 문집, 소설 등이며 편년체 사서도 87종으로 상위를 차지한다. 반면 正史로 분류된 책은 10종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도《史記》와《漢書》를 제외한 나머지 8종은 모두 평점본

56) 齊裕焜,《中國歷史小說通史》(江蘇敎育出版社, 2000), 23-26쪽.

57) 홍치연간의 마지막 해인 1505년을 분기점으로 明代를 반으로 나눈다면, 남경과 건양 모두 명 후반에 출간된 서적이 전체 출간된 서적의 약 90%를 차지한다. 루실 쟈 著, 이지원·조관희·김효민 譯, 〈싼산졔(三山街): 명대 난징의 상업 출판업자〉(《중국소설연구회보》, Vol.70, 2008), 22쪽.

58) 명대 남경과 건양의 상업적 출판물 수량 비교에 대해서는 루실 쟈 著, 위의 논문, 22쪽의 '표2 남경과 건양의 상업적 간기(명대 왕위별로)' 참고.

과 같은 편집본들이다.[59] 또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건양지역 출판물 가운데 통감류 사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명대 남경에서 출간된 것으로 간주되는 정사류 사서는 총 11종으로 전체 830종의 1.3%를 차지하며 편년체 사서는 총 8종으로 1%를 차지한다. 반면 건양에서 출간된 정사류 사서는 총 10종으로 전체 1539종의 0.6%를, 편년체 사서는 총 87종으로 5.5%를 차지한다.[60]

그런데 초기의 역사연의들 또한 통감류 사서의 출간에 특화된 건양의 서방에서 나왔다.[61] 특히 건양의 서상인 余象斗와 같은 이는 통감류 사서와 역사연의 모두를 직접 편찬하여 출간하기도 하였다. 초기 역사연의의 대표적인 편찬자인 熊大木(약 1506-1578) 또한 통감류 사서와 역사연의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熊大木의 자는 鰲峰, 號는 鐘谷子로 주로 가정과 만력연간에 활동한 역사연의 편찬자이자 출판업자이다. 熊氏 집안은 송대부터 건양지역에서 출판업에 종사한 大族으로, 대규모로 책을 출간하기 시작한 것은 熊宗立(1409-1482)의 種德堂에서부터였다.[62] 熊宗立의 曾孙이며 건양의 서방인 忠正堂의 주인이었던 熊大木은《大宋中興通俗演義》,《唐書志傳》,《全漢志傳》,《南北兩宋志傳》 등 총 4종의 역사연의를 편찬하였다.《大宋中興通俗演義》는《三國演義》 이후로 가장 먼저 나온 역사연의이며, 그 다음으로 출간된 것이 隋唐 계통의 역사연의인《唐書志傳》이다.《大宋中興通俗演義》와《唐書志傳》은 가정연간에 건양의 서방인 楊氏 清江堂에서 연이어 출간되었다.[63] 清江堂은 본래 통감류 사서를 주로 출간하던 곳으로, 清江

59) 宋, 元, 明에 이르는 시기 건양지역의 출판업에 대해서는 Lucille Chia, *Printing for profit : the commercial publishers of Jianyang, Fujian(11th-17th centuries)*(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참고. 특히 역사서 출판에 대해서는 130-133쪽/ 226-230쪽 참고. 312-313쪽에 수록된 'Table C.2'에서는 宋, 元, 明 조대별로 건양지역에서 출간된 책들을 사고전서 분류법에 따라 표로 만들었다. 이 표에 따르면 북송대에는 기전체 正史가 우세하였으나 남송, 원으로 갈수록 정사의 출간은 현격히 줄어들고 대신 통감류 사서의 출간이 급증하며 이러한 현상은 명대에 들어 더욱 강화된다.

60) 루실 쟈 著, 위의 논문, 24쪽의 '표3 남경과 건양 간기의 주제별 분포' 참고.

61) 塗秀虹,〈明代"按鑑"演義與建陽刻書背景〉(《中國典籍與文化》, 第4期, 2009), 蘇丹霞,〈建陽書坊歷史演義小說刊刻盛衰研究〉(《黑河學刊》, 第6期, 2018) 참고.

62) 熊氏 집안의 가계와 출판업에 대해서는 Lucille Chia, 위의 책, 93-99쪽 참고. 熊大木에 대해서는 王菊芹,〈論書坊主對明代歷史演義小說的影響〉(《殷都學刊》, 第2期, 2009), 85쪽 참고.

63)《全漢志傳》,《南北兩宋志傳》 또한 유사한 시기에 清江堂에서 출간되었으리라 여겨지

堂에서 명대에 출간한 서적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3〉 明代 淸江堂에서 출간된 서적의 목록[64]

서명	편찬자	출간시기
《增修附注資治通鑑節要續編》	張光啟 訂正, 劉剡 編輯	弘治 10年(1497)
《續資治通鑑綱目》	商輅等撰, 周禮發明, 張時泰 廣義	正德 元年(1506)
《剪燈新話大全》	瞿佑 撰	正德 6年(1511)
《剪燈餘話大全》	李昌祺 撰	正德 6年(1511)
《周易傳義大全》	胡廣等 撰	正德 12年(1517)
《紫陽朱子綱目》	朱熹 撰	嘉靖 10年(1531)
《續編資治宋元綱目大全》	商輅等 撰	嘉靖 10年(1531)
《資治通鑑綱目前編》	金履祥 撰	嘉靖 14年(1535)
《資治通鑑綱目前編外紀》	明陳 撰	嘉靖 14年(1535)
《資治通鑑綱目大全》	朱熹 撰	嘉靖 14年(1535)
《資治通鑑漢唐綱目經史品藻》	戴璟 撰	嘉靖 15年(1536)
《資治通鑑宋元綱目經史品藻》	戴璟 撰	嘉靖 15年(1536)
《大宋中興通俗演義》	熊大木	嘉靖 31年(1552)
《唐書志傳通俗演義》	熊大木	嘉靖 32年(1553)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淸江堂에서 출간된 서적 가운데 통감류 사서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러한 통감류 사서가 역사연의의 藍本이었을 가능성을 상정

지만 이 둘에 대해서는 정확한 간기가 남아있지 않다. 塗秀虹, 〈"按鑑" : 明代歷史演義的編撰方式及其意義〉(《福建師範大學學報》, 第1期, 2011) 참고.

64) 이 표는 塗秀虹, 위의 논문과 '國學大師 古籍書目查詢(http://www.guoxuedashi.com/)' 사이트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해볼 수 있다. 실제로 《大宋中興通俗演義》의 각 則의 題目은 商輅의 《續資治通鑑綱目》에서 왔으며 본문의 내용 또한 《續資治通鑑綱目》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續資治通鑑綱目》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도 많다.[65] 게다가 웅대목은 序에서 《大宋中興通俗演義》의 편찬 동기와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武穆王精忠錄》은 원래 小說인데 全文을 다 보지는 못하였다. 오늘 浙 지역의 출간본을 얻었는데 武穆王의 事實을 서술한 것이 매우 자세하였다. 그러나 그 意는 시와 그림에 깃들어있고 綱은 간략하게 적혀있으니 士大夫가 못되는 이들은 이치를 빨리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근일 楊湧泉이 이를 아쉬워하여 이 책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며 말하였다. "저를 대신하여 수고해서 (어려운) 말들을 풀어내면 愚夫愚婦라도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재주가 班固, 司馬遷의 만분지일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어찌 널리 드러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 차례 간청하니 의리상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에 나의 臆見이나마 武穆王 本傳과 行狀의 實跡을 가지고 通鑑綱目에 따라 뜻을 취하니, 소설과 本傳이 서로 다른 것은 둘 다 남겨서 참고하게 하였다.
>
> 武穆王精忠錄, 原有小說, 未及于全文. 今得浙之刊本, 著述王之事實, 甚得其悉. 然而意寓文墨, 綱由大紀, 士大夫以下, 遽爾未明乎理者, 或有之矣. 近因眷連楊子素號湧泉者, 挾是書謁于愚曰: 敢勞代吾演出辭話, 庶使愚夫愚婦, 亦識其意. 思之一二, 余自以才不及班、馬之萬一, 顧奚能用廣發揮哉? 既而懇致再三, 義弗獲辭, 於是不吝臆見, 以王本傳行狀之實跡, **按通鑑綱目**而取義, 至於小說與本傳互有同異者, 兩存之以備參考.[66]

《武穆王精忠錄》은 본래 岳飛의 事跡과 文章, 그에 대한 후인의 시와 그림 등을 모아둔 일종의 선집이다.[67] 서방 淸江堂의 주인인 楊湧泉은 이 책을 직접 가지고 웅대목을 찾아가 악비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글을 써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웅대목은 악비의 本傳이 실린 그의 사적을 《資治通鑑綱目》에 비추어 《大宋中興通俗演義》로 쓰게 된 것이다. 淸江堂本 《唐書志傳》 또한 正文의 제일 앞부분

65) 涂秀虹, 위의 논문, 71쪽.

66) 丁錫根 編著, 《中國歷代小說序跋集》(人民文學出版社, 1996), 980-981쪽.

67) 塗秀虹, 〈《精忠錄》: 岳飛故事流傳過程中一部重要的資料選編〉(《文獻》, 第3期, 2014) 참고.

에 책의 표제를 '新刊參采史鑑唐書志傳通俗演義'라고 적어 《資治通鑑》을 근거로 삼았음[參采史鑑]을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초기 역사연의의 표제에서 통감류 사서를 참고로 하였음을 밝히는 일은 점차 '按鑑'이라는 용어로 고정되어 표현되었다. 현재는 書目만 남아있으나 嘉靖本《三國演義》의 원본으로 추정되는 黃正甫가 쓴 책의 정식 명칭은《新刻考訂按鑑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이고[68] 웅대목 이후로도《新刻按鑑編纂開辟衍繹通俗志傳》,《京本通俗演義按鑑全漢志傳》,《新刊按鑑演義全像大宋中興岳王傳》 등등 '按鑑'이 제목에 들어간 역사연의가 주로 건양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하여 출간된다.[69]

이상의 정황으로 보건대《資治通鑑》을 비롯한 통감류 사서는 초기 역사연의의 편찬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수정하는 데에 단순한 참조가 되었다기보다는 텍스트 구성 과정 전체에 영향을 주었으며, 더 나아가 역사연의라는 양식의 발생에서부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통감류 사서의 보급은 보다 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역사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역사연의가 출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역사연의의 실제 텍스트 구성 과정에도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70]

2. 역사연의의 흥성

2.1. 역사연의의 개념과 범주

역사연의는 새로운 글쓰기에 대한 작가의 의식적인 자각 아래 창작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의해 자연스레 발생하여 점차 스스로를 완성시킨 서사양식이다. 따라서 역사연의를 정의하는 일은 간단하지가 않다.

---

68) 홍상훈, 〈《삼국연의》의 정통성에 관한 고찰〉(《중국문학》, Vol.47, 2006), 102쪽.

69) '按鑑'을 책의 표제에 사용한 작품들의 목록은 劉曉軍, 〈"按鑑"考〉(《明清小說硏究》, 第3期, 2006), 20-21쪽 참고.

70) 때로 '按鑑'이라는 말은 역사연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쓰이기도 했으므로 통감류 사서와 역사연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텍스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작업은 이 글의 Ⅲ장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역사연의의 형식, 소재, 내용, 서술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역사연의의 개념과 범주를 정리하고자 한다.

역사연의는 명 중엽에 발생한 이후로 근대로 접어드는 시기까지 계속하여 창작된 중국 특유의 서사체인 동시에, 장편 백화소설의 형식적 특징인 '章回體'가 처음 사용되었다는 점에서[71] 장편 백화소설의 시초이기도 하다. 장회체란 표제를 가진 일정한 길이의 소단위[回 혹은 節]가 연결되어 하나의 장편 서사를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표제와 본문이 결합되는 형식과 이를 묶어 하나의 텍스트로 만드는 방식은 텍스트 상단의 그림, 그림의 표제, 본문으로 구성된 元代의 平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資治通鑑綱目》의 綱-目 구조와도 유사하며 연구자에 따라서는 元 雜劇 대본의 결말 부분에 있는 '題目'과 '正名'이 話本의 標題 형성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장회체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한다.[72]

그러나 '표제-본문'의 구조 자체가 특수한 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장회체의 단일한 기원을 찾는 일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장회체의 형식적 특징은 독립적인 각 회가 아닌 이를 연결하는 방식에 있다. 실제 공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일정한 길이와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전후의 두 회를 연결시키는 '뒷일이 어찌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다음 회를 보시라(要知後事如何, 且聽下回分解.)'와 같은 상투구는 그동안 장회체 소설이 설화구연인 講史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발생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졌다. 둘 사이에 영향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사가 구연이 일어나는 현장에 국한되는 講史와 달리 읽는 텍스트인 역사연의는 긴 전체 서사를 하나로 고려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 서사의 전반적인 특징을 변화시키면서 장회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즉 처음에는 사건을 시간 순으로 서술하면서 각 회의 연결을 긴밀하게 만드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던 역사연의는 점차 사건을 시간 순으로 서술하면서도 배치를 조작하거나 초점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장회체를 활용하였다. 유비를 중심으로 蜀의 사건만 서술한 《三國志平話》와 달리 《三國演義》의 장회체는 魏·蜀·吳 三國 사이를 오가며 여러 인물을 이야기를 각 회별로 나누어 서술하면서도 하나의 서사로 연결시킨다. 《隋唐

71) 《三國演義》의 가장 이른 판본인 嘉靖本(1522년)은 총 240節로 되어 있다.
72) 루쉰 著, 조관희 譯, 《中國小說史》(소명, 2004), 295-296쪽.

演義》의 경우 초야의 영웅인 秦叔寶의 이야기를 10여 회 서술하다가 그와 직접적인 접점이 없는 隋 煬帝의 궁 안 이야기를 4-5회 서술하고 다시 秦叔寶의 이야기로 돌아오는 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사건을 하나의 서사로 엮는다. 이처럼 역사연의는 장회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점차 자신만의 서사 구조를 만들어 내었다.[73]

장회체는 역사연의에서 시작되었으나 곧바로 장회체를 사용한 다른 유형의 소설들이 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근대의 급격한 변화를 만나기 전까지 장편 백화소설은 유형을 막론하고 모두 장회체로 서술되었다. 작품에 따라 서술자의 역할이나 詩詞, 評語의 삽입 등 부분적인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역사연의와 다른 유형의 장편 백화소설을 구분할 수 있는 형식적 차이는 등장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역사연의는 장회체의 기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明淸 장편 백화소설의 하위분류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었다.

루쉰이 《中國小說史略》에서 명대 장편 백화소설을 '원명으로부터 전래되어 온 강사(元明傳來之講史)', '명대의 신마소설(明之神魔小說)', '명대의 인정소설(明之人情小說)'로 나누어 설명한 이래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별다른 반성 없이 장편 백화소설을 소재와 내용에 따라 역사, 신마, 인정(혹은 세정)의 세 부류, 혹은 역사, 영웅, 신마, 인정의 네 부류로 나누어 이해하였다. 이에 역사연의는 장편 백화소설의 하위분류 가운데 하나로서 역사적 사실을 주요 소재와 내용으로 하는 장편 백화소설을 주로 가리키게 되었다.

소재와 내용에 근거한 유형론이 역사연의와 장편 백화소설을 이해하는 데에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론은 기준의 자의성[74]에 대한 비판

---

73) 이 글의 Ⅲ장부터 Ⅵ장까지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실질적 예시가 될 것이다.

74) 대표적인 예로 江蘇敎育出版社에서 나온 '中國小說通史系列叢書'를 들 수 있다. 고전소설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이 각기 주제를 맡아서 저술한 '中國小說通史系列叢書는 《中國曆史小說通史》, 《中國神怪小說通史》, 《中國人情小說通史》, 《中國英雄俠義小說通史》, 《中國社會小說通史》의 총 다섯 권으로 출간되었다. 齊裕焜은 《中國歷史小說通史》에서 歷史小說이 과학이 아닌 문학이라는 점에서 역사서사와 구분되고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소설들과 구분된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中國小說通史系列叢書'와 다루는 작품이 겹치지 않도록 歷史小說의 범주를 사전 협의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齊裕焜, 《中國歷史小說通史》(江蘇敎育出版社, 2000), 8-29쪽. 기존 중국소설사의 유형론적 접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조관희,

과 현재적 기준으로 과거의 작품을 분류하는 데서 비롯되는 오류를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분류가 역사연의는 역사를 다룬 장편 백화소설이라는 동어반복적 사실 외에 그것의 발생 원인과 양식적 특징, 의미 등에 대해 아무 것도 알려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전 시기의 역사서사, 그리고 동시대의 신마소설, 인정소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역사의식이나 주제가 보이지 않는 역사연의가[75] 당시에 왜 그토록 인기를 끌었는지, 작가는 이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독자들은 이를 통해 무엇을 읽어냈는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역사연의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특징의 원인을 역사라는 소재에서 찾기 때문이다.

이때 이러한 유형적 분류의 경계에 서있거나 이를 넘나드는 작품들은 유형론이 가지고 있는 전제의 취약점을 드러냄으로써 역사연의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영웅전기인 《水滸傳》, 신마소설인 《封神演義》, 그리고 明末에 유행한 時事小說은 모두 내용적인 측면 혹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역사연의와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으며,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들을 역사연의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제외시키기도 한다. 《水滸傳》은 元代의 平話 《大宋宣和遺事》와 각종 水滸 관련 잡극을 원천서사로 삼아 장회체 소설로 재구성한 것이다. 《水滸傳》은 역사서사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大宋宣和遺事》[76]와 역사적 시간과 배경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水滸戲를 구체적인 역사적 시간과 공간, 역사적 사건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다시 썼다. 그러나 金聖嘆의 《第五才子書水滸傳》에 이르러서는 宋

〈중국소설의 본질과 중국소설사의 유형론적 기술에 대하여〉(《중국어문학논집》, Vol.15, 2000), 468-472쪽 참고.

75) 근대 역사소설의 등장은 역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즉 역사가 단순히 현재에 교훈을 주는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 현재가 곧 과거의 소산이라고 여기는 태도는 과거에 대한 활발한 관심을 가져오면서 역사소설을 탄생시켰다. 〈역사소설의 개념과 장르적 유형론〉(《대중서사연구》, Vol.7(1), 2002) 참고.

76) “필자는 《선화유사》가 세속화된 역사서의 기능과 설화 구연의 저본 기능을 이중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송대에 이미 그 추형이 완성되고 출간되었다가 원대에 이르러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과 같은 형태로 완성되었다고 본다.” 김진곤, 〈中國 民間 古典文學의 記錄 傳統과 公演 傳統 －水滸 이야기의 생성·전래·정착·공연화 과정을 중심으로〉(《중국소설논총》, Vol. 9, 1999), 21쪽.

江의 무리가 조정에 귀순하는 후반부의 내용이 삭제되면서 다시 역사적 근거를 잃는다.[77] 각종 역사서사와 평화《武王伐紂平話》, 그리고 명 중엽에 나온《列國志傳》을 원천서사로 하여 쓰인《封神演義》[78]는 역사적 인물인 강태공을 주인공으로 하여 武王이 商의 紂王을 정벌하고 周를 세우는 역사적 사건을 도교의 신들이 봉신되는 종교적 서사와 같이 엮어서 재구성하였다. 明末의 時事小說 가운데 하나인《遼海丹忠錄》[79]은 요동지방에서 後金의 공격을 막아내던 무장 毛文龍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다가 袁崇煥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동시대의 사건을 소재로 하였다는 점에서는 역사연의와 다르지만 국가의 패망과 관계깊은 역사적 사건을 시간 순으로 서사화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종교서사에 속하는《天妃濟世出身傳》은 신앙의 대상인 媽祖를 역사서사의 형식에 따라 어떤 왕조, 어떤 지방, 어떤 집안에서 탄생하였으며 살아있는 동안 어떠한 일을 겪고 죽어서는 어떠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서사화하고 있다.[80]

이상의 예에서 보이듯 매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서로 다른 유형으

---

77) 천대진, 〈《大宋宣和遺事》의 체제와 내용 연구〉(《동아인문학》, Vol.43, 2018)와 신지영, 《元雜劇 水滸戱 硏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참고. 김성탄은 자신의《水滸傳》평점본에서 송강의 무리가 조정에 귀순하여 방랍의 난을 평정하는 후반부를 삭제하였다. 송강 무리의 귀순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서사전통에서 바라봤을 때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로써 국가의 대사와 관련 없는 영웅의 존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水滸傳》이 역사연의에서 비롯한 다른 영웅전기(薛仁貴, 岳飛, 楊家府 등등)와 구분되는 지점으로, 추후 연구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78) 이은영, 〈《封神演義》의 成書過程에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작품《列國志傳》〉(《中國小說論叢》, Vol.26, 2007) 참고.

79) 陸人龍이 쓴 40회의 시사소설로 1630년에 출간된 것으로 보이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1642년에 출간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李忠明,《17世紀中國通俗小說編年史》(安徽大學出版社, 2003), 65쪽과 72-75쪽 참고. 毛文龍이 살해당한 것이 1629년의 일이므로 매우 빠른게 소설로 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80) 중국 종교의 특성상 대부분의 신들은 인물신이며, 이들이 신이 되기 이전에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행적을 벌였는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서사화하는 것은 민간신앙의 세속적인 특성에 부합한다. 때문에 이 시기 종교서사는 본질적으로 역사서사 혹은 역사연의와 친연성을 갖고 있다.

로 분류되기도 하는 장회체 소설 가운데는 연사연의와 친연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많다. 물론 그들이 역사와 관련되는 양상은 각기 다르다. 때로는 역사적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던 서사가 편집과 수정을 거쳐 역사적 사실에 가깝게 고쳐지기도 하고, 반대로 역사서사로 시작되었으나 서사의 초점이 옮겨가면서 역사적 사실과는 멀어지기도 한다. 때로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서사이지만 초현실적인 존재들이 나타나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역으로 종교적 숭배의 대상인 신이 역사적 배경을 가진 실존인물로 서술되기도 한다.

이러한 예들은 전통시기 중국의 서사 자체가 역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시기 나타난 장회체 서사들을 역사서사가 직접적으로 변형되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역사서사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역사서사와는 전혀 다른 경로로 발생하였음에도 역서서사의 규범을 스스로 적용하여 역사서사와 유사한 외형을 갖추는 등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역사서사와 관계되는 방식 혹은 이를 서술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역사연의의 개념에 접근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역사연의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演義'라는 서술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세기 이후로《三國志通俗演義》,《隋唐演義》,《隋唐兩朝志傳》,《封神演義》,《新鐫繡像通俗演義遼海丹忠錄》,《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 등 '演義' 혹은 '(志)傳'라는 표현을 제목에 넣은 장회체 서사들이 대거 출간되며, 결국 이것들이 현재 역사연의라고 분류되는 서사체의 바탕을 이룬다. '演義'는 '衍義'와 통행되는 용어로서 본래는 '뜻을 풀이하고 근거를 찾아 설명하는[釋義考證]' 서술방식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다 宋代 眞德秀의《大學衍義》를 시작으로 '衍義' 혹은 '演義'를 표제에 넣은 저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의 연의는《尙書演義》,《論語演義》,《周易演義》 등 경전의 의미를 풀이하고 내용을 확대하는 것을 가리켰다. 南宋에서 明初 사이에는 연의의 대상이 子部, 集部로 확대되어《詩演義》,《杜律演義》와《孫子演義》 같은 서적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때에 이르면 연의는 편찬자의 해석에 의거하여 경전, 제자서, 사서 등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 다시 쓰는 일종의 문체를 가리키는 말이 된다.[81] 그러다 명 중엽 역사연의가 등장하면서 '演義'는 점차 소설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확장된다.[82]

---

81) 黃霖·楊緖容, 〈'演義'辨略〉(《文學評論》, 第6期, 2003), 5-7쪽.

역사연의들은 대개 그 序文에서 역사적 사실을 알기 쉽도록 풀어썼음을 강조한다. 실제 본문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되 평이한 언어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사서에 없는 사건의 배경이나 진행과정, 인물들 사이의 대화 등을 보충하여 단편적이고 함축적인 역사기록을 처음과 끝을 갖춘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읽는 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역사연의가 '경전 등의 원본을 풀어서 다시 쓰기'라는, 演義라는 서술방식 혹은 문체가 가진 속성을 여전히 매우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원본의 존재는 앞 절에서 언급한 按鑑演義라는 역사연의의 초기 형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역사연의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서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풀이인 것이다. 사서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을 풀어서 다시 쓴다는 전제 아래 역사연의는 역사적 사건의 전후 상황, 구체적인 진행 과정, 인물들 사이에 오간 대화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보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허구적인 사건이나 초현실적인 사건들도 역사적 사건에 대한 풀이로서 서사화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역사연의란 사서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을 장회체로 다시-쓴 서사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역사적 사건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서술한 것이든 혹은 작가의 상상으로 자유로이 줄거리를 구성하여 서술한 것이든, 이러한 기본적 특징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모두 역사연의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또한 역사연의의 원본을 '원천서사'라는 용어로 개념화하였다. 이는 역사연의가 원본으로 삼은 역사서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정통 역사서사에서 각종 野史, 雜錄, 筆記, 공연예술 등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한편 역사연의의 '역사적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는가'하는 역사적 엄밀성이 아니라,[83] '그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한가'하는 문제이다. 이는 전통시기 중국의 역사란 왕조 그 자체였으며 역사서사에 기록된 것은 결국 '과거에 일어났던[historical]'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historic]' 사건이기 때문이다. 역사서사를 풀어서 다시 쓰는 역사연의에는 자연스레 역사서사의

82) 谭帆, 〈'演义'考〉(《文学遗产》, 第二期, 2002.), 106-107쪽. 谭帆은 당시 《西遊記》와 三言兩拍 또한 '演義'라고 명명되는 등 통속소설에 역사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역사소설에 대해서는 '역사연의'가 적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83) 역사연의에서 史書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은 의심과 회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史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는 '사실'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옮겨오게 되기 때문이다. 또 역사서사에 기록이 없는 평범한 혹은 허구의 개인이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묘사하여 이로써 역사의 한 부분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근대적 역사소설과 같은 역사연의는 등장할 수가 없게 된다. 역사연의의 주인공은 왕조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 즉 황제, 충신, 간신 혹은 역적뿐이다.

2.2. 16-17세기 역사연의의 출간 개황

16세기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역사연의는 만력연간에 절정에 달하였으며 淸初가 지나면서 다시 줄어든다. 16-17세기에 나온 역사연의의 목록을 대상 소재의 시간 순서에 따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4〉 16-17세기에 출간된 역사연의 목록[84)]

배경	제목		출간시기	작가	비고
先秦	《開辟衍繹通俗志傳》		1635	周游	6卷80回
	《盤古至唐虞傳》		崇禎	鍾惺	2卷7回
	《有夏志傳》		崇禎	鍾惺	4卷19回
	《有商志傳》		崇禎	鍾惺	4卷12回
	《封神演義(商周列國全傳)》		隆慶·萬曆	許仲琳	100回
	《列國志》	《列國志傳》	嘉靖·隆慶	余邵魚	8卷226則

84) 이 표는 齊裕焜의 《中國歷史小說通史》(江蘇教育出版社, 2000)와 《明代小說史》(浙江古籍出版社, 1997), 張俊의 《淸代小說史》(浙江古籍出版社, 1997), 李忠明의 《17世紀中國通俗編年史》(安徽大學出版社, 2003)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책의 표제는 편의상 간략한 제목을 적었다. 예를 들어 《新刻按鑑編纂開辟衍繹通俗志傳》은 《開辟衍繹通俗志傳》으로 표기하였다. *표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이 출간된 시기로, 이보다 전에 初刊되었으리라 여겨지나 실물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였다.

		《新列國志》	1630	馮夢龍	108回
		《東周列國志》	1741	蔡元放	108回
	《孫龐鬪志演義》		1636	吳門嘯客	4卷20回
	《孔聖宗師出身全傳》		명		4卷19則
	《七十二朝人物演義》		1640	袁黃	40卷
	《後七國志樂田演義》		1666	徐震	4卷20回
秦漢	《全漢志傳》		1605	熊大木	12卷118則
	《西漢演義》		1612	甄偉	8卷101則
	《東漢十二帝通俗演義》		萬曆	謝詔	10卷146回
	《東西漢通俗演義》		萬曆	袁于令	18卷225則
魏晉南北朝	《三國志》	《三國志通俗演義》	1522	羅貫中	24卷240節
		《李卓吾先生批評三國志》	1614	袁無涯	120節
		《三國志演義第一才子書》	1679	毛宗岡	19卷120節
	《東西兩晉演義》		1612	楊爾曾	12卷50回
	《梁武帝西來演義》		1673	天花藏主人	10卷40回
	《禪眞逸史》		1628?	方汝浩	8卷40回
隋唐	《唐書志傳通俗演義》		1553	熊大木	8卷90節
	《隋唐兩朝志傳》		*1619	羅貫中	12卷122回
	《隋煬帝艷史》		1631	齊東野人	8卷40回
	《隋史遺文》		1633	袁于令	12卷60回
	《大唐秦王詞話》		萬曆	諸聖鄰	8卷64回
	《禪眞後史》		1629	方汝浩	60回
	《隋唐演義》		1695	褚人獲	20卷100回

五代	《殘唐五代史演義傳》	*1618	羅貫中	60回
宋	《大宋中興通俗演義》	1552	熊大木	8卷80則
	《南宋志傳通俗演義》	萬曆	熊大木	10卷50回
	《北宋志傳通俗演義》	萬曆	熊大木	10卷50回
	《水滸傳》 《李卓吾先生批評 忠義水滸傳》	萬曆	施耐庵	100回
	《水滸傳》 《忠義水滸全傳》	1614	袁無涯	120回
	《水滸傳》 《水滸忠義志傳》	1628	劉興我	115回
	《水滸傳》 《第五才子書水滸傳》	1641	金聖歎	70回
	《平妖傳》 《三遂平妖傳》	1620	羅貫中	20回
	《平妖傳》 《新平妖傳》	숭정	馮夢龍	40回
	《楊家府世代忠勇演義志傳》	1606	紀振倫	8卷58則
	《說岳全傳》	1684	錢彩	20卷80回
明	《皇明英烈傳(雲合奇蹤)》	1591	郭勳	10卷80回
	《續英烈傳》		紀振倫	5卷40回
	《三寶太監西洋記》	1598	羅懋登	100回
	《征播奏捷通俗演義》	1603	名衢逸狂	6卷100回
	《于少保萃忠全傳》	1617	孫高亮	10卷40傳
	《戚南塘剿平倭寇全傳》	隆慶·萬曆		
	《王陽明出身靖亂錄》	崇禎	馮夢龍	3卷不分回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6-17세기에는 元代를 제외한 모든 왕조의 역사에 대한 역사연의가 출간되었다. 표에는 출간 횟수가 들어있지 않으며 같은 계열의 판본은 하나로 다루었다. 명청대에는 같은 이야기를 제목만 바꾸거나, 약간의 내용만

을 수정하거나, 이야기의 일정 부분만을 따로 독립시키거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합치거나, 유명 문인의 비평과 평점을 달아 다시 출간하는 일이 많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 시기에 나온 역사연의는 표의 목록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開辟衍繹通俗志傳》은 盤古의 천지개벽부터 시작하여 三皇五帝를 거쳐 夏殷周까지의 일을 서술하고 있고,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時事小說에 속하는 《樵史通俗演義》는 明 天啓연간부터 南明 弘光연간(1644-1645)까지 25년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으니, 이 시기에는 역사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부터 當代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존재했다고 여겨지는 모든 시간에 대한 역사연의가 편찬되었던 셈이다. 왕조별로 서술한 단대사 형식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梁武帝西來演義》, 《隋煬帝艷史》, 《說岳全傳》 등과 같이 인물을 다룬 이야기, 《楊家府世代忠勇演義志傳》처럼 가문을 다룬 이야기, 《孫龐鬪志演義》, 《後七國志樂田演義》, 《戚南塘剿平倭寇全傳》 등과 같이 특정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도 있다.

한편 이 시기에 들어 當代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소재로 한 소설들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역사연의에 속하지만 이야기가 서술하는 사건들과 이야기가 만들어진 시간의 격차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특히 명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1628-1644) 때부터 '時事小說'이라 일컬어지는, 당시의 사건을 다룬 소설들이 출간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나온 시사소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5〉 明末淸初에 출간된 時事小說 목록[85]

제목	출간 시기	작가	비고
《警世陰陽夢》	1628	朱長祚	10卷40回
《魏忠賢小說斥奸書》	1628	陸雲龍	8卷40回
《皇明中興聖烈傳(魏忠賢軼事)》	1628	樂舜日	5卷不分回
《檮杌閑評(明珠緣)》	1629	李淸	5卷50回

85) 이 표는 齊裕焜의 《明代小說史》(浙江古籍出版社, 1997), 張俊의 《淸代小說史》(浙江古籍出版社, 1997), 李忠明의 《17世紀中國通俗編年史》(安徽大學出版社, 2003)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遼海丹忠錄》	1630	陸人龍	8卷40回
《鎭海春秋》	1630경	懶道人	20回
《近報叢談平虜傳》	1630	吟嘯主人	20卷20則
《勦闖通俗小說》	1645		10回
《鐵冠圖分龍會》	順治	松滋山人	
《樵史通俗演義》	順治	陸應暘	8卷40回
《新世鴻勳(定鼎奇聞)》	1651	蓬蒿子	22回
《海角遺編(七峰遺編)》	1657	漫游野史	60回

시사소설은 일반적으로 서술되는 사건과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시간 사이의 간격이 한 세대인 30년을 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86] 명말청초에 나온 대부분의 시사소설의 경우 짧게는 수개월, 길어도 10년을 넘지 않고 출간되었다.[87] 이 시기 나온 시사소설은 크게 1) 魏忠賢과 관련된 이야기와 2) 명말 요동지방에서 일어난 전쟁을 둘러싼 이야기와, 이와 이어지는 이자성·오삼계, 淸의 入關, 남명 왕조에 관한 이야기의 두 부류로 나뉜다. 먼저 위충현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 소설로는 《警世陰陽夢》, 《魏忠賢小說斥奸書》, 《皇明中興聖烈傳(魏忠賢軼事)》, 《檮杌閑評(明珠緣)》이 있다.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소설로는《遼海丹忠錄》,《鎭海春秋》, 《近報叢談平虜傳》, 《勦闖通俗小說》, 《鐵冠圖分龍會》, 《末明忠烈傳》, 《新世鴻勳(定鼎奇聞)》,《海角遺編》,《樵史通俗演義》이 있다.

시사소설은 연구자에 따라 역사연의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제외시키기도 한다. 邸報나 筆記에서 보거나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등 단편적이고 불연속적인 정보를

86) 許軍, 〈明淸時事小說概念考〉(《瀋陽教育學院學報》, 第3期, 2006) 참고.

87) “시사 소설은 當代에 발생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제재로 하여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작품화한 소설로, 前代의 역사적인 사건을 골격으로 허구적으로 구성한 歷史演義小說과는 구별된다.”, “정리하자면 시사 소설은 1630년 전후부터 1660년 전후까지 대략 30년 정도에 유행하던 소설들로, 당시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최형섭, 〈출판문화의 보급과 지식의 성격 그리고 17세기 時事 小說〉(《중국문학》, Vol.59, 2009), 214-215쪽/ 220쪽.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다시 썼다는 점에서는 여러 사료를 가지고 편집 혹은 재구성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만든 역사연의의 창작방식과 유사하다. 역사연의보다 더욱 엄정하게 사실성을 추구했다고 보기도 하지만[88] 문언 자료를 백화로 쉽고 자세하게 풀어내는 과정에서 자료에는 없는 생생한 묘사와 대화가 추가되고 신이한 출생과 뛰어난 전투력 같은 초현실적인 이야기도 나타난다. 지식과 정보가 상품화되던 명대 출판시장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하나의 매체로 기능하였다는 사실[89]도 초기의 역사연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서사구조도 역사연의와 매우 유사하다. 대부분의 시사소설은 인물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연대기적으로 기술되며, 서술자는 보통 史官으로서의 태도와 수사를 취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시사소설 또한 역사연의의 한 변형으로 간주하였다.

16-17세기에 출간된 역사연의들은 사실의 정확성의 측면, 언어적 측면, 서사구조의 측면에서 다양한 편차를 보인다. 사실의 정확성의 측면에서 보면, 사서에 매우 근접한 것부터 역사적 사실을 서사의 얼개로만 이용하고 작가의 상상으로 서사를 구성하여 허구적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까지 다양한 역사연의가 출간되었다. 隋唐 계통 역사연의 가운데 《隋唐志傳》은 전자에 속하여 역사적 사실이 비교적 충실하게 서술되어 있으나 《隋煬帝艷事》에는 기이한 이야기들이 다수 들어있다. 《隋史遺文》의 경우 초현실적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반면 작가가 일부러 만들어 넣은 허구적인 사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언어적 관점에서 보면 《隋唐志傳》은 문언에 가까우나 《隋煬帝艷事》, 《隋史遺文》, 《隋唐演義》는 막힘없는 백화로 서술되었다. 서사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隋唐志傳》은 시간 순서에 따라 각 회의 사건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있는 반면 《隋煬帝艷事》, 《隋史遺文》은 각 회의 연결이 긴밀하며, 《隋唐演義》의 경우 전체 서사가 이전에 비해 매우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부터는 《隋唐志傳》, 《隋煬帝艷事》, 《隋史遺

88) 張平仁은 시사소설의 특징으로 ① 신문성 ② 역사연의에 비해 엄정한 사실성 ③ 사건의 중대성을 꼽았다. 張平仁, 《明末清初時事小說硏究》(南京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2), 第一章.

89) “시사 소설을 통하여 오늘날의 신문이나 잡지와 같이 동시대적인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하나의 상품으로 탄생되어 소비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최형섭, 〈출판문화의 보급과 지식의 성격 그리고 17세기 時事 小說〉, 218쪽.

文》,《隋唐演義》 네 편의 隋唐 계통 역사연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역사연의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隋唐志傳》 : 《資治通鑑》 다시-쓰기

1. 《隋唐志傳》의 출간과 성격

1.1. 판본과 체제

《唐書志傳》과 《隋唐志傳》은 隋唐 계통 역사연의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출간된 텍스트로, 초기 역사연의인 按鑑演義에 속한다. 《唐書志傳》은 총 90節로 李世民의 기의에서 시작하여 唐을 건국하고 太宗이 되어 당이 태평성세를 누리기까지의 일을 다루고 있다. 《隋唐志傳》은 총 123회로 隋末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작하여 당의 건국과 치세를 모두 거쳐 唐末의 僖宗에서 끝난다. 이 장에서는 이후 출간되는 隋唐 계통 역사연의와의 비교를 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다루고 있는 《隋唐志傳》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隋唐志傳》의 정확한 출간 시기를 알 수 없으나[90]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만력 47년(1619년)에 나온 姑蘇 龔紹山刊本으로 정식 명칭은 《鐫楊升庵批點隋唐兩朝史傳》이다. "東原貫中羅本編輯, 西蜀升庵楊愼批評"이라고 되어있으나 실제로 羅貫中이 지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으며, 楊愼(1488-1559)의 總批와 林瀚(1434-1519)의 〈隋唐志傳敍〉도 가탁일 가능성이 높다.[91] 총 12권 122회이나 제89회가 두 회로 되어있어서 실제로는 123회이다.

《隋唐志傳》의 체례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楊愼의 〈隋唐史傳序〉, 林瀚의 〈隋唐志傳敍〉가 나오고 이어서 7언으로 된 回目을 제1회부터 제122회까지 나열한 總目이 나온다. 각 回目은 각 회의 주요 내용을 축약하여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읽는 이는 총목을 훑어보는 것만으로 전체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92] 그 다음은

---

90)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隋唐志傳》이 명 정덕 연간(1506-1521) 즈음에 지어져 필사본으로 한동안 유전되다가 출간되었다고 본다. 彭知輝, 〈《隋唐志傳》成書年代考 -兼論明前期的"抄本小說"〉(《東南大學學報》, 第6期, 2004), 程毅中, 〈試探《隋唐兩朝志傳》的淵源〉(《內蒙古民族大學學報》, 第3期, 2008) 참고.

91) 沈伯俊, 〈《隋唐志傳》非羅貫中所作〉(《明清小說研究》, 第4期, 1997) 참고.

92) 《隋唐志傳》의 경우 삽화가 없지만 상도하문의 형식을 벗어난 이 시기의 소설은 전체

〈附錄〉으로 君臣姓氏가 나열되어 있다. '隋紀'로는 煬帝와 恭帝, '唐紀'로는 高祖부터 昭宣帝까지 스무 명의 황제와 그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적고[93] 그 뒤로는 隋唐代 황족, 후비, 군왕을 나열하였다. 이어서 황제별 재위 당시의 문무대신 목록을 통해 唐代의 현신과 무장, 문인을 망라하였다. 마지막으로 隋末에 참칭한 이들('僭僞隋紀')과 그들의 수하 장군 목록이 있다. 이러한 〈附錄〉의 목록은 일차적으로는《隋唐志傳》을 읽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다. 읽는 이는 이 목록을 살펴봄으로써 주요 등장인물을 알 수 있으며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간파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목록은 읽는 이에게 기초적인 역사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附錄〉에는 唐代의 모든 주요 문신과 무장의 이름이 황제의 재위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목록의 인물들 가운데 太宗代 이후의 인물들은 대부분《隋唐志傳》에 등장하지 않는다. 게다가 당시 관리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아예 출사하지 않은 文人들까지 모두 포함되었다는 사실로 볼 때, 〈附錄〉은《隋唐志傳》의 서사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역사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隋唐志傳》의 이러한 〈附錄〉은 楊愼의《歷代史略十段錦詞話》[94]를 떠올리게 한

삽화가 한꺼번에 첫 책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본문 중간에 삽화가 놓여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오키 야스시 著, 고인덕 譯,《중국 명말의 미디어 혁명: 서민이 책을 읽다》, 112-113쪽 참고. 이에 읽는 이는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를 삽화로 먼저 쭉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후에 분석할《隋煬帝艷史》,《隋史遺文》,《隋唐演義》는 모두 이러한 형식으로 삽화가 배치되어 있다. 반면 희곡은 본문 중간에 삽화가 들어간 경우가 종종 있다. 소설의 삽화는 서사에 대한 미리보기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희곡의 삽화는 장면을 설명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93) 예를 들어 양제의 경우 "煬帝의 이름은 楊廣이고 字는 阿摩이며 弘農 華陰 사람이다. 연호를 大業이라 하였으며 12년간 재위하였다가 39세에 죽었다.(煬帝楊廣, 字阿摩, 弘農華陰人, 改元大業, 在位十二年, 壽三十九歲)"라고 되어있으며, 恭帝의 경우 "恭帝의 이름은 楊侑이며 文帝의 손자이다. 연호를 義寧이라 하였으며 2년간 재위하였다가 15세에 죽었다.(恭帝名楊侑, 文帝之孫, 改元義寧, 在位二年, 壽十五歲)"라고 되어있다.

94)《二十一史彈詞》라고도 한다. 第1段 '總說'의 산문 부분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지금 역대 史書의 대략을 '攢十字' 詩詞로 엮었는데, 비록 말이 거칠고 성글며 겨우 대강을 알 수 있게 하지만 이야깃거리를 약간 제공해주는 까닭에 여러분께 바치는 바이다.(今將歷代史書大略, 編成一段'攢十字'詩詞, 雖然言語粗疏, 僅可略知大概, 少資談論,

다. 운문으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隋唐志傳》의 〈附錄〉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歷代史略十段錦詞話》 第7段 '隋唐'과 《隋唐志傳》의 〈附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유사한 부분이 많다. 시작 부분과 마무리 부분의 詞를 제외한 3·3·4구의 운문은 사실 절반 정도가 인물명과 지명이다. 특히 隋末에 봉기했던 65명의 이름과 그들의 거점을 하나하나 호명하는 부분은 하나의 목록처럼 읽힌다.[95] 《歷代史略十段錦詞話》에 대해 楊愼이라는 고급 문인이 정사에 기록된 사실을 엮어서 만들었으며, 이를 사람들이 암송하게 함으로써 역사를 통속화하였고, 이에 이후 남방에서 크게 유행하였다는 분석[96]을 받아들인다면 이와 유사한 《隋唐志傳》의 〈附錄〉 또한 역사지식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97]

〈附錄〉 뒤로 책의 내용을 7언의 운문으로 개괄한 〈敍述〉[98]이 나오고 제1회가 시작된다. 대개 10회가 한 권으로 되어 있으며 매 권의 서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일을 다뤘는지를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권1의 시작에는 "수 양제 대업 원년인 을축년부터 대업 13년인 정축년까지 대략 13년간의 일(隋煬帝大業元年乙丑歲起, 至于大業十三年丁丑歲止, 凡十三年事實.)"이라고 되어있다.

이렇게 시간 표지를 기록하는 방식은 《資治通鑑》, 《資治通鑑綱目》을 모방한 것이다. 《資治通鑑》은 매 권의 앞머리에 시간 표지를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권

以共知音.)" 이정재, 〈彈詞認識의 問題點과 彈詞槪念의 再定立〉(《중국문학》, Vol.57, 2008), 250쪽에서 수정 후 재인용.

95) 명대 탄사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악기를 반주로 하여 說唱이 이루어졌으니, 엄밀히 말하면 읽힌 것이 아니라 불리거나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明末부터 열독을 목적으로 한 탄사들이 출간되었으며 《歷代史略十段錦詞話》 또한 明刊本과 청대의 注解本이 여럿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미 읽히는 경우가 많았으리라 여겨진다. 이정재 또한 《歷代史略十段錦詞話》가 구어와 거리가 먼 문어체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공연되기보다는 오히려 문인들이 독서를 통해 감상하는 일이 더 많았으리라 보았다. 이정재, 《鼓詞系 講唱 硏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136-138쪽.

96) 陳修元, 〈是非成敗, 轉頭不空 －從楊升庵"滾滾長江東逝水"看傳統文人的歷史觀〉(《文史雜志》, 第4期, 2016) 참고.

97) 명말과 청대에는 《龍文鞭影》, 《幼學瓊林》처럼 변려문 또는 운문으로 쓰여 암송할 수 있는 간략한 역사가 통용되었다. 앤 매클라렌 著, 이지원·조관희·김효민 譯, 〈명말 새로운 독자층의 형성〉(《중국소설연구회보》, Vol.73, 2008), 24쪽.

98) 《唐書志傳》 제1권 첫머리에 실린 鍾谷子[熊大木의 호]의 〈述古風〉을 가져온 것이다. 〈述古風〉의 후반부는 白居易의 〈七德舞〉에서 왔다.

181〈隋紀五〉제일 앞머리에는 "戊辰年에서 壬申年까지 총 5년의 일이다(起著雍執徐, 盡玄黓涒灘, 凡五年.)"[99]이라고 되어있으며 본문은 "수 양제 대업4년 봄 정월 을사일에 조서를 내려 河北의 모든 군사와 백여만의 백성으로 하여금 永濟渠를 뚫고 沁水를 끌어들여 남쪽으로 황하에 이르게 하고 북쪽으로는 涿郡에 통하게 하였다(煬皇帝大業四年春正月乙巳, 詔發河北諸軍百餘萬衆穿永濟渠, 引沁水南達于河, 北通涿郡.)"로 시작한다.《資治通鑑綱目》도 매 권 앞머리에 시간 표지를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권38은 "戊辰年인 隋 煬帝 大業 4년에서부터 戊寅년 7월까지 총 10년의 일이다(起戊辰隋煬帝大業四年, 盡戊寅七月, 凡十年有奇)"라고 되어 있으며 바로 이어서 나오는 첫 번째 綱은 '대업4년 봄 정월 永濟渠를 개통하다(四年春正月開永濟渠)'이다.《資治通鑑》,《資治通鑑綱目》이 이와 같은 시간 표지를 기록한 것은 둘 다 해를 단위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편년체 사서이기 때문이다. 뒤에서 상술하겠지만《隋唐志傳》의 卷首에 남아있는 이와 같은 시간 표지는《隋唐志傳》이 시간을 축으로 역사적 사실을 엮은 편년체 통감류 사서를 모방한 결과로, 장회체 역사연의에 남은 편년체 사서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본문의 매 회는 개장시와 서술자의 논평 없이 바로 서사로 들어가며 마지막은 경우에 따라 '未知後事如何', '未知勝負如何'와 같은 상투구가 붙기도 한다. 본문 가운데 시가 들어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100] 매 회의 마지막에는 짧은 總批가 달려있다.《唐書志傳》과《隋唐志傳》은 주요 줄거리가 수의 패망과 당의 건국으로 같으며 또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었기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적인 전승관계에 있거나 같은 祖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101]

---

99) '著雍執徐'과 '玄黓涒灘'은 干支의 옛 이름으로 각각 戊辰年과 壬申年을 뜻한다.

100) 이후의 역사연의와 비교했을 때 초기 역사연의에는 본문 가운데 삽입되는 시의 숫자가 많지 않다.《隋唐志傳》의 경우 '麗泉'의 시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後人'과 '史官'이 지었다는 시도 몇 수 들어있다. '麗泉'은 清白堂의 主人인 楊麗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치는 않다.《隋唐志傳》에 삽입된 시는 대개 앞에서 서술된 역사적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논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1) 程毅中,〈試探《隋唐兩朝志傳》的淵源〉(《內蒙古民族大學學報》, 第3期, 2008) 참고.

1.2. 왕조 흥망성쇠의 기록

林瀚의 〈隋唐志傳敍〉는 《隋唐志傳》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서술하였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문장인 동시에 16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통속역사연의의 가장 전형적인 서문이기도 하다. 서문의 전반부는 다음과 같다.

> 《三國志》는 羅貫中이 편찬한 것이고 《水滸傳》은 錢塘의 施耐庵이 모아 만든 것이다. 두 책이 나란히 세상에 전해진 지 오래되어 뛰어난 선비들 가운데 이를 읽지 않은 이가 없다. 다만 唐代의 일은 서술한 책이 없어 전하는 것이 없으니 나는 이를 항상 안타깝게 여겼다. 지난해에 마침 京師에 머무를 때 이러한 책이 있는지 조사하여 구하여 읽게 되었다. 이 또한 羅氏가 쓴 것이 原本임을 알게 되었다. 한가할 때에 수당에 관한 책들을 쭉 살펴보고 거기에 실린 英君과 名將, 忠臣과 義士들 중 무릇 교화에 도움이 되는 이들을 모두 엮어 열두 권으로 만들었다. 《隋唐志傳通俗演義》라 이름붙인 것은 《三國志》, 《水滸傳》과 더불어 세상에 전해지면 여러 조대의 사실을 어리석은 이들이라도 한번 읽어보기만 하면 그 개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기를 바라서이다.
>
> 三國志羅貫中所編, 水滸傳則錢塘施耐庵集成. 二書並行世遠矣. 逸士無不觀之, 惟唐一代闕焉. 未有以傳, 予每憾焉. 前歲, 偶寓京師, 訪有此作, 求而閱之. 始知實亦羅氏原本. 因于暇日, 遍閱隋唐之書, 所載英君名將, 忠臣義士, 凡有關於風化者, 悉編爲一十二卷. 名曰: 隋唐志傳通俗演義, 欲蓋與三國志水滸傳並傳于世, 則數朝事實, 使愚夫愚婦, 一覽可概見耳. (林瀚, 〈隋唐志傳敍〉)[102]

林瀚은 唐代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전하기 위해 《隋唐志傳》을 썼으며, 그 가운데 교화에 도움이 되는 英君, 名將, 忠臣, 義士에 대해 기록하였고, 이는 '愚夫愚婦'로 표현되는 독자층을 위한 것임을 밝혔다. 실제로 《隋唐志傳》은 隋 文帝 재위시절에 훗날 煬帝가 되는 楊廣이 형인 楊勇의 태자위를 빼앗기 위해 음모를 세우는 일에서 시작하여 수가 망하고 당의 성세가 이어지다가 黃巢의 난이 일어나는 唐 僖宗代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실제 시간으로 따지면 605년부터 882년까지 약 28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隋와 唐의 왕조교체 과정이 제1회부터 제77회까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그 뒤로 당 고종, 무측천, 현종의 치세에 일어난 사건들이 대략 제110회까지 서술되

102) 羅貫中, 《隋唐兩朝史傳》(群衆出版社, 1997), ⅰ-ⅱ 쪽.

며 제122회 당 희종대에서 뚜렷한 마무리 없이 끝난다.

《隋唐志傳》은 기본적으로 隋唐의 정치, 군사, 외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隋末 군웅이 할거하는 어지러운 상황에서 李世民이 어떻게 부왕인 李淵을 설득하여 기의하였으며 唐의 건국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지가 가장 중점적으로,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수 양제의 사치와 향락, 고구려 원정의 실패로 인해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에 王世充, 李密, 竇建德, 劉武周 등은 자신들의 본거지를 바탕으로 세력을 키워 황제가 되려한다. 이세민 또한 그 와중에 천하를 도모할 뜻을 세우면서 그들 사이의 크고 작은 전투, 연합과 배신, 수하 장군들의 활약이 이어진다.

《隋唐志傳》의 초점은 당연히 역사의 주인인 이세민과 당의 건국에 맞춰진다. 제9회에서 처음 등장한 이세민은 천하를 도모할 뜻을 세우고 이연을 설득하여 기의한다. 제21회에서 이연은 칭제하여 당을 세우며 제77회에서 이세민이 형제를 죽이고 당 고조 이연의 선양을 받아 제위에 오른다. 이세민의 치세는 그가 죽는 제91회(제89회가 두 번 있어서 실제로는 92회)에서야 끝난다. 이렇게 《隋唐志傳》의 전체 123회 가운데 삼분지이 이상을 이세민에 관한 서사가 차지하고 있다. 제91회 이후로는 각 황제별로 주요 사건들, 예를 들면 무측천의 전횡, 안사의 난 등등과 같은 국가의 변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극복되었는지가 주로 서술되어 있다. 전반의 90여 회가 45년의 일을 다룬데 비해 후반의 30여 회는 약 230년의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후반은 내용이 소략하고 긴밀성도 떨어진다.

《隋唐志傳》의 등장인물은 모두 황제, 문신, 무장, 역적이다. 서사의 공간적 배경은 기본적으로 궁궐과 전쟁터를 벗어나지 않으며 서사는 철저하게 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전개된다. 예를 들어 변란이 일어나면 그 소식이 조정에 전해져 황제와 조정 대신들은 대책을 논의한다. 황제의 명에 따라 장군이 출전하여 전투를 치루고, 승리할 경우 황제가 내리는 상을 받지만 패배할 경우 벌을 받고, 때에 따라서 황제가 궁궐을 두고 피란길에 오르기도 한다. 나라 안의 각종 변란들은 왕조의 교체 혹은 황위의 승계와 연관되며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名士라 할지라도 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들은 서사에 등장하지 않는다.[103]

---

103) 예외적인 경우가 두 가지 있으니 제99회-제101회에 나오는 李白과 제119회-제120회에 나오는 韓愈이다. 앞서 언급했듯 《隋唐志傳》 후반부는 긴 시간의 일을 짧은 편폭에

이처럼 《隋唐志傳》의 서사는 수의 패망과 당의 건국, 외국과의 화친과 정벌, 황위 계승 등 왕조의 흥망성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인물은 사건과 관련된 한에서만 그 사건의 행위자로 서사화될 뿐 형상이 부각되지 않는다. 유일한 예외는 태종 이세민으로, 이는 결국 《隋唐志傳》의 핵심적인 서사가 당의 건국 과정이며 그 주인공은 이세민이기 때문이다. 《隋唐志傳》에서 나머지 역사적 인물들은 그들이 역사서사 혹은 공연서사에서 잘 알려진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전투에서의 뛰어난 역할이 이 강조될 뿐 개별적으로 형상화되지는 않는다. 초기 역사연의로서 《隋唐志傳》이 가지는 이러한 특징은 좀 더 뒤에 나오는 역사연의들과 구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隋唐志傳》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매우 소략한 편이다. 의미있는 작품으로 간주되지 않은 탓에 소설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연구도 소수에 불과하다.[104] 다만 최근 按鑑演義, 書坊小說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

담다보니 구성이 긴밀하지 않고 삽화적 서사가 많으나 조정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는 없다. 다만 이백이 외국에서 보내온 서신을 해독하고 이에 답신을 써 현종의 총애를 받는 사건과 한유가 憲宗에게 〈諫佛骨表〉를 올렸다가 潮陽으로 폄적되어 그곳의 백성들을 다스리다 죽음을 맞는 사건은 조정의 변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다가 서사의 초점도 조정이 아닌 이백과 한유에 맞추어져있다. 이는 唐代를 대표하는 두 문인을 소개하고 그들의 詩詞와 문장을 본문 안에 삽입하려는 목적에서 나타난 예외적인 경우로 보인다. 즉 이는 기본적인 역사지식을 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서 언급했듯 〈附錄〉에 실제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文名만 날린 문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104) 《隋唐志傳》에 관한 독립적인 연구는 10편에 불과하다.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이 가운데 沈伯俊, 彭知輝, 韓亞光이 쓴 세 편은 작가와 판본에 관한 연구이다.
沈伯俊, 〈《隋唐兩朝志傳》非羅貫中所作〉, 《明清小說硏究》, 第4期, 1997.
羅陳霞, 〈《唐書志傳》《兩朝志傳》的史傳傾向分析〉, 《鹽城師專學報》, 第一期, 1998.
李小菊, 〈論《隋唐兩朝志傳》中的詩詞歌賦〉, 《明清小說硏究》, 第1期, 2003.
彭知輝, 〈《隋唐志傳》成書年代考 －兼論明前期的"抄本小說"〉, 《東南大學學報》, 第6期, 2004.
歐陽健, 〈統一王朝的全史演義 －論《隋唐兩朝志傳》成書及文體創新〉, 《福州大學學報》, 第1期, 2004.
彭知輝, 〈論《隋唐志傳》對《三國演義》的抄襲與模仿〉, 《阜陽師範學院學報》, 第6期, 2006.
雷勇, 〈《隋唐志傳》的文體探索及其小說史意義〉, 《陝西理工學院學報》, 第1期, 2009.

작하면서 이러한 소설 유형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105]《隋唐志傳》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수렴된다. 첫째 초기 역사연의로서 史傳전통의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둘째 사실적인 부분은 사서에서 가져왔고, 허구적인 부분은 민간의 전설에서 그 내용을 취했으며, 셋째 서사 방식에 있어《三國演義》를 모방하였고, 넷째 높은 문학적 성취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역사서사와 문학작품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隋唐志傳》의 개략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더욱 섬세한 분석을 요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隋唐志傳》이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정통적인 역사서사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 민간전설 혹은 허구적인 내용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서사화되는지, 愚夫愚婦에게 역사를 알리고자 한 서문의 목적은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주지 못한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隋唐志傳》을 역사서사에서 소설로 가는 발전과정의 중간 단계로 전제하지 않고 텍스트 자체에 주목하여,《隋唐志傳》이 구체적으로 역사서사, 민간전설 그리고《三國演義》의 어떤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였는지, 그리하여 어떠한 서사를 만들어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원천서사의 수용 양상

2.1. 정통 역사서사 :《資治通鑑》,《資治通鑑綱目》

앞서 Ⅱ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초기 역사연의는 표제의 '按鑑' 또는 '志傳'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史書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蘇燾, 〈論《隋唐志傳》的創作結構及對明後期歷史類小說的影響〉, 《文獻季刊》, 第3期, 2009.

程毅中,〈試探《隋唐兩朝志傳》的淵源〉,《內蒙古民族大學學報》, 第3期, 2008.

韓亞光〈羅貫中與《隋唐志傳》等四部小說的真實關系〉,《前沿》, 第6期, 2018.

105) 塗秀虹, 〈"按鑑" : 明代歷史演義的編撰方式及其意義〉(《福建師範大學學報》, 第1期, 2011), 王菊芹,〈論書坊主對明代歷史演義小說的影響〉(《殷都學刊》, 第2期, 2009.) 참고.

사서 가운데도 특히《資治通鑑》,《資治通鑑綱目》등 통감류 사서를 원천서사로 삼았다. 孙楷第는 명대 書坊에서 나온 역사연의들이 五代 이전의 故事는 대개 朱熹의《資治通鑑綱目》을, 宋元 이후의 일은 明 陳桱의《資治通鑑續編》과 商輅의《資治通鑑綱目續編》을 베꼈다고 하였다.[106] 紀德君은 자신의 일련의 연구에서 역사연의가 則(혹은 回)을 나누고 각각의 則目(혹은 回目)을 세운 것은《資治通鑑綱目》綱目體[107]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資治通鑑綱目》의 삼국시기 條目과 嘉靖本《三國志演義》의 則의 제목을 비교하면 어휘 사용이 매우 유사하며 각 則의 서사구조, 세부적 묘사 등도《資治通鑑》,《資治通鑑綱目》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즉《三國志演義》의 소재는 陳壽의《三國志》, 裴松之의 注, 范曄의《後漢書》, 三國戲,《三國志平話》, 민간전설 등 여기저기에서 가져왔지만 실질적으로는 朱熹의 정통론과《資治通鑑綱目》의 서사형식에서 받은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108]

《隋唐志傳》또한《資治通鑑綱目》을 직접적으로 수용한 부분이 많다. 특히《隋唐志傳》의 장회체는《資治通鑑綱目》의 강목체와 강한 유사성을 보인다.《隋唐志傳》의 回目과《資治通鑑綱目》의 綱을 비교하면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隋唐志傳》제11회의 회목인 '李淵遣使如突厥'은《資治通鑑綱目》권37 '丁丑十三年'의 綱 가운데 '六月李淵遣使如突厥'을 가져온 것이다. 이 부분의 目은 다음과 같은데 논의를 위해 ⓐ, ⓑ, ⓒ, ⓓ로 나누었다.

> ⓐ 李建成과 李元吉은 아우 智雲을 河東에 버려두고 떠나니 관리가 그를 잡아 장안으로 보내 죽였다. 6월 이건성과 이원길은 柴紹와 함께 晉陽에 이르렀다. ⓑ 劉文靜은 李淵에게 突厥과 연합하여 그들의 군사와 말을 빌어 군세를 늘리라고 권하였다. 이연은 그

106) 孫楷第,《中國通俗小說書目》(人民文學出版社, 1982), 2쪽.

107) 綱目體란 綱을 먼저 두어 역사적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제시한 후 이어지는 目에서 이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는 형식이다. 주희의《資治通鑑綱目》에서 시작되었다.

108) 紀德君,〈"通鑑"類史書 : 中國講史小說之前源〉(《社會科學》, 第8期, 2003), 115-116쪽, 紀德君·洪哲雄,〈試論《資治通鑑》、《資治通鑑綱目》與按鑑演義小說之關系〉(《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第2期, 1999), 14쪽, 紀德君,〈明清歷史演義小說的編創方式及其演變〉(《社會科學》, 第7期, 2008), 163-164쪽 참고.

말을 따라 직접 手啓를 써서 자신을 낮추고 예를 다하여 始畢可汗에게 보내어 말하였다. "義兵을 일으켜 主上을 맞이하여 다시 돌궐과 화친을 맺으려합니다. 만약 저와 함께 남쪽으로 가고자 한다면 원컨대 백성들을 해치거나 노략질하지 마십시오. 만약 화친을 맺게 되면 앉아서 금은보화를 받을 것이니 오직 가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 시필가한은 手啓를 받고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隋 군주의 사람됨은 내가 알고 있소. 만약 맞아들인다면 반드시 唐公을 해치고 나를 공격할 것이 분명하오. 唐公이 스스로 천자가 되면 내 마땅히 병마로 그를 돕겠소." 그리고 이와 같은 뜻으로 답서를 쓰라고 명하였다. 사자가 7일만에 돌아왔다. ⓓ 장군과 신하들이 모두 기뻐하며 돌궐의 말을 따를 것을 청하였다. 이연은 그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하들에게 그 다음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하였다. 배적 등은 天子를 높여 太上皇으로 삼고 代王을 세워 황제로 삼아 이로써 수의 황실을 안정시키고 군현에 격문을 돌리고 깃발을 바꾸어 붉은색과 흰색을 섞어 돌궐에 보이자고 하였다. 이연은 "이는 '눈 가리고 아웅[掩耳盜鈴]'이라고 하는 것이나 상황에 쫓기니 부득이한 일이다."라고 하고는 허락하였다. 사자를 보내 이로써 돌궐에 고했다.

ⓐ 李建成、李元吉棄其弟智雲於河東而去，吏執送長安，殺之．六月建成元吉與柴紹偕至晉陽．ⓑ 劉文靜勸李淵與突厥相結，資其士馬以益兵勢．淵從之，自爲手啓，卑辭厚禮，遣始畢可汗云，欲擧義兵，迎主上，復與突厥和親，若能與我俱南，願勿暴掠百姓．若但和親，坐受寶貨，亦唯可汗所擇．ⓒ 始畢得啟，謂其大臣曰，隋主爲人，我所知也．若迎以來，必害唐公，而擊我無疑矣．苟唐公自爲天子，我當以兵馬助之．即命以此意爲復書．使者七日而反．ⓒ 將佐皆喜，請從突厥之言．淵不可．曰諸君宜更思其次．寂等乃請尊天子爲太上皇，立代王爲帝，以安隋室．移檄郡縣，改易旗幟，雜用絳白，以示突厥．淵曰，此可謂掩耳盜鈴，然逼於時事，不得不爾，乃許之．遣使以此告突厥.[109]

《隋唐志傳》 제11회는 세 가지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서사화하고 있다. 첫 부

109) 朱熹,《朱子全書》(上海古籍出版社 ; 安徽教育出版社, 2002), 第10冊, 2095쪽.《資治通鑑綱目》의 이 부분은《資治通鑑》권183 隋紀七에서 권184 隋紀八에 걸친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資治通鑑》과《資治通鑑綱目》은 둘 다 사건을 발생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록했으나 시간을 나누는 기준은 서로 달랐다.《資治通鑑》이 황제나 왕조의 교체에 따라 시간을 나눈 반면《資治通鑑綱目》은 干支에 따라 해를 구분하여 일 년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예문의 사건도《資治通鑑》에서는 권183 '煬皇帝大業十二年'과 권184 '恭皇帝義寧元年' 두 권에 나누어 기록되었는데《資治通鑑綱目》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하나의 '綱'으로 통합하였다.

분은 회목에서 언급한대로 이연이 돌궐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줄거리는《資治通鑑綱目》의 目과 일치한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더 쉬운 표현으로 고친 부분도 있고 없는 이야기를 덧붙인 부분도 있으며 문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쓴 부분도 있다. ⓐ 부분은《資治通鑑綱目》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되 더욱 쉽고 분명한 표현으로 바꾸었다.

> ⓐ 이 때 李建成과 李元吉은 河東에 있다가 부친이 두 사람을 부르자 아우 智雲을 하동에 두고 떠났다. 지운은 홀로 남게 되자 관리에 의해 장안으로 압송되어 죽임을 당했다. 이건성과 이원길은 柴紹와 함께 晉陽에 이르렀다.
> ⓐ 此時建成、元吉在河東，聞父命召二人遂棄其弟智雲於河東而去．智雲孤力，被吏執送長安殺之．建成、元吉與柴紹皆到晉陽.[110]

ⓑ의 경우 화친의 필요성을 유세하는 유문정과의 구체적인 대화가 추가되고 이에 이연은 망설이다가 생각을 바꾼다.

> ⓑ 유문정이 나아가 말했다. “지금 돌궐이 강성하여 누차 우리의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돌궐과 거리가 멀지 않아 만약 우리가 거병하면 돌궐의 병마가 세차게 들이닥칠 것이니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피하기 힘든 우환입니다.” 이연이 말했다. “어찌 해야 하는가?” 유문정이 대답했다. “옛사람이 이르길, ‘올바른 것을 따르고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111]라고 했습니다. 저기를 안정시켜 여기를 취하고, 멀리 있는 이와 사귀고 가까이 있는 이를 공격하는 것은 霸者의 道입니다. 명공께서 천하를 취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사람을 시켜 서신을 보내고 금과 비단을 후하게 보내 돌궐에 칭신하십시오. 그리하면 저들의 병마를 빌려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저들이 우리를 침범하는 우환도 절대 없을 것이니 우리는 태산 같은 평안을 얻어 천하를 얻는 것을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연이 말했다. “돌궐과 중국은 같은 하늘 아래에 있을 수 없는 원수이다. 내가 황제가 되려 하는데 어찌 그에게 칭신할 수 있겠는가?” 유문정이 말했다. “명공의 말씀은 잘못되

---

110) 羅貫中,《隋唐兩朝史傳》, 53쪽.

111) “무릇 仁人은 그 마땅한 바를 바르게 하여 이익을 꾀하지 않으며 도리를 밝히되 그 공을 헤아리지 않는다(夫仁人者, **正其誼不謀其利**, 明其道不計其功.)”《漢書》,《二十四史全釋》(漢語大詞典出版社, 2003). 1208쪽.

었습니다. '큰 나라로 작은 나라를 섬기는 것은 천리를 즐기는 자이다.'[112]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 예로써 대하고 나중에 공격해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연이 말하였다. "그 말이 맞다." 이에 유문정을 사신으로 보내며 황금 이백 냥과 촉의 비단 천 필을 주어 시필가한을 만나도록 하였다.

ⓑ 文靜進曰: "目今突厥強盛, 累爲吾患. 地勢相去不遠, 倘知擧事, 人馬洶湧而至, 何以迎敵? 實爲心腹之病." 淵曰: "何以待之?" 文靜曰: "古人有云, '正其誼, 不謀其利; 安彼取此, 遠交近攻, 伯者之道也. 明公欲取天下, 可先令人奉書, 厚遺金帛, 稱臣於突厥, 借其人馬, 倚以爲助, 彼必無侵犯之患, 而我得泰山之安, 天下不足憂矣." 淵曰: "突厥與中國不世之仇, 吾既爲帝, 安可稱臣於彼?" 文靜曰 : "明公之言謬矣, 以大事小者, 樂天者也. 今吾先禮而後兵之, 亦無不可." 淵曰 : "此言甚善." 便遣文靜爲使, 將黃金二百兩, 蜀錦千匹, 進見始畢可汗.[113]

ⓓ의 경우 《資治通鑑綱目》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 장군과 신하들이 모두 돌궐의 말을 따라 황제로 칭할 것을 청하였다. 이연은 그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하들에게 그 다음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하였다. 배적은 天子를 높여 太上皇으로 삼고 代王을 세워 황제로 삼아 이로써 수의 황실을 안정시키고 군현에 격문을 돌리고 깃발을 바꾸어 붉은색과 흰색을 섞자고 하였다. 이연은 "이를 '눈 가리고 아웅[掩耳盜鈴]'이라고 하는 것이나 상황에 쫓기니 부득이한 일이다."라고 하고는 비로소 이를 따랐다. 사자를 보내 이로써 돌궐에 고했다.

ⓓ 諸將佐請從突厥之言, 先立帝號. 淵以爲不可, 曰諸君宜更思其次. 裴寂曰可尊天子爲太上皇, 立代王爲帝, 以安隋室. 然後移檄郡縣, 改易旗幟, 雜用絳白. 淵曰, 此可謂掩耳偷鈴, 然逼於時事, 不得不爾, 淵始從之. 復遣使以告突厥.[114]

제11회의 이어지는 둘째 부분은 이연이 거병하여 스스로가 大將軍이 되어 신

112) "큰 나라로 작은 나라를 섬기는 것은 천리를 즐기는 자이고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천리를 두려워하는 자이다. 천리를 즐기는 자는 천하를 보전할 수 있고 천리를 두려워하는 자는 나라를 보전할 수 있다.(**以大事小者, 樂天者也.** 以小事大者, 畏天者也. 樂天者, 保天下. 畏天者, 保其國.)" 《孟子注疏》(北京大學出版社, 2000), 44쪽.

113) 羅貫中, 《隋唐兩朝史傳》, 53-54쪽.

114) 羅貫中, 《隋唐兩朝史傳》, 54쪽.

하들에게 관직을 내리는 내용이고, 마지막인 셋째 부분은 이세민이 이연의 명에 따라 西河를 공격하여 郡丞인 高德儒를 처형하는 내용이다. 이는《資治通鑑綱目》의 '六月李淵遣使如突厥' 바로 뒤에 이어지는 綱인 '李淵遣世子建成及世民擊西河郡防之斬郡丞高德儒'와 '李淵自稱大將軍開府置官屬'을 순서를 바꾸어 서사화한 것이다.[115] 즉《隋唐志傳》은 사건의 발생 순서를 바꾸어 고덕유가 이연의 거병에 반대하고 이에 이세민이 이연의 명으로 고덕유를 공격하는, 원인과 결과가 한 회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서사로 재구성하였다.

정리하자면《隋唐志傳》제11회는《資治通鑑綱目》에서 하나의 綱을 가져와 회의 회목으로 삼고 본문은 연이어 나오는 세 조목의 綱에 대한 目을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풀어서, 때로는 내용을 보충하여, 때로는 사건의 순서를 바꾸어 재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사를 구성한 예는 비단 제11회에만 해당되지 않는다.《隋唐志傳》에는 이처럼 回目이《資治通鑑綱目》에서 온 경우가 많다. 胡海義는《隋唐志傳》의 回目이《資治通鑑綱目》의 綱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것이 30개라고 하였으나[116] 실제로는 이보다 많다. 예를 들어 제20회의 회목은 '化及鴆殺少帝'인데 이에 해당하는《資治通鑑綱目》의 綱은 '隋宇文化及弑秦王浩自稱許帝'이다. 이 부분의 目에서는《資治通鑑》을 따라 '弑'가 아닌 '鴆殺'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그 밑에 書法을 따로 두어 綱에서 '弑'라고 표현한 이유를 밝혔다.[117] 결국 제20

115) 이 부분에 대한《資治通鑑》의 기록과《資治通鑑綱目》目의 기록은 거의 동일하다.

116) 胡海義,〈明代早期歷史演義小說回目考論〉(《文史哲》, 第3期, 2014), 140쪽의 '表三.《隋唐兩朝志傳》部分回目與《綱目》相關綱文對照一覽表' 참고. 胡海义는 제5회, 제7회, 제10회-제14회, 제41회, 제43회, 제45회, 제63회, 제78회-제81회, 제95회, 제96회, 제104회, 제106회-제109회, 제111회, 제105회-제107회, 제121회의 총 30회가《資治通鑑綱目》의 綱에서 회목을 가져왔다고 분석하였다.

117) "【書法】秦王 浩는 어찌하여 황제가 되지 못하는가? (《資治通鑑》에서는) 본래 즉위하였을 때도 '秦王 浩'라고 썼고, 시해 당했을 때도 '秦王 浩'라고 썼다. 그렇다면 (《資治通鑑綱目》에서는) '弑'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우문화급이 이전에 이미 진왕을 옹립하였으므로 '弑'라고 쓰지 않는다면 난신이 군주를 주살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資治通鑑》에서는) 본래 우문화급을 말할 때 여러 번 '隋'라는 글자를 쓰지 않았지만, 이에 (《資治通鑑綱目》에서는) 다시 '隋'를 붙여서 쓰니, 그가 시해한 것으로 바로 잡았기 때문이다.(秦王浩, 何不成之爲帝也. 故立書秦王浩, 弑書秦王浩, 然則其書弑何. 化及前既立之, 不書弑, 則亂臣得以逭其誅矣. 故化及嘗再三不書隋, 於是復書,

회의 회목 또한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마찬가지로《資治通鑑綱目》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隋唐志傳》의 回目 가운데《資治通鑑綱目》의 綱을 수용한 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6〉《隋唐志傳》의 回目과《資治通鑑綱目》의 綱 비교

《隋唐志傳》의 回目	**《資治通鑑綱目》의 綱**
제5회 楊玄感兵起黎陽	楊玄感起兵黎陽 (卷37)
제7회 翟讓李密據洛倉	翟讓李密據興洛倉 (卷37)
제10회 世民說李淵起兵	李淵起兵太原 (卷37)
제11회 李淵遣使如突厥	李淵遣使如突厥 (卷37)
제12회 唐兵大破宋老生	李淵與宋老生戰斬之 (卷37)
제13회 李淵合兵圍長安	李淵合諸兵圍長安 (卷37)
제14회 李淵奉迎立代王	李淵立代王侑爲皇帝 (卷37)
제16회 王世充東都救援	王世充救東都 (卷38)
제18회 李密誘殺翟讓	李密誘翟讓殺之 (卷38)
제19회 化及江都弑煬帝	化及弑其君廣於江都 (卷38)
제20회 化及鴆殺少帝	隋宇文化及弑秦王浩 (卷38)
제21회 李淵受禪即帝位	唐王淵称皇帝 (卷38)
제41회 元吉逃回長安城	齊王元吉奔長安 (卷38)
제43회 唐殺民部劉文靜	唐殺其民部尚書劉文靜 (卷38)
제45회 李世勣復歸大唐	李世勣復歸於大唐 (卷38)
제63회 李世民興兵伐鄭	秦王世民督諸軍伐鄭 (卷38)
제64회 竇建德興兵救鄭	夏王建德將兵救鄭 (卷38)
제70회 孝恭李靖破蕭銑	孝恭李靖伐梁梁主銑降 (卷38)

所以正其弑也.)" 朱熹,《資治通鑑綱目》, 卷38, 위의 책, 2124쪽. '秦王浩'를 '少帝'라고 표현한 것은 서사의 定型化와 관련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상술할 것이다.

제78회 李靖陰山破突厥	李靖襲破突厥於陰山 (卷39)
제79회 玄武門奏七德舞	宴玄武門奏七德九功舞 (卷39)
제80회 太宗廢太子承乾	太子承乾謀反廢爲庶人 (卷40)
제81회 薛延陀納幣絕婚	薛延陀來納幣詔絕其婚 (卷40)
제95회 李敬業起兵匡復	李敬業起兵揚州 (卷41)
제96회 李孝逸兵敗敬業	李敬業取潤州李孝逸擊殺之 (卷41)
제104회 眞源令張巡起兵	眞源令張巡起兵 (卷44)
제106회 哥舒翰靈寶戰賊	哥舒翰與賊戰於靈寶 (卷44)
제107회 回馬嵬驛楊氏伏誅	馬嵬楊國忠及貴妃楊氏伏誅 (卷44)
제108회 張許協守睢陽城	張巡入睢陽與許遠拒禦之 (卷44)
제109회 睢陽城張許死節	防睢陽張巡許遠死之 (卷44)
제111회 郭子儀大破吐蕃	郭子儀擊之吐蕃遁去 (卷45)
제115회 李晟斬汶復京城	李晟等收復京城 (卷47)
제116회 李希烈殺顔眞卿	顔眞卿爲李希烈所殺 (卷47)
제117회 陳仙奇毒殺希烈	陳仙奇殺李希烈 (卷47)
제118회 李愬雪夜克蔡州	李愬夜襲蔡州 (卷48)
제121회 柳公權用筆諫帝	柳公權爲諫議大夫 (卷47)
제122회 王仙芝大寇荊南	王仙芝冦荊南 (卷51)

표에서 보이듯《隋唐志傳》의 회목 가운데《資治通鑑綱目》의 綱에서 온 것은 모두 36개로, 이는《隋唐志傳》이《資治通鑑綱目》의 내용뿐만 아니라 '綱-目'의 형식을 같이 수용하였음을 보여준다.《隋唐志傳》의 회목이《資治通鑑綱目》의 綱과 다른 부분은 대개《資治通鑑綱目》이 아닌《資治通鑑》을 원천서사로 삼거나 혹은 비정통 역사서사나 공연서사 등을 수용한 부분들이다. 예를 들어《隋唐志傳》제3회 '竇建德兵殺郭絢'과 제4회 '楊義臣掃清河北'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 양제의 실정으로 도처에 도적이 들끓자 楊義臣은 군사를 이끌고 張金稱, 高士達, 竇建德

을 물리친다. 이후 양의신은 상소를 올려 양제에게 나라의 위급한 사정을 알리고 정사를 돌볼 것을 간언하지만 虞世基 등의 방해로 오히려 관직에서 쫓겨난다. 이 일은 《資治通鑑綱目》에는 없고 《資治通鑑》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은 《資治通鑑》을 원천서사로 삼고 '綱-目' 형식에 맞추어 7언으로 회목을 만들어 넣었다. 정리하자면 《隋唐志傳》은 《資治通鑑綱目》의 '綱-目' 형식을 '회목-본문'의 장회체로 변형하여 수용하였으며 《資治通鑑綱目》이 아닌 다른 원천서사를 수용한 경우 이러한 체제에 맞추어 그 내용을 축약하여 회목으로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118]

《隋唐志傳》이 《資治通鑑綱目》의 형식적 특징까지 모방한 까닭에 둘 사이의 관계가 도드라져 보이지만 실제로 《隋唐志傳》이 서사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원천서사로 가장 많이 수용한 것은 《資治通鑑》이다. 《資治通鑑綱目》은 《資治通鑑》을 축약하고 정리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록된 내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資治通鑑綱目》의 目이 《資治通鑑》의 본문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資治通鑑》을 원천서사로 간주하면 《隋唐志傳》은 대체로 《資治通鑑》의 본문 가운데 필요한 조목만 골라낸 후 《資治通鑑》의 순서 그대로 하나의 서사로 엮어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隋唐志傳》의 제1회부터 제22회까지는 《資治通鑑》 卷179 隋紀3에서부터 卷187 唐紀3까지의 기록을 원천서사로 삼아 필요한 내용을 고른 후 이를 이어 붙여 서사화한 것이다. 《隋唐志傳》의 이 부분은 앞서 제11회의 예에서 본 것과 같이 원천서사인 《資治通鑑》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도 하고 때로는 보충하여 늘여 쓰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의 배치를 바꾸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순서와 등장하는 인물이 모두 《資治通鑑》과 일치한다. 이어지는 제23회에서 제30회까지는 竇建德 세력이 양제를 시해한 宇文化及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資治通鑑》 卷187 唐紀3의 간략한 기록을 완전히 재구성하여 다시 쓴 것으로 제4회에서 간신들에 의해 물러난 楊義臣이 다시 나타나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상대 간에 지략을 대결하는 등 사건에 있어서나 인물에 있어서나 정통 역사서사의 기록과는 다르게 서사화된

118) '傳'을 통해 史書를 보완, 해석하는 방식은 《春秋》와 《左傳》의 관계에서 보이듯 그 기원이 오래되었다. 그러나 《左傳》의 경우 《春秋》의 본문을 직접 지정하여 풀이하는 방식을 쓰지는 않았다.

다.[119] 이처럼 《資治通鑑》과 《資治通鑑綱目》은 분량에 있어서도 《隋唐志傳》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전체 서사의 가장 큰 줄기가 되어 다른 원천서사들을 그 안으로 섞여들게 한다는 점에서 《隋唐志傳》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2. 공연서사 : 元 雜劇

《隋唐志傳》에는 史書에는 기록되지 않았거나 혹은 아주 소략한 기록만 있는 사건을 한 회 혹은 여러 회에 걸쳐 서사화한 경우들이 있다. 대개는 唐을 건국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크고 작은 전투 혹은 이민족과의 싸움에서 벌어졌던 영웅담들이다. 그런데 사서에는 없는 이러한 내용을 다룬 원 잡극들이 남아있어 이를 《隋唐志傳》과 비교해볼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이 항상 정통 역사서사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唐代에 이미 《大業拾遺記》, 《大唐新語》, 《隋唐嘉話》처럼 수의 패망과 당의 건국에 대한 많은 비공식적 기록들이 성행하였으며, 宋元代의 講史에서도 隋唐에 관련된 고사들이 많이 연행되었다. 王惲(1227-1304)이 당시 유명한 여성 설화인이었던 高秀英에게 준 詞 〈鷓鴣引·贈馭說高秀英〉은 다음과 같다.

짧은 비단 저고리에 엷은 화장,	短短羅袿淡淡妝,
붉은 소매를 털며 무대에 오르네.	拂開紅袖便當場.
부채를 뒤집었다 폈다 하니 노래는 구슬이 꿰인 듯하고,	掩翻歌扇珠成串,
아름다운 말 내뱉으니 그 소리는 향기로운 옥 같네.	吹落談霏玉有香.
漢魏부터 隋唐까지,	由漢魏, 到隋唐,
누가 이들더러 그 흥망을 상관하게 하였나?	誰教若輩管興亡.

119) 조정에서 물러난 후 은거하던 楊義臣이 淩敬의 주선으로 竇建德의 휘하에 들어가서 宇文化及와 싸워 이긴 후 홀연히 사라진다는 내용의 원천서사는 찾지 못하였다. 다만 《舊唐書》의 竇建德 列傳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두건덕이 고사달에게 말하였다. ‘그동안 보아온 수의 장수 가운데 군사를 잘 쓰는 이는 오직 양의신뿐이네.’(建德謂士達曰, 歷觀隋將, 善用兵者, 唯義臣耳.)” 《舊唐書》, 《二十四史全釋》(漢語大詞典出版社, 2003), 1765쪽.

백 년 세월이 결국 한바탕 놀이지만 百年總是逢場戲,
박판과 문추로는 쉽게 감당하지 못하리. 拍板門錘未易當.[120]

隋唐 계통 講史의 대본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설창의 형식으로 隋唐시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연행되었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간접적인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원의 잡극은 대본이 남아있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원 잡극 가운데 隋唐시기의 역사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은 총 12편이며 그 가운데《隋唐志傳》과 내용이 겹치는 것은 총 8편이다. 隋唐 교체기를 다룬 여러 잡극의 내용은 대개 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나, 잡극 작품끼리는 내용이 유사하거나 이어지고 또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민간에서는 이 시기에 관한 비교적 완정한 스토리가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21] 또 설인귀를 주인공으로 한 平話, 雜劇, 詞話가 모두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민간에서 설인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유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隋唐志傳》 가운데 원 잡극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7〉《隋唐志傳》에 수용된 元 雜劇 목록[122]

제목	작가	수록회차	비고
〈程咬金斧劈老君堂〉		제31회	《脈望館鈔校本古今雜劇》 수록
〈魏徵改詔風雲會〉		제31회	《脈望館鈔校本古今雜劇》 수록
〈長安城四馬投唐〉		제36회, 제38회	《脈望館鈔校本古今雜劇》 수록
〈徐茂公智降秦叔寶〉		제47회, 제48회	《脈望館鈔校本古今雜劇》 수록
〈尉遲恭鞭打單雄信〉		제61회	《脈望館鈔校本古今雜劇》 수록

120) 王惲,《秋澗集》(中國基本古籍庫 [electronic resource])
121) 徐燕,《隋唐故事考論》(揚州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116-131쪽.

〈尉遲恭單鞭奪槊〉	尙仲賢	제62회	《元曲選》 수록
〈唐李靖陰山破虜〉		제78회	《脈望館鈔校本古今雜劇》 수록
〈賢達婦龍門隱秀〉		제83회	《脈望館鈔校本古今雜劇》 수록

이 가운데 〈程咬金斧劈老君堂〉을 원천서사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제31회를 자세히 살펴보자. 王世充을 토벌하기 위해 출정한 이세민은 신료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李密의 본채에서 가까운 北邙山으로 사냥을 갔다가 이밀의 수하인 程咬金과 秦叔寶에게 홀로 쫓기게 된다.

(이세민이) 황급히 도망가고 있는데 마침 앞에 古廟가 나타났다. 편액에 크게 '老君堂'이라고 쓰여 있으니, 그 사당은 노자가 수도를 했던 곳으로 전해져 지난 날 周王이 지은 것이었다. 기둥과 문설주는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고 지붕받침은 화려한 무늬로 꾸며져 있었다. 이 묘는 매우 신령한 곳이었다. 진왕은 보자마자 말에서 내려 묘 안으로 들어가 숨었다. 진왕은 속으로 기도했다. '신령께서 나를 구하셔서 이 재난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 묘당을 중수하고 보석으로 상을 세우고 금으로 장식하겠습니다.'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묘문 밖에서 사람과 말의 소리가 들렸다. 진숙보, 정지절 두 사람이 쫓아와 山門이 굳게 닫힌 것을 보고 정지절은 손에 月斧를 쥐고 廟門을 부수어 열고는 단번에 들어왔다. 진왕은 이미 寶桌의 밑에 숨어있었다. 정지절이 묘에 들어와 사방으로 찾다가 보탁 밑에 숨은 것을 발견하였는데, 붉은 빛이 이세민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紫霧가 공중을 뚫고 올라가니 연무 속에서 발톱이 여덟 개인 금룡이 나타났다. 정지절이 도끼를 잡고 베려고 돌아섰는데 진숙보가 眞主를 알아보고는 손으로 쌍간을 돌려 막으니 도끼가 한쪽으로 밀려났다. 정지절이 놀라 바닥으로 피했다. 진숙보가 말하였다. "목숨을 해치지 말고 잡아다가 위공께서 처분하시도록 하게." 정지절은 곧바로 앞으로 가서 진왕을 돌려세워 포박하여 이밀에게 데려갔다.

正在慌速, 恰值前面一座古廟, 牌書大字老君堂, 其堂相傳老子修道之所, 乃昔周王所造. 雕梁畫閣, 鬥拱花紋. 此廟極是靈驗. 秦王一見下馬, 奔入廟內逃躲. 秦王暗禱: 神靈救我,

122) 이 표는 徐燕, 위의 논문, 116-132쪽과 彭知輝, 〈論元雜劇中的隋唐故事〉(《中南大學學報》, 第6期, 2004)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若得脫離此難, 重修廟宇, 寶像妝金. 祝猶未了, 廟門外人馬喧嚷. 叔寶、知節二人趕至, 見山門緊閉, 知節手持月斧, 劈開廟門, 一擁而入. 秦王先已縮避於寶桌之下, 知節入廟, 四下搜尋, 見避在寶桌之下, 只見紅光罩體, 紫霧騰空, 煙霧之中, 現出八爪金龍. 知節持斧便砍轉過, 叔寶知是眞主, 手輪雙鋼一架, 其斧隔在一邊. 知節驚閃在地, 叔寶曰:“勿傷性命, 擒見魏公發落.”知節即向前扭過秦王, 捆縛來見李密.(《隋唐志傳》 제31회)

이후 李淵은 이밀의 진채에 감금된 이세민을 구하기 위해 劉文靜을 사자로 보내지만 유문정까지 옥에 갇히게 된다. 이후 이밀이 출정을 나간 사이 魏徵, 徐世勣, 秦叔寶는 이세민이 眞主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밀의 조서를 위조하여 사사로이 그를 풀어준다. 사서에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급박한 戰勢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는 제31회에서 시작하여 제33회에서 끝난다. 다음으로 잡극 〈程咬金斧劈老君堂〉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123]

【楔子】 이세민은 신하와 군대를 이끌고 왕세충과 싸우기 위해 출정한다.
【第一折】 신료들의 반대에도 북망산으로 사냥을 나간 이세민은 이밀의 장수 정지절과 진숙보에게 붙잡힌다.
【第二折】 이세민을 구하러 온 유문정은 같이 옥에 갇히고 위징, 진숙보, 서세적은 이밀이 출정을 나간 사이 조서를 위조하여 몰래 이세민을 풀어준다.
【楔子】 이세민은 秦叔寶, 段志玄, 馬三寶를 데리고 출정하여 蕭銑과 싸운다.
【第三折】 李靖은 남쪽으로 보냈던 정탐병을 통해 이세민이 이끄는 당군이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듣는다.
【第四折】 장수들을 데리고 장안으로 개선한 이세민은 당에 투항한 程咬金을 만나 지난 원한을 용서해준다.

이세민이 程知節[程咬金]과 秦叔寶에게 잡혀 이밀 진채에 갇히게 되고 위징 등이 출정을 나간 이밀이 보낸 조서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그를 풀어주는 제1절과 제2절은 《隋唐志傳》 제31회-지33회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隋唐志傳》과 달리 시간과 공간 등 역사적 배경에 대한 묘사는 생략하거나 무시하고 인물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 서사를 전개하는 원대 역사극의 특징이 〈程咬金斧劈

123) 〈程咬金斧劈老君堂〉, 《古本戏曲丛刊》, 四集(三) 수록.

老君堂〉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잡극에서는 역사적 사실보다는 개성적인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고, 납득할 만한 서사 전개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기보다는 주요 장면들을 불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程咬金斧劈老君堂〉에서는 용맹하나 신중치 않은 程咬金의 성격이 전면으로 배치되고, 전투의 승리, 개선과 같은 볼거리 위주의 장면이 도드라진다. 이에 비해 《隋唐志傳》은 같은 사건을 서술하되 史書의 서술 방식을 따라 사건의 세분하여 해당하는 시간과 공간에 나누어 배치하였으며 내용도 앞뒤의 사건과 연결되면서 조금 달라진다. 특히 老君堂에서 도끼를 휘두르며 돌진하는 程咬金과 궁지에 몰린 이세민이 벌이는 소동에 집중한 잡극과 달리 《隋唐志傳》은 이세민을 보호하는 붉은 瑞氣와 八爪金龍이라는 신이한 징조를 통해 이세민이 천명을 받은 眞主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이를 알아본 현신들이 이세민을 구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124]

이처럼 같은 사건임에도 이를 서사화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통해 잡극과 역사연의는 그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잡극이 볼거리와 대단원을 지향하는 것에 반해 역사연의는 역사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과 이해를 지향한다.

덧붙여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원 잡극의 내용이 《隋唐志傳》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隋唐志傳》이 宋元 설화전통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彭知輝는 자신의 논문에서 첫째 원대의 역사극이 당시의 강사와 평화에서 재제를 취했다는 점, 둘째 원 잡극이 명대에 이미 성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직접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124) 이 부분에서 위징 등이 이세민을 구명해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가 眞主이기 때문이다. 《隋唐志傳》에서는 이세민을 천명을 받은 군주로서 형상화하기 위해 이세민이 어지러운 세상을 보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걱정하여 천하를 도모하기로 결정하고, 사방의 현사를 초빙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었으며, 활솜씨가 뛰어나고 용맹하며 지략이 뛰어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유사한 서사를 계속하여 반복한다. 사서가 서술 체제, 연호, 호칭과 같은 표지로 황제의 정통성을 드러낼 수 있다면 《隋唐志傳》은 이를 오직 서사를 통해서만 드러내며, 이 과정에서 신이 서사는 이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사서에 기록된 신이 서사에 대해서는 정지현, 《兩漢書의 神異 敍事 硏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참고.

볼 때, 명대에 등장한 隋唐 계통 역사연의와 원 잡극은 둘 다 宋元 설화전통에서 제재를 취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說唱에서 직접 기원한《大唐秦王詞話》와 원 잡극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들어《大唐秦王詞話》, 원 잡극,《隋唐志傳》을 모두 송원의 설화에서 유래한 하나의 부류로 보았다.[125]

그러나 명대에 원 잡극에 대한 공연이 성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대본을 정리하여 출간하는 작업은 성행하였다. 게다가《隋唐志傳》이 원천서사로 삼은 잡극의 대본이 실린《元曲選》과《脈望館鈔校本古今雜劇》은 각각 1615년에서 1616년, 1612년에서 1617년에 사이에 편집되었으며[126] 이는《隋唐志傳》의 현존 最古本이 출간된 1619년과 시간적으로 멀지 않다. 다시 말해《隋唐志傳》이 원천서사로 삼은 원 잡극은 공연의 형태가 아닌 문헌기록의 형태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隋唐志傳》의 대부분은 정통 역사서사인《資治通鑑》과《資治通鑑綱目》을 원천서사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隋唐志傳》은《大唐秦王詞話》와 대비되어 역사연의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정반대의 경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3. 서사화 방식의 변화와 특징

3.1. 사건의 계열화와 구성적 인과관계

《隋唐志傳》은 서사화 과정 중에 비록 정통 역사서사가 아닌 것도 수용하기는 하였지만,《資治通鑑》과《資治通鑑綱目》을 주요 원천서사로 삼아 이를 쉽게 풀어쓴 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연의로서의《隋唐志傳》은 단순히 통감류 사서를 풀어쓰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전과는 다른 서사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서사양식을 만들어냈다. 특히《隋唐志傳》은 시간을 형상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통 역사서사와 구별되는데 이 순간 '모든 이야기는 시간의 형상화'이며 이렇게 볼 때 '역사와 소설[허구]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리쾨르의 주장은 역사

125) 彭知輝,〈論元雜劇中的隋唐故事〉(《中南大學學報》, 第6期, 2004), 778쪽.

126) 김도경,《元 雜劇의 文學的 定着에 대한 硏究》(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7쪽.

서사와, 역사서사의 영향력 아래에서 탄생하였으나 아직 그 속성을 규정하기 힘든 새로운 서사체인 역사연의 분석에 유용한 참조가 된다.[127] 아래에서는 《隋唐志傳》의 시간에 대한 형상화가 그것의 원천서사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통해 정통 역사서사와 역사연의가 가지는 양식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시기 중국의 正史는 기본적으로 모두 기전체로 편찬되었다. 기전체는 장황하거나 중복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에는 용이하다. 또 本紀, 表, 志의 다양한 체제, 그리고 列傳의 인물별 기록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초점과 목소리가 서사화되도록 하며 시간도 다양하게 형상화된다. 본기와 表에서는 황제의 정통성만이 시간으로 형상화되지만 열전에서는 각 인물에 서사의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개인의 삶을 따라서 시간이 다양하게 형상화된다. 기전체에서 세계는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다양한 체계, 다양한 인물, 다양한 시간과 공간—의 합으로 구성된다.[128] 사마천이 《史記》에서 보여준 기전체의 유연성은 班固의 《漢書》에서 이미 많이 사라지고 正史의 관찬 전통이 확립된 당대 이후로는 더욱 고착화되기는 하지만,[129] 편년체 사서와 비교할 때 이러한 특징은 여전

---

127) 이 글의 목적은 리쾨르 이론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방법론으로서 이용하는 데에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마다 리쾨르의 관련 이론을 어떠한 전제와 범위에서 논의의 근거로 삼았는지를 밝힌 후 사용하였다. 시간과 이야기에 대한 리쾨르의 이론은 다음의 문장에 집약되어 있다. “시간은 서술적 양태로 엮임으로써 인간의 시간이 되며, 이야기는 그것이 시간적 실존의 조건이 될 때 그 충만한 의미에 이른다.” 폴 리쾨르 著, 김한식·이경래 譯, 《시간과 이야기 1: 줄거리와 역사 이야기》, 문학과지성사, 1999, 125쪽.

128) “전체적으로 보면 《사기》는 ‘하늘의 도리[天道]’가 인간 세상에서 국가 즉 왕조의 형태로 구현된다는 전제 아래, 그 안에서 족적을 남긴 수많은 인간상을 통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들을 망라하여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本紀’와 ‘世家’, ‘列傳’에 포함된 인물들의 부류가 각기 왕조의 성립과 유지에 관한 정통적인 중요도의 차이에 따라 나뉘긴 했지만, 司馬遷의 관점에서는 그것들 사이의 경중을 따지기 어렵고 더욱이 어느 하나라도 빠뜨릴 수 없다.” 홍상훈, 〈고대 중국에서 서사 구조 변천의 특성〉(《중국문학》, Vol.61, 2009), 36쪽.

129) “二十五史의 始祖로 《史記》를 꼽는 것은 단지 후대의 역사 서술이 기전체 형식을 따랐기 때문이며, 후대 史官들에게 유용한 모델을 제시한 것은 명료하고 안전한 평가의 기준을 세워 준 班固의 《漢書》였다.” 양중석, 《《漢書》의 《史記》 變容 樣相을 通해 본 史官의 글쓰기》(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10쪽. 《史記》의 열전에는 국가의 질서에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는 사마천 개인의 성향 때문일

히 선명하게 드러난다.

편년체는 시간 표지를 서사의 가장 앞에 두고 있으며 사건을 연대순으로 나열하기 때문에 시간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의 형상화는 보다 단순화되고 일원화된다. 통감류 사서의 편년체가 표방한 것은 읽기의 편의를 위한 '一目瞭然'이었으며, 이에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이 집대성되어 있는 기전체 정사를 시간순으로 재서술한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통감류 사서는 단순히 이전의 기전체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전체와 편년체의 차이는 문체의 차이로만 환원될 수 없으며 배열의 변화는 서사를 질적으로 바꾸어 놓는다.[130]

年號, 年, 季節, 月, 日의 정확한 시간 표지를 가장 앞에 두는 편년체 사서는 시간을 축으로 세계를 통합된 것으로 파악한다. 예를 들면《資治通鑑》에서 당 고조의 무덕 2년(619)은 이연의 군대와 왕세충의 군대가 천하를 두고 벌이는 크고 작은 전투과정으로 서사화된다. 이러한 서사는 국가라는 통일된 공간과 황제라는 단일한 권력을 중심으로 시간을 형상화한다. 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연호'라는 시간 표지이다. 리쾨르는 역사가는 우주적 시간[객관적 시간]과 현상적 시간[주관적 시간] 사이에 제3의 시간을 만들어 내어 이 둘을 매개한다고 보았으며, 달력을 그러한 매개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였다.[131] 달력의 시간은 체험

수도 있고 국가가 통일되기 이전인 춘추전국 시기의 인물에 대한 열전이 많아서 일수도 있다. 그러나 唐代 이후로 正史의 열전은 列女傳, 忠義傳, 孝友傳, 道學傳 등으로 규격화된다.

130) 중국에서 기전체와 편년체에 대한 전통시기의 논의들은 이를 文體의 차이로 보고 둘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羅炳良, 〈論中國古代史書體裁之辯證發展〉(《史學月刊》, 第5期, 1997), 曹鵬程, 〈宋代紀傳、編年二體優劣論〉(《史學史研究》, 第1期, 2011) 참고. 그러나 중국의 역사편찬을 규범으로 삼고 이를 모방하려 한 조선에서 두 문체 사이의 차이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져왔다. 조선 초 고려사 편수 문제를 두고 일어난 세종과 문신들 사이의 논쟁은 이들이 기전체와 편년체의 차이를 단순한 문체의 차이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그들은 문체가(혹은 형식이) 史書의 내용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정구복, 〈朝鮮前期의 歷史叙述〉(《창작과비평》, Vol.41, 1976)

131) "달력의 사건은 체험된 시간과 우주의 시간 사이에, 역사가의 실천적 경험을 통해 놓이는 첫 번째 다리다. 달력의 시간은 시간에 관한 두 가지 관점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전적으로 속하지 않는 것을 창조한다. 다시 말해서 달력은 두 가지 모두의 성질을 지니며, 달력의 시간을 제정하는 것은 바로 제3의 시간을 창안하는 것이 된다." 폴

된 시간을 우주화하고, 우주적 시간을 인간화하는 방식으로 서사의 시간을 세계의 시간 속에 다시 집어넣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달력의 기준, 시간의 축이 되는 계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132] 편년체 사서에서 시간의 축이 되는 계기는 바로 황제의 통치이다. 황제의 교체는 年號의 교체이고, 연호의 교체는 시간의 단절을 통한 세계의 교체가 된다. 시간의 연속성은 황위 승계의 정통성으로 인해 가능해지며,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은 통합되고 균질화된 시간과 공간이 되어 총체성을 가지게 된다.

《隋唐志傳》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資治通鑑》과 《資治通鑑綱目》을 모방하고 있지만 시간 표지는 거의 생략되어 있다. 제1회부터 이세민이 등위하여 연호를 새로 고치는 제77회까지 중에서 양제의 연호인 '大業'이나 당 고조 연호인 '武德'이 등장하는 회는 27회뿐이고 두 배 가까운 50회에서는 시간 표지로서 연호나 간지가 나오지 않는다. 시간 표지가 나오는 경우에도 서사 앞에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사건에 대한 서사의 맨 마지막에 붙는다. 예를 들어 제74회 '建成平定河東府'에서는 태자 이건성이 劉黑闥을 토벌한 후에 "유흑달이 34세의 나이로 죽으니 이때가 무덕 6년 11월이다.(黑闥年三十四歲而亡, 時武德六年十一月也.)'라고 기록하며 서사가 마무리된다. 이처럼 《隋唐志傳》의 서사는 황제를 축으로 하는 제3의 시간을 통해 우주적 시간과 현상적 시간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편년체 사서와 같지만 시간이 형상화되는 구체적인 모습은 조금 달라진다.

리쾨르 著, 김한식 譯, 《시간과 이야기 3: 이야기된 시간》(문학과지성사, 2004), 204쪽.

132) "(연대기적 시간의 축이 되는 계기는) '사물에 새로운 흐름을 부여한다고 간주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다. 축이 되는 계기에서부터 시간의 우주적이고 심리적인 양상들은 **각기 새로운 의미작용**을 받아들인다. 한편으로 모든 사건들은 축이 되는 계기와의 거리—햇수, 달수, 날수로 측정되는 거리—, 혹은 축이 되는 계기와의 거리가 알려진 다른 모든 사건과의 거리로 규정되는 시간적 위치를 얻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날짜가 추정된 사건과 관련하여 상황을 받아들인다. '그 사건들은, 우리가 역사의 광대함 속에 놓여있다는 본래의 의미에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일어났던 일들이 무한히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서로 관련시켜 위치시킬 수 있다." 폴 리쾨르 著, 김한식 譯, 《시간과 이야기 3: 이야기된 시간》(문학과지성사, 2004), 211쪽. 강조는 인용자. 인용문 안에 있는 재인용문의 출처는 É. Benvenist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ènèrale*(에밀 벵베니스트, 《일반언어학의 여러 문제》, 지만지, 2012)

年月日의 시간 표지를 대신하여《隋唐志傳》에는 '却說', '且說', '原來', '初', '早有', '當時', '當日', '當夜', '是日', '是夜', '次日', '一日' 등의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로써 서사는 직접적인 시간 표지에 의해 매개되기보다는 앞선 사건과의 관련 속에서 시간적 위치를 얻게 된다. '却說', '且說'은 앞선 사건과 평행하여 이야기가 전개될 때, '初',[133] '原來', '早有'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사건의 원인을 찾을 때 쓰인다. '當時', '是夜', '一日' 등은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남을 가리킨다.

이밀이 스스로 장안에 도착하자 이연은 그를 후하게 대우하였다. 3일에서 5일에 한 번씩 큰 연회를 열고 수많은 謀臣과 武士를 그 옆에 시립하게 하였으며 이밀을 가족처럼 대하여 하나의 자리에 나누어 앉았다. 돌아가는 길을 배웅할 때는 비단 백 필과 금은기물을 갖추어 주었다. 이연이 이처럼 예를 갖추어 공경하였으나 이밀의 마음은 끝내 편안하지 않았다. 사실[原來] 이밀이 당에 투항할 때 秦王이 薛仁杲를 정벌하러 隴西로 떠나 조정에 있지 않았던 까닭에 그의 투항을 받아준 것이었다. 만약 진왕이 조정에 있었다면 어찌 그를 용납하였겠으며 또 獨孤公主를 이밀에게 시집보냈겠는가? 한편[卻說] 薛仁杲는 薛擧의 아들이다. 隋 大業 十三年에 薛擧는 인마 수만을 모아 隴西를 점거하면서 스스로를 西秦霸王이라 칭하고 연호를 興元으로 고쳤다. 후에[後至] 武德 元年 8월이 되어 눈에 종기가 생겨 눈동자가 튀어나와 죽었다. 설인고는 나이가 열여섯으로 문무를 겸비하였고 성격이 강하여 살생을 좋아하였다. 아버지를 이어 즉위하여 무리를 이끌었다. 이전에[先爲] 태자로 있을 때 여러 장수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시기하였다. 즉위하게 되자 사람들이 마음에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이에 국세가 점차 약해졌다. 이에 이연은 진왕에게 병사를 일으켜 토벌하라고 명하였다.

李密自到長安，帝待之甚厚，或三日五日設一大宴，則命衆謀臣武士侍立於側，以親情待李密，筵上分座．比及送回，已撥綾錦百匹、金銀器皿俱全．帝雖敬禮如此，而李密之心終不自安．**原來**李密投唐之時，因秦王往隴西征薛仁杲，不在朝內，故受其降；若使秦王在內，豈肯容之而復以獨孤公主嫁李密乎？**卻說**薛仁杲乃薛擧之子，隋大業十三年，薛擧收集人馬數萬餘人，據於隴西，自稱西秦霸王，改元興元，**後至**武德元年八月，眼瘤突睛而死．仁杲年十六歲，文武兼備，性剛好殺，遂即父位，以領其衆．**先爲**太子之時，與諸將不和，互相妒忌．及

133) '初'는 현재 서술하고 있는 사건 이전의 사건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에《資治通鑑》에서도 종종 쓰인다.

即位, 衆心自相猜懼, 由是國勢浸弱, 帝乃命秦王擧兵討之. (《隋唐志傳》 제37회)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통감류 사서와 달리 《隋唐志傳》은 '原來', '卻說', '後至', '先爲' 등의 표지를 통해 짤막한 서사 가운데서도 시간이 앞으로 흐르기도 하고 뒤로 감기기도 하며 평행하게 내달리기도 한다. 이밀이 당에 투항한 후 느끼는 불안에는 과거 투항 당시의 상황이 섞여 들어가고, 長安에서 이연과 이밀이 연회를 즐기는 것과 동시에 隴西에서는 이세민과 薛仁杲의 전투가 일어난다.

《隋唐志傳》에서는 시간이 이처럼 다양한 방향으로 흐를 뿐만 아니라 사건이 절대적인 시간의 눈금 위에 나열되지 않고 서사화를 통해 서로가 서로의 시간적 위치를 지워준다. 편년체 사서는 총체성을 구현하고는 있지만 개별의 사건들은 연호를 맨 앞에 세우는 달력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나열된다. 읽는 이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관한 서사를 따로 떼어서 읽음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隋唐志傳》은 크게 보아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을 서사화하고 있으며 달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資治通鑑》, 《資治通鑑綱目》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직접적인 시간 표지는 줄고 대신 서사성이 강화되면서 시간은 사건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형상화되며 중간에 나타나는 달력은 사건을 역사 위에 올려놓는 고정핀과 같은 역할을 할 뿐이다. 이밀의 투항과 투항 후, 長安의 연회와 隴西의 전투처럼 각 사건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사건으로서보다는 그 사이의 관계를 통해 서사화된다. 이러한 시간의 형상화는 서술구조 안에서 자연스레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隋唐志傳》은 앞서 언급하였듯 그 발생에서부터 통감류 사서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형식과 내용 모두 이를 모방하였다. 그러나 《隋唐志傳》의 장회체 서사는 단순히 통감류 사서를 자세하게 풀어서 쓴 것이 아니다. 《資治通鑑》과 《資治通鑑綱目》에서 하나의 사건은 앞뒤의 사건과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 외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독립적으로 기록되었다. 이에 반해 《隋唐志傳》은 사건을 한 회씩 나누어 서사화하였지만 앞뒤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전체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하나로 이어지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서의 기록을 그대로 가져오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거나 길게 늘여 쓰기도 하고, 배열을 바꾸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일은 거

의 없다. 다만 이전에 없던 서사의 흐름, 맥락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隋唐志傳》의 서사를 통감류 사서의 그것과 다르게 만든다. 같은 사건도 어떠한 맥락 위에 놓이느냐에 따라 달라진 의미를 생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宇文化及이 煬帝를 시해한 후 자신의 손으로 세운 楊浩를 다시 시해하는 부분을 보자. 隋의 권신이었던 우문화급은 양제를 따라 江都로 내려온다. 그러나 양제의 실정에 동생인 宇文智及 등이 반란을 모의하면서 우문화급을 우두머리로 추대하자 이를 수락한다. 양제를 시해하고 楊浩를 옹립한 우문화급은 御駕를 이끌고 장안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도중에 이밀의 군대와 싸워 패한다. 魏縣까지 쫓긴 우문화급은 반란을 일으킨 동생 우문지급을 원망하는 한편, 스스로 제위에 오른다. 이 사건에 대한《資治通鑑綱目》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그 무리들 대부분이 달아나자 우문화급은 탄식하며 말했다. "사람은 반드시 죽으니 어찌 하루라도 제위에 오르지 않겠는가?" 이에 진왕 양호를 짐독으로 죽이고는 魏縣에서 제위에 오르며 국호는 許로 하였다.
>
> 其衆多亡, 化及歎曰, 人生固當死, 豈不一日爲帝乎. 於是鴆殺秦王浩, 稱帝於魏縣, 國號許.[134]

이 부분에 대한《隋書》,《資治通鑑》,《資治通鑑綱目》의 기록은 몇 글자의 출입이 있을 뿐 거의 일치한다. 이처럼 史書들은 확실한 사실만을 간결하게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隋唐志傳》에서는 양호가 짐독으로 독살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서사화하면서 사서의 기록에는 드러나지 않는 주변 인물들과 상황을 추가하였다.

> 우문화급은 위현에 다다르자 탄식하며 말하였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한번 죽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황제를 시해했다는 이름을 버리려면 스스로 제위에 오르는 것만 한 일이 없다. 옛사람이 말하길 '천일 동안 신하노릇 하는 것이 어찌 하루라도 군주노릇 하는 것만 하랴?'라고 하였다. 어린 군주를 세워야 무익하니 그를 죽이는 것도 명분이 있으리라." 그는 부장 董康을 불러 武士 10명을 데리고 가서 少帝를 죽이도록 했다. 少帝 楊

134) 朱熹,《資治通鑑綱目》, 卷38, 위의 책, 2124쪽.

浩는 煬帝의 呂妃가 낳은 아들이다. 마침 呂妃와 소제는 뒤뜰에서 탄식하고 있었는데 궁녀가 董康이 이르렀음을 알리니 매우 놀랐다. 동강은 鴆酒를 소제에게 주며 "여름날 더위가 심하니 특별히 壽酒를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소제는 울면서 "어찌 이리 핍박하느냐?"라고 하였다. 동강은 "壽酒이니 의심치 마소서."라고 하였다. 여비가 "壽酒라고 하였으니 네가 먼저 마셔보아라."라고 하였다. 동강이 노하여 말하길 "너희 모자가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냐?"하고는 시종을 불러 단도와 흰 천을 앞에 들이밀며 "壽酒를 마시기 싫으면 이 두 가지를 받아라."라고 하였다. 여비가 동강에게 무릎을 꿇으며 말하길 "제가 황제를 대신하여 마시겠으니 장군께서는 모자의 목숨을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동강이 큰 소리로 꾸짖으며 "네가 뭐라고 황제를 대신하여 죽겠다는 것이냐?"라고 하고는 잔을 들어 여비에게 주며 "그렇다면 네가 먼저 마셔라."라고 하였다. 여비는 가슴을 내밀며큰 소리로 욕하였다. "우문화급, 황제를 시해한 역적아, 하늘과 땅이 용납치 않을 것이니 개돼지도 그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동강은 고함을 치며 "승상께서 회신을 기다리시는데 너는 시간을 끌며 누가 구하러 오기를 바라느냐?"라고 하였다. 여비는 큰 소리로 욕하며 "너는 걸왕을 도와 학정을 일삼는 무리이니 반드시 멸족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동강은 대노하여 두 손으로 여비를 잡아다가 안아들어 후원 밖으로 내보냈다. 少帝가 동강의 옷자락을 붙잡자 呂妃는 앞으로 나아가 한데 뒤엉켰다. 동강은 무사들을 불러 여비를 목 졸라 죽이고 鴆酒를 소제의 입에 부어 죽였다. 불쌍한 少帝는 4월에 제위에 올라 6월에 죽임을 당했다. 동강이 이를 우문화급에게 보고하자 우문화급은 성 밖으로 끌고 가 매장하라고 명하고는 魏縣에서 제위에 올랐다. 아버지 宇文述이 許에 봉해졌었기 때문에 국호를 許國이라고 하고는 연호를 至道라고 하였다. 천자의 의장을 쓰고 문관과 무장들이 拜舞하며 모두 만세를 세 번 외치니 그 소리가 수 리 밖까지 들렸다. 이를 언급하는 麗泉의 시가 있다. (생략) 우문화급에 위현에서 제위에 오르자 하늘이 3일 동안 검었으며 逆風이 크게 불어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우문화급은 驚氣疾에 걸려 수일 동안 조회에 나아가지 못했다. 병이 조금 나은 후에야 문무백관에게 일일이 상을 내렸다.

卻說化及行到魏縣, 歎曰: "人生在世, 無非只是一死. 今日舍其弑逆之名, 不若自立爲帝乎! 古人有云: '千日爲臣, 何如一日爲君?' 少主立之無益, 殺之有名矣." 喚部將董康, 帶武士十人來殺少帝. 少帝楊浩, 乃煬帝呂妃所生之子. 妃與少帝正在後庭嗟歎, 宮女來報董康至, 大駭. 康執鴆酒與少帝曰: "夏日炎熱, 特上壽酒." 少帝泣曰: "何相迫如是耶?" 康曰: "壽酒勿疑." 呂妃曰: "既云壽酒, 當先上汝壽." 康怒曰: "汝母子不肯飮耶?" 呼左右持短刀白練於前, 曰: "壽酒不飮, 可飮此二物." 呂妃跪告康曰: "妾身代帝飮酒, 願將軍見憐母子

性命.”康叱曰:“量汝何等, 可代帝死?”康擧杯與呂妃曰:“你可先飮.”妃挺胸大罵:“化及弑君逆賊, 天地有所不容, 犬彘亦不食其肉!” 董康喝曰:“丞相立等回報, 汝等俄延望誰救耶?”呂妃大罵:“汝等助桀爲虐之徒, 必當族滅!”董康大怒, 雙手扯住呂妃, 直擁出庭. 少帝揪住董康衣服, 呂妃向前攪做一團. 康喚武士絞死呂妃, 以鴆酒灌殺少帝. 可怜少帝四月登基, 六月被杀. 董康还报化及, 化及命拖出城外埋之, 遂即位于魏縣. 以父宇文述封於許, 因號許國, 改元至道. 用天子儀仗, 文官武將拜舞, 俱令三呼萬歲, 聲聞數里. 麗泉有詩爲證:(생략) 化及在魏縣即位, 天黑三日, 逆風大起, 對面皆不相見. 化及染驚氣疾, 數日不能設朝. 後病稍可, 盡將文武百官一一封賞.[135]

《隋唐志傳》에서는 사서의 기록에는 없는 呂妃가 등장하여 소제의 죽음은 더욱 비극적으로 형상화되고 우문화급이 칭제하던 날 일어난 기이한 현상은 정통성의 부재를 암시한다. 그러나 사건의 주요한 내용은 사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으며, 독자가 이 부분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는 없다. 이 부분이《資治通鑑》과 다른 점은 양호의 죽음과 우문화급의 칭제를 ‘서사화’하였다는 사실이다. 같은 내용이지만 단편적인 기록이 아닌 하나의 서사로 구성됨으로써 기울어져 가는 수 황실의 무력함, 양제의 실정으로 인한 비극적 결말, 우문화급의 불충함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隋唐志傳》은 통감류 사서의 부족한 정보를 추가해주는 보충설명이라기보다는 같은 내용을 서사화함으로써 그 의미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資治通鑑綱目》의 포폄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앞서 이 부분에 대한《資治通鑑綱目》의 綱이《資治通鑑》의 ‘鴆殺’이라는 표현을 ‘弑’라는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군주를 시해한 우문화급의 잘못을 비난하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資治通鑑綱目》이《資治通鑑》의 한 두 글자의 고침으로써 포폄을 드러내어 사건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 내었다면《隋唐志傳》은 같은 작업을 사건을 서사화하는 과정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隋唐志傳》의 주요 내용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것으로《資治通鑑》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사건을 나열하지 않고 서사화함으로써 각 사건은 서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사건은 서로가 서로의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의미를 형성한다. 물론《資治通鑑》

135) 羅貫中,《隋唐兩朝史傳》, 99-100쪽.

에도 인과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대수롭지 않은 기사를 복선으로 깔기도 하고, '初'라는 표지를 통해 시간을 소급하여 원인을 밝히기도 한다. 그러나 독자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이를 숙독하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힘들다. 그렇게 때문에 胡三省은《資治通鑑音注》에서 인과관계를 놓칠 수 있는 부분에 '...의 원인'이라는 주를 단 것이다.[136]《資治通鑑》과《資治通鑑綱目》에서 사건은 원칙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며 사건들 사이의 관계는 문면의 뒤로 숨는다. 다만 학문적 배경이 있는 사람, 독해법을 훈련받은 사람만이 편찬한 이의 의도를 역으로 추론하여 인과관계를 발견하거나 글자 하나 하나에 담긴 함의를 추론할 수 있을 뿐, 서사구조 자체는 인과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사화된 역사인《隋唐志傳》은 다르다.《資治通鑑》과《資治通鑑綱目》이 唐의 건국 과정에 일어난 개별 전투들의 기록이라면《隋唐志傳》은 각각의 전투 과정을 하나의 서사로 엮음으로써 승리의 원인과 패배의 원인을 설명하고 나아가 수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 이세민이 이밀, 두건덕, 왕세충 등의 여러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을 세울 수 있었던 까닭을 서사를 통해 알려준다. 사서에서 사실의 기록 뒤에 숨은 인과관계를《隋唐志傳》은 서사구조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서사가 시작되는 제1회에서도 드러난다.

> 隋 煬帝의 姓은 楊, 이름은 廣이고 아명은 阿摩로 弘農 華陰 사람이다. 漢의 太尉 楊震의 후예이자 文帝 楊堅의 아들로 그 사람됨이 언변에 능하고 눈치가 빨랐으며, 탐욕스럽고 포악하며 황음하였다. 이전에 晉王으로 봉해졌으나 욕심이 많아 그 형 楊勇의 태자 자리를 빼앗고자 하였다. 실행할 계책이 없자 安州總管 宇文述에게 의논하여 말했다. "내 형은 사람이 유약하고 본디 덕성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부황께서 후계로 삼으셨으나 사람들의 인망을 잃어 대통을 잇기에 부족합니다. 제가 조정의 장군과 재상들을 보니 모두 統馭之才가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영웅은 오직 公뿐이십니다."
>
> 隋煬帝姓楊名廣, 小字阿摩, 弘農華陰人也. 漢太尉楊震之裔, 文帝堅之子, 爲人資辨敏捷, 貪虐荒淫. 初封晉王之時, 貪心不足, 欲奪其兄楊勇太子之位. 無計可施, 乃謀於安州總管宇文述曰: "吾兄懦弱, 素無令德. 父皇立爲家嗣, 有失人望, 不足以承大統. 吾觀滿朝將相, 皆

136) 三浦國雄,〈資治通鑑의 性格〉, 민두기 編,《중국의 역사인식 上》, 354-357쪽.

非統馭之才, 細推英雄, 惟有公耳."[137]

《隋唐志傳》의 제1회는 의론이나 詩 없이 바로 수 양제에 대한 일화에서 시작된다. 수 양제는 권신 우문술, 양소 등과 결탁하여 태자위를 찬탈한 후 결국 부황마저 시해하고 제위에 올라 극도의 사치와 향락을 누린다.《隋唐志傳》은 이처럼 수 양제에 대한 여러 일화들을 모아서 이어지는 하나의 서사로 만든 다음 가장 앞부분인 제1회와 제2회에 배치하였다. 제3회부터는 각기 다른 시기에 봉기하였기 때문에 사서에서는 분산되어 서술되어 있는 도적떼들을 모아서 서술하여 천하의 어지러운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이로 인해《隋唐志傳》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서도 수가 패망하고 당이 건국되는 원인을 수 양제의 탐욕스럽고 황음한 사람됨에 둘 수 있게 된다.

정리하자면《隋唐志傳》은 史書를 '演義'하되 고증이나 설명을 주석으로 달아 보충하는 방식이 아닌 서사화하는 방식을 운용하였다. 이로써 각각의 사건들이 서로 이어지게 하고 나아가 텍스트 전체를 느슨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서사로 만들었다.《隋唐志傳》의 이러한 특징은 서사구조 자체에 인과관계가 포함되게 하며 그 결과《隋唐志傳》은 역사의 불확실성, 임의성, 우연을 제거하고, 사건을 일관되며 의미있는 패턴으로 만든다.[138] 이에 읽는 이는《隋唐志傳》을 통해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경험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인간이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 서사로 재구성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며 특정 분야에 대해 따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 특히《隋唐志傳》의 독자로 호명된 '愚夫愚婦'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

137) 羅貫中,《隋唐兩朝史傳》, 1쪽.

138) "밍크도 이야기가 '인식의 도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야기가 역사적 사태를 종합하여 '하나의 전체로서' 판단하게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야기란 복잡다단한 사태를 '이해' 가능토록 형상화하는 방식이다 ..... 역사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므로 먼저 역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음 다시 순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를 통해 우연성의 요소들은 축소된다." 전진성, 〈시간의 형상화: 역사서사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이론적 접근〉,《역사교육》, Vol.93, 2005, 263쪽.

3.2. 定型化된 서사의 활용

《隋唐志傳》의 서사적 특징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전체 서사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사건 혹은 일화들이 매우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隋唐志傳》이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서사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각각의 사건들은 그것이 일어난 배경, 전개 과정, 그 결과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隋唐志傳》은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각기 다른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건으로 기록하는 사서와 달리 소수의 한정된 패턴으로 정형화하여 동일한 사건의 반복으로 서사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경향은 사건의 전개 과정이 동일한 경우, 인물 형상이 유사한 경우부터 서사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표현마저 같은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특히 전투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실제 역사, 그리고 《隋唐志傳》에서는 이세민이 이끄는 唐軍과 이에 대항하는 세력 사이의 전투가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각기 다른 무장들의 참여 하에 수없이 일어나는데 《隋唐志傳》은 이러한 전투를 서사화함에 있어서 한정된 수의 표준화된 서사를 이용한다. 즉 수많은 전투들은 출정하여 진영을 치고, 대장끼리 무용을 겨루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습하고, 패전하는 척하여 적을 아군이 매복한 장소로 유인하고, 후퇴하는 적을 따라가 공격하고, 화공으로 적채를 불태우는 소수의 패턴으로 수없이 반복된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은 《隋唐志傳》이 역사연의의 시조라 할 수 있는 《三國演義》의 서술을 차용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이다. 앞서 예로 들었던 우문화급이 양호를 시해하는 제20회의 경우 동탁이 少帝를 죽이는 《三國志通俗演義》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까지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다.

> 동탁은 항상 궁녀를 시켜 몰래 동정을 엿듣게 하였는데 이날 이 시를 얻어서 동탁에게 보였다. 동탁이 “유변은 끝났구나! 날 원망하여 이러한 시를 지으니 그를 죽이는 것도 명분이 있으리라.”라고 하였다. 이에 李儒에게 武士 10명을 데리고 가서 少帝를 죽이도록 했다. 소제는 어머니인 何后와 함께 누각에 있었는데 궁녀가 이유가 이르렀음을 알리니 매우 놀랐다. 이유가 鴆酒를 소제에게 주자 소제가 연유를 물었다. 이유는 “봄날이 따뜻하여 董太師가 특별히 壽酒를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태후가 “壽酒라고 하였으니 네가

먼저 마셔보아라."라고 하였다. 이유가 노하여 말하길 "너희 모자가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냐?"하고는 시종을 불러 단도와 흰 천을 앞에 들이밀며 "壽酒를 마시기 싫으면 이 두 가지를 받아라."라고 하였다. 당비가 동강에게 무릎을 꿇으며 말하길 "제가 황제를 대신하여 마시겠으니 상공께서는 모자의 목숨을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유가 큰 소리로 꾸짖으며 "네가 뭐라고 황제를 대신하여 죽겠다는 것이냐?"라고 하고는 잔을 들어 태후에게 주며 "그렇다면 네가 먼저 마셔라."라고 하였다. 태후는 가슴을 내밀며 큰 소리로 욕하였다. "하진, 무례한 도적아, 동탁을 수도로 끌어들여 오늘의 화를 만들었구나!" 이유가 소제를 재촉하자 소제는 "어머니께 작별인사를 올리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고는 슬퍼하며 시를 읊었다..... 이유는 고함을 치며 "태위께서 회신을 기다리시는데 너는 시간을 끌며 누가 구하러 오기를 바라느냐?"라고 하였다. 태후는 큰 소리로 욕하며 "역적 동탁이 우리 모자를 핍박하는데 하늘은 어찌하여 너를 돌보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더니 이유를 가리키며 "너는 주왕의 악업을 도우는 무리이니 반드시 멸족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유는 대노하여 두 손으로 태후를 잡아다가 누각 아래로 밀어버렸다. 少帝가 이유의 옷자락을 붙잡자 당비는 앞으로 나아가 한데 뒤엉켰다. 이유는 무사들을 불러 당비를 목 졸라 죽이고 鴆酒를 소제의 입에 부어 죽였다.

卓時常使宮女探聽動靜, 是日獲得此詩, 來呈董卓. 卓曰:"劉辨休矣! 怨望故作此詩, 殺之有名矣." 遂命李儒帶武士十人, 入宮弑帝. 帝與母何后正在樓上, 宮女報李儒至, 帝大驚. 儒執鴆酒奉帝, 帝問何故. 儒曰:"春日融和, 董太師特上壽酒." 太后曰:"既云壽酒, 汝可先飮." 儒怒曰:"汝母子特不飮耶?" 呼左右持短刀白練於前曰:"壽酒不飮, 可領此二般!" 唐妃跪告曰:"妾身代帝飮酒, 願相公可憐母子性命." 儒叱曰:"汝何人, 可代王死?" 乃擧酒與何太后曰:"汝可先飮." 后挺胸大罵,"何進無禮之賊, 勾引董卓入京, 致有今日之禍." 儒催逼帝, 帝曰:"容某與母作別." 乃大慟而作歌.... 李儒叱曰:"太尉立等回報, 汝等俄延, 望誰救耶?" 太后大罵:"國賊董賊逼我母子, 皇天岂祐汝耶!" 手指李儒:"汝等助紂作業之徒, 必當族滅!" 儒大怒, 雙手扯住太后, 直擲下樓. 少帝揪住李儒衣服, 唐妃向前攪做一團. 儒喚武士絞死唐妃; 以鴆酒灌殺少帝. (《明弘治本三國志通俗演義》(1522), 제7회 '漢君董卓弄權')

《隋唐志傳》에는 위에서처럼 《三國志演義》를 베껴 쓴 부분이 많다. 모방의 정도는 위와 같이 내용을 주어만 바꾸어 그대로 가져온 경우, 사건의 전개 과정을 따라한 경우, 그리고 전투 장면과 같이 하나의 상투적 구성ㅡ예를 들면, 기습, 매복,

화공 등등ㅡ을 가져온 경우 등으로 나누어진다.[139] 이는 단순히 두 작품 모두 모본이 나관중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隋唐志傳》이 표현과 내용면에서 당시에 가장 널리 읽혔던 《三國志演義》를 답습하고 이를 나관중의 이름에 가탁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이유로 《隋唐志傳》이 《三國志演義》와 같은 높은 성취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평가한다.[140]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안감연의로서의 《隋唐志傳》이 명대 사학의 보급 및 통속화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러한 특징들은 역사에 대한 통속적인 서사로서 《隋唐志傳》이 추구했던 미덕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단순히 《三國志演義》를 모방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러한 모방을 통해 《隋唐志傳》이 어떤 서사적 효과를 의도하였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隋唐志傳》은 우문화급이 양호를 독살하였다는 간략한 사실만을 기록한 《資治通鑑》과 《資治通鑑綱目》에 구체적인 장면을 추가하여 서사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隋唐志傳》은 漢의 少帝가 죽임을 당할 때 어머니인 何太后와 唐妃까지 같이 죽임을 당하는 《三國演義》의 서술을 등장인물만 바꾸고는 그대로 가져왔다. 이로 인해 《隋唐志傳》의 서사는 《三國演義》의 그것과 겹쳐지면서 '漢 少帝(劉辯)ㅡ隋 少帝(楊浩)ㅡ망해가는 왕조의 무력한 황제', '董卓ㅡ宇文化及ㅡ권력을 빼앗은 간신', '李儒ㅡ董康ㅡ악행의 조력자', '何太后·唐妃ㅡ呂妃ㅡ황제를 지키려다 희생당하는 황족'이라는 계열화를 만들어낸다. 이로써 《隋唐志傳》은 직접적인 언급이나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도 우문화급이 양호를 독살한 역사적 사건을 '간신이 무력한 황제를 시해하는 사건'으로 서사화하게 된다.

《隋唐志傳》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개개인의 특징이 부각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하였듯 《隋唐志傳》의 중심은 사건의 서술에 있고 인물은 전형화된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건의 행위자로서만 기능한다. 따라서 인물에 있어서는 충신인가 간신인가, 지모가 있는가 무모한가, 무력이 출중한가 그렇지 못한가, 자신

---

139) 彭知輝, 〈論《隋唐志傳》對《三國演義》的抄襲與模仿〉(《阜陽師範學院學報》, 第6期, 2006). 彭知輝에 따르면 《隋唐志傳》이 《三國志演義》를 그대로 베낀 것이 4만 자, 모방한 회가 46개에 달한다.

140) 雷勇, 〈《隋唐志傳》的文體探索及其小說史意義〉(《陝西理工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1期, 2009), 沈伯俊, 〈《隋唐兩朝志傳》非羅貫中所作〉(《明清小說研究》, 第4期, 1997) 참고.

을 굽혀 현사를 받들 줄 아는가 교만한가, 색을 밝히는가 아닌가 등의 특정한 소수의 대립항들만이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 과정에서 표준화된 서사를 차용하는 방식은 인물을 형상화하지 않고서도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유 유용하다. 역사에 실존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전형화되어 사건에 등장하고 사건의 종결과 함께 서사에서 사라진다.[141]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정된 패턴으로 서사의 표준을 만들어 이를 활용하는 《隋唐志傳》의 서사 방식은 개별적인 사건을 서술하는 동시에 이를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동일하고 반복적인 사건으로 만들고 그 사건에 질서를 부여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독자는 개별적인 사건을 정형화된 서사를 통해 수용함으로서 이에 대한 이해를 기존의 이해—사서, 혹은 통속화된 경전적 서사—에 일치시키게 되며, 이로써 사건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는 한편 새로운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거된다.

141) 그러나 이처럼 인물들이 특정 사건 속에서 전형화된 특정 역할로서만 서사화되기 때문에 때로는 한 인물이 다른 사건에서는 다른 역할을 맡아 모순이 일어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인물의 전체적인 면모, 내력, 가치관 등이 형상화되지 않고 사건과 관련한 순간에만 기능적 역할로서 서사화되기 때문에 한 사건에서 절개를 가진 강직한 인물로 묘사되었다가 다음 사건에서는 변절하는 역할을 맡는 등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Ⅳ. 《隋煬帝艷史》: 인물의 행위로 보여지는 역사

1. 《隋煬帝艷史》의 출간과 성격

1.1. 판본과 체제

《隋煬帝艷史》는 崇禎4년(1631) 南京의 人瑞堂에서 출간되었다. 정식 명칭은 《新鐫全像通俗演義隋煬帝艷史》로, 총 8권 40회이다. 이후의 판본은 대부분 이 人瑞堂刊本의 복각본이며 光緒21년(1895)에 《風流天子傳》이라는 이름으로 香港書局에서 石印本으로 다시 출간되었다. "齊東野人編演, 不經先生批評"이라고 題하여 있으나 작가인 齊東野人과 夾批와 권말의 總評을 쓴 不經先生이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 또 총 세 편의 서문 중 작가 자신이 쓴 서문 외에 〈隋煬帝艷史敍〉를 쓴 嘆癡子, 〈艷史題辭〉를 쓴 委蛇居士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隋煬帝艷史》의 체례를 살펴보면 서문에 이어 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艷史凡例〉 13條[142]가 나온 후, 초기의 역사연의를 본떠 당시의 帝王·皇后·妃嬪·

142) 명청대 소설의 〈凡例〉는 일반적으로 출판업자가 책을 광고하려는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과장적인 표현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나 책이 의도하는 바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艷史凡例〉 13條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제 옛일을 인용하고 正史를 따랐으니 거짓으로 쓴 것은 없다. ② 황음무도한 내용이 있으나 모두 비판하고 깨우치려는[譏諷規諫] 뜻이다. ③ 明君賢相과 昏主佞臣은 모두 小史가 있으나 수 양제는 없어서 이에 쓴다. ④ 隋朝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양제에 대해서만 쓴다. ⑤ 양제는 천고의 풍류천자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에 '艷史'라 칭한다. ⑥ 요동으로 정벌을 나가고 汾陽宮에서 더위를 피한 일 등은 평범하여 적지 않는다. ⑦ 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표현은 한 글자도 넣지 않으면서 의미를 완곡하게 모두 드러내었다. ⑧ 훌륭한 삽화[繡像]를 그려 넣었다. ⑨ 매 삽화마다 옛사람의 시를 집구하여 넣었다. ⑩ 시를 화려한 액자형 테두리[錦欄] 안에 적었다. ⑪ 액자형 테두리를 꾸미고 있는 문양은 각각 삽화의 내용과 부합한다. ⑫ 시는 천하 명필들의 서예이다. ⑬ 총 8권 40회이다.

大臣·宦官·賊臣·賊民·神仙의 이름과 짧은 소개를 목록화한 〈隋艷史爵里姓氏〉를 싣고 있다. 그 뒤로 총 40회의 회목이 나열된 후 각 회마다 두 장씩 총 80장의 정교하게 그려진 삽화와 시가 나온다.[143] 따라서 읽는 이는 회목의 총목록과 삽화를 일람함으로써 서사를 한 눈에 개괄한 후 본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특히 책의 서두에 있는 이들 삽화와 시는 그 자체로도 미학적으로 훌륭할 뿐만 아니라, 全相平話나 초기 역사연의와 비교했을 때 단순히 해당 회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징과 비유를 통해 본문의 해석을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144] 이는 본문에 들어있는 다수의 詩, 화려한 수사기교 등과 더불어 《隋煬帝艷史》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독서 상품이며 작가와 독자가 모두 상당한 예술적 소양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본문은 제1회 隋 煬帝 楊廣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회인 제40회에서 39세의 나이로 시해되기까지 양제의 일생을 시간 순으로 서술하며, 그의 사치와 향락을 전경화하고 隋의 쇠망을 같이 엮어 서술하였다. 매 회는 시나 사가 한 수 나온 후 서술자의 의론 없이 '却說' 혹은 '話說' 등의 표지에 이어 바로 사건에 대한 서사로 들어간다. 본문 중간에 시와 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 회는 '... 하니, 다음 회를 들어보시오[且聽下回分解]'라는 말로 끝맺는다.

1.2. 향락에 빠진 황제의 傳記

《隋煬帝艷史》는 한마디로 煬帝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다. 제1회는 隋의 文帝와

143) 각 회마다 두 장씩 총 80장의 삽화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재 남아있는 삽화는 70개이다. 각 회에 대한 두 장의 삽화 가운데 앞의 장은 회목의 앞 구절을, 뒤의 장은 회목의 뒤 구절을 묘사하고 있다. 또 각 삽화의 뒷면에는 액자형 테두리 안에 여러 가지 서체를 이용하여 적은 시(대개의 경우 集句詩)가 있어 각 회의 내용과 조응한다.

144) 馬孟晶은 《隋煬帝豔史》의 삽화와 액자형 테두리 안의 문양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본문에 대한 일종의 해석으로 간주하고 '圖飾評點'이라고 명명하였다. 馬孟晶, 〈《隋煬帝豔史》的圖飾評點與晚明出版文化〉(《全球化下明史研究之新視野論文集》, 第2冊, 2011) 참고. 삽화 뒷면의 시에 대해서는 서성, 〈《수양제염사》에 나타난 삽시(揷詩)의 표현 효과〉(《인문과학연구논총》, Vol.39, 2018) 참고. 서성 또한 이 시들이 가진 특징을 상징성, 비유성, 묘사성으로 정리하였다.

獨孤皇后의 등장으로 시작하여 바로 楊廣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이후로 양광은 태자가 되었다가(제3회) 결국 제위에 오르게 된다(제4회). 황제가 되어 거리낄 것이 없어진 양제는 북방으로 순행을 떠나 돌궐 등의 蕃國에 隋의 위세를 과시하며(제8회) 낙양에 顯仁宮과 西苑을 화려하게 지은 후 장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후궁들과 즐거움을 누린다(제9회-제26회). 그 와중에 만리장성을 개축하고(제14회) 江都로 순행을 떠나기 위해 운하를 판다(제18회-제24회). 결국 완성된 운하에 龍舟를 띄우고 낙양을 떠난 양제는 강도에 도착하여(제27회-제29회) 궁궐을 다시 짓고 향락을 일삼다가 신하들의 모반에 목숨을 잃는다(제30회-제40회).

전통시기 중국에서 정통 역사서사의 중심은 황제였다. 철저하게 황제 일인 중심인 정치제도와, 이와 맞물려 있는 天人相關的 우주론으로 인해 천명을 받아 국가를 세우고 경영하는 황제는 국가 그 자체였으며, 황제의 성격과 행위는 실제적 차원에서든 상징적 차원에서든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었다. 이에 기전체 정사에서는 帝紀가 가장 앞머리에 나오며, 시간은 연호를 통해 황제의 재위를 기준으로 분절되어 인식되었다. 또 聖君과 暴君의 행적은 역사서사에서 주요하면서도 반복적인 주제였을 뿐만 아니라 堯, 舜, 禹, 湯으로 대표되는 성군과 桀王, 紂王, 秦始皇과 같은 폭군이 주는 교훈은 역사서사 외의 다양한 글쓰기에서도 계속하여 반복되었다.

《隋煬帝艷史》 또한 이러한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수 양제의 일생을 서술하고 있다. 작가와 교유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委蛇居士는 〈艷史題辭〉에서 《隋煬帝艷史》의 편찬 의도를 밝힌다. 즉 수 양제의 음행을 일일이 기록한 것은 수가 멸망한 것을 안타까워한 까닭이며 《隋煬帝艷史》를 쓴 것은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함이다.

> 나의 친우 東方裔는 평소 의협심이 많고 또 재주가 많다. 그가 가명으로 《艷史》 한 편을 만드니 隋代 煬帝의 일을 상세하게 적은 것이다. 그 사이 情態를 묘사하고 景物을 배치함에 화려하고 음란하며 방탕한 마음과 즐거움을 누리는 마음이 없을 수 없지만, 阿摩[양제의 兒名]의 侈政을 극도로 강조함으로써 수의 사직이 끊긴 것을 남몰래 슬퍼한 것이며, 수의 사직이 끊긴 것을 남몰래 슬퍼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울로 밝게 비춰보이

고자 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余友東方裔也, 素饒俠烈, 復富才藝, 托姓借字, 構《艷史》一編, 蓋即隋代煬帝事而詳譜之云. 其間描寫情態, 布置景物, 不能無靡麗慆淫蕩心佚志之處, 而要知極張阿摩之侈政, 以暗傷隋祀之絕, 暗傷隋祀之絕, 還以明彰世人之鑑見.[145]

이처럼《隋煬帝艷史》는 국가 패망의 원인은 황제에게 있으며 역사서사는 기록을 통해 후세에 교훈을 전한다는 전통적인 전제들을 계승하고 있다.《隋煬帝艷史》의 편찬 목적은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隋煬帝艷史》의 제1회는 한 수의 開場詩로 시작하는 다른 회와 달리 詞 1수와 詩 8수로 시작되는데 이것들은 모두 수 양제의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 그것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말 그리고 현재의 허망함에 대해 읊고 있다.[146] 이 시들 바로 뒤로 다음의 내용이 이어진다.

이 몇 편의 시와 사는 띠풀지붕에 흙계단으로 검소하였던 唐虞의 事業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손발이 닳도록 일한 夏禹의 生涯를 묻지도 않는다. 또한 백성을 위로하고 폭군을 벌한 湯武의 公案하고도 관련이 없으며 용쟁호투를 벌인 秦漢의 是非를 다루지도 않는다. 저 주지육림을 생각해보면 즐거움을 누렸으나 거칠었고, 저 驪山의 烽火를 따지자면 즐거웠으나 역시 비속하였다. 다만 저 風流天子를 말하자면 아름다운 강산을 겨우 양쪽 제방 위의 버드나무 때문에 잃었으며, 견고한 사직을 저 몇 척의 龍舟를 위해 끝장냈다. 13년의 부귀를 만대의 汚名과 바꾼 것이다. 결국 누가 옳았고 누가 잘못했는지 그 일의

145) 丁錫根 編著,《中國歷代小說序跋集》(人民文學出版社, 1996), 951-952쪽.

146) 차례대로 元稹,〈錢塘小夢詞〉, 李商隱의〈隋宮〉, 鮑溶의〈隋宮〉, 王建의〈汴路即事〉, 劉禹錫의〈楊柳枝詞〉, 李益의〈汴河曲〉, 鮑溶의〈隋宮〉, 李益의〈隋宮燕〉, 李端의〈蕪城〉이다. 이들은 모두 詠史詩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니, 유적지의 풍광을 소재로 하여 隋代 때의 화려함과 시를 짓는 지금[唐]의 영락한 모습을 대비시키고 세월의 허망함을 읊는다. 중국 고전문학에서의 시간관을 순환론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를 과거의 소산으로 보고 미래에 대해 전망하는 근대의 시간관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과거와 현재를 독립적이면서 동등한 위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榮華와 현재의 衰落 사이의 대립은 영사시 뿐만 아니라 고전시가의 일반적인 의미구조이다. 이때 과거는 현재에 흔적으로서만 존재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노래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隋煬帝艷史》에서도 과거의 수 양제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며 때로는 당시[明末]의 군주에 대한 비유가 될지언정 현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말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간략히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這幾首詩詞, 不道那茅茨土階, 唐虞的事業; 不問那胼手胝足, 夏禹的生涯; 也不管那吊民伐罪, 湯武的公案; 也不理那龍爭虎鬥, 秦漢的是非. 想著那肉林酒海, 雖受用而近粗; 若論那驪山烽火, 縱歡娛而亦俗. 單表那風流天子, 將一座錦繡江山, 只爲著兩堤楊柳喪盡; 把一所金湯社稷, 都因那幾隻龍舟看完. 一十三年富貴, 換了百千萬載臭名. 畢竟誰是誰非, 始末俱在, 請略道一二.[147]

이와 같은 서술자의 직접적인 언술로 인해[148] 전체 텍스트는 폭군인 수 양제가 어떠한 악행과 실정으로 수를 패망하게 하였는지를 시간을 거슬러 추적하는 서사가 된다.[149] 《隋煬帝艷史》를 가득 채운 양제의 사치와 향락에 대한 일화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된 하나의 서사를 이룬다.

《隋煬帝艷史》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수 양제의 황음무도한 본성과 이로 인한 사치와 향락이라는 실제적인 행위가 隋 패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서사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표적인 폭군으로 거론되는 夏 桀王, 殷 紂王, 周 幽王 혹은 秦始皇에 대한 이전 시기의 역사서사와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면 《史記》의 本紀에도 망국의 군주가 가진 무도함에 대한 서술이 빠지지 않으며, 폭정과 더불어 女色에 대한 탐닉은 폭군들이 가진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서술된다. 그러나 달기, 포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국가가 패망한 직접적인 원인이기보다는 군주의 품성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서사화된다. 夏·殷·周가 패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군주가 인덕을 잃음으로써 제후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며 秦이 무너진 것은 정치적인 미숙 혹은 시행착오 때문이다.[150] 《隋書·煬帝紀》

147) 齊東野人, 《隋煬帝艷史》(中國戲劇出版社, 2000), 3쪽.

148) 《隋煬帝艷史》의 매 회는 개장시가 나온 후 '却說' 또는 '話說'을 표지로 바로 사건에 대한 서사로 이어진다. 서사는 기본적으로 서술자가 청중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서술자의 논평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제1회 도입부뿐이다.

149) 제1회 金龍이 늙은 쥐로 변하는 황후의 태몽에서부터 양제의 본모습이 암시된다. 후에 제21회에서 운하 공사 중 발견된 古墓에 들어갔던 狄去邪는 皇甫君에게 질책당하는 큰 쥐를 보고 그것이 양제의 前身임을 알게 된다.

150) 예를 들면 《史記·秦始皇本紀》의 '太史公曰'에서는 秦의 지리형세적 특징과 정치상의 실정에 대해 언급한다. "(진이 망한 것은) 인의를 베풀지 않았고, 공격과 수비의 형세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 진왕은 욕심 많고 비루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만 지혜롭다고

또한 시간 순으로 양제의 행적을 서술한 후 가장 마지막에 '初'라는 표지를 붙이고서 후궁들과의 음란한 행위, 가혹한 형법, 蕃國과의 과시적 외교, 대규모 토목공사 등 양제의 실정에 대해 종합하여 서술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서사, 특히 통속서사에서 인과론은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라기보다는 도덕적 혹은 성격적 인과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151] 즉 사건의 인과보다는 인물의 인과를 강조하여 그 사람의 인물됨을 드러냄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야기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이는 어떠한 사실을 개인의 윤리적 미덕으로 환원시키는 중국의 전통적 도덕해석학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전통에서는 사건과 사건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보다는 사건에 내재해있는 성향, 잠재적인 결정력을 중시하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 행위자가 가진 잠재적 속성이 외부로 현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152] 특히 女色은 당시 통속서사에서 군주가

공신들을 믿지 않고 인재와 인민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왕도를 폐지하고 사사로운 권위를 세워 문서를 금지하고 형법을 가혹하게 했다. 기만을 앞세우고 인의는 뒤로 밀쳐 둔 채 포악함을 통치의 출발로 여겼다. 대개 합병 때는 힘과 속임수를 높게 여기지만, 안정되었을 때는 균형에 따르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이는 취하고 지키는 술책이 다르다는 말이다. 진은 전국을 거쳐 천하의 왕이 되었음에도 그 방법을 바꾸지 않았고 정치도 고치지 않았다. 이는 취하고 지키는 바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홀로 고립된 채 천하를 소유하려 했기에 그 멸망이 서서 기다릴 정도였던 것이다." 사마천, 김영수 譯,《완역 사기 본기 2》(알마, 2012).

151) 왕조, 특히 夏·殷·周의 성립과 멸망에 대한 도덕적 모델에 대해서는 Shelley Hsueh-lun Chang, *History and legend: ideas and images in the Ming historical novels*(University of Michigan Press, c1989.), 33쪽~55쪽 참고. Shelley Hsueh-lun Chang은 전통시기 중국 서사에서 왕조교체는 도덕과 결합되며 이러한 특징은 명대의 역사연의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보고 正史와 역사연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52) 프랑수아 줄리앙은 중국적 사유의 이러한 특징을 '勢'라고 표현하였다. "서구적 사유는 질서를 외부로부터 투사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과적 설명을 중시한다. 중국적 사유는 질서를 과정에 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경향적 해석을 가장 중시한다." 프랑수아 줄리앙 著, 박희영 譯,《사물의 성향 : 중국인의 사유 방식》(한울, 2009), 279쪽. "이리하여 인과적 설명에 경향적 함축이 대립하게 된다. 즉 인과적 설명은 전건을 항상 외부에서 찾고, 추론 또한 가설을 세우고 원리로 환원시킨다. 반면 경향적 함축에서는 일련의 변화들이 전적으로 폐쇄된 체계 속에서 형성된 최초의 상황에 새겨져있는 힘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추론 또한 가설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다." 같은 책, 282쪽.

가진 가장 일반적인 도덕적 취약점이자 국가가 망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153] 《隋煬帝艷史》 또한 이러한 사유에 기초하여 수의 패망이 양제의 부도덕함, 그 가운데서도 女色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한발 더 나아가 《隋煬帝艷史》는 수를 몰락으로 이끈 모든 일들이 양제 개인의 품성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제의 구체적인 행위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낙양의 顯仁宮과 西苑을 비롯하여 양제와 수많은 여인들의 향락을 위해 세워진 수많은 離宮들, 순전히 강도로 유람가려는 열망으로 착공한 운하와 이를 위해 만들어진 수십만 척의 배들은 상징적 차원이 아닌 현실적 차원에서 막대한 재원을 씀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파탄내고 각종 노역을 부과하여 백성들의 삶을 파괴한다. 이민족들에게 隋의 위세를 자랑하기 위해 양제가 직접 지시한 각종 교역들,[154] 조공을 보내오지 않는 고구려에 대한 노기가 치밀어 충신들의 반대에도 감행한 遠征, 시황제를 동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만리장성 개축 등 모든 일은 양제의 순간적인 기쁨이나 분노에 의해 시작되어 국가 전체를 궁지로 몰아넣는다. 桀王과 紂王의 酒池肉林은 폭군의 성정을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으로 기능할 뿐 국가 패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隋煬帝艷史》에서 양제의 사치와 향락은 수가 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정리하자면 《隋煬帝艷史》는 서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양제의 사치와 향락에 대해 묘사하고 역사적 사건을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양제의 비윤리적인 본성과 행위의 필연적 결과로서 수의 패망을 서사화하고 있다. 황제와 국가를 동일시하고 개인의 도덕적 성향이 가진 잠재적 결정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적 사고는 수가 패망한 원인이 당시 사회가 가진 정치적 혹은 사회적 구조가 아닌

153) “이런 노랫말이 있다. 대장부 오구 검 쥐고, 만 명의 머리를 베려 했건만, 어찌하랴, 강철 같은 마음 꽃 때문에 물러졌네. 보라, 항우와 유방이 한 번 노하면 사람들 벌벌 떨었는데, 우희와 척 부인을 만나 호걸마저 끝장났구나.(詞曰: 丈夫隻手把吳鈎, 欲斬萬人頭. 如何鐵石打成心性, 卻爲花柔. 請看項籍并劉季, 一似使人愁, 只因撞著虞姬戚氏, 豪傑都休.)” 笑笑生, 《金甁梅》(里仁書局, 2007), 1쪽.

154) “이로부터 서역에 있는 오랑캐와의 왕래가 서로 계속되며 군현을 지나는 곳마다 보내고 영접하는 일에 피폐하여 없앤 비용이 억을 헤아리게 되며 마침내 중원의 국가로 하여금 피폐하게 하여 멸망하기에 이르렀으니 모두 裴矩가 부르짖고 이끈 것이다.(自是西域諸胡往來相繼, 所經郡縣, 疲於送迎, 糜費以萬萬計, 卒令中國疲弊以至於亡, 皆矩之唱導也.)” 司馬光, 《資治通鑑》(中華書局, 2007), 2176쪽.

양제의 황음무도한 성품에 있다고 인식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덧붙여 章回體를 통해 장편화되면서 서사성이 강화된 역사연의의 양식적 특성은《隋煬帝艷史》로 하여금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 양제의 성품을 드러내기보다는 그의 구체적인 행위와 삶 자체를 서사화하고[155] 이를 통해 隋가 몰락하는 과정을 같이 서사화하도록 만들었다.

《隋煬帝艷史》에 대한 연구는 크게 소설사에서 단편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와 독립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가 대부분이다. 전자 가운데《隋煬帝艷史》의 문학성을 높이 평가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鄭振鐸을 들 수 있다. 그는 세밀하고 농염한 묘사를 근거로《隋煬帝艷史》의 문학성을 높이 평가하였다.[156] 이후의 연구들 대부분이 鄭振鐸의 논조를 따르고 있다.[157]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독립적인 연구는 결국 두 편의 석사논문으로 갈무리 되는데[158] 이

155) 리쾨르에 따르면 서사는 근본적으로 인간 혹은 성격에 대한 모방이나 재현이 아닌 행위와 삶에 대한 그것이며 성격은 행위에 종속되게 된다. 폴 리쾨르 著, 김한식·이경래 譯,《시간과 이야기 1: 줄거리와 역사 이야기》(문학과지성사, 1999) 81-95쪽.

156) 鄭振鐸,《插圖本中國文學史 下冊》(北京出版社, 1999), 940쪽.

157) 대표적인 경우로 齊裕焜,《中國歷史小說通史》(江蘇教育出版社, 2000), 166-170쪽을 들 수 있다. 그는 ① 탁월한 심리 묘사 ② 수양제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③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면서도 풍부한 문학적 상상 ④ 뛰어난 언어 운용을 근거로《隋煬帝艷史》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로 李忠明은《隋煬帝艷史》가 문학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李忠明,《17世紀中國通俗小說編年史》, 91쪽.

158) 李正心,《隋煬帝艷史 研究》(福建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와 王亞婷,《隋煬帝艷史 研究》(廣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이 외에도 소논문이 더 있으나 앞의 두 학위논문을 그대로 나누어 발표한 것이거나 텍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한두 쪽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자세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楊龍,〈論《隋煬帝艷史》在隋唐小說演變中的價值〉,《忻州師範學院學報》, 第6期, 2008.

李正心,〈論《隋煬帝艷史》的素材處理方式〉,《湖北廣播電視大學學報》, 第7期, 2012.

李正心,〈論《隋煬帝艷史》的歷史影響〉,《湖北廣播電視大學學報》, 第5期, 2013.

李正心,〈論歷史演義小說人情化傾向的影響 ―以《隋煬帝艷史》爲例〉,《蘭州教育學院學報》, 第12期, 2013.

李正心,〈論《隋煬帝艷史》的結構與體制〉,《韶關學院學報》, 第3期, 2012.

李正心,〈故事連綴 語皆有本 ―《隋煬帝艷史》與唐宋傳奇筆記諸小說之關系〉,《長春教育學院學報》, 第20期, 2014.

들 또한 앞선 연구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다. 즉 주요 사건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며 시간 순서로 서술되었다는 점에서는 역사연의에 속하지만 부분적으로 허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실의 기록에 대한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양제와 그를 둘러싼 여인들의 일상생활과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였다는 점에서는 '人情化'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金瓶梅》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후에 《紅樓夢》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연구사 자체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는 탓에 피상적인 분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隋煬帝艷史》가 기본적으로 역사에 관한 서사임에도 남녀 사이의 情, 인물의 내면심리 묘사와 같은 인정소설적 특징이 드러난다는 점에만 주목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서사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지 혹은 어떻게 불협화음을 이루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金瓶梅》, 《紅樓夢》과의 선후 영향관계에 있어서도 유사한 부분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는 원천서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隋煬帝艷史》가 사서 외에 여러 문언필기에서 소재를 많이 취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형을 나눌 뿐[159]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隋煬帝艷史》의 주요한 특징을 虛構化, 人情化로 규정할 때 이러한 변화의 실마리는 원천서사인 당송 문언필기에 이미 담지되어 있다. 따라서 《隋煬帝艷史》가 이전의 역사서사, 그리고 초기의 역사연의들과 달라지는 지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천서사를 차용하였으며 이를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于志斌, 〈論《隋煬帝艷史》的主題思想〉, 《安徽大學學報》, 第5期, 1997.

付洪偉, 〈略論《隋煬帝艷史》對《紅樓夢》創作的影響〉, 《廣州廣播電視大學學報》, 第5期, 2014.

王亞婷, 〈《隋煬帝艷史》研究綜述〉, 《安徽文學》, 第9期, 2008.

159) 李正心, 《隋煬帝艷史 研究》, 28-30쪽. 李正心은 '題材變化'를 ① 改編整合, ② 充實細節, ③ 時空錯置, ④ 衍生事件의 네 유형으로 나누었으나 이에 대한 분석은 빠져있다.

2. 원천서사의 수용 양상

2.1. 정통 역사서사 :《隋書》,《資治通鑑》

《隋煬帝艷史》는 황제의 일대기를 다뤘다는 점에서 언뜻 보면 정통 역사서사 가운데 紀傳體 正史인《隋書》의 本紀를 白話로 옮겨 쓴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隋煬帝艷史》는 한 인물의 탄생에서 죽음까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상 기전체의 傳記와 유사하며 史書에 기록된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그러나《隋煬帝艷史》와《隋書·煬帝紀》의 세부적인 내용을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일단《隋書·煬帝紀》는 시작부분에서 양광이 晉王에 봉해졌을 때의 공적과 태자가 되고 제위에 올랐다는 결과만을 서술할 뿐《隋煬帝艷史》초반부의 주요 사건인 태자위를 찬탈하는 과정과 부황 文帝의 죽음에 개입하게 되는 일을 서술하지 않았다.[160] 다만 양제의 일생에 대한 시간순의 서술이 끝난 후 맨 마지막 總評의 論贊에서 양제의 음험한 성격과 태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행실을 숨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쓴 일을 간단히 밝힌다. 반면《隋煬帝艷史》의 서술자는 제1회 시작과 함께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가 나라를 망친 '風流天子'에 관한 것임을 직접 밝힌 후 서사의 초반에 태자위 찬탈 음모를 배치함으로써, 양제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어지는 서사의 방향을 미리 결정짓는다. 또《隋書·煬帝紀》의 주요 내용은 관리의 임명, 돌궐과의 화친, 고구려 원정, 각지에서 일어나는 변란 등 국가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들인 반면《隋煬帝艷

160) 양제의 부황 시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의견이 분분한데 분명한 사실만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隋書》와《資治通鑑》에 따르면 양제는 제위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권신들과 결탁하여 형인 楊勇을 태자위에서 폐위시키고 자신이 태자가 되었으며, 文帝는 죽기 직전 양제가 자신의 후궁인 宣華夫人을 희롱한 일로 태자를 바꾸려 하였으나 양소 등의 방해로 이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隋書》와《資治通鑑》에는 사건에 대한 기록의 마지막에 '上以此日崩, 由是頗有異論.(《隋書·楊素》)', '俄而上崩, 故中外頗有異論.(卷180 隋紀四)'라고 각각 서술되어 있으니 당시에 이미 양제의 부황 시해에 대한 소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隋煬帝艷史》는 사서의 기록을 따라 양제가 문제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서술했으나《隋唐演義》에서는 양제의 부탁을 받은 楊素 일당이 문제를 직접 시해한 것으로 고쳤다.

史》에서 이러한 일들은 사건의 배경, 혹은 들려오는 소식 등으로 간략하게 다뤄진다. 반대로 《隋煬帝艷史》에서 자세하게 다뤄진 일들, 즉 낙양을 東都로 삼고 顯仁宮과 西苑을 짓거나 운하를 파고 江都에 순행한 일들을 《隋書·煬帝紀》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 설명은 양제가 내린 詔書를 싣는 것으로 대신한다.[161] 이처럼 《隋煬帝艷史》는 양제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隋書·煬帝紀》와 표면적으로는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주요 역사적 사건들 또한 일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과 서사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다만 마지막 회인 제40회에서 양제가 시해된 다음에 나오는 '史臣斷曰'로 시작하는 의론은 《隋書·煬帝紀》 마지막 부분의 '史臣曰' 가운데 일부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 이로써 《隋煬帝艷史》에서 수 양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원칙적으로 正史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황제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기록하기 힘든 本紀의 특성 때문에 《隋書·煬帝紀》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내용들은 《隋書·文獻獨孤皇后》, 《隋書·宣華夫人陳氏》, 《隋書·煬帝蕭皇后》, 《隋書·楊素》 등 다른 인물들의 列傳에 파편적으로 실려 있다.[162] 특히 《隋書·宣華夫人陳氏》에는 문제가 죽고 양제가 제위에 오르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을 서술할 때 《隋煬帝艷史》는 《隋書》보다는 편년체를 사용하여 사건의 전개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資治通鑑》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資治通鑑》에는 태자위를 찬탈하려는 욕심에 楊素, 宇文述 등의 권신과 결탁한 일, 文帝의 후궁이었던 陳夫人을 희롱하고 文帝가 붕어하자 그녀를 자신의 후궁으로 들인 일, 낙양의 顯仁宮과 西苑을 비롯하여 각처에 離宮을 지은 일, 蕃國의 사절단을 낙양으로 불러들이고 隋의 성세를 과시하기 위해 百戲를 벌인 일 등 《隋煬帝艷史》의 주요 사건이 《隋書》에 비해 훨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隋書》의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資治通鑑》의 기록 또한 《隋煬帝艷史》에 큰 줄거리만을 제공했을 뿐이다. 《隋煬帝艷史》의 서사는 기본적으로 《隋書》와

161) 사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詔書나 上疏, 表 등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은 《隋書》만의 특징은 아니다. 이는 唐代 이후 정착된 관찬사서로서의 기전체 정사가 가지는 보편적인 서사 방식이다.

162) 《隋書》와 《隋煬帝艷史》 사이의 구체적인 수용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절의 〈표8〉 참고.

《資治通鑑》에 기록된 사실과 배치되지는 않는다. 특히 京師, 東都, 江都 그리고 북방을 오고가는 양제의 동선은 대체적으로 《隋書·煬帝紀》의 기록과 일치한다.[163] 그러나 사서에 기록된 개별적인 사건들은 《隋煬帝艷史》의 기본 서사를 지탱할 뿐, 몇몇 사건 외에는 전경화되지 않는다. 《隋煬帝艷史》에서 주로 서사화되는 것은 사치와 향락을 보여주는 양제의 궁궐 안의 생활들이며, 사서에서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隋唐志傳》에서 가장 중요하게 서사화되고 있는 궁궐 밖의 어지러운 정세는 백성들의 참요와 궁인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으로 간간히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隋煬帝艷史》 제35회이다. 이전까지 양제의 화려한 생활에 집중하던 서사는 제35회에 들어서야 동시에 들이닥치는 두 편의 상소를 통해 楊玄感의 반란, 劉武周·李密의 기의와 李淵 세력의 성장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간접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서사화한다. 이처럼 《隋煬帝艷史》에서 원천서사로서 정통 역사서사의 비중은 《隋唐志傳》의 그것과 달리 대폭 축소되며 그 자리는 다른 원천서사, 즉 문언필기가 차지한다.

2.2. 비정통 역사서사 : 唐宋 문언필기

《隋煬帝艷史》의 서사는 정통 역사서사보다 隋代의 일을 서술한 당송대의 문언필기에 훨씬 더 많이 근거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海山記〉, 〈開河記〉, 〈迷樓記〉, 〈隋遺錄〉의 네 편을 주요한 원천서사로 삼았다. 《隋煬帝艷史》의 내용 가운데 원천서사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164] 결과적으로 보면 이전의 史書 혹은 문언필기의 기록을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사건으로 분리한 후 수정하거나 부연하여 백화로 다시 쓰고, 이를 맥락에 따라 재배치한 후 연결하여 하나의 서사로 만들었다.

〈海山記〉는 북송 때 劉斧가 편찬한 《青瑣高議》 後集의 권5와 권8에 〈隋煬帝海山記上: 記煬帝宮中花木〉, 〈隋煬帝海山記下: 記登極後事跡〉이라는 표제로 나누어

163) 예외적인 경우는 양제의 고구려 원정에 대한 것으로, 〈凡例〉 여섯 번째 조항에서 언급되어있듯 《隋煬帝艷史》에는 고구려 원정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164) 필자가 현재 원천서사를 찾지 못한 사건은 제30회 '幸迷樓何稠獻車 賣荔枝二仙警帝'의 후반부에 나오는 道人이 양제에게 荔枝를 파는 이야기뿐이다.

실려 있다. 唐人에 가탁하였으나 사용된 표현 등을 살펴보았을 때 북송 때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165] 수 양제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제위에 오르는 과정, 西苑의 모습과 그곳에서 있었던 일화들이 나열되어 있다. 〈開河記〉, 〈迷樓記〉는 명대에 편찬된 문언필기류 총서인 《說郛》, 《古今逸史》, 《古今說海》[166] 등에 수록되어 있으며 〈海山記〉와 마찬가지로 송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開河記〉는 양제가 운하 착공을 명하게 된 경위, 운하를 파는 도중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 운하가 개통된 후 양제의 巡幸을 서술하였다. 〈迷樓記〉는 양제가 만년에 조정의 일을 돌보지 않고서 迷樓를 짓고 궁궐의 여인들과 즐긴 일을 서술하였다. 唐 顔師古에 가탁한 〈隋遺錄〉은 晩唐 때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167] 大業 12년(616)부터 14년(618) 사이 양제의 향락에 대한 일화들을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당송대에는 野史, 雜史, 逸史, 詩話, 傳奇, 日常雜記, 學術雜記 등 실로 다양한 글쓰기가 쏟아져 나왔으며, 현대의 연구자들은 이들을 '文言筆記', '筆記小說', '傳奇小說'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해왔다.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은 전체를 '筆記'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小說故事類', '歷史瑣聞類', '考據辨證類'의 하위분류로 나누는 것이다.[168] 이에 따라 〈海山記〉, 〈開河記〉, 〈迷樓記〉, 〈隋遺錄〉은 일반적으로 송대의 '小說故事類'로 분류된다.[169]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연구를 위해 임의적으로 수립한 것이기에 절대적이지는 않으며,[170] 이들이 처음 쓰인 당송대의, 그리고 이를 가져다 다시 쓴 명말의 관점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

165) 〈海山記〉의 저작 연대에 대해서는 郭紹林, 〈舊題唐代無名氏小說《海山記》著作朝代及相關問題辨正〉(《洛陽師專學報》, 第17卷, 第1期, 1998) 참고.

166) 《說郛》는 陶宗儀(1329-약 1412)가 편찬한 총서로 총 100권이다. 《古今逸史》는 萬曆연간에 吳琯(1546-?)이 편찬한 총서로 총 244권이며 《古今說海》는 陸楫(1515-1552)이 편찬한 총서로 총 120권이다.

167) 〈隋遺錄〉의 原名은 《南部煙花錄》이고 《大業拾遺記》라고도 한다.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李劍國, 〈《大業拾遺記》等五篇傳奇寫作時代的再討論〉(《文學遺產》, 第1期, 2009) 참고.

168) 유엽추 著, 김장환 譯, 《중국역대필기》(신서원, 2007) 참고.

169) 유엽추 著, 위의 책, 156쪽. 다른 연구자들 역시 위의 네 작품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하여 '筆記小說' 혹은 '傳奇小說'로 분류한다. 郭紹林, 〈舊題唐代無名氏小說《海山記》著作朝代及相關問題辨正〉(《洛陽師專學報》, 第17卷, 第1期, 1998), 李劍國, 〈《大業拾遺記》等五篇傳奇寫作時代的再討論〉(《文學遺產》, 第1期, 2009) 참고.

170)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歷史瑣聞類' 필기에도 신이한 이야기가 포함되는 일이 빈번하며 반대로 '小說故事類'에도 사료로 취할 수 있는 기록들이 다수 들어있다.

〈海山記〉, 〈開河記〉, 〈迷樓記〉 그리고 〈隋遺錄〉은 기본적으로 수 양제에 관한 역사적 지식과 정보를 모아서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海山記〉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옛 책과 물건을 모으기를 좋아하였다. 특히 양제에 대한 일이 자세한데 모두 다른 책에는 실리지 않은 것들이다. 이에 이를 엮어 〈海山記〉를 만드니 호사가들에게 전하여 그 듣지 못한 바를 듣게 하려는 까닭이다.
>
> 余家世好蓄古書器, 惟煬帝事詳備, 皆他書不載之文. 乃編以成記, 傳諸好事者, 使聞其所未聞故也.[171]

〈隋遺錄〉 또한 본문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大業拾遺記〉(〈隋遺錄〉의 異名)는 다음과 같다. 上元縣은 南朝의 故都로 梁나라 때에 瓦棺寺의 누각을 지었다. 누각의 남쪽 귀퉁이에는 한 쌍의 작은 방이 있었는데 문을 닫아걸고 한참을 잊고 있었다. 會昌연간(841-846) 浮圖를 부수라는 조서가 내려와 이를 열었다가 荀筆 천여 자루를 얻었는데 그 가운데 책이 한 질 있었다. 비록 손이 가는대로 휘갈겨 쓴 것이었으나 알아볼 수 있는 글자들이 있었으니 곧 《隋書》를 쓰고 남긴 원고였다. 그 가운데 백등지 여러 폭이 있었는데 《南部煙花錄》이라고 題하여 있는 것을 僧 志徹이 얻었다. 불경을 태울 때 승려들이 그 香軸을 아까워하여 종이 끄트머리를 다투어 가졌다. 종이를 떼어내고 香軸을 보니 모두 魯郡 文忠公 顔師古의 이름이 있었고 '이 불경은 직접 베낀 것이다'라고 적혀 있으니 앞의 荀筆도 거론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志徹이 지난 일을 기록한 것을 얻어 《隋書》와 대조하여보니 뜻을 숨긴 문장이 많았으며 특히 옛일에 현실을 기탁하고 일은 자못 빠트린 것이 많았다. 國初에 將相이 다투어 王道로 다스림을 보좌하니 顔公이 이전의 사적을 화려하게 묘사하는 것을 꺼려하여 이를 삭제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요임금 시절의 풍속이 돌아오고 수레가 잘 달리니 이 문장이 사라져 辭人과 才子의 이야깃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이를 모아 《大業拾遺記》라고 한다. 본문에 누락된 것이 열에 일곱 여덟이라 모두 보충하였다.
>
> 右《大業拾遺記》者: 上元縣南朝故都, 梁建瓦棺寺閣, 閣南隅有雙閤, 閉之忘記歲月. 會昌中, 詔拆浮圖, 因開之, 得荀筆千餘頭. 中藏書一帙, 雖皆隨手靡書, 而文字可紀者, 乃《隋

171) 劉斧,《青瑣高議》(中國基本古籍庫 [electronic resource])

書》遺稿也. 中有生白藤紙數幅, 題爲《南部煙花錄》, 僧志徹得之. 及焚釋氏群經, 僧人惜其香軸, 爭取紙尾, 拆去視軸, 皆有魯郡文忠顔公名, 題云手寫是錄, 即前之荀筆, 可不擧而知也. 志徹得錄前事, 及取《隋書》校之, 多隱文, 特有書傅會, 而事頗簡脫, 豈不以國初將相爭以王道輔政, 顔公不欲華靡前跡, 因而削乎? 今堯風已還, 得車斯駕, 獨惜斯文湮沒, 不得爲辭人才子談柄, 故編云《大業拾遺記》, 本文缺落凡十七八, 悉從而補之矣.[172]

물론 이와 같은 언급들이 자신들의 사료로서의 신뢰도를 강조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로써 이들이 스스로를 역사기록에 대한 보충으로 자리매김했음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海山記〉, 〈開河記〉, 〈迷樓記〉, 〈隋遺錄〉은 양제와 관련된 일화 가운데 주로 꿈, 수의 패망을 암시하는 자연적·천문학적 신이한 징조들, 운하 착공 과정에 파헤쳐진 古墓에서 일어난 기이한 이야기들, 백성들이 부르는 讖謠 등을 주로 서술하고 있다. 또 양제와 궁궐 여인들 사이의 일화를 다루면서 '迎輦花', '殿脚女', '御車女', '司花女', '蛾綠螺子' 등과 같은 용어의 유래를 풀이해주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듯 《資治通鑑》에 실린 양제에 대한 일화는 태자위를 찬탈하려고 권신과 결탁한 일, 병상에 있는 부황의 후궁을 희롱하여 부황을 노하게 만들어 죽음에 이르게 한 일,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여 낙양을 東都로 삼은 일, 운하를 통해 강도로 순행한 일 등 조정의 대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들이다. 이에 비해 〈海山記〉 등은 스스로가 정통 역사서사에 대한 보충임을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보응, 귀신, 꿈 그리고 여인에 관한 일들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역사적 인물, 그 중에서도 황제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唐 李肇와 같은 이들의 눈에는 '사서에 대한 보충'에조차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李肇는 자신이 쓴 《唐國史補》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역사서사의 기준을 천명하였다.

내가 開元연간부터 長慶연간까지의 일을 모아 《唐國史補》를 쓴 것은 사관이 혹시 빠트린 것이 있으면 보충하려는 뜻이었으니 傳記를 이었으나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다. 보응

172) 顔師古, 〈隋遺錄〉(中國基本古籍庫 [electronic resource])

> 을 말하고 귀신을 서술하고 꿈과 징조를 예언하고 내실의 일을 자세히 서술한 것은 모두 뺐다. 사실을 기록하고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의혹을 판별하고 권계를 드러내고 풍속을 채록하고 담소를 돕는 것은 기록하였다.
>
> 予自開元至長慶撰《國史補》, 慮史氏或闕則補之意, 續傳記而有不爲. 言報應, 敘鬼神, 徵夢卜, 近帷箔, 悉去之. 紀事實, 探物理, 辨疑惑, 示勸戒, 采風俗, 助談笑, 則書之.[173]

이를 통해 보건대 正史, 李肇의《唐國史補》, 그리고〈海山記〉등은 모두 크게 보아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다만 소재를 선별하는 기준과 이를 기록하는 체제와 방식이 편찬자에 따라 각기 달랐을 뿐이다. 정통 역사서사의 편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 사업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관한 엄격한 규범이 일찍부터 성립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마땅히 기록되어야 할 내용을 이미 정해진 체제와 방식으로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李肇의《唐國史補》와〈海山記〉등은 정해진 체제가 없이 단편적인 사실을 간략하게 나열하여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李肇의 주장대로라면《唐國史補》와〈海山記〉는 기록되는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唐代의 인물과 전고, 풍속에 대해 주로 기록한《唐國史補》또한 怪異와 보응에 대한 기록도 싣고 있으며〈海山記〉에도 사실적인 일화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둘의 내용 사이에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174] 다만〈海山記〉,〈開河記〉,〈迷樓記〉,〈隋遺錄〉이 역사적 인물과 역사적 사건에 관한 지식과 정보로서 奇聞과 異事를 더 많이 다루고 있을 뿐이다.[175] 다시 말해 기록된 내용에 있어 국가의 운영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중

---

173) 李肇,《唐國史補》(中國基本古籍庫 [electronic resource])

174) 연구자에 따라서는《唐國史補》의 내용과 이것이 후에《太平廣記》에 대거 수록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를 '小說'로 분류하기도 한다. 姚丹,《李肇《唐國史補》的文學研究》(上海社會科學院 碩士學位論文, 2013) 참고. 이러한 사실은 '小說故事類' 필기와 '歷史瑣聞類' 필기 사이의 구분이 상당히 자의적임을 드러낸다.

175) "신변견문의 일을 자유롭게 기록하는 것이 필기의 양식적 속성이라 할 때, 이 '신변견문의 일'이 반드시 자신과 자기가 속한 계층이 몸소 경험한 직접적 사실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믿기는 어렵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흥미로운 체험도 신변견문의 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기집 속에 민간에서 유전되던 神異談이나 笑話가 수록될 수 있었던 것도 파한과 박학의 자료로서 기록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 자잘한 것이라도 수록하고 보는 필기 저자의 인식과

요도 혹은 자료의 출처나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신뢰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역사서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던 필기는 서사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글쓰기, 곧 唐代의 傳奇나 明代의 문언소설 등으로 분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海山記〉 등의 경우는 정보를 나열하는 서사 방법으로 보건대 서사 자체보다는 정보 전달의 목적이 훨씬 강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필기가 주로 필기집에 실리는 형태로 존재하며 필기집의 성격이 그 안에 실린 필기의 성격을 어느 정도 대변해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海山記〉, 〈開河記〉, 〈迷樓記〉, 〈隋遺錄〉이 실린 《靑瑣高議》와 《說郛》, 《古今逸史》, 《古今說海》의 총서적 성격 또한 〈海山記〉 등이 역사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전하려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隋煬帝艷史》는 이처럼 중요도와 신뢰도에서 차이가 나는 문언필기들을 배제하지 않고 역사를 보충하는 지식과 정보로 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다량으로 서사에 수용하여 또 다른 서사를 만들어내었다. 이는 《隋煬帝艷史》가 《隋唐志傳》과 같이 통감류 사서를 주요한 원천서사로 삼은 초기의 역사연의와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隋煬帝艷史》가 서사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海山記〉, 〈開河記〉, 〈迷樓記〉, 〈隋遺錄〉 등의 원천서사를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각 텍스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海山記〉

① 양제가 태어날 때 기이한 징조들이 일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영특하였음.

② 죽음을 앞둔 문제는 양소에게 장남 勇을 황제로 세울 것을 부탁하나 양제와 결탁한 양소는 거절함.

③ 문제가 붕어하자 양소는 직접 양제의 손을 잡고 보좌에 앉게 함.

④ 공을 세운 양소가 거만해지자 양제가 이를 미워함.

⑤ 양소의 꿈에 문제가 나타나 그를 꾸짖자 양소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함.

⑥ 양소가 죽자 거리낄 것이 없어진 양제는 西苑을 화려하게 지음.

⑦ 양제는 서원의 경치를 보고 〈湖上曲·望江南〉 여덟 수를 지음.

태도 때문이다.” 강상순, 〈필기와 전기의 거리〉(《고전과 해석》, Vol.22, 2017), 32쪽.

⑧ 양제는 꿈에서 죽은 陳後主를 만남.
⑨ 西苑의 玉李와 楊梅가 갑자기 피고, 양제는 玉李가 楊梅보다 무성한 것을 보고 탄식함.
⑩ 양제는 진상 받은 잉어의 머리에 '解生'이라고 적어 풀어주는데 후에 보니 '角'자만 남음.
⑪ 이민족인 王義가 양제를 모시기 위해 스스로 거세함.
⑫ 후궁 牛慶兒는 양제가 불에 타는 꿈을 꿈.
⑬ 용주를 타고 유람하던 양제는 밤에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음.
⑭ 袁充은 천문을 보고 불길한 징조를 알리고 王義는 양제에게 간언을 올린 후 자결함.
⑮ 반역의 무리가 궁에 들어와 양제를 시해하고 朱貴兒 또한 이를 꾸짖다가 죽임을 당함.

〈開河記〉
① 耿純臣이 睢阳에 王氣가 있다고 상주하고 양제는 江都의 풍광을 그리워함.
② 蕭懷靜은 江都까지 운하를 파는 방책을 상주하고 이에 麻叔謀를 총감독으로 공사가 시작됨.
③ 수로를 파는 도중 땅속에서 大金仙의 관이 나와 이장함.
④ 수로를 파기 위해 留侯廟에 바친 白璧을 신선이 나타나 돌려주자 마숙모가 이를 사사로이 취함.
⑤ 狄去邪는 오래 된 무덤에 들어갔다가 양제의 前身인 큰 쥐가 皇甫君에게 벌 받는 것을 보게 됨.
⑥ 陶榔兒는 수로를 바꾸기 위해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요리로 만들어 마숙모에게 바침.
⑦ 睢阳 사람들은 수로를 바꾸기 위해 마숙모에게 뇌물을 바치고 마숙모는 꿈에서 宋襄公, 司馬華元을 만나 金刀 두 개를 받기로 약속함.
⑧ 마숙모는 偃王의 묘에서 偃王에게 옥새를 뇌물로 받은 후 수로를 바꾸고 양제는 갑자기 옥새를 잃어버림.
⑨ 양제는《史記》를 읽고는 신하들의 반대에도 장성을 개축함.
⑩ 운하에 띄울 龍舟를 만들고 殿腳女를 선발함.
⑪ 虞世基의 상주로 양쪽 제방에 버드나무를 심고 楊氏 성을 하사함.
⑫ 鐵脚木鵝를 띄워 운하의 깊이를 측정하고 인부들에게 책임을 물어 운하 양쪽에 생매장함.

⑬ 마숙모는 운하 공사 중의 죄상이 알려져 참형에 처해짐. 그 직전 마숙모는 꿈에서 마침내 두 개의 金刀를 받고 자신이 죽을 것을 알게 됨.

〈迷樓記〉

① 양제가 項升에게 궁궐을 지으라고 명하고 완성되자 迷樓라고 이름을 붙임.

② 何稠는 양제에게 御童女車와 任意車를 만들어 바침.

③ 上官時는 양제에게 烏銅屛을 바침.

④ 왕의는 향락에 빠진 양제에게 간언을 바치고 이에 양제는 금욕하지만 하루 만에 그만둠.

⑤ 양제의 총애를 얻지 못한 侯夫人은 실의에 빠져 시를 남기고 자결함.

⑥ 대업8년 방사가 바친 단약을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양제는 조갈이 들고 궁녀들은 이에 다투어 얼음을 바침.

⑦ 대업9년 양제는 강도에서 궁녀가 부르는 讖謠를 듣고 비탄에 잠겨 시를 남김.

⑧ 후에 唐 태종은 迷樓를 불태우라 명함.

〈隋遺錄〉

① 대업12년 양제는 江都로 떠나면서 東都에 남는 궁녀들에게 절구를 남김.

② 마숙모가 운하에 鐵脚木鵝를 띄워 깊이를 측정하고 공사를 잘못한 인부들을 물에 빠트려 죽인 까닭에 아직도 울음소리가 들림.

③ 何妥는 양제를 위해 제작한 御車를 바치고 袁寶兒는 御車女로 들어와 총애를 받음.

④ 袁寶兒는 낙양에서 진상한 迎輦花를 맡아 돌보게 되어 '司花女'라 불림.

⑤ 虞世南는 양제의 명으로 袁寶兒에 대한 詩를 지음.

⑥ 殿脚女로 뽑힌 미인 가운데 吳絳儀은 양제의 총애를 받고 눈썹 화장을 유행시킴.

⑦ 양제가 袁寶兒, 吳絳儀를 총애하여 진상품인 耀光綾을 주자 蕭后가 투기함.

⑧ 羅羅는 소후의 투기가 무서워 양제를 피하고 양제는 강도로 온 이후로 吳語를 많이 씀.

⑨ 양제는 꿈속에서 陳後主, 張麗華와 만남.

⑩ 양제는 雅娘을 희롱함.

⑪ 양제는 迷樓를 짓고 네 폭의 비단 장막을 깔고 소후를 비롯한 여인들과 즐거움을 누림.

⑫ 불면에 시달리던 양제는 韓俊娥의 도움으로 잠이 들자 '來兒'라는 호칭을 내림.

⑬ 양제는 소후의 투기로 만나지 못하는 吳絳儀에게 合歡果를 보내고 답시를 받음.

⑭ 후궁들과 折字令을 하던 양제는 '淵'자가 나오자 침통해함.

⑮ 반역을 도모하는 신하들은 궁궐의 병사들을 쉬게 할 것을 상주하고 양제는 이를 허락하였다가 시해 당하게 됨.

〈海山記〉, 〈開河記〉, 〈迷樓記〉, 〈隋遺錄〉은 문언필기의 형식적 특성상 하나의 텍스트 안에 인과관계가 없는 개별적인 사건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隋煬帝艷史》는 이 네 편에 기록되어 있는 개별적인 사건들을 史書, 및 다른 문언필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과 섞어 전면적으로 재배치한 후 백화로 이를 번역, 수정, 보충하는 방식으로 다시 썼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8〉《隋煬帝艷史》의 唐宋 문언필기 수용 양상

회목		원천서사	
		정통 역사서사 (史書)	비정통 역사서사 (문언필기)
제1회	隋文皇帶酒幸宮妃 獨孤后夢龍生太子	《隋·獨孤》, 《通鑑》	〈海〉①
제2회	飾名節盡孝獨孤 蓄陰謀交歡楊素	《隋·楊素》, 《通鑑》	〈海〉②
제3회	正儲位謀奪太子 侍寢宮調戲宣華	《隋·楊素》, 《隋·宣華》, 《通鑑》	
제4회	不發喪楊素弄權 三正位阿摩登極	《隋·宣華》, 《通鑑》	〈海〉③
제5회	黃金盒賜同心 仙都宮重召入	《隋·宣華》, 《通鑑》	
제6회	同釣魚越公恣志 撻宮人煬帝生嗔		〈海〉④
제7회	選美女越公强諫 受矮民王義淨身		〈海〉⑪
제8회	逞富强西域開市 擅兵戈薊北賦詩	《隋·煬帝》, 《通鑑》	
제9회	文皇死報奸雄 煬帝大窮土木	《隋·煬帝》, 《通鑑》	〈海〉⑤
제10회	東京陳百戲 北海起三山	《通鑑》	〈海〉⑥

제11회	泛龍舟煬帝揮毫 清夜遊蕭后弄寵	《隋·煬帝》, 《通鑑》	〈海〉⑦
제12회	會花蔭妥娘邀寵 舞後庭麗華索詩		〈海〉⑧
제13회	攜雲傍輦路風流 剪彩爲花冬富貴	《通鑑》	
제14회	煬帝讀史修城 慶兒拯君魘夢	《隋·煬帝》, 《通鑑》	〈開〉⑨, 〈海〉⑫
제15회	怨春偏侯夫人自縊 失佳人許廷輔被收		〈迷〉⑤
제16회	明霞觀李 北海射魚		〈海〉⑨⑩
제17회	袁寶兒賭歌博新寵 隋煬帝觀圖思舊遊		〈隋遺〉③, 〈開〉①
제18회	耿純臣奏天子氣 蕭懷靜獻開河謀		〈開〉①②
제19회	麻叔謀開河 大金仙改葬		〈開〉②③
제20회	留侯廟假道 中牟夫遇神		〈開〉④
제21회	狄去邪入深穴 皇甫君擊大鼠		〈開〉⑤
제22회	美女宮中春試馬 奸人林內夜逢魑		〈開〉⑤⑥
제23회	陶榔兒盜小兒 段中門阻諫奏		〈開〉⑥
제24회	司馬施銅刑懼佞 偃王賜國寶愚奸		〈開〉⑦⑧
제25회	王弘議選殿腳女 寶兒賜司迎輦花	《隋·煬帝》, 《通鑑》	〈開〉⑩, 〈隋遺〉④
제26회	虞世南詔題詩 王令言知不返	〈盧氏雜說〉[176]	〈隋遺〉⑤
제27회	種楊柳世基進謀 畫長黛絳仙得寵	《通鑑》	〈隋遺〉①⑥, 〈開〉⑪
제28회	木鵝開河 金刀斬佞		〈開〉⑫⑬, 〈隋遺〉②
제29회	靜夜聞謠 清宵玩月		〈海〉⑬, 〈迷〉①
제30회	幸迷樓何稠獻車 賣荔枝二仙警帝[177]		〈迷〉①②, 〈隋遺〉⑪
제31회	任意車處女試春 烏銅屛美人照艷		〈迷〉②③
제32회	方士進丹藥 宮女競冰盤		〈迷〉⑥
제33회	王義病中引諫 雅娘花下被擒		〈迷〉④, 〈隋遺〉⑩
제34회	賜光綾蕭后生妒 不薦寢羅羅被嘲		〈隋遺〉⑦⑧
제35회	來夢兒車態怡君 裴玄眞宮人私侍	《隋·煬帝》, 《通鑑》	〈隋遺〉⑫

176) “隋 煬帝가 강도로 순행하려 할 때 樂工 王令言의 아들이 궁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제36회	下西河世民用計 賜雙果絳仙獻詩	《隋·煬帝》, 《通鑑》	〈隋遺〉⑬⑭
제37회	水飾娛情 鑑形失語	《通鑑》	〈隋遺〉⑨, 〈迷〉⑦
제38회	觀天象袁克進言 陳治亂王義死節		〈海〉⑭
제39회	宇文謀君 貴兒罵賊	《通鑑》	〈隋遺〉⑮, 〈海〉⑮
제40회	弒寢宮煬帝死 燒迷樓繁華終	《隋·煬帝》, 《通鑑》	〈海〉⑮, 〈迷〉⑧

이상의 정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隋煬帝艷史》에서 서술된 모든 사건들은 원천서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海山記〉, 〈開河記〉, 〈迷樓記〉, 〈隋遺錄〉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양제의 탄생과 등위, 죽음과 같이 전체 서사를 지탱하는데 필수적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이상의 네 편에 없는 경우는 《隋書》와 《資治通鑑》을 원천서사로 삼았으나, 西苑의 조성과 같이 사서와 문언필기 모두에 기록이 남은 경우 더욱 자세한 문언필기의 기록을 원천서사로 삼았다. 드물기는 하나 〈海山記〉, 〈開河記〉, 〈迷樓記〉, 〈隋遺錄〉 외의 문언필기를 수용한 부분도 확인된다. 둘째, 〈海山記〉, 〈開河記〉, 〈迷樓記〉, 〈隋遺錄〉 등 네 편의 문언필기에 기록된 사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隋煬帝艷史》에서 서사화되었다. 네 편의 문언필기에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배경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고 인물간의 대화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세한 묘

王令言이 아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무슨 곡을 연주하였느냐?' 아들이 대답하였다. '安公子입니다.' 王令言은 아들에게 연주해보라고 하더니 말하였다. '너는 御駕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곡에는 宮聲이 없으니 황제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시지 못할 것이다.' 과연 그의 말처럼 되었다.(隋煬帝幸江都時, 樂工王令言子自內歸. 令言問其子: "今日所進曲子何?" 曰: "安公子." 令言命其子奏之, 曰: "汝不須隨駕去, 此曲子無宮聲, 上必不回." 果如其言.)" 李昉 等編, 《太平廣記》(中華書局, 1961), 1547쪽. 《太平廣記》는 이 조목의 출전을 〈盧氏雜說〉로 기록하였다.

177) 道人이 양제에게 荔枝를 파는 내용은 사서와 〈海山記〉, 〈開河記〉, 〈迷樓記〉, 〈隋遺錄〉에는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隋煬帝艷史》가 구성된 전반적인 방식을 고려할 때 원천서사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필자가 가진 능력의 한계로 이를 찾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사가 삽입되기도 하며 때로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나 장소가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기록에는 없는 그 후의 이야기가 덧붙여지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사화되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隋煬帝艷史》에 수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16세기 이후로 역사연의가 편찬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의 유형을 보여준다. 《隋煬帝艷史》의 경우 역사연의에 대한 통념과 달리 공연예술과의 접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반대로 원천서사로서 이전의 문헌기록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보여주며, 그 가운데 특히 정통 역사서사보다는 문언필기를 대폭 수용하여 편찬되었다. 그리고 문언필기 네 편의 모든 조목들이 《隋煬帝艷史》에서 서사화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작가인 齊東野人은 서사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먼저 구상하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료를 찾아 참고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헌기록 중 한정된 네 편의 문언필기를 원천서사로 삼고 이를 장회체라는 새로운 형식과 白話라는 새로운 서면어를 사용하여 다시 쓰는 방법으로 텍스트를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3. 서사화 방식의 변화와 특징

3.1. 감상의 대상으로 보여주기

《隋煬帝艷史》는 거칠게 말해 양제의 사치와 향락에 대한 서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낙양에 西苑을 지어 머물면서 주색에 탐닉한 일, 운하에 대규모 선단을 띄우고 강도로 여행한 일, 그리고 강도에 머물면서 다시 향락에 빠진 일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양제가 서원에서 지낸 일에 대해서는 정통 역사서사인 《隋書》, 《資治通鑑》, 문언필기인 〈海山記〉에 모두 관련 내용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隋煬帝艷史》와 비교하는 작업은 역사연의의 서사적 특징을 드러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隋書·煬帝紀》는 西苑에 대해 황제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양제가 내린 명령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편찬되었다.

> 3월 정미일 尚書令 楊素, 納言 楊達, 將作大匠 宇文愷에게 조서를 내려 東京을 건설하고 豫州 교외에 사는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였다. 무신일에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중략) 또 阜澗에 顯仁宮을 짓고 海內의 奇禽, 異獸, 草木 등을 가져다가 園苑을 채우게 하고, 천하의 富商大賈 수만 가문을 東京에 옮겨 살게 하였다. 辛亥일 河南 여러 군의 백성 백여만 명을 징발하여 通濟渠를 파게 하여, 西苑에서 穀水와 洛水를 끌어들여 황하까지 닿게 하고 板渚에서 황하를 끌어들여 회하까지 통하게 하였다. 庚申일에 黃門侍郎 王弘과 上儀同 於士澄을 江南으로 보내 목재를 모아 龍舟, 鳳艚, 黃龍, 赤艦, 樓船 등 수 만 척을 만들게 하였다.

三月丁未, 詔尚書令楊素、納言楊達、將作大匠宇文愷營建東京, 徙豫州郭下居人以實之. 戊申, 詔曰, (중략) 又於阜澗營顯仁宮, 採海內奇禽異獸草木之類, 以實園苑. 徙天下富商大賈數萬家於東京. 辛亥, 發河南諸郡男女百餘萬, 開通濟渠, 自西苑引穀、洛水達于河, 自板渚引河通于淮. 庚申, 遣黃門侍郎王弘、上儀同於士澄往江南採木, 造龍舟、鳳艚、黃龍、赤艦、樓船等數萬艘.[178]

《隋書·煬帝紀》에 따르면 大業元年 3월에 양제는 백성들을 잘 살피기 위해 고립되어 있는 장안을 나와 낙양을 동경으로 정하겠다는 조서를 내리고, 顯仁宮과 西苑을 짓고 운하를 파고 배를 건조하게 하였다. 《隋書·煬帝紀》는 일반적인 기전체 정사의 서사 방식을 따라 여러 가지 일을 한 데 모아 간결하게 기록하였으며 황제의 명만을 기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내용에 대해 편년체인 《資治通鑑》은 시간 순서에 따라 3월에 양제가 내린 명을 기록한 후, 4월 林邑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나서 다시 5월에 완성된 西苑의 모습에 대해 서술하였다.

5월에 西苑이 지어지니 주위가 백 里였으며 그 안에 호수가 있는데 그 주위가 십 수 里였다. 蓬萊山, 方丈山, 瀛洲山은 높이가 모두 물 위로 수 백 척이었으며 臺, 觀, 殿閣이 산 위를 감싸며 앞뒤로 늘어서있는 것이 仙境 같았다. 북쪽에는 龍鱗渠가 굽이굽이 흘러 호수로 들어갔다. 수로를 따라서 十六院을 지으니 대문을 모두 수로와 닿게 하였다. 매 원마다 四品夫人이 이를 관리하게 하였으며 집과 누각이 모두 매우 화려하였다. 궁궐의 나무가 가을, 겨울이 되어 시들면 비단을 마름질해 꽃과 잎을 만들어 나뭇가지에 매달고 색이 바래면 새것으로 바꾸니 항상 봄과 같았다. 연못 안에도 비단을 마름질해 연꽃과 마름꽃으로 만들어 乘輿가 행차하면 얼음을 걷어내고 그것을 깔았다. 十六院에서는

178) 《隋書》, 《二十四史全釋》(漢語大詞典出版社, 2003), 52-53쪽.

좋은 음식을 서로 뽐내며 황제의 총애를 구하였다. 황제는 달밤에 궁녀 수천 명을 따르게 하고 서원에서 말을 달리며 노는 것을 좋아하였다. 〈清夜遊曲〉을 지어 말 위에서 그것을 연주하게 하였다.

五月, 築西苑, 周二百里, 其內爲海, 周十餘里, 爲蓬萊、方丈、瀛洲諸山, 高出水百餘尺, 臺觀殿閣, 羅絡山上, 向背如神. 北有龍鱗渠, 縈紆注海內. 緣渠作十六院, 門皆臨渠, 每院以四品夫人主之, 堂殿樓觀, 窮極華麗. 宮樹秋冬彫落, 則翦綵爲華葉, 綴於枝條, 色渝則易以新者, 常如陽春. 沼內亦翦綵爲荷芰菱芡, 乘輿遊幸, 則去冰而布之. 十六院競以殽羞精麗相高, 求市恩寵. 上好以月夜從宮女數千騎遊西苑, 作清夜遊曲, 於馬上奏之.[179]

《資治通鑑》은《隋書》와 달리 西苑의 화려한 모습과 그 안에서 누린 양제의 호화로운 생활까지 간결하게 기록하여 정통 역사서사의 규범을 지키는 동시에 양제의 사치와 향락을 부각시켰다.《資治通鑑》의 이 한 단락의 내용이《隋煬帝艷史》의 제9회에서부터 제13회까지에서 서사화된다.《隋煬帝艷史》는 현인궁과 서원을 지은 까닭부터 사서의 기록들과 다르게 서사화한다. 즉 정치적 목적이 아닌 유람의 목적으로 지은 것으로 고쳐[180] 양제의 품성을 드러낸 후 여러 회에 걸쳐 西苑

179) 司馬光,《資治通鑑》, 2170쪽.

180) "양제는 조회를 받은 후 마음은 더욱 만족스럽고 뜻은 더욱 교만해졌다. 얼마 지나자 顯仁宮에서 노니는 것이 염증이 나서 이에 어가를 서경으로 돌리라고 명했다. 궁으로 돌아오니 소후가 맞이하여 말했다. '폐하께서는 현인궁에서의 유람이 몹시 즐거우셔서 제가 깊은 궁궐에서 적막한 것은 생각지 않으셨습니까?' 양제가 말했다. '짐이 어찌 황후와 같이 즐기고 싶은 마음이 없겠소? 다만 길이 멀어 오가기가 불편해서 그러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다시는 동경에 가지 못하겠군요.' 소후가 말하고는 슬퍼하였다. 양제가 말했다. '황후는 슬퍼하지 미시오. 그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소. 동경의 현인궁은 다만 몇 간의 궁궐에 불과하여 그다지 좋은 곳이 없어 짐은 이미 노니는 데 싫증이 났소. 내일 현인궁 옆에 넓은 곳을 골라서 苑囿를 만들라고 하겠소. 그렇게 하면 짐과 황후는 마음대로 동경에 가서 아침저녁으로 노닐면 되니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소!' 소후가 매우 기뻐하며 말하였다. '그렇게 한다면 폐하의 깊은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술상을 마련해 양제가 돌아온 것을 축하했다.(煬帝受朝之後, 心愈滿, 志愈驕. 不多時, 又將一所顯仁宮遊厭了. 遂命駕還西京. 回到宮中, 蕭后接住說道: "陛下在顯仁宮, 遊覽甚暢, 亦念妾深宮寂寞否?" 煬帝道: "朕豈不思與御妻同樂, 但恨路遠, 往來不便." 蕭后道: "這般說, 則妾再不能到東京矣." 便慘然不樂. 煬帝道: "御妻休惱, 這有何難! 東京顯仁宮, 不過是幾間宮殿, 無什好處, 朕已厭遊. 明日在顯仁宮旁邊選一塊寬大地方, 另造一所苑囿, 朕與御妻, 索性遷到東京, 朝夕遊賞, 有何不可!" 蕭后歡喜道: "若得如

의 외관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고 더불어 양제의 방탕한 일상을 구체적으로 서사화한다. 西苑에 대한 묘사는 양제의 명에 대한 우세기의 상주로 시작된다.

우세기가 말하였다. "신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쪽에는 동, 서, 남, 북, 중앙에 다섯 개의 호수를 파고 각 호수마다 둘레를 10리로 한 후 호수 주변에 기이한 화초들을 심습니다. 호수 옆에는 몇 개의 긴 둑을 쌓고 둑 위에는 100보마다 亭 하나, 50보마다 榭 하나를 짓고 양쪽 기슭에는 桃花를 삼고 둑에는 두 줄로 楊柳를 심습니다. 또 龍舟鳳舸를 몇 척 만들어 주연에 쓰게 합니다. 북쪽은 땅이 드넓으니 北海를 하나 만들어 그 둘레를 40리로 하고 도랑을 파서 五湖와 서로 통하게 합니다. 북해 가운데는 산을 세 개 만드니, 蓬萊山, 方丈山, 瀛洲山을 만들어 바다에 있는 세 개의 神山처럼 보이게 합니다. 산 위에는 많은 누대와 전각을 지어 주위와 어울리게 합니다. 산꼭대기를 100丈의 높이로 만들면 동경의 箕山과 潁水를 모두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서경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멀리 강남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호수와 북해가 만나는 중앙에는 正殿을 짓습니다. 북해의 북쪽에는 구불구불한 긴 도랑을 파서 바깥의 강물을 끌어들여 굽이에 따라 완곡하게 굽어 흘러 북해로 통하게 합니다. 도랑 양편의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院을 하나씩 지으면 일대에 16개의 院을 지을 수 있으니 院 안에는 미인들을 두어 물을 뿌리고 쓸게 합니다. 신의 비루한 의견이 이와 같으니 성지를 내려주시옵소서."

虞世基道: "以臣愚見, 南半邊可分東西南北中, 挖它五個湖, 每湖要方圓十里, 四圍盡種奇花異草; 湖旁開幾條長堤, 堤上百步一亭, 五十步一榭, 兩邊盡要桃花夾岸, 楊柳分行, 再造些龍舟鳳舸, 以備宴遊. 向北這半邊地勢寬曠, 可掘一個北海, 周圍要四十里爲圓, 鑿渠與五湖相通. 海中間可造三座山: 一座蓬萊, 一座方丈, 一座瀛洲, 就像海上的三神山一般. 山上多造樓台殿閣, 四圍掩映; 山頂要高出百丈, 東京的箕山、潁水, 便可一覽而盡; 又可以回眺西京, 又可以遠望江南. 湖海交界中間, 卻造正殿. 海北一帶, 可委委曲曲鑿一道長渠, 引接外邊的河水, 隨灣就灣, 俱要縈回婉轉, 曲通於海. 傍渠勝處, 便造一院, 一帶可造十六院, 院中俱填實美人, 以備灑掃. 臣鄙見若此, 伏乞聖旨裁定."[181]

독자는 상주를 읽는 것만으로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서원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된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묘사는 더욱 자세해지고 이에 따라 서원

此, 感陛下之恩不淺." 遂排宴與煬帝接風.)" 齊東野人,《隋煬帝艷史》, 제10회, 109쪽.

181) 齊東野人,《隋煬帝艷史》, 110쪽.

의 모습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우세기는 수많은 백성과 재원을 동원하여 공사를 완성하고 양제를 청한다.

> 서원을 둘러싼 담장은 모두 琉璃로 기와를 만들었고 윤기 나는 붉은 진흙으로 벽을 만들었다. 五湖와 北海는 모두 青石을 깎아 기슭을 만들었고 운하의 바닥은 五色 벽돌을 깔아 만들었다. 깨끗한 물이 흘러 비추면 수면에 오색 물결이 일었다. 三神山은 모두 높은 산의 기암괴석을 쌓아서 험준하게 만드니 마치 하늘에서 내린 세 개의 석산 같아 전혀 사람이 만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누각은 기이한 재목과 재료를 쓰고 금으로 장식하고 옥으로 채웠다. 마치 비단에 수를 놓아 만든 것 같고 온갖 구슬과 옥으로 만든 것 같으니 어느 것 하나 천하의 아름다움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중략) 西苑을 가득 채운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가 길에 늘어서고 매화가 전각을 감싸고 버드나무가 제방에 늘어지고 仙鶴이 줄지어 날고 錦雞가 쌍을 이루고 金猿이 같이 울고 青鹿이 노닐었다. 마치 천지를 새로 가르고 만들어진 것만 같으니 사방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여 그 뼈와 피로 만든 것이다. 이 대규모 공사는 얼마만큼의 錢糧을 낭비하고 얼마만큼의 생명을 해쳤는지 알 수도 없게 되어서야 완성되었다. 우세기는 공사가 끝나자 표를 올려 양제에게 와서 볼 것을 청했다.
>
> 苑牆上都以琉璃作瓦, 紫脂泥壁. 五湖北海, 俱以青石剝岸, 長渠徹底, 俱以五色石砌成. 清泉映帶, 水面上俱漾成五彩. 三神山, 都用長峰怪石疊得嶙嶙峋峋, 就像天生的三座石山, 一毫不似人力築成. 台榭盡是奇材異料, 金裝玉裹, 渾如錦繡裁成, 珠璣造就. 無一事一物不是窮天下之美. (중략) 把一個西苑填塞的桃成蹊、李列徑, 梅繞屋、柳垂堤, 仙鶴成行、錦雞作對, 金猿共嘯、青鹿交遊. 就像天地間開辟生成的一般, 只苦了四方的百姓, 拖累的骨血淋漓. 這一場土木之工, 也不知耗費多少錢糧, 也不知坑害多少性命, 方得完成. 虞世基造完了, 便表請煬帝親臨來看.[182]

이제 서원은 설계단계에서 벗어나 실재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황후와 함께 한달음에 달려온 양제는 매우 흡족해하며 서원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감상하고 다섯 개의 호수와 열여섯 개의 院에 각각 이름을 붙인다. 이후로 양제는 매일 황후, 후궁과 어울려 낮에는 기이한 화초와 경치를 감상하고 밤에는 등불을 달고 야경을 즐겼으며 시를 짓고 술을 마셨다. 후궁들은 주연을 준비하고

182) 齊東野人,《隋煬帝艷史》, 111쪽.

노래를 연습하고 기예를 갈고닦아 양제를 기쁘게 했다. 제11회부터 제17회까지의 일곱 회는 모두 서원에서의 遊樂에 대한 서사로 대부분 문언필기를 원천서사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소와 때에 따라 달라지는 서원의 경관과 여러 후궁들의 각기 다른 기예가 원천서사와 달리 자세히 묘사되고 예찬된다.

《隋煬帝艷史》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와 같은 자세한 묘사는 《金瓶梅》와 같은 인정소설과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다. 화려한 옷이나 기물, 장식 혹은 누각과 원림, 그리고 떠들썩한 연회와 공연을 눈앞에 보는 듯이 상세하게 묘사하는 서사 기법은 명말의 인정소설뿐만 아니라 소품문 등에도 자주 나타난다. 이는 당시 사회의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물질문화의 발달과, 이에 대한 감상을 문인의 고급 취향으로 전유하려는 욕망이 만나 만들어낸 다양한 문화현상이 글쓰기로 옮겨오면서 생긴 결과로, 《隋煬帝艷史》 또한 그러한 시대적 흐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隋煬帝艷史》에서는 서술자가 노골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위의 예문에서 西苑에 대해 "얼마만큼의 錢糧을 낭비하고 얼마만큼의 생명을 해쳤는지 알 수도 없다"고 표현한 데에서 드러나듯 기본적으로 양제의 사치와 향락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눈앞을 가득 채운 경관에 대한 생생한 묘사는 독자로 하여금 이러한 비난을 순간순간 망각하게 만든다. 독자는 폭군에 대한 권계를 잠시 잊고 대상을 감상하게 되는 것이다.

뛰어난 경관과 즐거운 유희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더불어 본문에 삽입된 시들 또한 독자의 이러한 감상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隋煬帝艷史》의 본문에는 아름다운 풍광 혹은 미녀들의 모습을 읊는 시들이 다수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183] 시를 짓고 감상하는 일 자체를 서사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면들은 보이는 것을 심미적 대상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이를 마주하고 느끼는 정서까지 공유하게 만든다. 특히 제11회에서 서원의 모습을 보고 양제가 직접 〈望江南〉 여덟 수와 〈清夜曲〉을 읊는 장면은 독자로 하여금 풍광을 읊는 양제와 시선을 맞

183) 《隋煬帝艷史》에 들어간 시는 다양하게 기능한다. 사건의 전개를 암시하거나 도덕적 권계를 나타내는 시들도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풍광이나 미녀를 묘사하거나 이를 마주한 감상을 드러내는 시이다.

추고 양제의 감상에 공감하게 한다. 수로에 배를 여러 척 띄워 풍경을 구경하며 술을 마시던 양제는 음악을 연주시키고 신하들에게 시를 짓도록 한다. 이에 虞世基, 薛道衡, 牛弘 등이 순서대로 시를 지어 올리자 이를 보고 흡족해진 양제는 '湖上月', '湖上柳', '湖上雪', '湖上草', '湖上花', '湖上女' ,'湖上酒', '湖上水'의 〈望江南〉 여덟 수를 읊는다.

> 煬帝는 매우 기뻐하며 근시에게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고 명하고는 붓을 휘둘러 〈望江南〉 여덟 수를 지어서 호수 위의 여덟 가지 풍광을 읊었다. 제일 첫 수는 호수 위의 달[湖上月]을 읊었다. "호수 위의 달, 늘어선 신선의 집들을 비추네. 물속에 담긴 차가운 달빛은 베개와 이부자리를 펴놓은 듯하고, 물결에 일렁이는 맑은 달그림자는 금빛 뱀이 지나가는 듯하네. 그야말로 은하수에 띄운 배이네. 풍광 아름다운데 가벼운 광채는 보는 가운데 기울어가네. 맑은 이슬은 은토끼의 그림자를 차게 적시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계수나무의 꽃잎을 떨어트리네. 주연을 열어 한없이 그리워하네."
>
> 煬帝大喜, 隨命近侍, 展開紙筆, 揮豪染翰, 御制〈望江南〉八闋, 單詠湖上八景云: 第一首詠湖上月: 湖上月, 遍照列仙家. 水浸寒光鋪枕簟, 浪搖晴影走金蛇. 偏稱泛靈槎. 光景好, 輕彩望中斜. 清露冷侵銀兎影, 西風吹落桂枝花. 開宴思無涯.[184]

양제의 文才에 대해서는 《隋書》와 《資治通鑑》에도 언급되어 있으며 그의 시 또한 여러 곳에 수록되어 있다. 〈海山記〉 또한 西苑의 조성에 대한 내용과 함께 〈望江南〉을 실고 있다. 그러나 〈海山記〉에서 서원과 양제의 〈望江南〉은 《隋煬帝艷史》와 다른 방식으로 서사화되어 있다.

> 양제는 양소가 죽자 더욱 거리끼는 것이 없어졌다. 이에 주위 200리를 파헤쳐 西苑으로 만드니 노역을 한 백성이 백만에 달하였다. 서원 안에 十六院을 만들고 기이한 돌을 모아 산을 만들었으며 천하의 모든 금수와 초목을 경사로 가져오라는 조서를 내렸다. 천하에서 진상한 꽃과 나무, 날짐승, 길짐승, 물고기와 곤충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이니 여기에는 일일이 기록하지 않겠다. 서원의 十六院에도 이름을 내렸다. 차례로 景明院, 迎暉院, 棲鸞院, 晨光院, 明霞院, 翠華院, 文安院, 積珍院, 影紋院, 儀鳳院, 仁智院, 清修院, 寶林院, 和明院, 綺陰院, 絳陽院이니 모두 양제가 지은 이름이다. 院에는 스무 명을

184) 齊東野人, 《隋煬帝艷史》, 122쪽.

두었는데 모두 궁에서 수려하고 성실하며 미색이 있는 이들을 뽑아 채웠다. 院마다 양제가 평소 아끼는 이를 우두머리로 삼았다. 院마다 환관이 있어 물자를 관리했다. (중략) 양제는 주로 東湖에서 배를 띄워 놀았다. 이에 〈望江南〉 여덟 수를 지었다. '호수 위의 달, ... (중략)' 양제는 호수에서 놀 때 궁중의 미인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자주 명하였다.

帝自素死, 益無憚, 乃闢地周二百里爲西苑, 役民力常百萬. 苑內爲十六院, 聚巧石爲山, 鑿池爲五湖四海. 詔天下境內所有鳥獸草木, 驛至京師. 天下共進花木鳥獸魚蟲, 莫知其數, 此不俱載. 詔定西苑十六院名: 景明一 迎暉二 棲鸞三 晨光四 明霞五 翠華六 文安七 積珍八 影紋九 儀鳳十 仁智十一 清修十二 寶林十三 和明十四 綺陰十五 絳陽十六, 皆帝自制名. 院有二十人, 皆擇宮中佳麗謹厚有容色美人實之. 每一院, 選帝常幸御者爲之首. 每院有宦者, 主出入易市. (중략) 帝多泛東湖. 因制湖上曲〈望江南〉八闋云, 湖上月, ... (중략) 帝常游湖上, 多令宮中美人歌此曲.[185]

〈海山記〉는 서원의 조성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서술 뒤에 열여섯 院과 다섯 호수의 이름을 각각 나열한 뒤 이어서 〈望江南〉 여덟 수를 기록하였다. 〈海山記〉가 西苑에 대해 기록하면서 취한 방식은 주로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며, 이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 외의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望江南〉 또한 양제가 지었다는 시를 채록하여 전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뿐이다.

정리하자면 《隋煬帝艷史》는 《隋書》, 《資治通鑑》 그리고 〈海山記〉 등의 문언필기를 원천서사로 삼아 서사를 구성하였으며, 기본적인 줄거리도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 독자가 《隋煬帝艷史》를 통해 새롭게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 없다. 그러나 《隋煬帝艷史》의 서사 방식은 원천서사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즉 역사적 사실을 요약·정리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원천서사들과 달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눈앞에 생생하게 재현되도록 만들었다. 또 다량의 시를 삽입하였으며 특히 시를 읊는 행위까지 함께 서사화하였다. 이러한 서사 방식은 《隋煬帝艷史》가 원천서사뿐만 아니라 초기의 역사연의와 차별화되는 지점으로, 양제의 사치와 향락을 감상의 대상으로 만들고 독자로 하여금 그 정서에 이입되도록 한다. 수 양제의 일생은 '망국의 군주의 사치와 향락'이라는 전제 아래 서술되지만 순간순간 도드라지는 묘사와 시를 통한 감정의 이입으로 인해 독자는 일시적이나

185) 〈海山記〉(中國基本古籍庫 [electronic resource])

마 교훈적 태도를 내려놓고 수 양제의 일상을 같이 감상하게 된다. 이제 독자는 표면에 드러나는 역사적 정보를 읽고 거기서 오는 교훈을 이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역사연의의 서사 자체를 즐기게 된다.

3.2. 사건의 재배치와 白話로의 전환

《隋煬帝艷史》는 사서와 문언필기 등의 원천서사를 백화로 바꾸고 수정·보충한 후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을 사용하여 서사화하였다. 그 과정 중에 원천서사의 기록을 해체하여 재배치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서사로 구성해냈다. 그 결과 같은 사건도 원천서사와 다른 맥락에 위치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隋遺錄〉을 원천서사로 한 제25회 '迎輦花'에 관한 서사는 바로 이러한 예에 속한다. 먼저 〈隋遺錄〉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長安에서 진상한 御車女 袁寶兒는 나이가 열다섯으로 허리는 가늘어 부서질 듯 하고 천진난만하면서도 아름다워 황제의 총애가 매우 깊었다. 어느 날 낙양에서 合蒂迎輦花를 진상하며 말하기를 嵩山의 한 마을에서 얻었는데 사람들이 이름을 몰라 채취한 이가 기이하게 여겨 진상한 것이라 하였다. 마침 어가가 이르니 이에 '迎輦花'라고 이름하였다. 꽃의 바깥쪽은 짙은 붉은색이었으나 안쪽은 하얗고 향기가 났다. 꽃술은 매우 빨갛고 하나의 꽃받침에 두 송이의 꽃이 피어있었다. 가지와 줄기는 검푸르니 으름나무와 비슷하지만 가시가 없고 잎이 둥글며 길고 얇았다. 그 향기가 매우 짙어 소매에 넣어두면 며칠이 지나도 흩어지지 않으며 향기를 맡으면 잠이 오지 않았다. 황제가 원보아에게 이를 돌보라 명하고는 그녀를 '司花女'라 불렀다.
>
> 長安貢御車女袁寶兒, 年十五, 腰肢纖墮, 怠憨多態, 帝寵愛之特厚. 時洛陽進合蒂迎輦花, 云得之嵩山塢中, 人不知名. 采者異而貢之. 會帝駕適至, 因以迎輦名之. 花外殷紫, 內素膩菲芬, 粉蕊, 心深紅, 跗爭兩花. 枝干烘翠, 類通草, 無刺, 葉圓長薄. 其香濃芬馥, 或惹襟袖, 移日不散, 嗅之令人多不睡. 帝命寶兒持之, 號曰司花女.[186]

186) 顔師古, 〈隋遺錄〉(中國基本古籍庫 [electronic resource])

'迎輦花'의 유래를 설명하는 〈隋遺錄〉의 이 부분은 서원에서 일어난 여러 奇聞과 異事에 대한 기록에 속한다. 〈隋遺錄〉은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들을 나열하여 역사에 대한 파편화된 정보를 제공할 뿐 일관된 맥락을 통해 의미를 만들고 있지는 않다. 이에 비해《隋煬帝艶史》는 이 이야기를 일관된 맥락을 가진 서사의 한 가운데로 잘 이어 붙여 놓았다.

양제가 취한 눈을 뜨고 몽롱하게 바라보니 3척 높이의 꽃이 백옥화분에 심어져 있었다. 꽃잎이 무척 아름다우니 바깥은 진한 붉은 색이고 안은 눈처럼 하얀 것이 부드러운 미인의 피부와 같았다. 가느다란 실처럼 붉은 꽃술 여러 가닥을 그 안에 품고 있었고 잎은 둥글고 길었으며 가지는 부드럽고 푸르렀다. 꽃대는 하나였으나 위에는 두 송이의 꽃이 달렸으며 향기가 매우 진하게 풍겨왔다. 양제가 보고서 매우 기뻐하며 하나를 꺾어다가 직접 코에 대고 향을 맡아보았다. 사실 이때 양제는 이미 많이 취해서 어지럽고 졸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꽃이 신기한 것이 향을 한 번 맡으니 취기가 반이 가시고 다시 한 번 맡으니 정신이 완전히 맑아져 자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중략) 양제가 迎輦花를 손에 쥐고 계속하여 향기를 맡으니 숙취가 모두 깨는 듯 정신이 맑아져 아쉬운 마음에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가가 서원에 도착하였다. 여러 부인들이 연이어 물었다. "폐하께서 오늘 군신들에게 연회를 베푸시어 용주를 만든 것을 축하하신다고 하셨으니 분명 군신들과 술을 많이 드셨을 텐데 어찌 취기가 하나도 없으신가요?" 양제가 말했다. "짐이 많이 취했었는데 오는 도중에 우연히 낙양에서 바친 기이한 꽃을 보았네. 향기를 몇 번 맡았을 뿐인데 취기가 다 사라졌네." (중략) 여러 부인들이 서로 이 꽃을 돌보겠다고 다투었다. 양제가 웃으며 말했다. "이 꽃은 자네들이 돌볼 수 없네. 돌보기에 적당한 사람이 딱 하나 있네." 여러 부인들이 물었다. "돌보기에 적당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양제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손가락으로 원보아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네." 여러 부인들이 기분이 상해 물었다. "저희들은 돌볼 수 없다면서 어찌 袁미인만은 돌보기에 적당한가요?" 양제가 웃으며 말했다. "여러 부인들은 나무라지 마시게. 원보아는 본디 장안에서 진상한 御車女이고 이 꽃은 짐이 迎輦花라고 이름하였네. 御車女가 迎輦花를 돌보는 것이 어찌 적당하지 않겠는가?" 이에 원보아를 불러 꽃을 가져가게 하였다. 또 "이 꽃은 서원에 딱 하나뿐이니 네가 司花女가 된 이상 잘 돌보거라."라고 분부하였다. 원보아가 성지를 받고 천진하게 웃으며 迎輦花를 가지고 갔다. 이로 인해 서원에서는 모두 그녀를 司花女라고 불렀다. (중략) 다음날 소후가 이 일을 듣

고는 급히 술상을 차려와 이를 감상하였다. 양제가 술이 반쯤 취하였을 때 말하였다. “짐이 이 꽃을 얻으니 仙丹을 얻은 것 같소.” 소후가 말했다. “어째서 仙丹 같다고 하십니까?” 양제가 웃으며 말했다. “취했을 때 이 꽃의 향을 맡으면 바로 취기가 사라지오. 이에 천 잔의 술을 먹을 수 있던 것이 이제 이천 잔의 술을 먹을 수 있게 되었소. 또 이 꽃의 향을 맡으면 졸리지가 않소. 이에 백 년을 살 수 있다면 밤에 잠을 자지 않으니 이 백 년을 사는 셈이니 어찌 仙丹이 아니겠소.” 소후가 웃으며 말했다. “그리 말씀하시니 술을 실컷 마시고 잠들지 않는 것이 신선이 되는 것이군요.” 양제도 웃으며 말했다. “부귀를 오래도록 누리는 것이 신선이 아니라면 무엇이 신선이겠소!”

煬帝睜開醉眼，模模糊糊的一看，只見那花只有三尺來高，種在一個白玉盆裏．花朵兒生得鮮艷可愛，外邊是深深的紫色，裏邊卻潔白如雪，膩膩滑滑，就如美人的肌膚一般，十分可愛．幾絲細細的紅心兒，直深含在著裏，葉圓而長，枝柔而翠，凡是一個蒂兒，上面都是兩枝花，香氣濃馥侵人．煬帝看了大喜，隨叫摘下一朵，親手拿到鼻上去嗅．原來煬帝此時，已有八分醉意，未免昏昏思睡．不想這花奇怪，嗅了一嗅，酒氣便醒去一半．再嗅一嗅，就恍然清醒起來，竟不思睡．(중략) 煬帝將迎輦花拿在手中，連嗅幾嗅，便覺宿酒俱醒，神情爽快，心下十分愛惜，不忍釋手．不多時，駕到了西苑．衆夫人接住問道:“陛下今日賜宴群臣，慶賀龍舟，定然君臣歡飮，如何歸來，全無酒意?”煬帝說道:“朕已大醉，不期路上適遇洛陽令獻一種奇花，朕只聞了幾聞，不覺酒都醒了.”(중략) 衆夫人都要奪這花管．煬帝笑笑說道:“這花衆妃子都不可管，惟一人管了，方才相宜.”衆夫人問道:“哪個管便相宜?”煬帝四圍看一看，將手指著袁寶兒說道:“非此人不可.” 衆夫人聽了，都氣不悅道:“賤妾等偏不可管，如何獨袁美人管了便相宜?”煬帝笑道:“衆妃子不要怪，袁寶兒原是長安進貢來御車的，這花朕取名叫迎輦花，御車女管了迎輦花，豈不相宜!”遂叫袁寶兒將花領去．又吩咐道:“這花苑中無第二棵，你既做了司花女，便要看管好了.” 袁寶兒領旨，憨憨的笑著，把迎輦花移了進去．由此滿苑中，都叫她做司花女．(중략) 次日，蕭后聞知，忙移宴來賞玩．煬帝吃到半酣之際，說道:“朕得此花，就如得了一種仙丹.”蕭后道:“爲何卻像仙丹?”煬帝笑道:“此花吃醉了，聞一聞便醒；吃得一千盅的量，便吃得二千盅．此花聞了，再不思睡；受用了一百年，連夜裏算將來，便是二百年，豈不是一種仙丹!”蕭后笑道:“這等說來，能飮酒不睡的，便是神仙了.”煬帝又笑笑說道:“長享富貴不是神仙，哪裏更有神仙!”[187]

문언필기는 대개 단편적인 기록의 형식을 취한다. 특히나 초기의 필기들은 항

187) 齊東野人,《隋煬帝艷史》, 283-285쪽.

목별로 필요한 내용을 편하게 찾아서 典故로 쓰거나 詩作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으며《隋煬帝艷史》가 참조한 당송대의 문언필기들 또한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隋煬帝艷史》는 문언필기의 단편적인 기록을 내부적으로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치를 바꾸어 신중하게 기획된 하나의 서사로 만들어내면서 이전에 없던 맥락을 형성한다. 이제 '御車女'와 '迎輦花'라는 용어의 어원과 고사를 전달해주던 〈隋遺錄〉의 기록은《隋煬帝艷史》의 서사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간다. 원보아 한 사람이 등장하던 짤막한 기록은 여러 인물이 등장하며 일정한 편폭을 가진 서사로 변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가지지 않았던 이야기는 생생한 시간과 공간 위에 놓여진다. 또 단편적이고 독립적이었던 사건은 여러 다른 사건들과 연결된다. 迎輦花에 관한 서사의 전후로 순행을 위한 대규모 龍舟의 건조, 신하들과의 떠들썩한 연회, 여러 부인들이 총애를 다투는 일이 하나의 서사로 엮이며 그 끝에는 신선놀음에 가까워진 수 양제의 극도의 향락 추구가 놓인다. 그 결과 迎輦花의 유래를 설명해주던 원천서사의 단편적인 기록은《隋煬帝艷史》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서사화되어 '수양제의 사치와 향락으로 인한 실정'이라는 거대한 맥락 안으로 포섭된다. 빼어난 모습과 짙은 향을 가지고 있는 '迎輦花'는 이제 숙취를 제거하여 극도의 향락을 누리게 해주는 선단이 된다.

양제가 부황의 후궁인 선화부인을 희롱하는《隋煬帝艷史》의 서사는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 먼저 양제와 선화부인 사이의 일에 대한《資治通鑑》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원래 文獻皇后가 죽고 나서 宣華夫人 陳氏와 容華夫人 蔡氏가 모두 총애를 받았다. 陳氏는 陳 高宗의 딸이고 蔡氏는 丹楊 사람이다. 文帝가 仁壽宮에서 앓아 누워있을 때 尚書左僕射 楊素, 兵部尚書 柳述, 黃門侍郎 元巖이 모두 궁에 들어가 황제의 병시중을 들었고 皇太子는 大寶殿에 머물게 했다. 太子는 문제가 죽을 것을 걱정하여 만약의 일에 대비하기 위해 손수 편지를 써 밀봉하여 양소에게 물었다. 양소는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여 태자에게 알렸다. 宮人이 이를 잘못하여 文帝에게 바치니 문제가 보고서 대노하였다. 陳夫人이 새벽녘에 옷을 갈아입으러 나왔다가 태자에게 위협을 받았으나 거절하고 피하여 文帝에게 돌아왔다. 문제는 진부인의 얼굴빛이 이상한 것을 보고는 그 까닭을 물었다. 진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태자가 무례하게 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문제는 노하여 병상을 밀치며 일어나 "짐승 같은 놈에게 어찌 대사를 맡길 수 있겠는가! 독고황후가 나를

그르쳤구나."라고 말했다. 그리고 柳述, 元巖을 불러 "내 아들을 부르거라!"라고 하였다. 柳述 등이 태자를 부르려하자 문제는 "장남 勇을 불러라."라고 하였다. 元巖이 밖으로 나가 칙서를 썼다. 楊素가 이를 듣고는 태자에게 알리고서 조서를 거짓으로 꾸며 柳述, 元巖을 잡아다가 大理獄에 가두었다. 또 東宮의 兵士에게 上臺의 숙위를 따르게 하고, 궁문에 출입을 금하고는 이를 宇文述, 郭衍에게 맡겼으며, 右庶子 張衡을 불러 침전에 들어 병시중을 들게 하고는 후궁들은 모두 내보내 별실에 머물게 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붕어했다. 그런 까닭에 안팎으로 자못 異論이 있게 되었다. 진부인과 후궁들은 변고가 생겼다는 것을 듣고는 서로 돌아보며 두려워 얼굴빛이 변하였다. 얼마 후 태자가 사자를 시켜 작은 금합을 보냈는데 가장자리에 종이를 붙이고는 직접 서명하고 봉하여 진부인에게 내린 것이었다. 진부인이 보고는 두려워하니 鴆毒이라 여기고는 감히 열지 못하였다. 사자가 재촉하여 열어보니 금합의 가운데 同心結이 여러 개 들어있었다. 宮人들이 모두 기뻐하며 "죽음은 면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진부인은 노하여 주저앉아 감사인사를 드리려하지 않았으나 궁인들이 모두 다그치자 사자에게 감사의 절을 하였다. 그날 밤 태자는 진부인과 蒸하였다.

初, 文獻皇后旣崩, 宣華夫人陳氏、容華夫人蔡氏皆有寵. 陳氏, 陳高宗之女. 蔡氏, 丹楊人也. 上寢疾於仁壽宮, 尚書左僕射楊素、兵部尚書柳述、黃門侍郎元巖皆入閤侍疾, 召皇太子入居大寶殿. 太子慮上有不諱, 須預防擬, 手自爲書, 封出問素. 素條錄事狀以報太子. 宮人誤送上所, 上覽而大恚. 陳夫人平旦出更衣, 爲太子所逼, 拒之, 得免, 歸於上所. 上怪其神色有異, 問其故. 夫人泫然曰太子無禮! 上恚, 抵床曰畜生何足付大事! 獨孤誤我! 乃呼柳述、元巖曰, 召我兒! 述等將呼太子, 上曰勇也. 巖出閤爲敕書. 楊素聞之, 以白太子, 矯詔執述、巖, 繫大理獄, 追東宮兵士帖上臺宿衛, 門禁出入, 並取宇文述、郭衍節度, 令右庶子張衡入寢殿侍疾, 盡遣後宮出就別室, 俄而上崩. 故中外頗有異論. 陳夫人與後宮聞變, 相顧戰栗失色. 晡後, 太子遣使者齎小金合, 帖紙於際, 親署封字, 以賜夫人. 夫人見之, 惶懼, 以爲鴆毒, 不敢發. 使者促之, 乃發, 合中有同心結數枚, 宮人咸悅, 相謂曰, 得免死矣! 陳氏恚而卻坐, 不肯致謝, 諸宮人共逼之, 乃拜使者. 其夜, 太子蒸焉.[188]

《資治通鑑》에서 이 부분은 양제의 패륜과 음행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보다는 국가 대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으로서 황위 승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앞서

188) 司馬光, 《資治通鑑》, 2164-2165쪽. 《資治通鑑》의 이 부분은 《隋書·宣華夫人陳氏》의 기록과 대체로 일치한다.

언급했듯 이 부분에서《資治通鑑》은 문제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분명한 사실만을 기록하고 의혹이 남게 된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양제가 형인 楊勇을 태자에서 폐위시키고 자신이 태자가 되는 과정을 서술함에 있어서도《資治通鑑》은 양제가 권신들과 결탁하여 음모를 꾸민 일과 양용이 부도덕한 행실로 충신들과 부황의 비난을 받은 일을 모두 기록하였다.[189]《資治通鑑》의 서사원칙은 국가의 운영을 설명하기 위해 이와 직접 관련된 사건을 확실한 사실만을 통해 기록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수 양제와 선화부인 사이의 일에 대한 서술도《資治通鑑》에서는 이 부분이 전부이며, 양제와 다른 후궁 사이의 일화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통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은《資治通鑑》에서 기록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隋煬帝艷史》에서는 오히려 국가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은 서사의 배경이 되고 양제와 궁궐 여러 여인들 사이의 일이 전경화된다. 양제와 선화부인에 관한《資治通鑑》의 400자도 안 되는 이 부분은《隋煬帝艷史》에서는 제3회부터 제7회까지 다섯 회에 걸쳐 서사화된다. 그 과정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등장인물에 대한 자세한 심리묘사가 추가된다는 사실이다. 문제가 병상에 누운 사이 선화부인을 희롱하려던 양제는 그녀가 자신을 뿌리치고 달아나자 당황한다.

> 양제는 다만 선화부인의 용모가 아름다워 음심이 흔들린 까닭에 갑자기 흥분하여 많은 말을 내뱉은 것이다. 선화부인이 문제의 침전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자 마음이 얼마간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따라서 궁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서 다만 外殿으로 물러나는 수밖에 없었다. 끙끙 앓으며 걱정이 되어 좌불안석이었다. 이에 생각하였다. '내 오늘 선화부인을 위협하였으나 만약 거짓으로 싫은 척 한 것이었다면 달아난 것으로 끝날 것이다. 혹여 진심으로 싫었던 것이라면 부친에게 사실을 알릴 테니 그때는 어떻게 해명해야 하나? 동궁의 지위도 얼마간 불안해질 텐데.' 또 생각하였다. '부친은 내가 평소 충직하고 온후한 것을 보셨으니 그녀가 말한다 해도 믿으려 하시지 않으실 거야.' 또 생각했다. '선화부인은 부왕의 총비이나 나는 지금의 태자이니 그녀가 어찌 감히 나와 시비를 따지겠는가?' 또 생각했다. '선화부인이 그처럼 아름다우니 일시에 손에 넣을 수 없다면 어떻게

189) 司馬光,《資治通鑑》, 2151-2163쪽. 반면《隋煬帝艷史》는 위선적이며 음탕한 양광의 사람됨과 온갖 악행을 부각시켜 서술하였다.《隋煬帝艷史》제2회-제3회 참고.

해야 하나?’ 원망스러웠다가 또 마음이 놓였다가 또 그리웠다가 하여 매우 답답하였다. 다만 몰래 심복 궁인을 보내 엿듣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煬帝只因宣華貌美, 淫心蕩漾, 一時高興說出許多話來. 及見宣華跑回文帝寢宮, 心下也有幾分著忙; 又不好跟進宮來, 只得退出外殿. 沉吟惆悵, 起坐不安. 因想著: “宣華被我逼了這半晌, 若是假惱, 跑去自然罷了; 倘或真心不喜, 竟對父親說知, 卻如何解救? 就連這東宮也有些不穩.” 又想道: “父親見我平日忠厚, 她就說了, 也未必肯信.” 又想道: “宣華雖是父王寵妃, 我卻是今儲君, 她如何敢搬我的是非?” 又想道: “宣華這般美色, 一時不能到手, 如何區處?” 心下埋怨一回, 又安慰一回, 又思想一回, 十分憂疑不決. 只得暗暗的差心腹宮人打聽.[190]

이 부분에는 간신히 오른 태자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도 선화부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양제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양제가 선화부인을 희롱한 사실을 알고 대노한 문제는 급히 태자를 바꾸려 하지만 양제의 심복들에 의해 저지되고 결국 병세가 악화되어 죽음을 맞는다. 문제가 갑작스레 붕어하자 이번에 당황한 사람은 선화부인이었다. 문제의 총애에 감읍하면서도 양제에 의해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제5회에서 생생하게 묘사된다.[191] 양제가 자신에게 하사한 것이 독약이 아니라 마음을 맹세하는 同心結임을 알게 된 선화부인은 또다시 당황하지만 결국 양제를 모시게 된다. 이 부분이 《隋書·宣華夫人陳氏》와 《資治通鑑》에서는 모두 “其夜, 太子烝焉.”의 단 여섯 글자로 기록되었으나 《隋煬帝艷史》에서는 전혀 다른 서사가 된다.

---

190) 齊東野人, 《隋煬帝艷史》, 35쪽.

191) “선화부인은 갑자기 생각했다. ‘나는 선제의 厚恩을 입었으니 오늘 죽음으로 보답한다 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야.’ 잠시 후 또 생각했다. ‘양광이 황제가 되었지만 나는 그의 庶母이니 나를 어쩌지는 못할 거야.’ 잠시 후 또 생각했다. ‘어제 나는 피하기만 했지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으니 아마도 괜찮을 거야.’ 이 하루 동안 자그마한 마음에 천 가지 셈법, 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니 생각을 정할 수 없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데 갑자기 내시 하나가 두 손으로 금합을 받치고 궁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宣華一會兒忽想道: “我受先帝厚恩, 今日便以一死相報, 亦不爲過.” 一會兒又想道: “楊廣雖做了皇帝, 我是他個庶母, 卻也處我不得.” 一會兒又想道: “昨日我但避回, 並不曾傷觸於他, 料也無妨.” 這一日寸心中便有千千般籌算, 萬萬種思量, 再沒個定主意. 只捱到日色平西, 忽見一個內使, 雙手捧了一個金盒子, 走進宮來.)”, 齊東野人, 《隋煬帝艷史》, 제5회, 35-36쪽.

양제는 선화부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보면 볼수록 맘에 들었다. 이에 손을 끌어다 잡고 말하였다. “부인, 어제의 일이 황홀하여 꿈과 같았는데 오늘 뜻밖에도 등불 어둡고 달 밝을 때 또다시 아름다운 얼굴을 보게 되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선화부인은 고개를 숙이고는 넋이 나간듯하여 입을 열지 않았다. 양제가 또 말하였다. “짐은 부인 때문에 마음이 미친 것 같아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鐵石이 아니라면 가련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화부인은 양제가 수차 묻는 것을 보고는 그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천첩은 불행히도 이미 선황을 모셨기에 다시 나서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폐하께서는 제위에 오르셔서 六宮 안에 삼천의 미녀들이 있는데 어찌 그 중에 경국지색이 없겠습니까! 저는 잎 떨어진 버드나무, 시든 꽃이니 원컨대 폐하께서는 예로써 스스로 끊으시고 지나치게 정을 쏟지 마십시오.” 양제가 웃으며 말했다. “부인이 틀렸습니다. **정이 모이는 곳은 바로 우리와 같은 이들이지요**[情之所鍾, 正在我輩.]. 하물며 佳人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짐은 비록 才子가 아니나 부인과 만났으니 劉晨과 阮肇가 선녀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어찌 지난 날 놓친 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선화부인이 말하였다. “지난날 衛公子 頑은 宣姜과 사통하여 천고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어찌 이를 본받으려 하십니까?” 양제가 말하였다. “옛사람이 말하길 ‘아름다운 모습은 음한 마음을 일으킨다[冶容誨淫]’[192]라고 하였습니다. 천부당 만부당 부인께서는 이토록 풍류스럽고 아름답게 생겨 짐의 마음을 날뛰고 미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으니 생사도 이미 상관하지 않게 되었는데 하물며 웃음거리가 되는 일을 상관하겠습니까? 오늘 달이 밝고 바람이 맑으며 밤이 깊어 사람소리 조용하니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 나누기 딱 좋습니다. 부인은 사양만 하니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서 시종을 불러 술상을 내오게 하여 부인의 기분을 풀어주었다. 선화부인은 생각해보니 상황을 피할 수 없고 또 양제의 세심하고 자상한 모습을 보니 위세로써 강요하지 않아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이에 고개를 들어 보니 과연 젊은 風流天子였다!

煬帝見宣華柔媚可憐, 越看越愛. 因將手攜住說道: “夫人, 昨日之事, 恍如夢寐; 不想今日疏燈明月, 又接芳顔. 何其幸也!” 宣華低了頭, 如醉如癡, 只不開口. 煬帝又道: “朕爲夫人寸心若狂, 幾蹈不測之禍; 夫人心非鐵石, 能不見憐!” 宣華見煬帝連問數次, 只得答道: “賤妾不幸, 經侍先皇, 以難再薦; 且陛下高登九五, 六宮中三千粉黛, 豈無傾國佳麗! 妾敗柳殘花, 願陛下以禮自節, 勿得鍾情太過!” 煬帝笑道: “夫人差矣! 情之所鍾, 正在我輩. 況佳人難得! 朕雖不才, 既與夫人相遇, 不啻劉阮逢仙, 安忍當前錯過!” 宣華道: “昔衛公子頑, 通

192) 《周易正義》(北京大學出版社, 2000), 328쪽.

> 於宣姜, 爲千古所笑. 陛下豈不聞也! 奈何效之?”煬帝道:“古人有言:‘冶容誨淫.’千不合, 萬不合, 都是夫人不合生得這般風流美麗, 使朕邪心狂蕩, 死生已不復知, 況於笑乎? 今月白風清, 夜良人靜, 正好促膝談心. 夫人只管推辭, 豈不辜負此一段風光!”遂叫左右看酒來, 與夫人撥悶. 宣華自料勢不能免, 又見煬帝細細溫存, 全不以威勢相加, 情亦稍動. 遂抬起頭來. 將煬帝一看, 果然是個少年的風流天子![193]

선화부인은 양제의 간절한 고백과 더불어 그의 지위와 풍모에 마음을 돌리게 된다. 자세한 대화 내용을 서술하여 양제의 깊은 정을 토로하고 선화부인의 갈등하는 속마음을 묘사하는 한편 明末 인간의 본성으로서 情을 강조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정이 모이는 곳은 바로 우리와 같은 이들이지요.(情之所鍾, 正在我輩.)’[194]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양제와 선화부인 사이의 관계는 《資治通鑑》과는 다른 서사로 바뀌게 된다. 즉 부자 사이의 인륜을 어그러뜨리고 황권 승계라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인간의 본래적인 情을 충실히 따르는 행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물론 《隋煬帝艷史》가 양제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부도덕한 군주로 인한 국가의 패망’은 여전히 《隋煬帝艷史》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사구조이다. 그러나 등장인물 각각의 입장을 드러내는 대화와 심리 묘사로 인해 독자가 구체적인 상황을 그려보고 양제와 선화부인의 감정에 이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어지는 서사에서 蕭皇后는 양제가 선화부인을 총애하자 질투를 느껴 양제를 비난하고 선화부인을 궁 밖으로 내쫓는다. 이에 양제는 선화부인을 그리워하여

---

193) 齊東野人, 《隋煬帝艷史》, 52-53쪽.

194) 원래의 출전은 《晉書·王衍傳》이다. “王衍이 어린 자식을 잃자 山簡이 조문하였다. 王衍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자 山簡이 말하였다. ‘아이는 품 안의 것일 뿐인데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王衍이 말하였다. ‘聖人은 情을 잊고 최하층의 사람은 情을 느끼지 못하네. 情이 모이는 곳은 바로 우리와 같은 이들이지.’ 山簡이 그 말에 수긍하니 더욱 슬퍼하였다.(衍嘗喪幼子, 山簡吊之. 衍悲不自勝, 簡曰: 孩抱中物, 何至於此! 衍曰: 聖人忘情, 最下不及於情. 然則情之所鍾, 正在我輩. 簡服其言, 更爲之慟.)” 《晉書》, 《二十四史全釋》(漢語大詞典出版社, 2003), 993쪽. 그러나 《金瓶梅》(제1회), 《警世通言》(제38권 蔣淑眞刎頸鴛鴦會) 등 明末 소설에서는 인간의 본성으로서 情을 옹호할 때 자주 쓰이며 이후 《金雲翹傳》, 《合浦珠》 등 재자가인 소설에서는 남녀 사이의 정을 옹호하는 상투적 표현으로 쓰인다.

병이 들고 소황후는 어쩔 수 없이 선화부인을 다시 데려온다. 이후 양제는 선화부인이 병으로 몸 져 눕게 되자 노심초사하게 되고 선화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슬픔을 이기지 못한다.(제5회-제6회) 선화부인이 출궁하였다가 다시 입궁하고 얼마 후 죽음을 맞는 일은 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195] 그러나 《隋煬帝艷史》는 원천서사의 매우 간략한 기록을 상황에 대한 생생한 묘사, 구체적인 대화 그리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시 등을 추가하여 양제의 연정, 소후의 질투, 이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리는 선화부인의 처지에 관한 서사로 바꾸었다.

《隋煬帝艷史》의 전체 서사는 망국의 군주가 저지른 음행을 서술하고 그 결과 나타난 비극적 결말을 보여준다. 〈凡例〉의 첫 조목에서 正史를 따르고 거짓으로 쓴 것이 없다고 언급한 것은[196] 단순히 《隋煬帝艷史》의 내용이 史書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 사서와 같은 의미 지향, 즉 폭군에 대한 경계를 서사의 중심으로 삼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隋煬帝艷史》는 원천서사를 다시 쓰는 과정에서 문언을 백화로 고쳐 쓰면서 원천서사에는 없던 사건의 주체, 목적, 수단,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충하여 사건을 구체화하고 관련 인물의 대화와 심리묘사를 추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화 방식은 서사의 초점을 분산시키거나 다중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양제와 선화부인 사이의 부도덕한 사건이 남녀 사이의 절절한 情에 대한 서사로도 읽힐 수 있게 변함으로써 원천서사의 중심인물이자 폭군인 양제는 연모의 情에 빠진 남자, 상대의 죽음에 상심하는 연인,[197] 아내의 투기에 괴로워하는 남편,[198] 다가오는 운명을 예감하고 상심하는 인간[199] 등 여러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

195) “양제가 제위에 오른 후 궁을 나가 仙都宮에 거하였다. 얼마 후 양제의 부름으로 궁으로 들어가 일 년 남짓 있다가 죽었으니 그때 나이가 스물아홉이었다. 양제는 이를 매우 슬퍼하여 神傷賦를 지었다.(及煬帝嗣位之後, 出居仙都宮. 尋召入, 歲餘而終, 時年二十九. 帝深悼之, 爲製神傷賦.)” 《隋書·宣華夫人陳氏》, 《二十四史全釋》, 984쪽.

196) “小說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을 인용하고 정사를 충실하게 따랐으니 한 가지 일도 꾸며내지 않고 한 마디 말도 멋대로 늘이지 않아 이로써 세상 사람들을 미혹되게 하지 않았다.(雖云小說, 然引用故實, 悉遵正史, 並不巧借一事, 妄增一語, 以滋世人之惑.)” 丁錫根 編著, 《中國歷代小說序跋集》, 953쪽.

197) 양제의 총애를 얻지 못해 시를 남기고 자결한 候부인을 애도하는 제15회 또한 그러하다.

198) 소황후의 투기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제34회 또한 그러하다.

또 원천서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주변인물의 목소리와 심리가 같이 드러나면서 서사는 계속하여 자기 증식한다. 그 결과 역사연의는 황제뿐만 아니라 주변인물, 때로는 일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까지 더불어 서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200]

이처럼 원천서사를 가져와 이를 다시 쓰는 작업을 통해 구성된《隋煬帝艷史》는 원천서사의 주요 줄거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한 힘 한가운데 장회체라는 새로운 형식과 백화라는 새로운 서면어가 놓여있다. 장회체는 앞서《隋唐志傳》의 예에서 보았듯이 비록 回 단위로 서사가 전개되기는 하지만 하나의 사건과 이어지는 사건, 더 나아가 앞 회와 뒤의 회를 인과관계로 구성하면서 서사의 맥락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원천서사가 모여서 만들어진 맥락은 역으로 원천서사의 의미를 처음과 달라지게 한다.

《隋煬帝艷史》에서 백화의 사용은 서사의 지향과 같은 내적인 요소와 시장에서

---

199)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으나 마음은 자못 불안하였다. 소후는 바삐 술을 다시 권했다. 양제는 억지로 몇 잔 마셨으나 기분이 여전히 가라앉자 이에 궁인을 불러 거울을 가져와 비추게 하였다. 궁인이 화려한 거울을 가져와 양제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양제가 고개를 숙여 비춰보니 몰골이 초췌한데다 얼굴에는 술기운이 가득한 것이 보였다. 이에 깜짝 놀라 말했다. “어찌 이리 수척해졌는가?” 소후가 비위를 맞추려 말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 빠지고 깨끗한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양제는 한참동안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신의 목을 만지며 탄식했다. “짐의 이처럼 아름다운 목이 누구 손에 베일지 알 수 없구나!” 소후가 대경실색하여 말하였다. “폐하,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口雖如此說, 心下終有幾分不安. 蕭后忙又將酒來勸. 煬帝勉強吃了幾杯, 自覺神情蕭索, 遂叫宮人將鏡來照. 宮人取了一面菱花寶鏡送到煬帝面前. 煬帝隨低頭一照, 只見形神憔悴, 滿臉上都是酒色之氣. 自驚訝道: “何以消瘦若此?” 蕭后湊趣道: “正所謂渣滓日去, 清虛日來也.” 煬帝細視良久, 忽自撫其頸歎息說道: “朕這般一個好頭頸, 不知誰當斫之!” 蕭后大驚失色道: “陛下是何言也!”)” 齊東野人,《隋煬帝艷史》, 제37회, 420쪽.

200)《隋煬帝艷史》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와 같은 변화는《隋史遺文》을 통해 더욱 본격화된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예는 대운하 공사의 총감독관인 麻叔謀가 인육을 먹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순서대로 송대의 문언필기인 〈開河記〉, 그리고《隋煬帝艷史》의 제23회,《隋史遺文》의 제34회,《隋唐演義》의 제33회에 나오는데, 奇聞異事에 대한 기록의 성격이 강했던 처음의 문언필기와 달리 역사연의에서는 사건의 곡절이 보충되면서 점차 일반 백성들이 무리한 토목 공사로 겪게 되는 재난과 이 사건을 해결해주는 영웅적 인물이 맞닥뜨리게 되는 좌절에 대한 서사로 변한다.

의 상품적 가치와 같은 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작가가 신중하게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백화는 일차적으로 문언을 부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201] 이는 원본 내용과 의미를 확장하거나 풀이하는 '演義'의 서술방식과 정합적으로 들어맞는다. 특히 백화의 유려한 사용이 눈에 띄는《隋煬帝艷史》의 경우 백화의 성향이 극대화되며 때로는 서사의 의미구조를 변화시키는 예기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즉 앞서 예로 든 선화부인의 경우처럼 정통 역사서사인 원천서사를 통해 문언의 일원적 규범 혹은 교훈적 어조를 수용하였으되 이것들이 백화로 표현된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한 점으로 수렴하거나 압도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에 구속되지 않는 잉여분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202] 이렇게 생긴 서사의 균열은 독자들에게 역사서사를 읽는 새로운 방법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백화로 옮겨 쓰기의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명대의 대표적인 화본소설집인 馮夢龍의《醒世恒言》권24에는 수 양제를 주인공으로 한〈隋煬帝逸遊召譴〉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도 양제와 선화부인 사이의 사건과 迎輦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백화를 사용하였음에도 선화부인과의 일에 관한《資治通鑑》의 서사를 거의 그대로 옮겼으며 迎輦花에 대해서는 심지어〈隋遺錄〉의 기록을 글자 출입도 거의 없이 그대로 가져왔다. 이로 보건대《隋煬帝艷史》에서 드러나는 의미의 굴절 혹은 변화는 작가가 백화의 성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201) 서면어로서 백화의 성향과 백화소설의 장르적 문법에 대해서는 이소영,《전통시기 中國의 書面語와 글쓰기의 상관성 연구: 白話의 발생과 小說의 변화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제4장과 제5장 참고.

202) "이 과정은 대체로 白話 書面語로 이야기를 쓰는 실험에서 文言의 규범으로부터 비껴난 서사의 자유가 발휘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白話의 증식적 성향을 따라 이야기를 확장하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장르의 문법을 만들어가고, 文言小說에서와 같이 전체 틀에서 메시지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증식된 부분을 따라 스토리 자체를 즐기는 독법 자체의 새로운 흥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소영, 위 논문, 220쪽.

Ⅴ. 《隋史遺文》 : 개연성으로 만들어진 역사

1. 《隋史遺文》의 출간과 성격

1.1. 판본과 체제

《隋史遺文》의 정식 명칭은 《劍嘯閣批評秘本出像隋史遺文》이다. 총 12권 60회로 되어있으며 숭정 6년(1633)에 출간된 名山聚藏板本이 현존하는 유일본이다.[203] 〈隋史遺文序〉에 보이는 '崇禎癸酉玄月無射日, 吉衣主人題於西湖冶園'이라는 題文과 '令昭氏'와 '吉衣主人'이라고 찍힌 두 개의 인장을 통하여 출간시기와 작가를 확인할 수 있다. 《隋史遺文》의 작가는 袁于令으로, 생졸년은 명확하지 않으나 대략 만력 24년(1592)에 태어나 강희 11년(1672)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江蘇 吳縣 사람으로 본명은 晉, 字는 令昭, 韞玉, 號로는 籜菴, 幔亭仙史, 幔亭歌者, 吉衣道人 등이 있으며 劍嘯閣은 그의 서재명이다. 明의 生員이었으며 왕조가 바뀐 후 淸朝에 출사하여 營繕司員外郎과 荊州知府를 지냈다. 《隋史遺文》 외에 10편의 희곡작품을 썼는데 지금은 전기 《西樓記》, 《金鎖記》, 《鸂鶒裘》와 잡극 《雙鶯傳》만이 전한다.[204] 또 원우령이 평을 달고 편집한 《劍嘯閣批評東西漢通俗演義》는 兩漢 계열 역사연의 가운데 가장 인기 있었던 판본으로 청대에도 여러 차례 출간되었다.[205]

《隋史遺文》의 체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奇'와 '幻'에 대하여 언급한 원우령의 自序를 이어 60회의 회목을 나열한 목차가 나온다. 그 뒤로 각 회당 1장씩, 총

---

203) 판본에 대해서는 袁于令, 《隋史遺文》(人民文學出版社, 2006), 509-518쪽에 있는 劉文忠의 '校點後記' 참고. 淸初 《隋史遺文》을 대폭 수용하여 편집한 《隋唐演義》가 나와 인기를 끌면서 《隋史遺文》은 더 이상 출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4) 원우령의 생평에 대해서는 王琦, 《袁于令研究》(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제2장 참고.

205) 민관동, 〈西漢演義 研究 -국내 유입과 번역 및 출판을 중심으로〉(《중국소설논총》, Vol.15, 2002), 57-58쪽. 이 책은 甄偉의 《西漢演義》와 謝詔의 《東漢演義》를 합쳐 하나로 만든 것이다.

60장의 삽화가 나온 후 본문이 시작된다. 매 회는 開場詩나 詞로 시작되며 이어서 入話로 각 회의 내용과 관련된 속담 등을 인용하여 서술자가 짤막한 의론을 펼친 후 正話가 전개된다. 본문 중간에 시나 사가 많이 삽입되어 있으며 맨 마지막에는 散場詩가 나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다음 회를 들어보시오(畢竟不知何如? 且聽下回分解.)'와 같은 상투구로 마무리하기도 한다. 이처럼 開場詩-入話-正話-散場詩로 이어지는 본문의 형식은 話本小說의 형식과 매우 유사하다. 또 각 회의 마지막에는 짧은 '總評'이 붙어있는데 본문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서사 방식과 텍스트 구성 과정을 직접적으로 논한 부분도 적지 않아 작가의 편찬 의도를 엿볼 수 있다.

1.2. 왕조 교체기 영웅의 遺史

《隋史遺文》의 주인공은 唐의 개국공신인 秦叔寶이다. 隋 文帝의 탄생에서 시작하는《隋史遺文》의 제1회와 제2회는 태자 楊廣이 제위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음모를 꾸며 태자위를 찬탈하고 충신들을 내치는 상황을 묘사한다. 제3회에서 처음 등장하는 진숙보는 이처럼 혼란한 시기에 의로운 성정과 뛰어난 용맹으로 명성을 날리며 여러 영웅호걸들과 의형제를 맺는다. 隋末의 어지러운 상황으로 인해 갖가지 고난을 겪은 진숙보는 결국 瓦崗寨에 합류하여 李密을 수장으로 삼아 의형제들과 함께 기의한다. 그러나 교만해진 이밀은 대패하게 되고 진숙보는 그를 흠모해온 李世民에게 투항한다. 제60회에서 진숙보를 비롯한 여러 영웅들의 도움으로 천하를 평정한 이세민은 현무문에서 정변을 일으킨 후 李淵을 이어 제위에 오르고 진숙보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胡國公에 봉해지면서 전체 서사가 마무리된다.

원우령은 역사연의에 일반적으로 붙는 '志傳'이나 '演義'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채 자신의 작품을《隋史遺文》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리고 自序에서《隋史遺文》을 '遺史'라 정의한 후 '遺史'란 무엇인가에 대해 正史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였다. 〈隋史遺文序〉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 역사를 '遺'라고 이름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正史를 보충하기 때문이다. 正史는 사실을

기술하는 것[紀事]이니, 사실을 기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傳信]이다. 遺史는 빠진 이야기를 찾는 것[蒐逸]이니 빠진 이야기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이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傳奇]이다.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자는 진실한 것[眞]을 귀하게 여긴다. 아들된 자가 죽음으로써 효도하고 신하된 자가 죽음으로써 충성하니, 성현의 마음씀을 모사하는 것이 오도자가 실물을 그리는 것과 같아, 하나하나 실제와 매우 똑같이 그릴 수 있다. 기이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는 환상적인 것[幻]을 귀하게 여긴다. 갑자기 화를 내고 갑자기 기뻐하니 영웅의 본색은 陽羨의 書生[206]과 같이 어렴풋하여 있는 그대로 따라 그릴 수 없다.

만일 正史만 있고 逸史가 없다면 위대한 업적과 빛나는 천지는 단단하여 없어지지 않겠지만, 빼어난 정과 협객의 기세, 은사의 운치와 영웅의 풍모는 正史가 다 적을 수 없으니 끝내 대부분 연기처럼 사라져 전하지 않을 것이다. 매우 忠義하더라도 本朝에 거스르는 자는 생략되어 만 가지 중에 하나만 전할 것이니 그 전모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슬프도다! 烈士의 웅대한 마음은 조정과 상관없으며, 壯夫의 의기는 친우에게 돈독하다. 굳건한 의론은 족히 사람을 놀래 킬 만하나 范增이 쓰이지 못한 것처럼 원대한 계획은 풀더미와 함께 묻히고, 대범한 재주는 일세를 감당할 만하나 項羽가 대업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위업이 노을처럼 사라진다. 진실로 안타깝도다!

史以遺名者何? 所以輔正史也. 正史以紀事, 紀事者何? 傳信也. 遺史以蒐逸, 蒐逸者何? 傳奇也. 傳信者貴眞: 爲子死孝, 爲臣死忠, 摹聖賢心事, 如道子寫生, 面面逼肖. 傳奇者貴幻: 忽焉怒發, 忽焉嘻笑, 英雄本色, 如陽羨書生, 恍惚不可方物. 苟有正史, 而無逸史, 則勳名事業, 彪炳天壤者, 固屬不磨; 而奇情俠氣, 逸韻英風, 史不勝書者, 卒多湮沒無聞. 縱大忠義而與昭代忤者略已, 掛一漏萬, 罕睹其全. 悲夫! 烈士雄心, 不關朝宇; 壯夫意氣, 篤于朋友. 侃侃論足驚人, 同范增之不用, 碩畫與煙草俱沈; 落落才堪一世, 似項羽之無成, 偉業與雲霞共泯. 良用惜焉![207]

---

206) 梁 吳均이 쓴 지괴집 《續齊諧記》에 나온다.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東晉 陽羨의 許彦이 산길을 가다 서생을 하나 만났는데 나이는 17,8세로 다리가 아프다며 거위장 안에 들어갈 것을 청했다. 서생이 거위장 안으로 들어가니 거위장은 넓어지지 않았고 서생도 작아지지 않았는데도 두 마리 거위와 나란히 앉았고 거위도 놀라지 않았다. 許彦이 거위장을 메고 가는데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무 아래에서 쉴 때 서생이 입에서 동으로 된 상자를 토하니 그 안에 술과 안주, 그릇이 들어있었다. 또 입으로 여자를 토해내 같이 먹고 마셨다. 서생이 취해 잠들자 여자는 입으로 다른 남자를 토해냈고, 여자가 서생에게로 가 같이 잠들자 그 남자는 또 몰래 다른 여자를 토해냈다. 입에서 나온 여자와 남자들은 나중에 차례대로 다시 삼켜졌다.

원우령의 주장에 따르면 遺史란 正史에 전하지 않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정사에 기록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일[信]'로서, 국가와 관련되는 功勳, 그리고 忠과 孝 같은 것들이다. 이들은 실제와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것들이기에 '眞'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나 현실에는 비록 정사에는 기록되지 않으나 전해져야 할 '기이한 일[奇]'이 더 있다. 그것이 바로 遺史가 기록하는, 조정대사와 관계없는 영웅들의 모습이다. 이들의 모습은 변화가 많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릴 수 없다. 따라서 '幻'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하여 正史ㅡ信ㅡ眞ㅡ忠孝는 하나의 계열을 형성하고, 遺史ㅡ奇ㅡ幻ㅡ英雄本色은 또 다른 하나의 계열을 형성한다.

전통시기 正史의 체제는 司馬遷의《史記》를 본받아 모두 紀傳體를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황제를 중심으로 한 기록에 志와 다양한 인물에 대한 列傳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唐代에 편수된《隋書》를 기점으로 하여 官의 주도로 편찬된 정사들은 해당 왕조가 남긴 공식적인 관변기록에 의존하여 새로 쓰기보다는 이전의 자료를 편집하는 경향이 강해진다.[208] 또 正史 가운데 가장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던 列傳 또한 점차 功臣, 武將, 諫官, 文藝, 忠孝, 隱逸, 烈女 등등 국가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소수의 덕목들을 범주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찾아 집어넣는 식으로 기술되었다. 이에 원우령은 正史에 기록되는 내용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正史를 보완하기 위해 '遺史'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遺史가 서사화하는 것은 '빼어난 정과 협객의 기세, 은사의 운치와 영웅의 풍모[奇情俠氣, 逸韻英風]'이다. 이들은 기록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미덕들임이 분명하지만 미처 조정에서 쓰이지 못한 까닭에 공적으로 드러나지 못하였으며, 공적으로 드러나지 못한 까닭에 正史에는 기록되지 못하였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사의 보충물[正史之補]'로 규정한 글쓰기들은 원우령의 '遺史' 이전에 이미 '野史', '雜史'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앞서 Ⅳ장에서 언급했듯 문언필기의 대다수 또한 스스로를 '정사의 보충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글쓰기들은 대개 완정한 正史를 후세에 전한다는 사명감 아래,

---

207) 袁于令,《隋史遺文》(人民文學出版社, 2006), ⅰ쪽.

208) 민두기 編,《중국의 역사인식 上》(창작과 비평사, 1993), 173-176쪽.

正史에 마땅히 들어가야 할 인물이 빠져있거나 혹은 내용이 충분치 않은 것을 문제 삼아 史官을 대신하여 사사로이 빠진 내용을 보충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았다.[209] 그러나 이러한 야사나 문언필기 등은 正史의 규범적 범주를 벗어나거나 그 범주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이 주로 쓴 것은 조정과 관련된 사건이나 역사적 인물의 일화였으며 때로 그러한 범주에 들지 않는 민간의 풍속이나 기이한 일들에 관해 쓸 때에도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문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정당화하였다.

이에 비해 원우령은 遺史를 통해 전하려고 하는 일들이 근본적으로 정사에 포섭될 수 없는 것들임을 명백하게 밝힌다. 그는 훌륭한 자질과 미덕도 조정에 쓰이지 못하면 正史에 기록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 이를 전하려 하였다. 그가 전하려는 것은 공적 자체가 아닌 그 공적을 이루는 바탕이 되는 숨겨진 본질이었다. 야사나 문언필기가 정사에 빠진 것을 기록한다면 원우령의 遺史는 正史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서사화하였다. 즉 전자가 스스로를 정사의 보충물로 규정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사와 동일시하는 데서 찾는다면, 후자는 스스로를 정사의 보충물로 규정하되 둘 사이의 구별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신의 글쓰기가 가진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210]

그렇지만 《隋史遺文》의 주인공인 진숙보는 功名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 아니었다. 〈隋史遺文序〉의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9) 앞서 Ⅳ장에서 언급한 李肇의 《唐國史補》가 대표적이다. 宋代에 대대적으로 유행했던 문인의 야사 편찬에 대해서는 안예선, 〈宋代 문인의 野史 편찬 배경 고찰〉(《중국어문논총》, Vol.46, 2010) 참고. 안예선은 송대 야사 편찬이 흥했던 배경으로 1. 개인적인 恩怨의 표출 2. 관찬사서에 대한 불신 3. 時政에 대한 비판을 들고 있다. 결국 송대의 야사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이 왜곡되어 기술되는 것에 불만을 가진 문인들이 실록정신에 입각하여 정사를 부분적으로 다시 서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10) 《隋史遺文》의 제1회는 다음의 시로 시작한다. “번화함이 사라지는 것 가벼운 구름과 같으니/ 사라지지 않으려면 모름지기 대업을 세워야하네. 훌륭한 계책은 하늘에서 해가 떨어지는 것을 지탱하려 하였으니/ 웅대한 마음 어찌 노둔한 말무리에 들 수 있겠는가. 때가 위급하니 준걸들은 잠시 자취를 감추었으나/ 운수가 열리니 영웅들은 일찌감치 군주를 보좌하네. **사서가 이를 다 기록하지 못하니/ 이에 붓을 들어 奇文을 적네.**(繁華消歇似輕雲, 不朽還須建大勛. 壯略欲扶天日墜, 雄心豈入駑駘群. 時危俊傑姑埋迹, 運啟英雄早致君. 怪是史書收不盡, 故將彩筆譜奇文.)” 袁于令, 《隋史遺文》, 제1회, 1쪽.

(진숙보는) 그 공적이 이미 淩煙閣의 으뜸이고 이름은 이미 전적에 전해진다. 일생 동안 지킨 절개는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듯 뛰어나며 행한 바는 의로움에 보답을 바라지 않고 충성스러움에 자신을 돌보지 않았으나 뛰어난 재주는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운수는 험하여 고난이 많았다. 부득이해서 나는 새가 사람에 의지하고 바람이 호랑이를 따르는 형세가 되었다. 누가 천백 년이 지난 후 향리에 가서 이를 알고 묻겠는가? (중략) 《隋史遺文》을 지어 진숙보가 한미한 때의 일들을 드러내고 또 그의 한때 은혜와 원한, 같이 일한 사람들까지 같이 기술하였다. 그의 의협심과 장대한 기골, 때를 만나지 못한 일, 지기의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한 일, 적을 헤아려 승리에 이른 뛰어남, 공격하여 적군의 진지를 무너뜨린 용감함을 드러냈다. 당당하여 살아있는 듯 종이에 가득하니 열 중에 일곱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일시에 종이값을 올리기에 충분하다.

即其功已冠淩煙矣, 名已傳汗簡矣, 生平節概, 如穎之在囊, 所爲義不圖報, 忠不謀身, 才奇招嫉, 運厄多艱. 不獲已, 作飛鳥依人, 復作風之隨虎, 誰能向百千年裏閒中詢問? (중략) 向爲隋史遺文, 蓋以著秦□國於微, 更旁及其一時恩怨, 共事之人, 爲出其俠烈之腸, 骯髒之骨, 坎壈之遇, 感恩知己之報, 料敵致勝之奇, 摧堅陷陣之壯; 凜凜生氣, 溢於毫楮, 什之七皆史所未備者, 已足紙貴一時.[211]

진숙보는 唐의 개국공신으로, 正史에는 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의 功勳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正史에는 기록될 수 없는 기이한 행적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바로 한미하던 때의 충절과 재능, 그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겪었던 고난들, 그 와중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의리를 맹세했던 의형제들과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隋史遺文》에서 전하려는 것이 당의 武官으로서 진숙보의 공적이었다면 이는 정사로 이미 충분하다. 그러나 원우령은 그러한 공적의 바탕이 되는 진숙보의 사람됨, 영웅으로서의 본색에 초점을 맞추어 정사 기록 이전의 그의 진면목에 주목하였다. 《隋史遺文》 제1회 도입부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반복된다. 즉 정사에는 어지러운 세상을 수습하고 새로운 세상을 연 영웅으로서의 업적만이 기술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품성을 알 수 있는 '한미한 때의 모습[他微時光景]'은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다.[212]

---

211) 袁于令, 《隋史遺文》, ⅰ-ⅱ 쪽.

212) "산야의 英雄들만은 酒色에 몸과 마음을 맡기지 않았다. 그들이 한껏 누린 것은 모두 쓸쓸하고 처량한 것들이나, 그러한 사람들(그릇된 위정자들)이 만들어낸 敗局을 때로는 수습하고 때로는 새로이 바꾸니 그 이름은 천지에 영원히 남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隋史遺文》은 그 시작부터 편찬의 의도가 이전의 역사연의들과 다르다. 《隋唐志傳》은 역사서사에 단편적으로 기록된 사실들을 서로 연결시켜 이해하기 쉽도록 서사화하였으며, 《隋煬帝艷史》는 이전 역사서사에 대한 직접적인 풀이는 아니지만 이를 토대로 황제의 행위를 서사화함으로써 국가의 패망을 애도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隋史遺文》의 경우 역사적 사실이 아닌 역사적 인물에 서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인물에게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 또한 그의 공적이 아닌 그 바탕이 되는 숨겨진 본성으로 역사적 사건과는 직접적인 접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隋史遺文》에 대한 기존의 이해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첫째, 황제를 중심으로 한 이전의 역사연의들과 달리 瓦崗寨의 영웅들, 그 중에서도 진숙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英雄傳奇에 가깝다.[213] 둘째, 허구적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역사서사에서 탈피하여 소설로 옮아갔다.[214] 셋째, '奇'와 '幻'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隋史遺文序〉를 통

그의 이름이 나중에서야 밝게 드러난다 해도 그의 기질은 평상시에 이미 정해진 것이다. 해와 달처럼 그의 본체는 저절로 빛이 나 옅은 연기와 안개 속에 있어도 끝내 빛이 밖으로 나오니 그가 겪은 어려움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다. 나중에서야 그를 칭송하고 종이와 붓으로 그리지만 그가 공을 세우고 대업을 이룬 일들만 말할 뿐 **그가 한미한 때의 모습[他微時光景]**은 말하지 못한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처음 나올 때 하늘을 찌르는 형세가 될 것을 알지 못하고 호랑이와 표범이 어릴 때 소를 잡아먹는 기개를 가진 것을 알지 못하고는 도리어 신기하다고 이야기한다.(止有草澤英雄, 他不在酒色上安身立命, 受盡的都是落寞淒其, 倒會把這干人弄出來的敗局, 或時收拾, 或是更新, 這名姓可常存天地. 但他名姓雖是後來彰顯, 他骨格卻也平時定了. 譬如日月, 他本體自是光明, 撞在輕煙薄霧中, 畢竟光芒射出, 苦是人不識得. 就到後來, 稱頌他的, 形之紙筆, 總只說得他建功立業的事情, 說不到他微時光景. 不知松柏生來, 便有參天形勢; 虎豹小時, 便有食牛氣概, 說來反覺新奇.)" 袁于令, 《隋史遺文》, 제1회, 1쪽.

213)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羅陳霞, 〈《隋史遺文》對傳奇化英雄的凸現〉, 《明清小說硏究》, 第4期, 1998.
彭知輝, 〈《隋史遺文》與晩明評話及民衆心態〉, 《湖南第一師範學報》, 第1期, 2001.
張清發(臺), 〈民間英雄的基型－從型塑英雄的視角析論《隋史遺文》中的秦瓊〉, 《新竹教育大學人文社會學報》, 第3卷, 2010.

214)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張玉, 〈論《隋史遺文》在隋唐系列小說發展演變中的貢獻〉, 《現代語文》, 第6期, 2008.

해 소설과 허구에 대한 이론적 자각을 이루었다.[215]

그러나 정작 《隋史遺文》의 본문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소개 외의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며 그러다보니 〈隋史遺文序〉에서 언급한 '奇'와 '幻'에 대한 이해도 피상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216] 《隋史遺文》의 서사가 역사서사 뿐만 아니라 이전의 역사연의와 달라지는 지점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를 英雄傳奇, 소설 혹은 허구라는 개념을 대입하여 분석하게 되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제한되어 도리어 《隋史遺文》이 가지는 의의를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隋史遺文》의 텍스트 구성 과정과 역사적 사실을 서사화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隋史遺文》이 중국 서사전통에서 가지는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陳蘇梅, 〈論《隋史遺文》的敘事藝術特色〉, 《皖西學院學報》, 第3期, 2015.

215) 方正耀 著, 홍상훈 譯, 《중국소설비평사략》(을유문화사, 1994), 179-180쪽, 루샤오펑 著, 조미원·박계화·손수영 譯, 《역사에서 허구로 : 중국의 서사학》(길, 2001), 212-224쪽은 중국 서사전통의 변화와 관련하여 袁于令의 서사론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隋史遺文》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雷勇, 〈《隋史遺文》與小說家文體意識的自覺〉, 《明清小說研究》, 第4期, 2011.

朱潔, 〈論袁于令的小說創作觀 －從《隋史遺文》總評說起〉, 《江西社會科學》, 第8期, 2012.

馮慧敏, 〈從〈隋史遺文序〉看袁于令的小說理論〉, 《文學界》, 第7期, 2012.

216) "그러나 이 시기에 쓰인 '奇', '幻'이라는 개념은 공동의 인식을 기반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었기에 이를 언급하는 사람, 쓰이는 문장과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의 차이가 크며, 독립적인 개념으로 논의되기보다는 다른 개념의 대립항으로 의미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시기의 새로운 서사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특정 구절을 단장취의하여 읽기보다는 문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자세하게 읽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서사론이 독립적인 문장이 아니라 본문에 부가된 '序'와 '跋'이라는 형식을 하고 있는 한, 본문과 연계해서 읽어야만 오독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졸고, 〈《隋史遺文》을 통해 본 袁于令의 서사론〉(《중국문학》, Vol.96, 2018), 130쪽.

2. 원천서사의 수용 양상

2.1. 정통 역사서사 :《舊唐書》,《新唐書》

《隋史遺文》 주인공의 이름은 秦瓊이지만 이름보다 字인 叔寶로 더 잘 알려졌으며《隋史遺文》에서도 秦叔寶로 지칭된다. 뛰어난 武將으로 이세민의 휘하에서 활약하여 당의 건국에 공을 세웠으며 후에 凌煙閣에 초상이 걸렸다.《舊唐書》와《新唐書》에 모두 열전이 남아있는데[217]《舊唐書》보다《新唐書》가 조금 더 구체적일 뿐 내용은 동일하다.《舊唐書》와《新唐書》에 실린 진숙보 열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秦瓊의 字는 叔寶인데 字로 널리 알려졌으며 齊州 歷城 사람이다. 처음에는 隋의 장수인 來護兒의 휘하에 있었다. 내호아는 일개 병사에 불과한 진숙보가 나중에 크게 될 것임을 알아보고 母親喪에 관리를 보내 조문한다.

② 후에 張須陀의 휘하에 있던 진숙보는 羅士信과 함께 산동의 도적 盧明月을 잡는 데 큰 공을 세워 이름을 알렸다.

③ 장수타가 죽자 裴仁基에게 의탁하였으나 후에 배인기가 李密에게 투항하는 바람에 李密의 군대에 합류하게 된다.

④ 이밀이 패하자 왕세충에게 투항하지만 곧 왕세충의 사람됨에 실망하여 程知節과 함께 다시 唐에 투항한다.

⑤ 진숙보는 이연의 명에 따라 이세민의 휘하로 들어간 후 尉遲敬德, 宋金剛, 王世充을 격파하는 등 천하를 평정하는 데에 큰 공을 세운다.

⑥ 이세민이 현무문에서 정변을 일으킨 후 제위에 오르자 진숙보는 左武衛大將軍을 제수 받고 죽은 후에는 胡國公으로 봉해진다. 4년 후 당태종은 조서를 내려 그를 포함한 24명 공신의 초상을 凌煙閣에 걸게 한다.

《舊唐書》와《新唐書》 모두 진숙보의 열전은 尉遲敬德, 張公謹, 唐儉 등의 다른 개국공신들과 함께 실려 있으며 서사는 '무장으로서의 뛰어난 자질－唐의 건국 과정에서 세운 공적－공적에 대한 황제의 보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개국

217)《舊唐書》,《二十四史全釋》(漢語大詞典出版社, 2003), 2002-2004쪽과《新唐書》(漢語大詞典出版社, 2003), 2426-2428쪽에 실려 있다.

공신의 열전에서 보이는 정형화된 서사구조로 다른 인물의 열전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資治通鑑》에도 진숙보가 몇 차례 등장한다. 그러나 시간을 기준으로 사건을 나열하여 기록하는 편년체의 특성상 《資治通鑑》에 기록된 진숙보의 모습은 매우 단편적이다. 진숙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 涿郡의 도적 우두머리인 盧明月이 무리 10여 만을 이끌고 祝阿에 주둔하니 張須陀가 1만 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맞이하였다. 서로 대치한 지가 10여 일이 지나자 양식이 떨어져서 곧 퇴각하려고 하였다. 그가 장사들에게 말하였다. "도적들이 우리가 퇴각하는 것을 보면 분명 무리를 모두 이끌고 우리의 뒤를 추격할 것이다. 이 때 1천 명을 데리고 그들의 진영을 습격하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로 위험한 일인데 누가 갈 수 있겠는가?" 장사들이 대답하지 못하는데 오직 羅士信과 역성 사람 秦叔寶만이 가기를 청하였다. (중략) 진숙보의 이름은 瓊이며, 字로 널리 알려졌다.
>
> 涿郡賊帥盧明月衆十餘萬軍祝阿, 須陀將萬人邀之. 相持十餘日, 糧盡, 將退, 謂將士曰: "賊見吾退, 必悉衆來追, 若以千人襲據其營, 可有大利. 此誠危事, 誰能往者?" 衆莫對, 唯羅士信及歷城秦叔寶請行. (중략) 叔寶名瓊, 以字行.[218]

이후로도 진숙보는 십여 차례 더 등장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밀은 진숙보와 동아의 정교금을 얻어 모두 표기장군으로 삼았다(密得秦叔寶及東阿程鮫金, 皆用爲驃騎.)" 등과 같은 간략한 기록으로 나타난다.[219] 《資治通鑑》은 국가의 통치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골라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기전체와 달리 인물은 사건과 관련되는 한에서만 등장하고 사건의 종결과 함께 사라진다. 이에 진숙보 역시 당시에 활약한 다른 많은 武將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전투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는 순간에만 잠시 이름이 언급될 뿐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隋史遺文》은 진숙보의 '한미한 때의 모습[微時光景]'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로 서사화되는 것은 진숙보가 공적을 이루기 이전의 일들이다. 따라서 《隋史遺文》은 정통 역사서사에 기록되지 않은 진숙보에 대한 일

---

218) 司馬光, 《資治通鑑》, 2198쪽.

219) 《資治通鑑》을 축약한 《資治通鑑綱目》에서는 이세민 휘하의 무장으로 진숙보의 이름이 단 두 차례 등장하고 후에 능연각에 초상이 걸리는 일에 한 번 더 언급된다.

종의 前史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隋史遺文》의 제1회와 제2회는 文帝가 隋를 세운 후 그의 次子인 楊廣이 南朝의 陳을 정벌하고 태자 자리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연과 갈등을 겪는 일이 그려진다. 진숙보는 제3회에 지방 관아의 하급 관리로 처음 등장하며, 이후로 수 양제가 제위에 올라 누린 사치와 향락을 서사화한 제24회부터 제26회를 제외한 모든 회에 등장한다. 그런데 제3회부터 제35회까지는 진숙보가 정식 관직에 오르기 전까지의 일들로 정통 역사서사에는 기록이 전혀 없는 부분이다.《隋史遺文》과《新唐書》의 열전 사이의 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9〉《隋史遺文》과《新唐書·秦叔寶列傳》비교[220]

《隋史遺文》	《新唐書·秦叔寶列傳》	비고
제1회-2회	·	隋 황실에서 일어난 일들로《隋書》,《資治通鑑》에 기록이 있음
제3회-제23회	·	진숙보의 영웅담으로 작가의 창작
제24회-제26회	·	수 양제의 등위 이후의 일들로《隋書》,《資治通鑑》에 기록이 있음
제27회-제35회	·	진숙보의 영웅담으로 작가의 창작
제36회-제38회	①	來護兒 휘하에 있었던 것은 일치하나 세부 내용은 다름
제39회-제43회	②	張須陀 휘하에 있었던 것은 일치하나 세부 내용은 다름
제44회-제52회	③	李密 휘하에 있었던 것은 일치하나 세부 내용은 다름
제53회	④	왕세충 휘하에 있다가 唐에 투항

220)《舊唐書》와《新唐書》의 진숙보 열전은 거의 일치하므로《舊唐書》와의 비교는 생략하였다. 진숙보에 대한《資治通鑑》의 기록 또한 ①을 제외하고는《舊唐書》,《新唐書》와 일치한다.

제54회-제59회	⑤	이세민 휘하에서의 활약
제60회	⑥	唐의 천하 통일과 이세민의 등위

편의상 제35회를 기준으로 하여《隋史遺文》을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때, 후반부의 시작인 제36회에서 진숙보가 來護兒 휘하에 들어가면서부터 비로소《隋史遺文》은《舊唐書》,《新唐書》의 기록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후반부 또한 진숙보가 내호아의 휘하에 있다가 장수타, 이밀, 왕세충, 이세민의 휘하로 옮겨가는 기본적인 사실만이 史書와 일치할 뿐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다. 예를 들어《舊唐書》와《新唐書》에서는 진숙보가 내호아의 휘하에 있었다고만 기록하고 있는데《隋史遺文》에서는 진숙보가 내호아를 따라 고구려 원정에 참여하고 거기서 隋의 간신인 宇文述과 갈등을 겪은 사건을 만들어 넣었다. 또《隋史遺文》에서 진숙보는 효심이 지극한 인물로 그려지며 그의 모친 또한 주요한 사건마다 서사를 돕는 인물로 등장하여 모친상을 당했다는 正史의 언급과는 배치된다. 진숙보가 瓦崗寨에 합류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서사 또한 전혀 다르다. 사실《隋史遺文》이 역사서사와 가장 구별되는 지점은 와강채에 대한 서사에 있다. 즉《隋史遺文》은 이밀이 와강채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인재들을 모아 기의하는 역사적 사건을 와강채 의형제들의 의리에 관한 서사로 완전히 새로 썼다. 게다가 제48회에 가서야 이세민이 처음으로 등장하고[221] 제53회에서야 진숙보가 이세민의 휘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60회 가운데 진숙보가 唐의 무장으로서 전투에 나서는 것은 단 여덟 회뿐이다. 이처럼《隋史遺文》이 정통 역사서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소략하게 다루고 이전의 역사서사에는 기록이 없는 허구적 사건들을 비중있게 서사화한 것은 그것의 주요 원천서사가 문헌기록이 아니라는 사실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21) 제4회에서 진숙보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이연 가족은 잠시 절에 머무르고 그곳에서 이연의 부인인 竇氏는 이세민을 낳는다.

2.2. 공연서사 : 설화구연의 대본

진숙보가 처음 등장하는《隋史遺文》의 제3회는 開場詩에 이어 어느 역사서사에도 없는 진숙보의 가계에 대해 설명하며 시작된다.

> 이 시의 이름은〈寶劍篇〉으로 어질고 재주 있는 이가 숨어 보이지 않아 등용하려 해도 쓸 만한 이가 없음을 말한 것이니 이는 천하에 도가 없어져 영웅호걸들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연과 같이 재주가 있는 이도 조정에서 쓰이지 않으니 저 草澤英雄들을 누가 알아보겠는가? 그저 진흙 속에 파묻혀 있다가 때를 기다려 움직일 뿐이다. 더구나 하늘은 당을 일으키고 수를 멸하려 하니 楊廣을 죽일 殺手이자 李淵을 도울 功臣을 숨겨두었다. 전쟁터에서 칼과 창으로 그의 基業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우연히 그와 마주쳐 그를 위기에서 구해주게 된다. 그 영웅은 누구인가. 성은 秦이고 이름은 瓊, 字는 叔寶로 조부는 北齊의 領軍大將 秦旭이고 부친은 北齊 武衛大將軍 秦彝이다. 모친 寧氏가 그를 낳을 때 秦旭이 말하길, "지금 齊는 남쪽으로 陳을 압박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周와 붙어 있어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네. 하늘이 우리 조손부자를 시켜 태평을 이루려고 하네."라고 하였다. 이에 아명을 太平郎이라고 하였다.
>
> 這首詩名爲〈寶劍篇〉, 單說賢才埋沒, 拂拭無人, 總爲天下無道, 豪傑難容. 便是有才如李淵, 尚且不容於朝廷, 那草澤英雄, 誰人鑑賞? 也只得混跡塵埃, 待時而動了. 況且上天既要興唐滅隋, 自藏下一干亡楊廣的殺手, 輔李淵的功臣. 不惟在沙場上一刀一槍, 開他的基業, 還在無心遇合處救他的阽危. 這英雄是誰?姓秦名瓊字叔寶, 乃祖是北齊領軍大將秦旭, 父是北齊武衛大將軍秦彝. 母親寧氏生他時, 秦旭道:"如今齊國南逼陳朝, 西連周國, 兵爭不已. 要使我祖孫父子同建太平." 因取一個乳名, 叫做太平郎.[222]

서술자는 진숙보가 隋의 혼란을 수습하고 唐의 건국에 공을 세운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뒤, 그가 北齊의 충성스러운 장수 가문의 후손임을 밝힌다. 이후로 그의 탄생부터 성인이 되어 명성을 떨치기까지의 이야기가 소상하게 서술된다. 진숙보가 세 살이 되던 해에 北周와의 전쟁에서 조부와 부친은 끝까지 싸우다 전사하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진숙보를 데리고 피신하여 근근이 살아가게 된다. 어느덧 천하는 隋의 시대가 되고, 건장하고 의리를 중시하며 효심이 깊은 청년이 된 진숙보는 춘추시대의 專諸를 닮았다하여 '賽專諸'라고 불린다. 그의

222) 袁于令,《隋史遺文》, 18쪽.

의로움과 용맹에 대한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 여러 호걸들은 진숙보와 교유하기를 원하게 된다. 고향인 齊州에서 하급관리인 都頭가 된 진숙보는 죄인을 호송하여 潞州로 가는 길에 宇文述이 보낸 자객들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한 李淵과 그의 가족들을 우연히 마주쳐 구해주게 된다.(제4회) 이후로 진숙보는 타향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떠돌다가 급기야 예기치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되어 幽州에 充軍하러 가게 된다.(제5회-제12회) 그곳에서 어릴 때 헤어진 고모를 만난 진숙보는 고모부인 幽州總管 羅藝의 도움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齊州總管 來護兒 밑에서 하급 관직을 맡는다.(제13회-제23회) 이후 의형제인 정교금 일당이 벌인 강도 사건에 연루된 진숙보는 의형제들을 체포하라는 문서를 불태운 후 관직을 그만두고 은거한다.(제27회-제35회) 진숙보는 정통 역사서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러한 '한미한 시절[微時]' 중에 이후 瓦崗寨에서 같이 기의하게 되는 李密, 單雄信, 魏徵, 王伯當, 程咬金, 齊國遠, 李如珪, 房彦藻, 賈閏甫, 徐世勣, 羅士信 그리고 나중에 唐에 투항하면서 다시 만나게 되는 張公瑾, 白顯道, 史大奈, 柴嗣昌 등과 인연을 맺고 의형제가 된다.

《隋史遺文》의 처음부터 제35회까지의 전반부가 대략 진숙보를 중심으로 여러 영웅들이 모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면 나머지 후반부는 이러한 영웅들이 隋末의 기의에 참여하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전반부는 이전의 역사서사에 없는 내용들로, 역사서사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지고 그 前史를 상상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후반부는 앞서 살펴보았듯 正史에 기록된 주요한 역사적 사실을 서사의 뼈대로 삼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어낸 것이다.

史書에 비해 역사연의는 전쟁 영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연의는 왕조 교체 과정 중 영웅들의 起義를 필수적인 요소로 여기며 전투능력이나 지략에 있어서 뛰어난 영웅들을 칭송한다. 《封神演義》의 周 武王과 姜太公, 《西漢演義》의 項羽와 劉邦, 《三國演義》의 劉備, 孫權, 曹操, 《隋唐演義》의 李密, 王世忠, 李世民, 《殘唐五代史演義》의 李存孝, 《南宋演義》의 趙匡胤, 《英烈傳》의 朱元章 모두 기의를 통해 왕조를 교체하거나 교체하려 하였다.[223]

223) Shelley Hsueh-lun Chang, *History and legend : ideas and images in the Ming historical novels*(University of Michigan Press, c1989), 44-55쪽/79-96쪽 참고. 명대의 역사소설을 문인문화[elite culture]와 민중문화[popular culture]의 대립구도에서 파악하는 Shelley Hsueh-lun Chang 은 역사소설의 이러한 특징들이 무력을 비난하는 유가의 가치

그런데 이처럼 역사연의에서 도드라지는 영웅들의 서사는 역사연의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공연전통에서 강한 영향을 받은 것들이며, 실제 서사도 공연전통에서 나타나는 영웅서사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즉 주인공은 고귀한 혈통을 가졌으나 이와 대비되는 빈한한 유년시절을 보내며, 비범한 武勇과 忠義에 대한 헌신덕에 높은 인망을 누린다. 결국 뜻이 맞는 여러 영웅호걸들과 의형제를 맺고 본진이나 산채에 집결하여 세력을 형성한 후 공적을 세운다. 이와 같은 서사구조는 《三國演義》와 《水滸傳》이 소설로 출간되기 이전에, 그리고 소설이 유행한 이후에도 널리 공연된 三國戱와 水滸戱에서 부분적인 가감은 있으나 공통적으로 보이는 서사구조이다.[224] 《隋史遺文》 또한 진숙보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그의 영웅적 면모와 그가 겪은 고난을 부각시키고 隋末 여러 영웅호걸들과 교유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한 후 이들이 와강채로 모여 기의하였다가 결국 이세민의 휘하에서 공을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되면서 이러한 서사구조를 따르고 있다.[225]

체계와는 반대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민중문화[popular culture]에서 찾는다.

224) 三國戱에 대해서는 강계철, 〈元雜劇 三國戱 硏究 綜述〉(《중국학연구》, Vol. 12, 1997), 이나미 리츠코 著, 김석희 譯, 《삼국지 깊이 읽기》(작가정신, 2007), 김문경, 《삼국지의 영광》(사계절, 2002) 참고. 水滸戱에 대해서는 신지영, 《元雜劇 水滸戱 硏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미야자키 이치사다 著, 차혜원 譯, 《중국사의 大家, 수호전을 歷史로 읽다》(푸른역사, 2006), 김진곤, 〈中國 民間 古典文學의 記錄 傳統과 公演 傳統 ―水滸 이야기의 생성·전래·정착·공연화 과정을 중심으로〉(《중국소설논총》, Vol. 9, 1999) 참고.

225) 이는 진숙보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을 《隋唐志傳》과 비교해보면 뚜렷하게 드러난다. 진숙보는 이밀 세력의 주력 장수였으며 후에 이세민 휘하의 주력 장수로 활약했기 때문에 《隋唐志傳》에서 산발적이긴 하나 자주 등장한다. 게다가 당시 공연을 통해 진숙보를 포함한 당시의 영웅들과 관련된 고사들이 많이 유전되고 있었고 이들 가운데 몇몇 고사들은 《隋唐志傳》에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적 비중 있게 서술된다. 그러나 진숙보가 《隋唐志傳》에서 처음 등장하는 제8회의 장면은 《隋史遺文》과 큰 차이를 보인다. “裴仁基는 李密에게 예를 다 갖추고 후한 예물로 사방의 인재를 구하라고 권하였다. ‘제가 듣기로 한 현사가 있는데 東郡 東阿 사람입니다. 키는 9척3촌이고 수염이 아름답고 용모가 수려하며 담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성은 秦, 이름은 瓊, 字는 叔寶입니다.’ 이밀이 말하였다. ‘저도 그 이름을 오래 전에 들었습니다.’ 이에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 찾게 하고는 이밀은 安車로 그를 맞아들였다. 秦瓊이 알현하자 이밀은 크게 기뻐하였다.(仁基勸密畢禮厚幣, 求四方之士, 曰某聞一賢, 乃東郡東阿人也. 身長九尺三寸, 美須髯, 眉清目秀, 膽力過人. 姓秦, 名瓊, 字叔寶. 密曰, 吾亦聞名久矣. 遂遣人於鄉中尋問,

《隋史遺文》이 공연전통의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추측 가능하다. 먼저 송대에 이미 隋唐시기의 인물과 사건에 대한 공연이 성행하였다는 것은《夢粱錄》,〈鷓鴣引·贈馭說高秀英〉등을 통해 알 수 있다.[226]《隋史遺文》보다 앞선 시기의 隋唐 관련 공연예술 가운데 현재 대본이 남아있는 것으로는 平話《薛仁貴征遼事略》과 원 잡극 12종, 그리고 명대에 나온 詞話《薛仁貴跨海征遼故事》,《大唐秦王詞話》등이 있다. 이들 隋唐 계통 平話, 雜劇, 詞話의 주요 등장인물은 대개 용맹을 떨치는 무장이다.[227] 원 잡극의 경우 尉遲敬德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가장 많이 남아있으며《大唐秦王詞話》의 경우도 제목에서는 秦王 李世民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주인공은 尉遲敬德이라 할 수 있다.[228]

그런데 이들과《隋史遺文》내용 사이에는 유사한 부분이 거의 없다. 이는 아마도《隋史遺文》이전의 平話, 雜劇, 詞話 등이 대개 역사적 사건을 부연하거나 보충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隋史遺文》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 아예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시기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隋史遺文》또한 원우령의 순수한 창작이 아니며 '原本' 혹은 '舊本'이라 지칭되는 이전의 공연 텍스트를 다시 쓴 것이다.《隋史遺文》의 매 回 뒤에 달린 總評 가운데 총 세 군데에서 '原本' 혹은 '舊本'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密以安車迎之. 秦瓊來見, 密大喜.)" 羅貫中,《隋唐兩朝史傳》(群衆出版社, 1997), 42쪽. 앞서 Ⅲ장에서 언급하였듯《隋唐志傳》은 隋末 군웅이 할거하던 상황에서 이세민이 이끄는 唐軍이 승리한 역사적 사실을 서사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진숙보가 등장하는 것은 그가 李密軍에 합류하여 군웅들의 전투에 참여하는 순간부터이다.《隋唐志傳》은 이 부분에서 진숙보의 용맹하면서도 진중한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關羽를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수염과 현사를 맞이할 때 쓰는 安車를 사용하였다.

226) Ⅲ장 2.2. 참고.《隋史遺文》이 출간된 이후부터 민국시기에 이르기까지 성행한 수당 고사를 소재로 한 說唱과 戲曲에 대해서는 徐燕,《隋唐故事考論》(揚州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40-115쪽/132-205쪽 참고.

227) 역사를 소재로 하는 공연 가운데 특히 명 중엽 이전의 작품에서는 武將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다. 三國戲와《三國志平話》의 경우는 관우나 장비가, 水滸戲의 경우는 이규나 노지심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그들의 용감무쌍한 활약이 서사의 주를 이룬다. 이는 명 중엽 이후 출간된 장편서사에서 유비나 제갈공명, 송강 등이 부각되고 정통론 혹은 忠義가 강조되는 것과 대비를 이룬다.

228) 이 밖에 段志玄, 程知節 등도 자주 등장하지만 이에 비해 진숙보의 등장 빈도는 높지 않다.

제3회 총평 : 舊本에서는 태자가 도적의 우두머리로 분장하고 唐公을 가로막으니 唐公이 알아챘다고 되어있다. 小說에서는 안 될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를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 그 후 13년 동안 군신 간에 어찌 면목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에 고쳤다.

舊本有太子扮魁首, 阻截唐公, 爲唐公所識. 小說亦無不可. 予以爲如此挑釁, 歇後十三年, 君臣何以爲面目? 故更之.[229]

제35회 총평 : 사서에 따르면 歷城의 羅士信은 숙보와 동향 사람이다. (중략) 原本에는 없어서 보충하여 등장시켰다. 徐世勣은 또한 열예닐곱의 나이에 도적이 되었는데 原本에서는 魏玄成과 함께 隋에서 관리로 지냈다고 하였으니 隋主가 시해당해 관직을 버렸을 때는 청년일 수가 없다. 만약 제29회에 삽입하면 《水滸》에서 公孫勝이 晁天王의 문지기들을 때린 것[230]을 따라한 것이 되어 그 광경이 너무나 똑같다. 이에 그 진부한 내용을 싫어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회에 넣었다.

按史, 歷城羅士信, 與叔寶同鄉, (중략) 原本無之, 故爲補出. 徐世勣亦年十六七作賊, 原本以爲與魏玄成俱在隋爲官, 因隋主弑逆棄職, 似非少年矣. 且于念九回插入, 仿《水滸》公孫勝打晁天王管門人, 光景甚合. 厭其套也, 去之, 于此插入.[231]

제55회 총평 : 原本에서는 李藝의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보이지 않아 이를 보충하여 넣었다. 李藝를 집어넣으니 다른 사람들 또한 보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가운데 尉遲敬德에 관한 일은 소략하니 이는 本傳이 중시하는 것은 秦叔寶여서 (尉遲敬德을) 많이 언급할 수 없어서일 뿐이다.

原本李藝後不得見, 玆爲補入. 既入李藝, 則諸人又不得不補矣. 個中敬德之事稍略, 以本傳所重在叔寶, 不可多及耳.[232]

《隋史遺文》의 '原本' 혹은 '舊本'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것이 당시 隋唐에 관한 評話로 유명했던

229) 袁于令,《隋史遺文》, 27쪽.

230)《水滸傳》 제15회 '吳學究說三阮撞籌　公孫勝應七星聚義'에서 공손승은 晁蓋를 만나러 찾아오지만 하인들이 동냥하러 온 도인인줄 알고 들여보내주지 않자 이들을 때려눕힌다.

231) 袁于令,《隋史遺文》, 278-279쪽.

232) 袁于令,《隋史遺文》, 466쪽.

柳敬亭(1587-1670)의 評話 대본일 것이라 추측하기도 한다.[233] 유경정이 〈秦叔寶見姑娘〉을 공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234] 또 그의 활동 시기와 蘇州, 揚州 등의 활동 지역을 고려할 때 《隋史遺文》이 유경정의 대본을 저본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실물이 남아있지 않은 까닭에 확증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原本'은 공연텍스트 혹은 공연을 염두에 둔 텍스트였을 것이며 원우령이 이를 책상머리의 열독을 위한 텍스트로 다시 쓴 것은 분명해 보인다. '原本'이 남아있지 않기에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같은 '原本'에서 나왔으며 《隋史遺文》에 비해 '原本'에 훨씬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李玉의 傳奇 《麒麟閣》[235]과의 비교를 통해 이를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麒麟閣》은 총 2本 61齣이며, 1644년에 공연된 기록이 있으므로[236] 그 이전에

---

233) 徐燕, 〈《隋史遗文》《麒麟阁》《说唐全传》淵源新论 －以小说戏曲文化生态共生为视角〉(《安徽大学学报》, 第6期, 2013).

234) 明 余懷,《板橋雜記》: "柳敬亭은 나이가 80이 좀 넘었으며 내가 머무는 곳을 지나칠 때마다 행랑채에서 자며 〈秦叔寶見姑娘〉을 이야기해주었다.(柳敬亭年八十餘, 過其所寓宜睡軒, 猶說〈秦叔寶見姑娘〉.)" 明 錢謙益,《左寧南畫像歌爲柳敬亭作》: "柳敬亭은 재미난 이야기를 잘 하였다. (중략) 매일 저녁 등불을 켜고 높이 앉아서 隋唐 때의 옛일들을 이야기해주었다.(柳生敬亭者善談笑, (중략) 每夕張燈高坐, 談說隋唐間遺事.)" 또한 명청 왕조교체기의 역사적 사실을 다룬 청대의 희곡《桃花扇》에서 유경정은 이야기를 이끄는 주요 등장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장한다. 그는 第1齣 '聽稗'에서《論語》를 설창하면서 극의 주제를 암시하고 마지막 나오는 續40齣에서 그간의 일을 설창으로 정리하여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특히 第13齣 '哭主'에서는 유경정이 좌량옥에게 〈秦叔寶見姑娘〉을 들려주는 부분이 나온다. 이 부분에서 진숙보는 좌량옥의 영웅됨을 보여주는 비유적인 역할을 한다.

235) 李玉의 생졸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으나 대략 1600년 전후에 태어나 1676년까지 창작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江蘇 吳縣 출신으로 字는 玄玉, 號는 蘇門嘯侶, 一笠庵主人이다. 蘇州派 희곡가 가운데 하나로 시사극, 역사극, 애정극을 두루 썼다. 이옥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서는 尹賢淑,《李玉時事劇研究》(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1996), 4-16쪽 참고.

236) 明 談遷,《棗林雜俎》: "갑신년 가을, 南教坊에 미인이 부족하자 사사로이 멀리서 징발하였다. 이에 阮大鋮, 楊文驄, 馮可宗의 무리들이 각각 구하여 바쳤다. 궁궐에서《麒麟閣傳奇》를 공연한 적이 있었는데 극이 끝나기도 전에 妓人 가운데 머리에 金鳳釵를 꽂은 자가 셋이나 되었다.(甲申秋, 南教坊不足充下陳, 私征之遠境. 阮大鋮、楊文驄、馮可宗輩各購進. 大內嘗演《麒麟閣傳奇》, 劇未終, 妓人首戴金鳳者三.)"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第一本(第1齣-第33齣)은 진숙보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그가 와강채에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일들로 《隋史遺文》의 전반부와 대략 유사하다. 第二本(第1齣-第28齣)은 진숙보가 이밀의 휘하에 있다가 결국 당에 투항하여 공을 세운 후 헤어졌던 가족과 해후하고 기린각에 초상이 걸리는 내용으로, 시간적인 배경은 《隋史遺文》과 같지만 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麒麟閣》의 第二本은 오히려 원 잡극, 《大唐秦王詞話》의 내용과 유사하다.

總評에서 '原本'을 수정했다고 언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隋史遺文》과 《麒麟閣》의 대표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隋史遺文》의 제3회 총평에서 原本에는 양광이 이연을 직접 공격하였는데 이를 고쳤다고 하였다. 실제로 《隋史遺文》 제3회에서는 양광을 위해 계책을 낸 우문술이 수하들을 도적으로 위장시켜 長安을 떠나는 이연을 楂樹崗에서 공격하게 한다. 이에 비해 《麒麟閣》의 第5齣에서는 양광이 직접 이연을 공격한다.[237] 또 《隋史遺文》의 제35회에는 진숙보가 부모를 잃고 남의집살이를 하는 羅士信을 우연히 마주친 후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동생으로 거두는 내용이 나오는데, 총평에서 이는 원본에 없는 내용으로, 사서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고 밝혔다. 또 청년 서세적이 진숙보를 찾아옴으로써 이 회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 총평에서 이 또한 원본을 고쳐 서세적의 나이에서 생기는 모순을 바로잡았음을 밝혔다. 그러나 《麒麟閣》에는 나사신이 등장하지 않는다. 서세적 또한 극의 초반부인 第6齣에 중년의 도사로 처음 등장하여 선웅신을 찾아가며[238] 그 후로도 도관에서 쓰러진 진숙보를 구해주고 진숙보 어머니의 생신을 축수하러 다른 영웅호걸들과 함께 齊州를 방문하는 등 계속하여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隋史遺文》의 제55회에서 진숙보는 고모부인 羅藝가 李淵에 의해 燕王으로 봉해진 후 두건덕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구해준다. 총평에서는 나예와 그밖에 幽州에서 充軍할 때 의형제를 맺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충했다는 사실과 주인공이 진숙보이기에 울지경덕에 대한 일화들은 많이 삭제했음을 밝혔다. 《隋史遺文》의 후반부와 울지경덕에 대한 일화를 많이 다룬 《麒麟閣》의 第二本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은 아마 이 때문이라 여겨진다.

---

237) 李玉, 《麒麟閣》, 《李玉戲曲集》(上海古籍出版社, 2004), 396-400쪽의 第1本 第5齣 '臨潼' 참고.

238) 李玉, 《麒麟閣》, 위의 책, 401쪽.

이로 보건대《隋史遺文》이 원본을 가지고 있었으며,《麒麟閣》또한 같은 원본을 유일한 저본으로 삼지는 않았을지라도 상당히 참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원본은 영웅고사를 중심으로 하는 구성과《麒麟閣》과의 유사성으로 볼 때 독서보다는 공연을 염두에 둔 텍스트였던 것으로 보이며 評話와 같은 설화구연류 대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원본은 진숙보뿐만 아니라 와강채 영웅들과 울지경덕 등 당시의 영웅호걸들에 대한 이야기를 두루 서술하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전통시기 소설과 공연예술 사이의 발생학적 친연성과 이후의 상호 교섭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239]《隋史遺文》또한 공연 텍스트인 원본을 대폭 수용하여 자신의 서사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다른 역사연의들과는 차별되는 공연전통의 특징들이 남아있다. 물론《隋唐志傳》,《隋煬帝艷史》에도 詩詞의 삽입,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키는 回의 마무리, '却說'과 같은 상투구 사용 등 공연전통의 흔적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서를 적극적으로 모방한《隋唐志傳》과 이전의 문언기록을 대폭 참조한《隋煬帝艷史》에서 공연전통의 영향은 대부분 직접적이기보다는 형식적인 흔적으로 남아있다. 이에 비해《隋史遺文》은 開場詩-入話-正話-散場詩의 형식뿐만 아니라 중심인물과 줄거리 등에서 분명한 공연전통의 영향을 보여준다.《隋史遺文》의 이와 같은 변화는 원천서사로서 공연

239) "說話와 諸宮調는 초기에는 여러 가지 연행기교나 원리에 있어서 상호 유사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 제 양식은 연행 기교를 상호 공유함은 물론, 이를 자유자재로 서로 교환·차용하였다. 후에 연행의 분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각기 연행의 지향과 연행기교들이 분기를 이루며 독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기 양상은 원 잡극의 흥성과 평화·단편화본 등 백화소설집의 출간에 의해 가속화되었고, 이러한 양식 간의 독립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소설·희곡·강창과 같은 후대의 민간문학 양식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소설·희곡·강창이 독립하여 하나의 고유한 예술 영역으로 정착한 후에도 이들은 꾸준히 예술적인 기교와 성취들을 상호교류하며 발생 때부터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김우석,《諸宮調 硏究 : 연행예술적 성격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211쪽. 역사연의의 흥성 이후로 역사연의를 대본으로 한 評書와 희곡 공연이 대거 등장하였다는 사실은 공연예술과 역사연의, 나아가 백화소설 사이의 영향 관계가 공연에서 소설이라는 단일한 방향으로, 한정된 시기에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사이의 영향 관계는 상호 교섭하는 방식으로, 전통시기 내내 끊임없이 일어난다.

서사를 대폭 수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서사화하는 작가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졌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원천서사를 선택하고 이를 역사연의로 다시 쓰면서 수많은 수정 과정을 거친 것은 어디까지나 작가인 원우령의 신중한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3. 서사화 방식의 변화와 특징

3.1. 허구적 사건의 출현과 확대

《隋史遺文》은 단일한 원천서사를 원본으로 삼아 역사연의로 고쳐 쓴 것으로, 원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전 시기의 역사서사, 《麒麟閣》 등과의 비교를 통해 달라진 서사의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隋史遺文》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역사를 서사의 개연성에 따라 새로운 사건으로 완전히 재구성하였다는 점이다. 《隋史遺文》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자유로이 만들어냈다. 《隋唐志傳》, 《隋煬帝艷史》의 경우 원천서사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을 계열화하는 방식을 통해 원인과 결과로 서사화하거나 혹은 사건의 배치를 바꾸거나 백화로 다시 쓰는 방법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변화시켰지만, 서사화되는 사건 자체는 이전의 문헌기록에 있는 것으로 작가가 새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다.

이에 반해 《隋史遺文》은 서사의 개연성에 따라 역사적 인물, 시간, 장소를 이용하여 허구적 사건을 만들어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위에서 언급한 제3회-제4회의 楂樹崗 사건이다. 《隋史遺文》은 《隋書》, 《資治通鑑》 등의 사서 혹은 같은 내용을 다룬 《隋唐志傳》과 《隋煬帝艷史》와 달리 양광이 태자위를 찬탈하는 과정에서 宇文述의 역할을 강조한다. 양광과 결탁한 우문술은 급기야 양광을 반대하는 李淵을 제거하기 위해 長安을 떠나 太原으로 가는 이연과 그의 가족들을 楂樹崗에서 습격하게 된다. 이는 이전의 역사서사에는 기록이 전혀 없는 사건이지만, 《隋史遺文》에서는 이후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이끌어내며 전체 서사의 플롯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사건이다.

齊州의 都頭로서 죄인을 압송하여 사수강을 지나던 진숙보는 불의를 보고 지

나칠 수 없어 우문술의 무리를 공격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연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준다. 이 일로 인해 진숙보와 우문술은《隋史遺文》내내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후 靑州總管의 심부름으로 楊素에게 생일 예물을 전달하러 長安을 방문한 진숙보는 우문술의 아들인 宇文惠及[240]이 원소절 등불놀이에서 부랑배들과 어울려 민가의 여인을 겁탈하자 그를 때려죽인다.(제18회-제23회) 시간이 흘러 진숙보는 來護兒의 휘하에서 고구려 원정에 참가하였다가 우문술과 다시 만나게 된다. 우문술은 지난 일들을 복수하기 위해 진숙보에게 거짓 죄명을 씌워 참수하려 하지만 진숙보는 내호아 덕에 풀려난다.(제36회-제38회) 다시 중원으로 돌아온 진숙보는 장수타의 휘하로 들어가 도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열심히 싸우지만 우문술은 진숙보가 반역을 일으킨 李密을 놓아준 것을 빌미로 진숙보를 해하려 계속 일을 꾸미고 결국 진숙보는 관직을 그만두고 와강채로 들어가게 된다.(제39회-제44회) 둘 사이의 대립은 제50회에서 진숙보가 속한 이밀의 군대가 우문술의 아들이자 수양제를 시해한 간신 宇文化及을 크게 격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반대로 이 일을 계기로 이연과 진숙보 사이에는 긴밀한 연대가 형성된다. 이후 이연은 진숙보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절에 그를 위한 生祠를 세우고(제19회) 이연의 사위인 柴嗣昌은 진숙보와 의형제가 되어 이연이 보낸 사례금 삼천 냥으로 관은을 강탈한 도적을 체포할 수 없어 곤경에 처한 진숙보의 문제를 해결해준다.(제30회-제33회) 이러한 인연으로 처음에는 이밀을, 후에는 왕세충을 군주로 모시던 진숙보는 결국 이연에게 투항하여 唐의 건국에 큰 공을 세우게 된다.

한편 사수강에서 진숙보와 헤어져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던 이연은 單雄信의 형인 單雄忠을 우문술의 잔당으로 오인하여 활을 쏘아 죽인다. 이에 선웅신은 이연과 반목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된다. 이밀이 왕세충에게 패한 후 당에 투항하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숙보와 정교금도 당에 투항하고자 하지만 선웅신이 끝까지 반대하여 결국 다 같이 왕세충의 휘하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왕세충이 진정한 군주가 아님을 깨닫게 된 진숙보와 정교금 그리고 서세적, 위징 등은 결국 모두 당에 귀부하지만 선웅신은 끝까지 왕세충의 군사로 남는다.(제53회) 그리하여 강한 의리로 맺어진 와강채의 의형제 간에 서로 대적하는 비극이

240) 사서에 기록된 우문술의 아들은 셋뿐이므로 넷째 아들인 우문혜급 또한 작가가 만들어낸 인물이다.

만들어진다. 왕세충의 패배로 선웅신은 결국 이세민에 의해 참형을 받게 되고, 선웅신을 구명할 수 없었던 진숙보와 서세적, 정교금은 허벅지살을 도려내 선웅신에게 먹여 한날에 죽기로 한 서약을 대신하고 그의 가족을 돌볼 것을 약속한다.(제59회)

사수강의 사건은 이처럼 이후에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들과 유기적으로 얽혀있다. 물론 앞서 언급하였듯《隋史遺文》은 원본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隋史遺文》에서 서사화된 상당수의 사건 또한 원본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3회 총평에서 작가가 직접 언급한 것처럼 원본에서 이연을 공격한 것은 양광 자신이지만[241]《隋史遺文》에서는 이를 우문술이 공격한 것으로 바꾸어 이후의 사건들과 맞물리도록 하였다. 원본의 형태를 비교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麒麟閣》에는 아예 우문술이 등장하지 않으며[242] 진숙보가 고구려 원정에 참가하는 내용도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隋史遺文》의 이러한 서사구도는 결국 원우령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수강에서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연이 사위인 시사창을 통해 진숙보에게 사례금을 전달하는 장면이《麒麟閣》에 있기는 하지만[243]《隋史遺文》에서 이 일은 정교금 일당의 官銀 약탈 사건, 진숙보에게 떨어진 관아의 고압적 명령과 같은 다른 사건들과 얽히면서 의형제 사이의 의리와 상급관원의 부패 등을 드러내는 복합적인 사건으로 서사화된다. 이처럼《隋史遺文》에서 서사화되는, 이전의 역사서사에는 없는 이 사건들은 그것이 원본에서 왔다 할지라도 원천서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충하여 서사를 내부적으로 확장시키거나 혹은 사건의 배치를 바꾸는 이전의 방식

241)《隋史遺文》제3회-제4회와《麒麟閣》의 第1本 第5齣 ‘臨潼’을 비교해보면 이 외에도 두 서사 사이의 차이점들이 드러난다. 일례로《隋史遺文》의 경우 진숙보가 臨潼山의 사수강을 지나게 된 이유와 이연이 공격받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에 비해《麒麟閣》에서는 臨潼山에서 姬光太子를 구해준 伍子胥를 기리기 위해 지은 사당에서 잠이 들었던 진숙보가 꿈에서 이연을 구하라는 오자서의 말을 듣고 일어나 달려 나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242) 진숙보 일행이 長安에서 우문술의 아들인 宇文成德을 때려죽이는 동일한 사건이《麒麟閣》의 第1本 第26齣 ‘玩燈’과 第27齣 ‘鬧府’에서 나온다. 이 대목에서 우문성덕은 자신을 許國公[宇文述]의 아들이라고 소개한다. 그러나《麒麟閣》에 우문술이 직접 등장하는 장면은 없다. 李玉,《麒麟閣》, 위의 책, 467-478쪽.

243) 李玉,《麒麟閣》, 위의 책, 453쪽.

과 달리 작가인 원우령의 전면적인 손질을 거쳐 새로운 사건으로 재창조되었다.

이처럼《隋史遺文》에서 서사화되는 새로운 사건들은 우선 인물의 형상화에 성공적으로 기여한다. 사수강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통해 원우령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국가를 패망으로 이끄는 간신 우문술, 국사를 걱정하는 충신이자 은혜에 끝까지 보답하는 이연, 정의로우면서도 출중한 무예를 가지고 있는 진숙보, 용맹하며 의리를 중시하지만 상황 판단에는 미숙한 선웅신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후의 원소절 등불놀이 소동, 고구려 원정 등의 사건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인물의 성격과 역할은 일관되게 이어지게 된다.

한편 이전의 역사서사에 없다는 의미에서 허구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건들은 동시에 인물 사이의 복잡한 은원과 갈등 관계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서사화한다. 양광과 이연의 대립은 隋와 唐의 교체를, 이연과 진숙보의 연대는 개국 군주와 개국 공신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이연과 선웅신 사이의 갈등은 隋末 여러 군웅 세력 간의 경쟁을 서사화한다.

주요한 역사적 사실을 허구를 통해 서사화하는《隋史遺文》의 방식은 와강채 영웅들의 기의를 그리는 부분에서 정점에 달한다. 역사서사에서는 진숙보, 선웅신, 서세적, 정교금, 위징 등이 李密의 세력에 합류하기 이전의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으며 이들이 와강채에 합류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룬다. 역사서사에서 주로 기록하는 것은 이들이 이밀의 휘하에 들어온 이후 여러 전투에서 세운 공적들이다. 이에 반해《隋史遺文》에서 서사의 전면에 부각되는 것은 이들이 기의하기 이전에 맺었던 관계와 이를 통해 드러나는 의리이다. 隋末의 어지러운 세상에서 기의한 군웅들은 전투의 승패에 따라 쉽게 모이고 쉽게 흩어졌다. 와강채의 영웅들 또한 이밀의 패전으로 인해 운명이 갈리게 된다. 진숙보, 서세적, 위징, 정교금 등은 이연에게 투항하여 결국 당의 개국공신이 되고, 선웅신은 왕세충의 휘하로 들어가서 끝까지 함께 한다. 이전의 역사서사, 그리고 역사서사의 관점을 이어받은《隋唐志傳》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들의 뛰어난 용맹과 전투에서 발휘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隋史遺文》의 서사는 이보다 이들 사이의 의리를 강조한다.

이는 역사연의가 역사적 사건 혹은 인물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웅들의 의리를 강조하는 서사는 아마도 공연에서 먼저 만들어졌으리라

추측되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존하는 隋唐 계통의 원 잡극을 살펴보면 이들이 전투에서 활약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당에 투항한 이후 전투에 나서서 승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영웅의 용맹함은 당의 건국으로 귀결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올바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웅들이 국가를 위한 전투에 나서기 전에 겪은 고난과 그들 사이의 의리를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이 《隋史遺文》에 앞서 존재하였다면 이는 아마도 대략 명 중엽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水滸傳》처럼 의리를 강조하는 영웅 서사가 이 시기에 들어 유행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역사를 대하는 태도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기에는 밖으로 드러난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 작동하는 이치를 담아내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이 개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隋史遺文》은 隋와 唐이라는 왕조의 교체를 단순히 전투의 결과가 아닌 간신과 충신, 폭군과 성군의 대립으로 서사화하고 와강채의 기의를 군사력의 강화가 아닌 영웅의 의리와 포부로 서사화한다. 이는 영웅의 공적보다는 그 바탕이 되는 본성을 그리겠다고 서문에서 밝힌 원우령의 의도와도 맞닿아있다. 또한 《隋史遺文》에서는 역사서사에 없는 허구적 사건들이 사실성이 아닌 개연성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는 다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서사가 된다. 그 결과 《隋史遺文》은 역사에 대한 서사이면서 동시에 역사를 추동하는 원리에 대한 서사가 되면서 의미가 풍부해진다.

《隋史遺文》의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진숙보가 대운하 공사에 차출되면서 겪은 일을 그린 제34회이다. 관아에서 수배령을 내린 도적을 잡지 못해 곤장을 맞은 것으로도 모자라 돈까지 물어준 진숙보는 관아에서 몸을 빼기 위해 대운하 공사를 관리하는 일을 맡는다. 도중에 예전의 친우 狄去邪를 만나 그가 운하를 파다 겪은 기이한 일을 듣지만 믿지 않는다. 공사장과 가까운 마을에 도착한 진숙보는 밤에 아이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도적을 잡는 데에 성공한다. 적거사가 땅 속 무덤에서 양제의 전생인 괴물 쥐를 본 일과 陶榔兒 무리가 대운하 공사의 총감독관인 麻叔謀에게 인육을 바치기 위해 아이들을 잡아가는 일은 문언필기인 〈開河記〉, 그리고 이를 원천서사로 한 《隋煬帝艷史》에 이미 들어 있다. 그러나 《隋史遺文》은 이 사건을 가져와서 주인공을 아예 진숙보로 바꾸고 陶榔兒 무리를 잡아들이는 것으로 고친다. 제34회의 총평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 부분은 원래 〈開河記〉에 있었던 것으로 근래에 《隋煬帝艷史》에서 다시 언급되었으니, 만약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흐름이 끊어지게 되고 다시 이야기한다면 중복이 된다. 이에 狄去邪와 관련된 부분을 狄去邪와 秦叔寶의 대화 속에 넣어 서술하였다. 陶榔兒와 관련된 부분은 부연하여 지어내었다. 宋襄公과 관련된 부분은 麻叔謀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지적하였다. 혹은 허구이기도 하고 혹은 사실이기도 하며 혹은 간략하기도 하고 혹은 길기도 하니 문인의 생각과 문인의 솜씨가 극에 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此節原有〈開河記〉, 近復暢言于《艷史》, 若不言則逗留, 再言又重復, 此卻把狄去邪一節, 敘入去邪與叔寶言談. 陶榔兒一節, 敷衍作事. 宋襄公一段, 叔謀衆人語言中點出. 或虛或實, 或簡或繁, 可謂極文人之思 , 極文人之致.[244]

〈開河記〉에서 이 사건은 운하 공사 도중에 일어난 奇聞으로 志怪에 가깝게 기록되었으며 《隋煬帝艷史》 제21회부터 제24회에서는 자세한 묘사가 덧붙여진 채 양제의 전생, 공사 도중 마숙모의 부정행위 그리고 이후의 인과응보를 드러내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서사화되었다. 이에 비해 《隋史遺文》은 진숙보와 관련이 없는 이 사건에 역사적 사실이 아님에도 의식적으로 진숙보를 엮어 넣었으며, 특히나 〈開河記〉, 《隋煬帝艷史》와 달리 진숙보가 陶榔兒 무리를 잡고 이들을 마숙모가 다시 풀어주는 것으로 고쳐 대운하 공사의 처참함과 상급관리들의 부도덕함을 부각시켰다. 이에 현실을 깨달은 진숙보는 관직을 내려두고 때를 기다리며 시골에 은거하게 된다. 이처럼 《隋史遺文》은 대운하 공사 과정에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서사화함에 있어서 단순히 상세한 상황 설명을 덧붙인 《隋煬帝艷史》와 달리 이것을 隋末 황제의 가혹한 정치와 지배층의 탐욕 그리고 이로 인해 백성들이 겪는 고난에 대한 서사로 심화시켜 이를 통해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처럼 개연성에 따라 역사서사에 기록이 없는 허구적 사건을 운용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그 바탕과 이치를 드러내고자 한 《隋史遺文》의 서사 방식은 이전의 역사서사와 달리 텍스트의 의미를 한층 풍부하게 만들었다.

244) 袁于令, 《隋史遺文》, 270쪽.

3.2. 明末 현실의 직접적 투영

《隋史遺文》의 전반부는 진숙보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전 평범한 백성으로서 겪는 사건들을 서사화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건들은 역사서사에 전혀 기록이 없다는 의미에서 허구라고 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떠한 역사적 사실보다 더욱 자세하며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서사화된다.

제4회에서 이연을 구해주고 떠난 진숙보는 호송을 맡은 죄인을 목적지인 潞州 관아에 넘겨주고서 太守의 회신 공문을 받으려 한다. 하지만 마침 이연이 太原에 도착하는 바람에 潞州太守는 태원으로 축하인사를 가게 되고 진숙보는 객점에서 하릴없이 스무날 가까이 기다리게 된다. 객점의 주인인 王小二는 건장한 청년인 진숙보와 그의 말을 먹이기가 힘들어져 중간에 숙박비를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제야 진숙보는 동료인 반건위와 여비를 나누지 않은 채 헤어져 자신에게는 은자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이때부터 진숙보는 반건위가 일을 마친 후 은자를 가지고 자신을 데리러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 한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객점주인은 태도가 돌변하여 진숙보를 푸대접하며 면박을 주고 나중에는 건달을 불러와 은자를 마련하라고 위협하기까지 한다. 潞州에서 두 달 동안 벌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隋史遺文》에서는 제5회부터 제8회까지 4회에 걸쳐 아주 자세하게 묘사된다. 객점주인의 푸대접에 화가 나지만 돈을 가져오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는 진숙보는 선친의 유품이자 자신의 특기를 드러내는 무기 銅簡을 전당포에 맡기러 갔다가 제값을 받지 못하자 화를 내며 돌아오고, 아끼던 황표마를 팔러 나갔지만 잘 먹지 못해 비쩍 마른 탓에 명마임을 몰라보는 이들의 조롱을 받는다. 결국 潞州의 호걸인 선웅신이 황표마를 사게 되지만 齊州의 호걸인 진숙보를 아느냐는 그의 물음에 진숙보는 허름한 차림이 부끄러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못한다. 말을 판 은자와, 어머니가 부탁한 潞州 특산 비단을 얻은 진숙보는 돌아가는 길에 허기를 채우려 주막에 들리지만 심부름꾼들조차 돈이 없어 보이는 그를 멸시하여 실랑이를 벌인다. 은자를 보여주고 간신히 주막에 들어간 진숙보는 대청 위가 아닌 곁채의 자리에 앉게 된다.

> 나온 음식도 따듯하게 익힌[熏燒] 요리가 아니라 차가운 소고기와 생선을 질그릇에 아무렇게나 담은 것이었으며 술 또한 데우지 않은 것이었다. 늙은이는 탁자 위에 음식들을

올려두고는 그냥 가버렸다. 진숙보는 화가 끓어올랐다. “나 진숙보가 어디 이런 하찮은 음식을 먹을 사람이던가? 이 가게를 다 둘러엎고 박살내는 것이야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니지만 나중에 이 소식이 집에까지 알려지면 친우들은 내가 潞州에서 밥값 몇 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친 것도 아닌데 가게에서 두 번이나 싸우고 밥도 얻어먹지 못했다고 알게 되겠지. 이는 끼니나 때우려다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는 꼴이지. 화를 삭이고 주는 대로 먹고 가자.” 바로 뱃속의 허기가 소인배를 용서하게 하는 셈이니 씁쓸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술을 한 사발 먹고 차가운 소고기를 몇 점 먹으니, 그야말로, ‘흙덩이로 배고픈 晋 文公을 조롱하고, 蕪蔞亭에서 漢 光武帝가 허기를 때우네.(土塊調重耳, 蕪亭困漢光.)’

가게 밖이 시끌시끌하더니 가게 주인이 외쳤다. “두 분 나으리, 저희 가게에서 식사하시지요.” 두 호걸이 가게의 대문 앞에서 말에서 내리고 네다섯 명의 하인이 작은 수레 두 대를 밀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얼굴을 따듯하게 덮었던 가리개를 벗고 먼지를 털었다. 주인이 안내해 중문 안으로 들어왔는데 앞서 들어온 이는 進士巾을 쓰고 붉은 옷을 입었고 뒤에 들어온 이는 皂莢巾을 쓰고 자줏빛 옷을 입었다. 앞에 들어온 이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으나 뒤에 들어온 이는 친우 王伯當이었다. (중략) “두 분께서는 여기 앉으시지요.”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분부했다. “좋은 차를 따로 끓이고 간단한 음식을 먼저 가져오너라. 좋은 음식들을 따뜻하게 내오고 오래된 술을 열어 두 분 나으리께 드려라.” 말을 마치고 물러갔다. 하인들이 따듯한 물을 담은 대야를 두 개 들고 오자 둘이 손을 씻는 것이 보였다. 진숙보는 동쪽 곁채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潞州 비단을 챙겨서 일어나려고 했으나 나갈 수가 없었다. 들어올 때는 상관없었는데 난간이 둘러져있어 통로를 지나야 나갈 수 있었다. 두 사람이 중간에 앉아있는데다가 숙보는 난간을 넘어갈 수도 없으니 등을 지고 다시 앉는 수밖에 없었다. 그가 만약 가만히 고개를 돌리고 술을 먹었더라면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안절부절 못하는 바람에 왕백당이 그를 보고는 같이 온 이에게 물었다. “저기 동쪽 곁채 첫 번째 탁자에 앉은 저 사람 좀 보게. 누구 닮지 않았나?” 같이 온 이가 고개를 돌려 보고는 말했다. “꼭 歷城의 秦 나으리같군.” 그야말로, 풍채가 당당한 것이 群鷄一鶴이요, 날카로운 것이 囊中之錐구나!(軒昂自是雞群鶴, 銳利終爲露穎錐.)

진숙보는 이 소리를 듣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날 봐버렸군.” 왕백당이 말했다. “仲尼와 陽虎도 얼굴이 매우 닮았네. 진숙보는 사람 중의 용이고 용이 가는 곳은 자연히 물이 생기니 그가 어찌 저리 옹색하게 있겠는가?” 숙보는 그럴 리가 없다는 왕백당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적이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같이 온 이는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라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몸을 돌려 숙보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놀란 숙보가 고개를 들

지 못하고 젓가락도 움직이지 못한 채 고개를 움츠리고 납작 낮춰 앉으니 엎드린 범과 같았다. 같이 온 이가 보면 볼수록 비슷하다고 여겨 말했다. “저 사람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는 꿈쩍도 않으니 세상에 저렇게 술을 마시는 이는 없네.” 다시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비슷하니 가서 좀 확인해야겠네. 아니면 그만이지 않은가.” 숙보는 그가 오려는 것을 보고는 알아보면 더 무안할까봐 스스로 말하는 수밖에 없었다. “왕형, 못난 진경이 여기서 재난을 만났소.” 왕백당은 그가 진숙보인 것을 보고는 황망히 일어나 다가갔다. 왕백당은 자신의 자줏빛 옷을 벗어들고 동쪽 곁채로 와서 숙보의 몸을 감싸서 대청 위로 데리고 올라와 끌어안고 울었다. 가게의 주인이 놀라니 모두 와서 사죄하였다. 세 사람 가운데 하나는 울고 둘은 울지 않았다. 왕백당은 숙보가 그처럼 딱한 형편에 처한 것을 보고는 몹시 슬퍼하였다. 또 한 사람은 이제 막 만난 사이라 크게 개의치 않았다. 숙보는 곤궁에 빠졌다고 하여 울 이유는 없었다. 그야말로, ‘知己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丈夫는 곤궁한 처지에 눈물 흘리지 않네.(知己雖存矜恤心, 丈夫不落窮途淚.)’

又不是熏燒的下飯，卻是一碗冷牛肉、一碗凍魚，瓦缽磁甌，酒又不熱．老兒擺在桌上，就走去了．叔寶惱將起來:“難道我秦叔寶天生定該吃這等東西的？我要把他家私打做齏粉，房子拖坍他的，不過一翻掌間，卻是一莊沒要緊的事，明日傳到家裏，朋友們知道了，叔寶在潞州，不過少了幾兩銀子飯錢，又不瘋不顛，上店吃酒，打了兩次，又不曾吃得成，總來爲了口腹，惹人做了話柄．熬了氣，吃他的去罷．”這也是肚中饑餓，恕卻小人，未免自傷落莫．才吃了一碗酒，用了些冷牛肉，好是：土塊調重耳，蕪亭困漢光．

聽得店門外面喧嚷起來，店主人高叫：“二位老爺，在小店打中火去．”兩個豪傑，在店門首下馬，四五個部下的人，推著兩輛小車子進店，解面衣，拂灰塵．主人引著路，進二門來，先走的帶進士巾，穿紅；後走的戴皂莢巾，穿紫．叔寶看見先走的不認得，後走的卻是故人王伯當．(중략)“二位爺就在這頭桌上坐罷!”分付手下:“另烹好茶，取小菜．前邊烹炮精致的肴饌，開陳酒與二位爺用．”言罷，自己去了．只見他手下人，掇兩盆熱水，二位洗手．叔寶在東廂房卻坐不住，拿了潞綢起身要走，不得出去．進來時不打緊，他那欄杆圍繞，要打甬道才出去得．二人卻坐在中間，叔寶又不好在欄杆上跨過去，只得背著臉又坐下了．他若順倒頭竟吃酒，倒也沒人去看他，因他起起欠欠的，王伯當就看見了，叫跟隨的:“你轉身看東廂房第一張條桌上這個人，像著誰來?”跟隨的轉身回頭道:“倒像歷城秦爺的模樣．”正是：軒昂自是雞群鶴，銳利終爲露穎錐．

叔寶聞言暗道:“呀! 看見我了．”伯當道:“仲尼、陽虎，面龐相似的上多，叔寶乃人中之龍，龍到處自然有水，他怎麼得一寒如此?”叔寶見伯當說不是，心中又安下些．那跟隨的卻是個少年眼快的人，要實這句言語，轉過身緊看著叔寶，嚇得叔寶頭不抬，箸也不動，縮頸低坐，

像伏虎一般. 這跟的越看越覺像了, 總道: “他見我們在此, 聲色不動, 天下也沒這個吃酒的光景.” 便道: “我看來卻像得緊, 待我下去瞧瞧, 不是就罷了.” 叔寶見從人要走來, 等他看出, 卻沒趣了, 只得自己開言招架: “王兄, 是不才秦瓊, 落難在此.” 伯當見是叔寶, 慌忙起身離坐. 伯當急解身上紫衣, 下東廂房, 將叔寶虎軀裹定, 抱上廳來, 抱頭而哭. 主人家著忙, 都來賠話. 三個人有一個人哭, 兩個不哭. 王伯當見叔寶如此狼狽, 傷感淒涼. 這人乍相見無甚關系, 叔寶卻沒有因處窮困中就哭起來的理. 總是: 知己雖存矜恤心, 丈夫不落窮途淚.[245]

이 부분의 사실적인 묘사는 우선 《隋史遺文》의 주요 등장인물로서 의리로 맺어진 의형제이자 후에 와강채에서 함께 기의하게 되는 秦叔寶, 王伯當, 李密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隋史遺文》은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세 영웅의 각기 다른 성격을 주점에서 마주치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보여준다. 즉 친우에 대해 깊은 정을 가지고 있으며 의리를 중시하는 왕백당, 영민하면서 타인에 대한 감정을 절제하는 이밀, 그리고 곤경에서도 체면과 도리를 지키려 애쓰며 영웅호걸의 풍모를 잃지 않는 진숙보가 하나의 장면을 통해 효과적으로 형상화된다.

또한 이렇게 형상화된 인물들의 성격은 이후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된다. 양현감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가 쫓기는 신세가 된 이밀은 와강채로 들어가 의형제였던 적양을 제거하고 무리의 수장이 된다. 후에 왕세충의 군대에게 대패하게 되자 자신의 상황을 판단한 후 의형제들을 기다리지 않고 당에 먼저 투항한다. 그러나 이후 이연의 대우에 불만을 가져 다시 역모를 꾀한다. 이에 비해 왕백당은 신실한 인물로, 이밀의 대패 후에도 끝까지 그를 보좌하며 함께 당에 투항한다. 후에 이밀이 당에 역모를 꾀할 때 왕백당은 일이 성사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의리상 이밀을 따르다 같이 죽음을 맞이한다.

---

245) 袁于令, 《隋史遺文》, 제8회, 64-66쪽. 이 내용이 원본에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麒麟閣》의 경우 第7齣 ‘賣馬’에서 진숙보가 선웅신에게 말을 파는 장면이 나온 후, 주막에서 진숙보가 왕백당 등을 만나는 일은 건너뛴 채 第8齣 ‘跌廟’에서 진숙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세적이 머무는 道觀 앞에서 쓰러지는 장면으로 바로 이어진다. 李玉, 《麒麟閣》, 위의 책, 402-410쪽. 진숙보가 도관 앞에서 쓰러지는 내용은 《隋史遺文》의 제9회에 나오며, 앞서 언급했듯 서세적의 나이에서 생기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도관의 도사 또한 魏徵으로 고친다. 또한 《麒麟閣》에는 《隋史遺文》 제5회부터 제8회에 나오는 객점주인 왕소이와 진숙보 사이의 실랑이에 관한 장면이 없다.

동시에 이 부분은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세상의 인심을 극적으로 드러내며 진숙보가 겪은 고난을 보여준다. 고난은 영웅서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隋史遺文》에서 진숙보가 겪는 고난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죄인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고 고향을 떠났다가 예기치 않은 일들에 휘말려 결국 幽州에 充軍까지 가게 되는 일, 두 번째는 관은을 강탈한 도적을 잡지 못해 관아에서 고초를 당한 일, 세 번째는 결국 隋를 위해 출사하여 관직을 받아들이지만 간신 우문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다. 인물의 행위와 심리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는 진숙보의 첫 번째 고난에 관한 서사에서 특히 눈에 띈다. 진숙보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달라지는 객점주인의 태도, 제 아무리 용맹하고 의로운 영웅호걸이라도 은자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모습, 윗사람의 위세를 빌어 호령하는 하급 관원들의 태도, 전당포 주인과 흥정하는 과정과 마시장의 광경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특히 위의 예문에서는 주막 주인과 심부름꾼들의 태도, 체면과 허기에 모욕을 참는 진숙보의 모습, 초라한 몰골에 친우를 만났을 대의 난처함 등이 매우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이러한 사실적인 묘사는 이전의 역사연의에는 없는 것일뿐더러 미묘한 상황과 감정에 대한 묘사는 인정소설과 같은 다른 유형의 소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적인 묘사는 금전적 이익과 권세만을 좇으며 힘없는 이들을 무시하는 세상의 모습과 그 안에서 수모를 당하면서도 도리를 지키려하는 진숙보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246] 이는 李世民이 李淵을 설득하여 기의하거나 宇文化及이 煬帝를 시해하는 것과 같은 역사적 사실들은 오히려 서술자의 언술이나 인물간의 대화를 통해 축약하여 서사화하는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러한 사실적 묘사가 역사적 인물과 그가 처했던 과거의 상황뿐만 아니라《隋史遺文》이 쓰인 明末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隋史遺文》에서는 금전적 이익을 좇는 세태와 관리들의 탐욕이 주요하게, 반복적으로 서술된다. 백성들은 은자 한 냥에 목숨을 걸고, 관리들 사이

246) 동시에 전당포의 주인이 진숙보의 銅簡을 쓸모없는 銅 덩어리로 치부하고 마시장의 상인들이 비쩍 마른 黃驃馬를 병들었다고 여기는 이야기는 영웅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은유로 작동한다. 영웅에게 있어 그의 무기와 말은 영웅 자신에 대한 환유이다. 작가는 이를 통해 겉으로 보이는 초라함 속에 감추어진 비범함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을 비판한다.

에는 선물 혹은 인사의 명목으로 수시로 은자가 오간다. 《隋史遺文》에서 진숙보가 겪는 세 가지 고난 가운데 앞의 두 가지 또한 결국은 은자와 관련된다. 타지에서의 곤경은 처음에는 은자가 없어서 일어났고(제5회-제8회) 다음에는 선웅신이 진숙보에게 예물로 준 은을 다른 이들이 탐내면서 일어난다.(제10회-제13회) 두 번째 고난은 더욱 노골적이다. 도적들이 장안으로 수송 중이던 관은 삼천 냥을 중도에서 강탈하자 관리들은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 다투고, 도적을 잡아 은자를 되찾지 못한 벌로 진숙보를 비롯한 하급 관리들은 곤장을 맞는 상황이 일어난다. 결국 이는 배상의 문제로 귀결되어 진숙보가 이연에게 받은 사례금 삼천 냥으로 도적에게 강탈당한 관은을 齊州刺史에게 물어냄으로써 무마된다.(제27회-제33회) 이 과정에서 삼천 냥의 출처를 모르는 齊州刺史는 중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이연의 사위 시사창에게 진숙보에게서 사례금으로 따로 오백 냥을 받아서 챙기라고 신신당부한다.

이처럼 《隋史遺文》은 텍스트의 여기저기에서 사실적이고 생생한 묘사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좇는 세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 이는 진숙보가 살았던 6,7세기보다는 그보다 천여 년이 더 흐른 明末 사회의 모습을 더욱 핍진하게 반영한다. 상업의 급격한 성장, 은의 대량 유입, 소비의 진작, 치열한 경쟁 등은 明末의 사회경제를 대표하는 특징들이다.[247] 중국에서 조세를 銀으로 거둔 것은 15세기 중엽 이후의 일이므로 도적들이 관은을 강탈하는 이야기 또한 隋唐 교체기가 아닌 明末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隋史遺文》에서는 의형제 사이의 忠義 또한 종종 은으로 치환된다. 예를 들어 제10회에서 선웅신의 의리를 의심하던 진숙보는 선웅신이 몰래 자신의 말에 실어놓은 은을 보고 그의 깊은 신의를 깨닫게 되며, 제11회에서 선웅신은 살인죄를 쓴 진숙보를 구명하기 위해 재물을 아끼지 않고 뇌물을 씀으로써 다시 한 번 자신의 신의를 드러낸다. 이연 또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진숙보의 은혜에 은 삼천 냥으로 보답한다. 또 제31회에서 진숙보 모친의 축수연에 참석한 영웅들은 예물로 각기 은자를 내어 진숙보와의 의리를 표현한다. 이는 급격하게 발달한 화폐경제가 모든 가치를 은으로 환산하여 사고하도록

247) 明末의 사회경제와 문화사에 대해서는 티모시 브룩 著, 이정·강인황 譯, 《쾌락의 혼돈: 중국 명대의 상업과 문화》(이산, 2005), 로이드 E. 이스트만 著, 이승휘 譯, 《중국 사회의 지속과 변화: 중국 사회경제사 1550～1949》(돌베개, 1999) 참고.

만든 明末의 현실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明末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행동양식, 그리고 윤리관, 심미관 등의 가치체계도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이 시기를 살아갔던 원우령 또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며 이에 그가 겪은 고민과 갈등은 자연스레 역사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과 이를 서사화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가가 만들어 넣은 허구적 사건들은 특정한 역사적 사실보다는 역사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를 지향하게 되면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게 된다. 이에 허구적인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隋史遺文》의 서사 안에는 텍스트가 쓰인 明末의 모습이 겹쳐지게 된다.

이러한 서사적 특징으로 인해 《隋史遺文》의 영웅서사는 현재와 관련이 없는 과거의 영웅들에 대한 업적을 노래하는 신화 혹은 서사시로 읽히거나 과거의 경험을 통한 거울로서만 읽히지 않으며 살아있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물론 모든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행위 자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현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248]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허구적 사건에 대한 사실적 묘사를 통해 明末의 집단적이며 개인적인 경험이 서사 안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이제 《隋史遺文》은 역사적 영웅의 일대기인 동시에 현실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隋史遺文》이 역사적인 전쟁 영웅에 대한 서사이면서도 《隋唐志傳》 뿐만 아니라 《三國演義》, 《封神演義》와 구별되는 지점은 여기에 있다.

248) 폭군을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으로 읽히고 說話와 講史의 영웅들이 민중의 염원을 드러내고 제갈공명이 문인들의 이상을 반영하는 것처럼 모든 이야기는 쓰기와 읽기라는 텍스트 외적 행위와 관련이 있다.

Ⅵ. 《隋唐演義》 : 자기 완결적 구조의 역사

1. 《隋唐演義》의 출간과 성격

1.1. 판본과 체제

《隋唐志傳》, 《隋煬帝艷史》, 《隋史遺文》의 출간본이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과 달리 《隋唐演義》는 20여 종이 넘는 판본이 남아있다. 그 가운데 가장 출간 시기가 이른 판본은 《四雪草堂重訂通俗隋唐演義》로, 이것이 《隋唐演義》의 初刊本이라 여겨진다.[249] 책의 서두에는 "劍嘯閣齊東野人等原本, 長洲後進沒世農夫彙編, 吳鶴市散人鶴樵子參訂"라고 題하고 있는데, '劍嘯閣'과 '齊東野人'은 각각 《隋史遺文》과 《隋煬帝艷史》를 가리키며 沒世農夫와 鶴市散人鶴樵子는 모두 청초의 문인인 褚人獲의 필명이다. 自序의 마지막에 '時康熙乙亥冬十月既望, 長洲褚人獲學稼氏題於四雪草堂'이라고 적혀 있어 강희 34년(1695)에 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250] 四雪草堂은 저인획의 서재로, 그는 《隋唐演義》 외에 《封神演義》와 자신의 필기집인 《堅瓠集》을 출간하였다. 일반적으로 청대에 출간된 소설은 인쇄 상태, 장정, 각자, 삽화 등 서적의 물리적 외양이 明末에 비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隋唐演義》는 저인획 자신이 상당히 공들여 출간한 고급 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251]

---

249) 《隋唐演義》의 판본에 대해서는 文革紅, 〈《四雪草堂重訂通俗隋唐演義》版本考辨〉(《明清小說研究》, 第2期, 2008)과 傅劍平, 〈褚人獲四雪草堂《隋唐演義》初刻本疑年考辨〉(《華南師範大學學報》, 第2期, 2008) 참고.

250) 삽화에 '康熙甲子仲春古吳趙澄華'라는 刻工의 題字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삽화는 강희 23년(1684)에 판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發凡〉에 "초고가 완성된 지 오래되었으나 절반을 판각한 후 마지막 20여 회를 우연히 잃어버려 중단하였다. 다행히 한 친우의 상자에서 초고를 찾아 전질이 갖추어져 판각하게 되었으니 이에 다 같이 즐길 수 있게 되었다.(是編草成已久, 刊刻過半, 因末後二十餘回偶爾散軼, 遂至中止. 茲幸得之一友人篋中, 始成全帙, 付之剞劂, 以公同好.)"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건대 초고가 완성되어 삽화가 먼저 판각되고 실제 출간은 1695년에 이뤄진듯하다.

251) "그러나 청대에는 몇몇 예외적인 소설 출판물들이 나타났다. 17세기 후기에는 가끔

褚人獲은 명 숭정 8년(1635)에 태어났으며 죽은 해는 정확하지 않다. 字는 稼軒, 學稼이고 號는 石農, 沒世農夫로 江蘇 長洲 사람이다. 문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평생 관직에 나가지 않았으며, 袁于令, 孫致彌, 沈宗敬, 尤侗, 洪昇, 張潮 등의 蘇州 문인들과 교유하였다. 저작으로는 《堅瓠集》, 《讀史隨筆》, 《退佳瑣錄》, 《鼎甲考》, 《聖賢群輔錄》, 《續蟹譜》 등이 있다.

《隋唐演義》는 총 20권 100회로, 褚人獲이 《隋史遺文》과 《隋煬帝艷史》 두 작품의 본문을 편집하고 내용을 새로 추가하여 완성하였다. 《隋唐演義》의 체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가장 앞에는 褚人獲의 〈序〉, 林瀚의 〈隋唐演義原敍〉,[252] 〈四雪草堂重編隋唐演義發凡〉[253]이 차례대로 나온다. 이어서 100회의 회목을 나열한 총목 뒤로 각 회마다 한 장씩 총 100개의 삽화가 실려 있다. 매 회는 시나 사로 시작되며 이어서 각 회의 내용에 관한 서술자의 직접적인 언술이 나온 후 본문이 시작된다. 서사 중간에도 시나 사가 다수 들어있다. 각 회의 마무리는 두 구의 시가

추런훠(褚人獲)와 같은 문인 인쇄업자에 의해 만력연간의 세련된 책들에 쏟아 부은 것만큼 많은 공을 들여서 만든 소설들이 간행되고 있었다. 추런훠의 《隋唐演義》는 그 당시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출판업계의 예술적 수준을 보여주는 한 예로 알려졌다. 그가 사치스러운 판본을 사기 위해 돈을 쓸 수 있는, 그리고 백화소설의 열렬한 애호가인 고급문화의 도서 구매자들을 겨냥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떤 문인출판인들은 또한 좀 더 공식적인 저작들을 세련된 판본으로 출간하기도 했으나, 추런훠 자신의 필기집은 자신의 소설 인쇄에 사용된 것보다 크기가 더 작고 품질도 떨어지는 종이에 인쇄되었다." 로버트 헤겔 著, 조관희·홍상훈 譯, 〈명청 시기 소설의 틈새시장〉(《중국소설연구회보》, Vol.74, 2008), 22쪽.

252) 《隋唐志傳》에 실린 서문을 옮겨 온 것으로 약간의 구절이 다르기는 하나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253) 一. 隋唐演義의 原本은 宋 羅貫中에게서 나왔다. 明 正德 연간에 三山의 太史 林亨大가 다시 찬집하였으니 판각하여 세상에 전한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書商들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근일 《逸史》에 隋帝, 唐宗과 朱貴兒, 楊玉環의 再世因緣이 실린 것을 보고 그 일이 매우 신이하다 여겨 이에 편입하였다. 게다가 정사와 야사에 기록되어 있는 수당시기의 奇事, 快事, 雅趣事를 모아 책으로 엮으니 자못 눈을 즐겁게 할만하다. 이는 이전의 작자들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미비한 것을 보충했을 뿐이다.(隋唐演義原本出自宋羅貫中. 明正德中三山林太史亨大復加纂輯, 授梓行世已久, 而坊人猶以爲未盡善. 近見逸史載隋帝、唐宗與貴兒、阿環兩世會合, 其事甚新異, 因爲編入. 更取正史及野乘所紀隋唐間奇事、快事、雅趣事, 彙纂成編, 頗堪娛目. 非欲求勝昔人, 聊以補所未備云爾.)

나오기도 하고 '不知後事如何, 且聽下回分解.'라는 상투구가 나오기도 하는 등 일정치 않으며 매 회의 마지막에는 總評이 실려 있다.

1.2. 隋唐 계통 역사서사의 집대성

《隋唐演義》의 전체 서사는 隋 文帝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隋의 멸망과 唐의 건국을 거쳐 唐 玄宗의 죽음에서 끝난다. 실제 시간으로 따지면 541년부터 762년까지 약 220년간의 일을 다루고 있다. 제1회부터 당 태종이 현무문에서 정변을 일으키는 제66회까지는 대체로《隋史遺文》과《隋煬帝艷史》두 작품을 원본으로 하여 편집하고 부분적인 수정을 하였으며, 제66회부터 당 현종이 임종하는 제100회까지는 특정 원본 없이 이전의 史書, 문언필기 등을 원천서사로 삼아 이를 수정·

一. 書名을 '隋唐演義'라 하여 양 조대의 처음과 끝을 다 실은 것 같지만 두 황제와 두 귀비가 내세에서 다시 만난 일을 하나의 關目으로 하였다. 그러한 까닭에 隋 煬帝에서 시작하여 唐 明皇에서 끝난다. 肅宗 이후로 열네 황제가 더 있으나 그 사이의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은 따로 晩唐志傳을 만들어 세상에 전할 것이니 여기서는 불필요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書名隋唐演義, 似宜全載兩朝始末. 但是編以兩帝、兩妃再世會合事爲一部之關目, 故止詳隋煬帝而終於唐明皇. 肅宗之後尚有十四傳, 其間新奇可喜之事, 當另爲晩唐志傳以問世, 此不贅及.)

一. 옛말에 '左圖右史'라 하였으니 그림이 전해진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지금 稗史에 실린 그림들은 음란하지 않으면 조악하다. 음란하면 눈을 더럽히고 조악하면 또 눈을 즐겁게 할 수 없어 취할 것이 없다. 이 책의 그림은 모두 오십 幀으로 趙同文이 그린 것이니 意景이 빼어나다. 또 글자는 王祥宇, 鄭予文의 손에서 나왔으니 그 새김이 정교하여 식견 있는 사람들이 감상할만하다.(古稱左圖右史. 圖像之傳, 由來舊矣. 乃今稗史諸圖, 非失之穢褻, 即失之粗率. 穢褻既大足汙目, 而粗率又不足以悅目, 甚無取焉. 茲集圖像計五十幀, 爲趙子同文所寫, 意景雅秀, 又刊自王子祥宇、鄭子予文之手, 鏤刻精工, 似當爲識者所賞.)

一. 초고가 완성된 지 오래되었으나 절반을 판각한 후 마지막 20여 회를 우연히 잃어버려 중단하였다. 다행히 한 친우의 상자에서 초고를 찾아 전질이 갖추어져 판각하게 되었으니 이에 다 같이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만약 翻刻하는 이가 있다면 천리 길이라도 쫓아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四雪草堂主人 알림.(是編草成已久, 刊刻過半, 因末後二十餘回偶爾散軼, 遂至中止. 茲幸得之一友人篋中, 始成全帙, 付之剞劂, 以公同好. 倘有翻刻者, 千里必究. 四雪草堂主人講識.)

보충하여 확장하였다. 따라서 제66회까지는 줄거리 구성이 비교적 긴밀한 반면 제66회 이후는 줄거리 구성이 산만하고 원천서사의 일화들을 덧붙여 만든 자국이 비교적 선명하다.

《隋唐演義》는 기본적으로는 수당시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서사라고 할 수 있다. 隋 文帝가 남조의 마지막 왕조인 陳을 무너뜨리고 천하를 통일하는 데에서 시작하여 隋 煬帝의 사치와 향락, 唐의 건국과 太宗의 통치, 그리고 이후로 唐의 제위가 승계되는 과정을 서사화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역사연의들이 한 朝代나 한 인물의 일생을 서사화하는 것과 달리 《隋唐演義》는 〈發凡〉의 두 번째 조목에서 밝혔듯이 수당시기를 전부 서사화하지 않고 당 현종의 죽음에서 서사를 끝맺는다. 그 까닭은 작가 褚人獲의 序文에 드러나 있다.

> 옛날 사람들이 《通鑑》을 고금의 大帳簿로 삼음은 공고하다. 이러한 總記의 大帳簿가 있으니 마땅히 雜記의 小帳簿도 있다. 이것이 역대 왕조의 '傳志'와 '演義' 등의 諸書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까닭이다. 다른 것은 논하지 않더라도 《隋唐志傳》은 나관중이 처음 지었고 임한이 찬집하였으니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의 궁궐에서 비단을 잘라 꽃을 만든 것에서 시작하여 그 앞의 일이 많이 빠져있고, 그 후 보충하여 쓴 唐朝의 일은 자질구레하고 이어지지 않아 읽는 이들이 의론이 생기게 되었다. 지난날 籜菴 袁先生이 일찍이 소장하고 있던 《逸史》를 보여주었는데[254] 隋煬帝, 朱貴兒, 唐明皇, 楊玉環의 再世因緣이 실려 있어 자못 신이하고 재미있었다. 이에 검토하여 本傳에 편입하여 한 부의 '始終關目'을 만들고는 《隋史遺文》과 《隋煬帝艷史》를 합하였으며 그 일을 넓혀 幽界로 신선을 찾은 일까지 다 서술한 후 그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그 사이에 빠진 것은 보충해서 넣고 자질구레한 것은 삭제하고 당시의 기이하고 운치있는 일을 찾아 윤색하여 一集을 만드니 이전의 모습과 자못 달라지게 되었다. 어떤 이가 말하였다. "再世因緣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일은 비록 황당하나 또한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니니, 저승에서 또한 장부가 있어 이러한 일을 기록하여 이로써 결산을 기다리지 않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즉 이 책은 고금 大帳簿의 밖, 小帳簿의 가운데 빠트릴 수 없는 一帙일 것이다.

254) 籜菴 袁先生은 袁于令을 가리킨다. 《逸史》는 唐 盧肇(818-882)가 唐代의 일을 기록한 지괴소설집이다. 전집은 전하지 않고 다만 《太平廣記》 등에 佚文이 전하는데 당 현종과 양귀비의 再世因緣에 대한 내용은 남아있지 않다. 《逸史》에 대해서는 牛慶國, 《盧肇《逸史》硏究》(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참고.

> 昔人以通鑑爲古今大帳簿, 斯固然矣. 第既有總記之大帳簿, 又當有雜記之小帳簿, 此歷朝傳志演義諸書所以不廢於世也. 他不具論, 即如隋唐志傳, 創自羅氏, 纂輯於林氏, 可謂善矣. 然始於隋宮剪彩, 則前多闕略, 厥後鋪綴唐季一二事, 又零星不聯屬, 觀者猶有議焉. 昔籜庵袁先生曾示予所藏逸史, 載隋煬帝朱貴兒、唐明皇楊玉環再世因緣事, 殊新異可喜. 因與商酌, 編入本傳, 以爲一部之始終關目. 合之遺文、艷史, 而廣其事, 極之窮幽仙證, 而已竟其局. 其間闕略者補之, 零星者刪之, 更采當時奇趣雅韻之事點染之, 彙成一集, 頗改舊觀. 乃或者曰:“再世因緣之說, 似屬不根.”予曰:“事雖荒唐, 然亦非無因, 安知冥冥之中不亦有帳簿登記此類以待銷算也?” 然則斯集也, 殆亦古今大帳簿之外小帳簿之中所不可少之一帙歟.[255]

《逸史》의 전집이 전하지 않아 이에 실린 재세인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저인획이 단편적 기록이었을《逸史》의 재세인연담을 일반적인 방식대로 하나의 일화로 수용하지 않고 서사 전체를 떠받치는 '始終關目'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제1회에서 獨孤皇后는 양제를 낳을 때 붉은 빛과 금룡이 나타나는 길조를 보는데 그 금룡은 점차 작아지더니 쥐가 된다. 제32회에서는 대운하 공사 중에 땅 속에서 오래된 무덤이 발견되고 그곳에 들어갔던 狄去邪는 수 양제의 전생이 괴물 쥐라는 것을 알게 된다.[256] 이후 제35회에서 양제와 후궁 주귀아는 내세에 부부로 태어날 것을 맹세한다. 제68회에서는 꿈속에서 저승으로 간 당 태종이 주귀아와 수 양제가 각각 천자와 양씨 집안의 딸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마지막 제100회에서 세상을 떠난 양귀비와 매비를 그리워하는 현종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찾으러 선계로 간 도사 양통유는 괴물 쥐가 양제로 태어났다가 다시 양귀비로 태어나고, 孔升眞人은 죄를 지어 속세로 내려가 주귀아로 태어났다가 다시 당 현종으로 환생하였음을 알게 된다. 이처럼《隋唐演義》는 왕조의 건국과 패망, 인물의 탄생과 죽음과 같은 텍스트의 외부의 사실에서 서사의 시작과 끝이 정해지는 이전의 역사연의들과는 달리 서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시작과 끝이 서사 전체를 이끈다는 점에서 서사의 도입부에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덧붙여진 전생담[257] 혹은 결말에서 등장인물이 신선이 되는 식의 느슨한 인과응보와도 차

255) 丁錫根 編著,《中國歷代小說序跋集》(人民文學出版社, 1996), 958-959쪽.
256) 이 두 사건은 본래《隋煬帝艷史》에 있던 것을 가져온 것이다.

별성을 갖는다.

《隋唐演義》가 내용에 있어서 다른 역사연의와 구별되는 또 다른 지점은 '才子佳人 서사'에 있다. 역사연의가 뛰어난 역사적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說岳全傳》,《水滸傳》처럼 영웅전기형 서사로 분화하기도 하며,《隋唐演義》 또한 전반부에서는《隋史遺文》의 영웅전기형 서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隋唐演義》가 역사연의 가운데서는 드물게 재자가인형 서사까지 역사연의 안으로 포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역사연의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은 매우 한정적이다. 대개는 남성 주인공을 매혹시켜 파국으로 몰아가는 美人으로 나타나며 하나의 인물로 형상화되기보다는 色 자체와 동일시된다. 이는 이전시기 隋唐 계통 서사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여성은 양제의 사치와 음행의 대상일 뿐이다.《隋煬帝艷史》의 경우 대화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여성 등장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거기에 서사의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는 없다. 이에 비해《隋唐演義》에는 여성 인물이 비교적 많이 등장하며, 이전과 달리 이러한 才子佳人형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隋唐演義》에서 수 양제의 후궁들은 향락의 대상인 동시에 양제와 더불어 시나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하고 양제를 향한 충심을 드러내기도 하는 등 그 향락을 같이 누리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또한《隋煬帝艷史》에서 개별적인 서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던 十六院의 부인도 자신만의 장기를 가진 존재로 다르게 서사화된다. 재자가인 서사가 기본적으로 용모와 재주를 겸비한 남녀의 만남이라고 할 때 이처럼 아름다운 용모뿐만 아니라 각각의 재주가 강조되는 후궁들의 서사는 재자가인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

특히 隋末의 群雄 가운데 하나인 竇建德의 딸 竇線娘과 幽州總管 羅藝의 아들인 羅成 사이의 혼인담은 이전의 역사서사에는 없는 작가 褚人獲의 창작으로, 그 자체로 전형적인 재자가인 서사를 이룬다. 재자가인 서사의 일반적 구조를 첫째, 첫눈에 반함, 둘째, 혼사에 이르기까지의 고난, 셋째, 혼인이라는 대단원라고 할 때, 전투에서 만나 한 눈에 반하지만 전란으로 인해 만나지 못하다가 결국 혼인에 이르는 두선랑과 나성의 서사는 이와 일치한다.[258] 또 등장인물에 있어서도

257)《三國志平話》의 도입부는 유방, 팽월, 한신, 영포가 각각 한 헌제, 유비, 조조, 손권으로 환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水滸傳》 또한 홍태사의 실수로 36명의 天罡星과 72명의 地煞星에 대한 봉인되었던 해제되어 이들이 속세로 내려오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들의 전생담은 전체 서사와 긴말하게 연관되지는 않는다.

용모와 재주를 갖춘 남녀 외에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侍婢, 둘의 혼인을 주선해 주는 황제라는 도식은 두선랑의 의자매이자 두선랑의 편지를 나성에게 전하는 花木蘭, 둘의 혼사를 이어주는 唐 高祖 李淵과 竇皇后와 일치한다.[259] 청이 入關한 순치 연간부터 《隋唐演義》가 출간된 강희 연간까지의 대략 80년이 재자가인 소설의 전성기였고[260] 또 《隋唐演義》 속의 재자가인 서사들[261]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전체 서사의 전개에 필수적인 요소들도 아니라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는 당시 독자층의 흥미와 취향에 맞추기 위해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隋唐演義》는 수당시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서사화하는 기본적인 토대 위에 《隋煬帝艷史》에서 가져온 수 양제와 후궁들의 유락에 관한 서사, 《隋史遺文》에서 가져온 와강채 영웅들의 의리에 대한 서사, 그리고 《逸史》에서 가져온 재세인연담을 비롯하여 각종 문헌기록에서 가져온 神仙談과 유명 인사의 일화, 그리고 작가가 만들어 넣은 재자가인 이야기 등 隋唐시기에 관한 모든 서사가 총망라되어 있다.

《隋唐演義》에 대한 연구논문은 절대적인 편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隋唐 계통 역사연의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판본, 소재의 출처, 인물 형상에 대한 분석에 편중되어 있으며,[262] 영웅전기, 인정소설적

258) 개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전장에서 적군으로 마주친 두선랑과 나성은 첫눈에 서로에게 반해 혼인을 약속하지만 계속되는 전란으로 우여곡절을 겪는다. 두건덕이 이연에게 패한 후 두선랑의 효심에 감복하여 그녀를 자신의 질녀로 삼은 唐皇后 竇氏는 이 사실을 알고 두선랑과 나성의 혼인을 주선한다. 두선랑의 부탁으로 이 소식을 나성에게 전하려던 화목란은 고향인 돌궐에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결하고 그 동생 花又蘭이 언니를 대신하여 유주의 나성에게 편지를 전한다. 이 과정에서 화우란은 나성과 한 방에서 한동안 같이 지내면서도 정절을 지키고 결국 이에 대한 보상으로 두선랑과 함께 나성에게 시집가게 된다. 두 여인은 후에 아들을 하나씩 낳는다.

259) 재자가인 소설의 정의와 서사구조, 인물형상에 대해서는 최수경, 《清代 才子佳人小說의 硏究》(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를 참고하였다.

260) 최수경, 위의 논문, 101쪽.

261) 제51회에서 제52회에서 이밀의 진채에 잡힌 이세민이 탈출하도록 도운 徐惠英은 결국 이세민의 배필이 된다. 또 양제가 죽은 후 隋의 後宮들은 각각의 배필을 만나게 된다.

특징을 포함함으로써 역사연의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사실에서 《隋唐演義》의 의의를 찾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隋史遺文》과 《隋煬帝艷史》에 이미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바, 《隋唐演義》가 앞선 역사연의들을 원본으로 하면서도 그것들과 달라지는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을 때 《隋唐演義》에 대한 이해가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

262) 《隋唐演義》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Robert Hegel, *SUI T'ANG YEN-I: The Sources and Narrative Techniques of a Traditional Chinese Novel*, Columbia University Ph.D. diss. 1973.

歐陽健, 〈《隋唐演義》"綴集成帙"考〉, 《文獻》, 第2期, 1988.

羅陳霞, 〈奇趣雅韻－論《隋唐演義》走向世俗化〉, 《固原師專學報》, 第5期, 1999.

彭知輝, 〈《隋唐演義》材料來源考辨〉, 《明清小說硏究》, 第2期, 2002.

蔡卿, 〈《隋唐演義》的成書過程小考〉, 《北京化工大學學報》, 第2期, 2005.

文革紅, 〈《四雪草堂重訂通俗隋唐演義》版本考辨〉, 《明清小說硏究》, 第2期, 2008.

梁亞茹, 〈試論《隋唐演義》對歷史演義小說創作的創新〉, 《中國環境管理幹部學院學報》, 第2期, 2008.

傅劍平, 〈褚人獲四雪草堂《隋唐演義》初刻本疑年考辨〉, 《華南師範大學學報》, 第2期, 2008.

雷勇, 〈《隋唐演義》與《隋史遺文》的關系考論〉, 《廣東技術師範學院學報》, 第4期, 2010.

雷勇, 〈《隋唐演義》素材來源再探〉, 《內江師範學院學報》, 第7期, 2010.

張清發(臺), 〈《隋唐演義》中的天命因果與再世因緣〉, 《玄奘人文學報》, 11期, 2011.

黨巍, 〈《隋唐演義》成書探源〉, 《大眾文藝》, 第17期, 2013.

雷勇, 〈《隋唐演義》:文人化的歷史敘事〉, 《南開學報》, 第1期, 2016.

雷勇, 〈近三十年《隋唐演義》研究的回顧與展望〉, 《陝西理工大學學報》, 第4期, 2017.

그간의 《隋唐演義》 연구 성과는 雷勇, 〈近三十年《隋唐演义》研究的回顾与展望〉(《陕西理工大学学报》, 第4期, 2017)에 잘 정리되어 있다. 雷勇은 그간 연구의 문제점으로 첫째, 텍스트에 대한 깊은 분석의 부족하다는 점, 둘째, 소재의 출처에 대한 연구에 치우쳐 《隋唐演義》 자체에 대한 연구가 적다는 점, 셋째, 같은 시기 같은 유형의 소설과의 비교가 부족하다는 점, 넷째, 문화적 각도에서의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2. 원천서사의 수용 양상

2.1. 이전의 역사연의 :《隋煬帝艷史》,《隋史遺文》

앞서 언급하였듯《隋唐演義》는《隋煬帝艷史》와《隋史遺文》을 '原本'으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隋唐演義》의 제1회부터 제66회[263]는 주로《隋史遺文》을 자르고 이어 붙여 서사를 구성하고 수 양제가 등장하는 부분에서는《隋煬帝艷史》의 본문을 편집하여 끼워 넣었다. 명청대 백화소설은 근대적 의미의 문학 작품이라기보다는 출판시장의 상품에 더욱 가까웠으며 작가 또한 대개 필명을 사용하거나 다른 이의 이름에 가탁하였다. 이처럼 명청대 백화소설에서는 작가 혹은 텍스트의 권위가 존재하지 않았기에《三國演義》와 같이 하나의 작품에 여러 가지 판본이 나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출간된 백화소설의 본문을 보충·삭제하는 등의 수정을 가하거나 평점을 달아 다시 출간하는 일이 자연스러웠다.《隋唐演義》의 작가인 褚人獲 또한 그러한 문화 환경에서《隋史遺文》과《隋煬帝艷史》를 편집하여《隋唐演義》를 완성하였으며[264] 따라서《隋史遺文》과《隋煬帝艷史》는《隋唐演義》의 원천서사라고 할 수 있으나 작가가 이를 의식적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편집하였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隋唐演義》가 두 원본을 편집한 개략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265]

---

263)《隋唐演義》의 서사 내용상의 전반부는 대략 당 태종이 임종을 맞는 제70회까지이나 제66회부터 제70회까지는 저인획이 직접 창작하여 집어넣은 일종의 당 건국의 후일담으로 대부분 원본이나 원천서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술하였다.

264) 아이러니하게도 褚人獲은 자신의 텍스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작가로서의 권리보다는 상업적 권리를 주장한 것이었다. "만약 翻刻하는 이가 있다면 천리 길이라도 쫓아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倘有翻刻者, 千里必究.)" 〈四雪草堂重編隋唐演義發凡〉

265)《隋唐演義》와《隋煬帝艷史》,《隋史遺文》 사이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논문들은 이미 여러 편 나와 있다. 이 표는 Robert Hegel, *SUI T'ANG YEN-I: The Sources and Narrative Techniques of a Traditional Chinese Novel*, 石雷, 〈《隋史遺文》: 明清之際隋唐講史題材的新變〉, 雷勇, 〈《隋唐演義》與《隋史遺文》的關系考論〉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그러나 각 회마다《隋煬帝艷史》,《隋史遺文》을 수용한 정도가 매우 다르다.《隋煬帝艷史》,《隋史遺文》의 한 회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약간의 글자를 고치는 경우가 대다

〈표10〉《隋唐演義》 제1회-제70회와 《隋煬帝艷史》, 《隋史遺文》 비교

《隋唐演義》	《隋煬帝艷史》	《隋史遺文》	비고: 《隋唐志傳》
제1회-제18회	제1회-제3회	제1회-제23회	
제19회, 제20회	제5회-제9회	•	
제21회-제25회	•	제27회-제33회	
제26회	•	•	無
제27회	제7회, 제10회	•	
제28회-제32회	제15회-제21회	•	
제33회	•	제34회-제35회	
제34회	•	제26회	
제35회	•	•	無
제36회	제26회	•	
제37회	•	제35회-제36회	
제38회	•	•	有(제4회)
제39회	제12회	제37회	
제40회	제27회-28회	•	
제41회	•	제38회-제39회	
제42회	•	제39회, 제41회	
제43회	•	제43회	
제44회	•	제43회	
제45회	•	제44회-제45회	
제46회	제35회	제45회-제48회	

수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한 두 문장만 가져온 경우도 있다. 또 회에 따라서는 하나의 회에서 서사화되는 사건의 수가 매우 많고 이것들이 각기 다른 출처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편의상 각 회의 주요 사건들을 위주로 표를 작성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장 하나하나를 비교한 표는 Robert Hegel, 위의 논문, pp.30-31, pp.45-46, p.64 참고. 별도로 《隋煬帝艷史》와 《隋史遺文》 둘 다에서 내용을 가져오지 않은 회차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隋唐志傳》에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러나 《隋唐志傳》의 경우 문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사 방식 자체가 《隋唐演義》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의 주요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그대로 수용된 부분은 없다.

제47회	제39회	제50회	
제48회, 제49회	•	•	無
제50회	•	•	有(제23회-제30회)
제51회	•	•	有(제31회)
제52회	•	•	無
제53회, 제54회	•	제52회	
제55회	•	제53회	
제56회	•	•	無
제57회	•	제56회	
제58회	•	제57회-제58회	
제59회	•	제59회	
제60회	•	제59회	
제61회, 제62회	•	•	無
제63회	•	제60회	
제64회, 제65회	•	•	無
제66회	•	제60회	
제67회-제70회	•	•	無

《隋唐演義》가 원본인《隋煬帝艶史》와《隋史遺文》을 수용한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대개의 경우는 하나의 원본에서 맥락이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서사를 긴 편폭으로 가져왔지만 두 원본이 어지럽게 섞이고 내용이 추가되어 확장된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西苑에서 누린 양제의 사치와 향락을 서사화하고 있는《隋唐演義》제29회에서 제31회의 경우 기본적인 서사는《隋煬帝艶史》에서 왔지만 양제와 후궁들 사이의 세부적인 유락의 모습은《隋煬帝艶史》에 없는 것이 많다. 제37회에서 서세적이 진숙보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은《隋史遺文》에서 왔지만 전반부 두건덕과 손안조가 선웅신과 교유하고 그 둘이 선웅신의 격려로 기의를 결심하는 내용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266] 또 제57회부터 제

266) 두건덕과 그의 딸 두선랑이 주요 등장인물로 서사화되는 것은 다른 수당 계통 서사와 구별되는《隋唐演義》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 그리고 이전 시기의 문헌기록과 달리《隋唐演義》는 두건덕이 와강채의 영웅들과 깊은 교유를 나누고 그의

60회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원본의 사건을 서사화하였지만 작가의 창작이 많이 추가되어 있다. 다만 작가가 추가한 부분은 대개의 경우 주요 서사에서 파생되어 남녀 사이에 배필을 맺어주는 재자가인형 서사이다.

그러나 《隋唐演義》의 일반적인 원본 수용 방식은 자르고 이어 붙이는 편집에 가깝다. 《隋唐演義》의 제1회는 《隋唐演義》가 어떠한 방식으로 《隋史遺文》과 《隋煬帝艷史》를 재구성하였는지를 축약적으로 보여준다. 《隋唐演義》의 제1회는 《隋史遺文》의 제1회와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다만 중간에 몇 글자 내지는 몇 구절을 삽입한 정도이다. 예를 들면 양견이 수를 건국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隋唐演義》는 《隋史遺文》에 몇 구절을 더 추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 周의 황제가 붕어하고 어린 새 황제가 나약한데 그를 돕는 이들은 이미 모아지니 마침내 周를 찬탈하여 국호를 大隋로 고쳤다.
>
> 直至周主晏駕, 幼主庸懦, 他羽翼已成, 竟篡奪了周國, 改號大隋.[267]

> 周의 武帝가 붕어하고 태자가 제위에 올라 宣帝가 되었다. 선제는 순행을 갈 때마다 황후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항상 楊堅에서 수도를 지키라고 맡겼다. 선제가 나약하여 양견을 돕는 이들이 이미 모아지니 마침내 周를 찬탈하여 국호를 大隋로 고치고 연호를 開皇 원년으로 하였다.
>
> 直至周武帝晏駕, 太子即位, 是爲宣帝. 宣帝每有巡幸, 以后父故, 恒委堅以居守. 宣帝庸懦, 楊堅羽翼已成, 竟篡奪了周國, 國仍號隋, 改年號爲開皇元年.[268]

《隋唐演義》 전체에 걸쳐 이처럼 원본에 당시 역사적 배경이나 정보를 보충해 넣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隋唐演義》 제1회가 《隋史遺文》의 제1회와 가장 다른 부분은 《隋史遺文》에는 없는 수 양제의 신이한 출생과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隋煬帝艷史》 제1회 마지막과 제2회 앞부분의 본문 중 필요 없는 부분을 조금 잘라낸 채로 가져다 쓴 것이다.

딸 두선랑이 선웅신의 딸과 같이 지내는 사건들을 만들어 넣었다.

267) 袁于令, 《隋史遺文》(人民文學出版社, 2006), 2쪽.

268) 褚人獲, 《隋唐演義》(浙江古籍出版社, 2011), 2쪽.

《隋唐演義》의 제1회부터 제66회까지는 이처럼 《隋史遺文》과 《隋煬帝艶史》의 본문을 가져오면서 약간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앞뒤가 자연스레 붙을 수 있도록 윤문을 하면서 원래의 내용과 맥락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중간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사건의 발생 순서를 바꾸면서 원본의 서사 맥락을 살짝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어 《隋史遺文》의 제3회부터 제17회까지는 고향 齊州의 都頭였던 진숙보가 죄인을 호송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가 여러 가지 힘든 사건을 겪고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일을 서사화하였다. 《隋唐演義》 제4회부터 제15회까지는 《隋史遺文》의 이 부분을 별다른 수정 없이 가져왔는데 중간에 약간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隋唐演義》 제7회에서는 진숙보가 潞州에서 노자가 떨어져 객점에 묶여 떠나지 못하면서 겪는 갖가지 수모에 대해 서사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隋史遺文》 제6회의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되 한 단락을 새로이 끼워 넣었다.

ⓐ 이 삼백전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이 든든해졌다. 이 돈을 여비로 삼아서 澤州로 가볼까? 만약 그랬다가 樊建威를 만나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돌아오나? 또 王小二는 내가 없어지면 몰래 도망갔다고 의심할 것이니 차가운 찐빵을 사서 품에 넣고 官道에 앉아서 기다리는 편이 나으리라.

ⓑ 왔다갔다하니 해가 벌써 서쪽으로 기울었다. 멀리 靑衣를 입은 사람이 보였다. 머리에는 範陽氈笠을 쓰고 허리에는 短刀를 차고 어깨에는 상자를 메고 있는 모습이 樊建威 같았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니 아니었다. 뒤따라 말을 타고 사냥을 갔던 사람들 여럿이 돌아왔다. 진숙보는 몸을 옆으로 피하다가 발이 남의 집 대문으로 넘어갔는데 땅 위에 놓인 화로를 피하지 못하고 넘어질 뻔 했다. 50세가 넘어 보이는 부인이 손에는 염주를 들고 안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진숙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젊은이, 보아하니 자네 몸에 한기가 있네. 여기 앉아서 불을 좀 쬐게나.” 진숙보가 “실례하겠습니다.”하고는 앉았다. 부인이 말했다. “보아하니 당신은 사내대장부인데 어째서 이러한 몰골인가? 여기 사람 같지는 않은데.” 진숙보가 대답했다. “저는 산동 사람입니다. 친우를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오질 않으니 여비가 없어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아무 시진이나 말해보게. 내가 자네 대신 점을 쳐 친우가 오나 안 오나 봐주겠네.” 진숙보가 申時를 말하니 부인이 손가락을 꼽아 점을 쳐보더니 말했다. “卦名이 ‘速喜’네. 책에 잘 나와 있네.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이는 조급하지만 오려는 이는 서두르지 않네.’ 오기는 분명히 올 텐데 다만 아직 아니네. 이 달이 지

나면 소식이 있을 걸세.” 진숙보가 말했다. “아주머니의 말투를 들으니 역시 이 지역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성이 어찌 되시는지요?” 부인이 말하였다. “나는 高씨로 滄州 사람이네. 재작년에 남편이 죽고서 아들과 함께 이리로 이사 와 친척에게 의지하고 있네.” 진숙보가 물었다. “아드님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나이는 얼마지요? 무슨 일을 합니까?” 부인이 대답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開道[269]라고 하네. 힘깨나 쓰고 槍과 棍 다루는 것만 좋아하여 일은 하지 않고 집에 항상 없네.” 말을 마치고 몸을 일으켜 진숙보에게 말하였다. “아직 점심 전인 것 같으니 국수를 차려 주겠네.” 말을 마치고 들어가 김이 팔팔 나는 국수 한 대접, 절인 마늘 한 접시, 대나무 젓가락 한 쌍을 탁자 위에 놓아주고 진숙보에게 먹으라고 했다. 진숙보는 하루 종일 기다린 데다가 말을 많이 했더니 뱃속이 비어 사양하지 않고 다 먹고는 말하였다. “아주머니께 한 끼 식사의 은혜를 입었으니 제가 갚은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인이 말하였다. “당신 같은 사내대장부는 장차 절대 쓸쓸하게 있을 사람이 아니네.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에는 보답이 있겠지만 이처럼 밥 한 끼 준 것에 무슨 보답을 하나?” 이 때 거리는 벌써 등불을 밝혔다. 진숙보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인 뒤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서 길을 가며 생각했다. “나 진경이 문을 나서 뜻있는 친우를 하나도 만나지 못했는데 도리어 현명한 두 부인을 만나게 되어 가슴 속의 응어리를 풀었네.” 생각하며 걸어갔다. 바로 “표모는 만나기 어려우니 천금을 강에 던지네(正是, 漂母非易得, 千金曾擲水.)”라는 격이로다.

ⓒ 한편 왕소이는 진숙보가 객점으로 돌아오지 않자 의심이 들어 부인에게 말했다. “진가 놈이 신선이 되었나? 나에게 줄 돈은 없고 다른 곳에서 밥을 먹을 돈은 있나?” 부인이 말했다. “사람이 돈이 생겼을 수도 있죠. 어쩌면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 덕에 이틀간 얻어먹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왕소이가 말했다. “그러하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 밥값을 빼앗아야겠어.” 다음 날 새벽 진숙보가 문을 나서려 하는데 밖에 검은 옷을 입은 두 젊은이가 그를 맞아들였다.

ⓐ 帶了這三百錢, 就覺膽壯; 待要做盤纏, 趕到澤州, 又恐遇不着樊建威, 那時怎回? 且小二又疑我沒行止, 私自去, 不若且買些冷饃饃火燒, 懷着在官道上坐等.

ⓑ 走來走去, 日已西斜. 遠遠望見一個穿青衣的人, 頭帶範陽氈笠, 腰跨短刀, 肩上負着掛箱, 好似樊建威模樣; 及至近前, 卻又不是. 接踵就是幾個騎馬打獵的人沖過. 叔寶把身子一讓, 一只腳跨進人家大門, 不防地上一個火盆, 幾乎踹翻. 只見一個五十多歲的婦人, 手執着

269) 高開道는 隋末에 기의한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隋唐演義》에는 직접 등장하지 않으며 간접적으로만 언급된다.

一串素珠, 在那裏向火; 見這光景, 即便把叔寶上下一看, 便道:“漢子看仔細, 想是你身上寒冷, 不妨坐在此烤一烤火.”叔寶見說, 道聲:“有罪了.”即便坐下. 婦人道:“吾看你好一條漢子, 爲怎麼身上這般光景? 想不是這裏人.”叔寶道:“我是山東人. 因等一個朋友不至, 把盤纏用盡, 回去不得.”婦人道:“既如此, 你隨口說一個時辰來, 我替你占一個小課, 看這朋友來不來?”叔寶便說個申時. 婦人撚指一算, 便道:“卦名速喜. 書上說得好:‘速喜心偏急, 來人不肯忙.’來是一定來的, 只是尚早哩. 待出月將終, 方有消息.”叔寶道:“老奶奶聲口, 也像不是這裏人, 姓什麼?”婦人道:“我姓高, 是滄州人. 因前年我們當家的去世, 便同兒子遷到這裏來倚傍一個親戚.”叔寶道:“你家兒子叫甚號? 多少年紀? 做什麼生意?”婦人道:“只有一個兒子, 號叫開道. 因他有些膂力, 好的是使槍弄棍, 所以不事生業, 常不在家.”說完, 立起身對叔寶道:“想你還未午膳, 我有現成面飯在此.”說完進去, 托出熱騰騰的一大碗面、一碟蒜泥、一只竹筯, 放在桌上, 請叔寶吃. 叔寶等了這一日, 又說了許多的話, 此時肚子裏也空虛, 並不推卻, 即便吃完了, 說道:“蒙老奶奶一飯之德, 未知我秦瓊可有相報的日子?”那婦人道:“看你這樣一條漢子, 將來決不是落寞之人, 怎麼說恁話來? 殺人救人方叫做報, 這樣口食之事, 說什麼報?”其時街上已舉燈火. 叔寶點頭唯唯, 謝別出門, 一路裏想道:“慚愧我秦瓊出門, 不曾撞着一個有意思的朋友, 反遇着兩個賢明的婦人, 消釋胸中抑鬱.”一頭想, 一頭走. 正是: 漂母非易得, 千金曾擲水.

ⓒ 卻說王小二因叔寶不回店中, 就動起疑來, 對妻子道:“難道姓秦的, 成了仙不成? 沒錢還我, 難道有錢在別處吃不成?”妻子道:“人能變財, 或者撞見了什麼熟識的朋友, 帶挈他吃兩日, 也未可知.”小二道:“既如此, 我央人問他討飯錢.”一日清早, 叔寶剛欲出門, 只見外邊兩個穿青的少年, 迎着進來.[270]

이 부분을 편의상 ⓐ, ⓑ, ⓒ로 나누면《隋史遺文》에는 ⓐ와 ⓒ만 있고 高開道의 모친이 등장하지 않는데,《隋唐演義》에서는 ⓐ와 ⓒ 사이에 ⓑ를 새로 써서 집어넣었다.《隋史遺文》에서 이 부분은 본래 진숙보가 당하는 수난과 염량세태에 대한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앞부분에서 왕소이는 진숙보가 돈이 없는 것을 알고는 태도가 돌변하여 진숙보의 공문을 저당잡고 돈을 가져오라 닦달한다. 또 진숙보의 허락 없이 그의 방을 다른 손님에게 내어주고 진숙보에게는 지붕도 없고 벽도 무너져가는 창고에서 자게 한다. 이에 보다 못한 왕소이의 아내 류씨는 남편 몰래 진숙보에게 삼백전을 주며 아침을 먹지 말고 일찍 나가서 돌아다니다 저녁에 들어오라고 한다. 이 대목에서 진숙보가 고마워하며 류씨에게 韓信을

270) 褚人獲,《隋唐演義》, 41-42쪽.

도와준 漂母를 언급하는 부분은 세상인심에 대한 반어에 가깝게 들린다. 고개도의 모친을 만나고 온 다음 날 진숙보를 찾아온 이들은 정중한 말투를 쓰지만 실상은 왕소이의 부탁으로 진숙보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이들이다. 나중에 신세가 달라진 진숙보가 그 마을을 다시 지나게 되자 왕소이는 진숙보의 보복이 두려워 죽은 척하고 류씨는 울면서 진숙보에게 남편이 죽었다고 둘러댄다.[271]

그러나 《隋唐演義》에 추가된 ⓑ는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버린다. 진숙보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고 그의 영웅적인 미래를 예견하는 고개도의 모친이 등장하고 서사의 마무리 부분에서 漂母가 다시 한 번 언급됨으로써 진숙보는 한신처럼 때를 얻지 못한 영웅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류씨ㅡ고개도의 모친ㅡ漂母'가 긴밀하게 연관되며 '현명한 부인'으로 형상화된다.[272] 그 결과 진숙보의 고난은 각박한 세태에서 평범한 백성이 겪는 일상적 수난에서 비범한 인물이 영웅이 되기 위해 거치는 통과의례로 변화한다.

이처럼 《隋唐演義》는 《隋煬帝艷史》와 《隋史遺文》의 본문을 가져와 다시 쓰되 때로는 배치만 바꾸거나 때로는 단순한 설명을 보충하기도 하지만,[273] 때로는 원

271) 褚人獲, 《隋唐演義》, 82-83쪽.

272) 고개도의 모친은 이 사건 이후로도 《隋唐演義》에 몇 차례 중요하게 언급된다. 제14회에서 진숙보가 류씨를 다시 만날 때 고개도의 모친도 찾아보지만 종적을 찾지 못한다. 제48회에서 수 양제의 몇몇 후궁들은 양제가 시해되기 전에 궁을 빠져나온 후 암자에 들어가 절개를 지키며 속세와 연을 끊는다. 이 또한 《隋煬帝艷史》, 《隋史遺文》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 암자의 비구니가 바로 고개도의 모친이다. 이처럼 고개도의 모친은 《隋唐演義》에서 婦德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된다.

273) 수 양제가 부황의 시해에 직접 관여하는 제19회를 들 수 있다. 수 문제의 죽음에 대해 사실 관계만 기록한 《隋書》와 《資治通鑑》, 양제가 부황의 후궁을 희롱하다 일이 틀어지자 당황하고 이에 격노한 문제가 죽음을 맞는 것으로 서술한 《隋煬帝艷史》와 달리 《隋唐演義》에서는 양제가 자신의 심복들을 시켜 문제의 시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張衡이 말했다. '저는 서생인지라 일을 잘 해내지 못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楊仆射께서 노련하시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태자가 말했다. '張庶子는 거절하지 말고 훗날 복을 같이 누립시다. 내가 담력이 있는 내시 몇몇을 당신을 따라 같이 들어가도록 해주겠소.'(張衡又道: "我是個書生, 恐不能了事, 還是楊仆射老手堅膊." 太子道: "張庶子不必推辭, 有福同享. 我還著幾個有膽力內侍, 隨你去.")" 褚人獲, 《隋唐演義》, 109쪽. 그러나 이러한 수정이 양광의 악행이라는 서사의 원 맥락과 의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본의 내용 자체를 고치거나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집어넣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미의 맥락을 바꾸어 놓기도 하였다.

2.2. 기타 문헌기록

《隋唐演義》는《隋煬帝艷史》와《隋史遺文》 외에도 隋唐에 관한 각종 史書, 文言筆記 뿐만 아니라 傳奇, 話本小說 등 여러 가지 문헌기록을 원천서사로 삼고 있다. 제1회부터 제66회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나 제66회부터 제100회까지는 1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특정한 원본을 두지 않은 채 隋唐 관련 문헌기록을 장르를 가리지 않고 필요에 따라 두루 차용하여 서사화하였다.《隋唐演義》가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이전 시기의 문헌은《開天傳信記》,《開元天寶遺事》,《唐國史補》,《隋唐嘉話》,《明皇雜錄》,《樂府雜錄》,《續玄怪錄》,《酉陽雜俎》,《安祿山事跡》,《神仙感遇傳》,《津陽門詩注》,《松窗雜錄》,《杜陽雜編》,《譚賓錄》,《逸史》,《宣室志》,《金鑾密記》,《仙傳拾遺》,〈虯髯客傳〉,〈長恨歌傳〉,〈楊太眞外傳〉,〈梅妃傳〉,〈達奚盈盈傳〉 등 20여 종이 넘는다.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1〉《隋唐演義》에 수용된 원천서사의 목록[274]

제목	《隋唐演義》의 회차	내용
《隋唐嘉話》	제2회-제3회, 제6회, 제58회, 제64회, 제75회	文帝의 홍수가 나는 꿈 외 隋唐 시기 각종 일화
《續玄怪錄》	제3회	李靖이 龍神을 대신해 비를 내림

274) 《隋唐演義》의 원천서사에 대해서는 彭知輝, 〈《隋唐演義》材料來源考辨〉(《明清小說研究》, 第2期, 2002), 雷勇, 〈《隋唐演義》與《隋史遺文》的關系考論〉(《廣東技術師範學院學報》, 第4期, 2010), 雷勇, 〈《隋唐演義》素材來源再探〉(《內江師範學院學報》, 第7期, 2010) 등을 참고하여 확인·수정하였다.《隋煬帝艷史》와《隋史遺文》에 들어있는 원천서사는 제외하였다.

〈虯髯客傳〉	제16회	李靖이 張出塵을 만나 이세민에게로 감
〈本事詩〉	제16회	樂昌公主와 徐德言의 이별과 만남
악부 木蘭詩	제56회	花木蘭의 從軍
《西遊記》	제68회	唐太宗入冥記
《喩世明言》 第5卷 〈窮馬周遭際賣餽媼〉	제69회	馬賓王[馬周]의 등용
《醒世恒言》 第4卷 〈灌园叟晚逢仙女〉	제73회	花神에게 명해 정원에 꽃을 피우게 함
《金鑾密記》	제74회	무측천 꿈과 적인걸의 풀이
〈楊太眞外傳〉	제79회-84회, 제87회, 제89회	양귀비 관련 일화
〈梅妃傳〉	제79회, 제81회, 제91회	매비 관련 일화
《警世通言》 第9卷 〈李謫仙醉草嚇蠻書〉	제80회, 제82회, 제83회, 제96회	이백 관련 일화
〈達奚盈盈傳〉	제80회	秦國楨과 達奚盈盈의 애정고사
《開天傳信記》	제84회-제85회	현종과 葉法善, 張果, 羅公遠 등의 道士 관련 일화
《神仙感遇傳》	제85회	도사 羅公遠 관련 일화
〈長恨歌〉	제86회	현종과 양귀비 일화
〈李謨吹笛記〉	제86회, 제95회, 제98회	악사 李謨에 관한 일화
《開元天寶遺事》	제87회	風流陣과 앵무새 雪衣女
《逸史》	제89회	현종이 꿈에서 鍾馗를 만남
《明皇雜錄》	제93회	雷海青의 순절

《唐國史補》	제95회	악사 李謨가 호랑이 무리에게 쫓긴 일
《集異記》	제95회	王積薪의 바둑 솜씨
〈長恨歌傳〉	제100회	도사 양통유가 선계로 가서 양귀비를 만남

일단 주의할 것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헌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隋唐演義》가 정확하게 어떠한 문헌을 원천서사로 삼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양귀비와 관련된 서사처럼 여러 가지를 문헌기록을 다양하게 참조한 후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하거나 때로는 이를 비틀어 새로 쓰기도 하였다는[275] 사실이다. 그러나 정확한 원천서사를 판별해내기 힘든 경우라 할지라도 《隋唐演義》가 기존의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자신의 서사를 구성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중요한 두 가지 사실, 즉 《隋唐演義》가 원천서사로 삼은 텍스트의 종류가 매우 많으며, 특히 《隋唐演義》 서사 자체가 전반부는 《隋煬帝艷史》와 《隋史遺文》을, 후반부는 여러 종류의 원천서사를 편집하여 다시 쓰는 방식을 통해 구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 태종대 이후로 국가의 변란을 서술한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史書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서사 외에 詩와 그에 관련된 해설까지 들어있으며,[276] 필자의 한계로 아직 원천서사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隋唐演義》가 이전의 문헌기록을 수용한 실제 양상은 이보다 더욱 광범위할 것이다.

---

275) 《隋唐演義》 제100회에서 양귀비는 자신을 찾아온 양통유에게 금비녀와 금합을 현종에게 줄 징표로 건네며 자신이 고생하고 있음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후에 백락천은 양통유가 한 거짓말을 믿고서 〈長恨歌〉를 지어 양귀비가 선녀가 되어 선경에 거하고 있다고 하여 바치니 이것이 전해져 미담이 되었다. 실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어찌 알았겠는가.(後來白樂天只據了通幽的假語, 作長恨歌, 竟道楊妃是仙女居仙境, 進相傳爲美談, 那知其實不然.)” 褚人獲, 《隋唐演義》, 632쪽.

276) 《隋唐演義》에는 《隋煬帝艷史》와 《隋史遺文》에서 가져온 것 외에 기존 시인의 시 35수가 더 들어있으며 그 가운데 26수는 唐詩이다. Robert Hegel, 위의 논문, pp.109-120.

게다가 공연예술을 원천서사로 삼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시기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강창공연이 활발하였으며, 앞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隋史遺文》은 설화구연의 저본을 원본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청대에는 隋唐시기의 고사를 소재로 한 評話가 유행하였고 특히 저인획이 활동했던 소주 지역에서는《隋唐演義》를 개편한 蘇州評話가 남아있어[277] 역사연의와 설창 사이의 활발한 상호 교섭관계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설창의 대본들은《隋唐演義》이후의 것들이라《隋唐演義》가 설창을 원천서사로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隋唐演義》의 이와 같은 편집적 구성은 17세기 소주 문인들의 전반적인 저술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褚人獲이 활동했던 소주의 문인들 사이에서는 폭넓은 독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 유행하였고, 새로운 것을 쓰기보다 옛것을 고쳐 쓰기는 일이 빈번하였으며, 비슷한 수준과 관심을 가진 문인들끼리 서로의 글을 돌려 읽으면서 품평하고 序文을 써주는 일이 흔하였다.[278] 褚人獲 또한 현재 남아있지는 않으나《讀史隨筆》과 같은 저술을 남긴 것으로 보아 당시의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역사 지식에 정통하였으리라 여겨진다. 또 그의 필기집인《堅瓠集》에서 고금의 經史子集, 典章制度, 天文地理, 人物事跡, 里謠雜說, 風俗志怪 등을 두루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79] 게다가 당시 출판문화의 발달과 학술경향의 변화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각종 類書, 叢書, 小說集 또한 이와 같은 문인들의 편집적 글쓰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즉 褚人獲 또한 위의 표에서 언급한 다양한 문헌기록을 일일이 찾아 읽었다기보다는 당시 유행했던《太平廣記》,《說郛》,《太平廣記鈔》 등의 서적들을 참고했으리라 여겨진다.[280]

---

277) 徐燕,《隋唐故事考論》(揚州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58-73쪽 참고.

278) Robert Hegel, 'Sui T'ang Yen-i and the aesthetics of the seventeenth-century Suchou elite', Andrew H. Plaks ed., *Chinese Narrative: Critical and Theoretical Essays*(Princeton University Press, c1977), 141-157쪽.

279) 方櫻櫻,《清褚人獲《堅瓠集》研究》(重慶工商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참고.

280) 蔡卿, 〈《隋唐演義》的成書過程小考〉(《北京化工大學學報》, 第2期, 2005) 참고. 실제로 원천서사로 밝혀진 대부분의 문헌기록은 독립적으로 전하기보다는 주로 叢書에 수록된 채로 전하며,《逸史》와 같이 채록된 부분만 전하고 全文이 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아래에서는《隋唐演義》가 이전의 隋唐 관련 문헌기록을 어떠한 방식으로 편집하여 사용하였는지를 唐 傳奇〈虯髯客傳〉을 원천서사로 수용한《隋唐演義》제16회를 통해 살펴보겠다. 먼저〈虯髯客傳〉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① 수 양제가 江都로 행차하자 양소는 西京의 留守가 되어 권세가 높았다.
② 李靖이 평민 신분일 때 양소를 찾아가 자신의 정책을 유세한다.
③ 객점으로 돌아온 이정에게 양소의 기녀[紅拂女] 장씨가 몰래 찾아와 배필이 될 것을 청하고 둘은 태원으로 향한다.
④ 도중에 기인 虯髯客을 만난 이정과 장씨는 함께 이세민을 만나기 위해 태원으로 간다.
⑤ 유문정의 도움으로 이세민을 만난 후 규염객은 그가 천자가 될 상임을 알아본다.
⑥ 낙양에서 세 사람은 다시 한 道士에게 이세민의 관상을 보게 하고 이세민이 천자가 될 것임을 알아본 도사는 규염객에게 세상에 대한 뜻을 내려놓으라고 한다.
⑦ 규염객은 이정과 장씨에게 자신의 재산을 모두 주며 이세민을 보필할 것을 권하고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떠난다.
⑧ 이정은 이세민을 도와 대업을 이룬다. 후에 어떤 이가 扶餘國의 왕을 내쫓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규염객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虯髯客傳〉은 크게 두 가지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李靖의 서사로 그는 紅拂女, 규염객을 만나 이세민이 '眞天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이세민을 도와 당을 건국하게 된다. 이 서사는 이세민이 당을 건국하고 이정과 유문정이 그를 보좌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종의 前史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정이 이세민의 휘하로 들어가게 된 계기에 대한 서사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만 주로 史書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 이전의 일을 서사화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규염객의 서사로 세상에 뜻을 두었던 규염객은 이세민이 '眞天子'임을 알게 되자 뜻을 접고 중원을 떠났다가 후에 扶餘國의 왕이 된다. 〈虯髯客傳〉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면서 전체를 떠받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정의 서사라면, 정작 독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읽게 되는 것은 규염객의 기이한 행적이다. 규염객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당시 이세민과 경쟁관계에 있던 역사적 인물로 보기도 하고 완전히 허구적인 인물로 보기도 한다.[281] 그러나〈虯髯客傳〉의

작가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규염객 이야기를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명이 아닌 '虯髯客'이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보아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서사를 읽는 데에 필수적이지 않음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세민이 '眞天子'임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면서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홍불녀 또한 재자가인 서사의 원형으로 독자의 흥미를 끌지만 동시에 이정을 규염객과 연결시켜 결국 이세민의 휘하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虯髯客傳〉에서 홍불녀와 규염객은 서사에 흥미를 끄는 요소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虯髯客傳〉의 판본과 작가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虯髯客傳〉은 中唐 이전에 유전되기 시작하여 晩唐에 이미 여러 가지 판본이 존재하였으며 杜光庭(850-933)이 이를 정리하고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282] 이러한 사실 또한 〈虯髯客傳〉이 작가의 의식적인 창작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화로 세상에 전해지면서 계속하여 그 내용이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褚人獲 또한 〈虯髯客傳〉을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異說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虯髯客傳〉을 차용한 《隋唐演義》 제16회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來護兒 밑에서 기패관으로 일하던 진숙보는 양소에게 생일 예물을 전하라는 來護兒의 명에 長安을 방문한다. 이 부분의 서사는 진숙보와 동행하여 장안을 방문한 의형제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宇文惠及을 때려죽이고 성안에 불을 지르는 등 소동을 일으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가운데 진숙보가 양소의 집에서 李靖을 만나게 되면서 〈虯髯客傳〉의 서사는 삽화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부분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정이 양소의 집에 갔을 때 양소의 시첩인 張出塵은 이정을 눈여겨본다.

② 양소의 집에서 만난 진숙보와 이정은 객점에서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진다.

---

281) 정일남, 〈〈虯髯客傳〉에 대한 中韓 학자들의 이해 ―작품의 저자와 규염객의 원형을 중심으로〉(《동방한문학》, Vol.71, 2017) 참고.

282) 羅立群, 陳靈心, 〈《虯髯客傳》的版本流傳與作者問題〉(《文學與文化》, 第1期, 2016) 참고.

③ 장출진은 남장을 하고 이정의 객점으로 찾아가 이정의 속을 떠본다.

④ 옆방에 있던 장씨[규염객]가 이정의 방으로 들어와 셋이 이야기를 나눈다. 장씨는 張出塵이 여자임을 알아채고 중매를 선다.

⑤ 장출진은 양소의 집으로 돌아가 행장을 꾸려 나오고 세 사람은 함께 태원으로 유람을 떠난다.

《隋唐演義》의 이 부분에서 진숙보는 李靖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이후 이세민의 휘하에 들어간 이정은 진숙보와 唐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제51회에서 이밀의 휘하에 있던 진숙보, 서세적, 위징 등은 이밀에게 억류되어 있는 이세민을 몰래 풀어주면서 唐軍에 있던 이정에게 편지를 보내고 제52회에서 이정은 이세민을 풀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진숙보의 가족들을 唐으로 데려온다. 두 사건은 모두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진숙보가 이세민에게 투항하기 이전에 唐과 진숙보 사이의 인연을 강조하여 후에 진숙보가 당에 투항하는 역사적 사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여러 군주를 섬겼음에도 진숙보를 唐의 忠臣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진숙보와 이정이 만나는 이 부분에서 저인획은 〈虯髯客傳〉을 차용하여 이정이 이후에 이세민의 휘하에서 등장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隋唐演義》의 서사 흐름과 상관없는 규염객의 역할을 축소시켜 기이한 이야기로서 傳奇가 가지는 문학적 가능성은 대폭 감소되었다. 이처럼 《隋唐演義》는 많은 경우 隋唐에 관한 이전의 여러 문헌기록들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보충으로서 서사의 전개에 이용하였을 뿐 문학적으로 더 발전시키지는 않았다.

이와 달리 원천서서가 서사의 전개와 전혀 상관없이 삽입된 경우도 셀 수 없이 많다. 제3회에서 李靖이 龍神을 대신하여 비를 내리는 내용은 《續玄怪錄》에서 온 것으로 이 일을 통해 李靖이 신이한 병법을 익히게 되는 것을 연결고리로 전체 서사에 연결된다. 그러나 《隋唐演義》에는 간접적인 언급 외에 이정이 전투에 나서는 장면이 없다. 제16회에서 거울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별했던 樂昌公主와 徐德言이 다시 만나는 일 등 전체 서사와 관련 없는 내용들이 《隋唐演義》의 여기저기에서 발견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후반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현종과 관련된 수많은 고사들, 즉 도사들과 月宮에 가는 등의 신이한 일들, 양귀비와의 유락에 관한 다양한 일화들, 안녹산의 난으로 인해 촉으로 피신을 가다 겪는 일

들은 원천서사와 달리 모두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인물을 가진 사건으로 서사화되지만 전체 서사의 전개를 돕기 위해 유기적으로 들어있기보다는 역으로 이러한 일화들을 엮어서 전체 서사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李白, 王維, 王勃 등의 문인과 관련된 일화들, 馬周, 張說, 張九齡 등의 관리에 관한 일화들, 악사 李謨의 신묘한 피리 부는 재주에 관한 이야기들은 때로는 전체 서사와의 이음새마저 매끄럽지 않게 나열된다. 원천서사를 수용하는 《隋唐演義》의 이러한 서사 방식은 전체 서사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서사에서 隋唐 관련 온갖 일화의 집대성으로 만들어 버린다.

《隋唐演義》는 표제에 '通俗'과 '演義'를 집어넣고 책 앞머리에 林瀚의 〈隋唐演義原敍〉를 옮겨 실어 수당대의 역사적 사실을 풀어서 서술하여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한 《隋唐志傳》의 뜻을 표면에 내세웠으나 이상의 분석으로 보건대 실제로는 수당시기에 관한 일화들을 시간 순서대로 다듬어 나열한 장회체 모음집이 된다. 《隋唐演義》는 이미 역사적 사실에 정통하고 여러 가지 일화의 출처를 이미 알고 있는 일정 수준의 독자, 혹은 동료 문인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높다. 역사적 사건을 서사화하여 史書를 대체하려한 초기 역사연의와 달리 《隋唐演義》는 역사를 가지고 하는 일종의 유희로 변해간다.[283] 이 과정에서 이전 시기의 문헌기록, 특히 비정통 역사서사로서의 문헌기록은 그것의 신뢰도나 정통성에 대한 검증 없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보충이나 역사적 지식과 정보의 일종으로서 활용된다.

---

283) Robert Hegel 은 이에 더하여 揷畫나 刻字 등에서 드러나는 고급 장정 또한 《隋唐演義》의 한정된 문인 독자에 대한 단서가 되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隋唐演義》를 일종의 '문학적 유희(literary game)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o judge from the works and the comments of Ch'u and his associates, one might further conclude that the production of such novels was something of a literary game." Robert Hegel, 'Sui T'ang Yen-i and the aesthetics of the seventeenth-century Suchou elite', p.153.

3. 서사화 방식의 변화와 특징

3.1. 역사를 해설하는 서술자의 등장

역사연의에서 서술자는 그 역할이 일정치 않다.《隋唐志傳》의 경우에는 역사서사의 양식을 따랐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서술자가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回末의 總批에서만 서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나는데 그 또한 대부분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아주 간략한 논평 정도에 불과하다.《隋煬帝艷史》또한 본문에서는 서술자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권말에 總評을 두어 본문과 총평을 분리하고 각 권의 내용에 대한 감상평을 덧붙였다.《隋史遺文》의 경우 매 회의 시작 부분에서 속담이나 전고 등을 이용하여 그 회에 서사화될 내용과 관련하여 서술자가 자신의 의견을 간략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도입부를 제외한 본문에서 서술자의 존재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回末의 총평 또한 그 회의 내용에 대한 간단한 정리와 간략한 논평이 대부분이지만 '原本'과 이에 대한 수정 사항, 본문의 서사 방식 등 내용 외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종종 눈에 띈다는 점에서 다른 역사연의들과 다르다.《隋唐演義》또한 매 회 시작에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언술이 있다.《隋史遺文》의 도입부 원문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도 있지만《隋煬帝艷史》나《隋史遺文》을 원본으로 하지 않은 후반부의 경우 도입부 서술자의 의론은 전반부에 비해 어조도 강하고 길이도 늘어난다. 일례로 제82회 도입부를 보자. 제82회에서는 외국에서 온 국서를 대신들이 해독하지 못해 화가 난 현종에게 하지장은 이백을 천거한다. 이전에 과거 시험장에서 양국충과 고력사에게 멸시를 당했던 이백은 외국의 문자를 해독하고 답서를 써서 현종의 총애를 얻는 동시에 양국충에게 먹을 갈게 하고 고력사에게 신발을 벗기게 함으로써 그간의 설움을 씻는다. 그러나 이에 앙심을 품은 고력사의 참소로 결국 이백은 현종의 총애를 잃고 만다. 작가는 이백과 고력사, 양국충에 관한 여러 원천서사를 수용하고 이를 수정·보충하여 여러 회에 걸쳐 이백에 대한 사건들을 서사화하였다.

> 옛 말에 이르길 '무릇 사람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문인과 재주 있는 선비임에랴! 더욱이 뭇 사람들이 견줄 수 없는 자는 한 번 일어나게 되면 그의 능력을 한정 짓기 어렵다. 그가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이들

은 그 뛰어난 재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힘껏 조롱하지만, 누가 생각이나 하랴! 그가 어느 날 일어나 현달하게 되면 곧 기운을 토하고 눈썹을 휘날리게 된다. 그를 조롱하던 이들은 지난날에는 입을 마음대로 놀려 비난하는 말을 하지만 오늘은 비난하던 말 하나 하나를 자신이 저지르게 된다. 이로써 재주가 있는 사람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운명이 기구하여 잘못된 사람을 만나 끝내 몸을 숙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몸을 숙이게 만들 수는 있으나 그 뛰어난 재능을 막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손상시킬 수는 없다. 운명이 비록 험난하여도 이름은 전하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저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는 천하에서 후세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따름이다.

自古道: 凡人不可貌相. 況文人才士, 更非凡人可比, 一發難限量他. 當其不得志之時, 肉眼不識奇才, 盡力把他奚落. 誰想他一朝發達, 就吐氣揚眉了. 那奚落他的人, 昔日肆口亂道誹謗之言, 至今日一一身自爲之. 可知道有才之人, 原奚落他不得的. 他命途多舛, 遇人不淑, 終遭屈抑. 然人但能屈其身, 不能遏其才華, 損其聲譽. 遇雖蹇而名傳不朽, 彼奚落屈抑之者, 適爲天下後世所譏笑耳.[284]

《隋史遺文》에서 매 회 도입부에 나오는 서술자의 언술은 화제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회에서 전개될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주로 한다. 이에 속담이나 짤막한 일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으며 작가의 구제척인 주장이나 복잡하거나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이에 비해 《隋唐演義》 도입부에서 나타나는 서술자의 언술은 좀 더 직접적이고 의미심장한 교훈을 전달하며 심지어 때로는 서사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을 갖지 않기도 한다. 제82회의 경우 서술자는 도입부의 언술을 통해 앞으로 서사화할 이백의 사건들을 예고하고는 있지만 이백이 현종과 양귀비의 총애를 다시 잃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사보다는 교훈적 메시지 자체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부분은 재능있는 이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특별하게 대해야 하며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여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동시에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문인으로서의 褚人獲 자신의 처지를 투영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隋唐演義》에서는 본문 중간에 서술자가 드러나기도 한다. 이때 서술자는 서사를 이끌기도 하고 사건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며 때로는 인물에 대해 평가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이밀과 왕세충이 대결하는 제53회를

284) 褚人獲, 《隋唐演義》, 518쪽.

들 수 있다. 당시 왕세충은 이밀에 비해 군사에 있어서나 비축해둔 양식에 있어서나 열세에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왕세충은 간계를 내어 周公이 자신의 사묘를 없애고 그 자리에 진채를 세운 이밀을 벌하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병사들 앞에서 수하를 시켜 주공의 혼이 들린 것처럼 연극을 꾸민다.

이로부터 鄭의 병사와 장군들은 모두 가슴 속에는 周公 旦이 있게 되었다. 본래 병법을 행하는 것은 詭道를 따르는 것이다. 왕세충은 본디 간교하고 꾀가 많은 사람인데다가 그의 軍師인 桓法嗣는 이단적인 사술의 무리로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자 영화를 구하며 높은 자리를 바라니 수많은 사특한 방법을 왕세충에게 알려주었다. 鄭王 왕세충은 궁으로 돌아와 軍師 桓法嗣에게 성지를 내려 다음날 연무장에서 건장한 사내 3천을 뽑았다. 모두 키가 8척 장신인데다가 발에 一丈二尺 높이의 나무 막대를 신고 얼굴에는 귀신 가면을 쓰고 몸에는 오색의 알록달록한 옷을 입었다. 며칠이 지나자 연습이 다 되었다. 桓法嗣가 말하였다. “이 계책은 빨리 실행하여 방비하지 않았을 때 공격해야 합니다.” 鄭主 왕세충이 이를 허락했다. 그러나 이는 이밀을 완전히 끝장내고 세상에 맞는 군주를 세우는 일을 돕는 꼴이 되었다. 이밀이 명철한 사람이었다면 나라에 여러 차례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金墉을 안전하게 지키며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어 고치고 신하들을 잘 보살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밀은 재략이 뛰어난 것을 믿고서 지난날 죽을 고비에서 살아 돌아온 것을 잊고서는 항상 漢 高祖가 삼척검을 들고 천하에 당할 자가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하였다. 우선 지모가 뛰어난 軍師 徐世勣을 黎陽으로 보냈다. 蕭銑은 대수롭지 않은 문제인데도 충직하고 용감한 秦叔寶, 羅士信을 보내 대적하게 하였다. 賈潤甫가 여러 차례 뛰어난 계책을 내놓았는데도 듣지 않고 洛口로 보내버렸다. 邴元眞은 이익을 보면 의리를 잊는 소인인데도 도리어 자신을 보좌하게 하였다. 다만 單雄信, 程知節 등 용맹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이들만이 남아서 군사들을 통솔하여 나섰다.

自此鄭家兵將, 個個胸中有個周公旦了. 從來行兵詭道, 王世充原是個奸狡多謀之人, 兼那軍師桓法嗣, 又是個旁門邪術之徒, 恰好在亂離中, 逞志求榮, 希圖寶位, 便有許多因邪入邪之事來湊他. 鄭王回朝, 即便傳旨軍師桓法嗣, 明日下演武場, 點選彪形大漢三千, 個個身長八尺, 腳跴木模一丈二尺, 面上俱帶鬼臉, 身穿五色畫就衣服. 數日之內, 演習停當. 桓法嗣說: “此計只宜速行, 攻其無備.” 鄭主准奏. 這不過是要收拾完一個李密, 成全一個應世之主. 若密是個明哲之士, 見國中屢現災異, 便要安守金墉, 悔改前愆, 優恤臣下, 猶可以爲善國. 無奈李密自恃才略高強, 卻忘了昔日死里逃生之苦, 刻刻要想似漢高題着三尺劍, 無敵

於天下. 先把一個足智多謀的軍師徐世勣調去黎陽. 蕭銑乃癬疥之疾, 又把忠勇全備的秦叔寶、羅士信差他去拒守. 賈潤甫屢進奇謀不聽, 而置之洛口. 邴元眞貪利忘義小人, 反置之左右. 只剩單雄信、程知節等一班恃勇好鬥之人, 自統大兵前來.[285]

전력상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이밀의 패배를 서사화하는 방법은 작품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隋唐志傳》은 周公이 이밀을 저주하여 하늘의 군대가 직접 이밀을 공격하고 이밀이 주공의 악몽에 시달리다가 패전하는 신이한 사건으로 서사화하였고,[286] 《隋史遺文》은 주공에 관한 유언비어와 이밀을 닮은 나무꾼을 이용한 왕세충의 간계에 이밀이 당하는 것으로 서술하였다.[287] 《隋唐演義》는 《隋史遺文》의 주요 서사 내용을 이어받았으나 왕세충의 간계를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의 사람됨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에 대한 원인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서사 방식은 더 나아가 서술자가 서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역사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독자들에게 직접 설명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隋唐演義》 제88회에서 안녹산이 난을 일으키자 현종은 대신들에게 방책을 묻는다. 안녹산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封常清은 자신이 군사를 모집하여 안녹산을 치겠다고 주청한다.

玄宗은 매우 기뻐하며 封常清을 范陽·平盧의 절도사로 삼아, 그날 바로 역마를 바꿔타며 내달려 곧장 동경으로 가서 군사를 모집하여 적을 토벌하기 위해 편한 대로 일을 진행하라고 하였다. 옛말에 '천일 동안 군사를 키우면 쓰이는 일은 하루아침에 있다.'고 하였다. 군사는 쓸 수 있도록 평상시에 준비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변란이 갑자기 일어나자 그제서야 군사를 모으러 가는가? 또 어찌하여 변란이 발생하여야 군사를 모으려고 하는가? 안녹산은 군사가 있는데 조정에는 군사가 없었다는 말인가? **여러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看官, 你有所不知.).** 원래 당조 초기의 府兵制는 매우 오묘하여 천하를 10개의 道로 나누고 634개의 軍府를 두었는데 關內에 군부의 절반이 있었으며, 이를 모두 여러 衛에서 관할하게 하였으니 각각 명칭이 있었으나 총괄하여 折沖府라고 하였다. 절충부는

285) 褚人獲, 《隋唐演義》, 328-329쪽.
286) 羅貫中, 《隋唐兩朝史傳》(群衆出版社, 1997), 170-185쪽.
287) 袁于令, 《隋史遺文》, 422-436쪽.

병사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上中下의 세 등급으로 나누었다. 즉 1200명 이상은 上等, 1000명은 中等, 800명 이하는 下等으로 하였다. 백성들은 20세부터 종군하기 시작하여 60세가 되면 면제받았으며 쉬는 것은 때가 정해져 있었고 징발하는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折沖府에는 모두 木契와 銅魚를 두었으며 (符信을) 올리고 내림에 부에서 대조하였다. 조정에서 징발할 때는 칙서와 木契·銅魚를 보내니 都督과 郡府가 서로 맞추어보아 딱 들어맞은 후에야 군사를 보냈다. 군대를 부릴 때는 갑주와 의복 등을 스스로 갖추니 국가는 군사를 키우는 데 비용이 들지 않았고, 군대를 해산하면 들에서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으니 장수는 병사를 사적으로 장악할 권한이 없었다. 그 법제는 고대의 훌륭한 제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종군한 집에 잡역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로는 점점 빈곤해져서 많은 부병들이 도망갔다. 張說이 조정에 있었을 때, 건장한 병사를 따로 뽑아 '장종숙위'[288]의 병사로 삼자고 건의하였으니 이를 彍騎라고 하였다. 이에 부병제는 점차 무너졌고 죽은 자가 있어도 담당 관리는 이를 보충하지 않았으며 부병으로 宿衛兵에 징발된 이들은 衛官이 그들을 노예처럼 부렸다. 변방을 지키는 이들 또한 대부분 변방 장수들에게 혹사당하였으며 그들의 죽음을 이용하여 재산을 몰수하였으니, 부병은 이에 모두 도망가서 숨었다. 李林甫가 재상으로 있을 때 절충부로 왕래하는 칙서와 부신을 그만두자고 상소를 올리니, 이로부터 절충부에는 군사가 없고 쓸데없이 官吏만 있을 뿐이었다. 천보 연간에 이르러 彍騎의 제도 또한 무너졌으니, 그 뽑아놓은 군사들은 모두 시정의 무뢰한들로 군사의 일을 익히지 않았다. 또 이때 태평성세가 오래되어 의론하는 이들은 대부분 나라 안에서 무기에 대한 통제를 없애자고 하였고, 민간에서 병기를 지니고 다녔다. 무관이 된 자가 있으면 가족들은 그를 버려두고 거들떠보지 않았다. 용감한 장수와 정예의 군사는 대부분 변방에 모였고 특히 서북에 많았지만, 나라의 중심에는 군비가 전혀 없어서 어느 날 변란이 생겨도 쓸 수 있는 병사가 없어 군사를 모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종의 좋은 제도를 후손들이 잘못된 것을 고쳐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하고, 함부로 고쳐 兵政을 크게 어그러뜨렸다. 안녹산이 쓰는 병마는 본래 많고 강하였는데 또 오랑캐 종족인 돌궐의 阿布司가 回紇에게 공격당하자 안녹산이 그 군대를 유혹하여 투항시켰기에 그의 부하는 군사는 정예화 되고 말은 강해져 천하에 따를 자가 없게 되었다.

玄宗大喜, 遂命以封常清爲范陽平盧節度使, 即日馳赴遞驛, 直趕到東京, 募兵討賊, 聽其便宜行事. 說話的, 自古道: 養兵千日, 用在一朝. 那兵是平時備著用的, 如何到變起倉卒,

288)《文獻通考·兵三》: "高祖、武后時, 天下久不用兵, 府兵之法寖壞, 番役更代多不以時, 衛士稍稍亡匿, 至是益耗散, 宿衛不能給. 宰相張說乃請一切募士宿衛. 十一年, 取京兆、蒲、同、岐、華府兵及白丁, 而益以潞州長從兵, 共十二萬, 號'長從宿衛', 歲一番. 命尙書左丞蕭嵩與州吏共選之, 明年更號曰'彍騎'."

纔去募兵. 又如何纔有變亂, 便要募兵起來, 難道安祿山有兵, 朝廷上到沒有兵麼? 看官, 你有所不知. 原來唐初時, 府兵之制甚妙, 分天下爲十道, 置軍府六百三十四, 而關內居其半, 俱屬諸衛管轄, 各有名號, 而總名爲折沖府. 凡府兵多寡, 其數分上中下三等: 一千二百人爲上等, 一千人爲中等, 八百人爲下等. 民自二十歲從軍, 至六十歲而免, 休息有時, 征調有法. 折沖府都設立木契銅魚, 上下府照, 朝廷若有征發, 下敕書契魚, 都督郡府參驗皆合, 然後發遣. 凡行兵則甲冑衣裝俱自備, 國家無養兵之費, 罷兵則歸散於野, 將帥無握兵之權. 其法制最爲近古. 只因從軍之家, 不無雜徭之累, 後來漸漸貧困, 府兵多逃亡. 張說在朝時建議, 另募精壯爲長從宿衛兵, 名曰彍騎. 於是府兵之制日壞, 死亡者有司不復添補, 府兵調入宿衛者, 本衛官將役使之如奴隸. 其守邊者, 亦多爲邊將虐使, 利其死而竟沒其資財, 府兵因此盡都逃匿. 李林甫當國, 奏停折衛府上下魚書, 自是折沖府無兵, 空設官吏而已. 到天寶年間, 並彍騎之制, 亦皆廢壞, 其所召募之兵, 俱係市井無賴子弟, 不習兵事. 且當此時承平已久, 議者多謂國中之兵, 可銷禁約, 民間挾持兵器, 人家子弟有爲武官者, 父兄擯棄不齒. 猛將精兵, 多聚於邊塞, 而西北尤甚. 中國全無武備, 所謂一旦有變, 無兵可用, 其勢不得不出於召募. 蓋祖宗之善制, 子孫不能修弊補廢, 振而起之, 輕自更張, 以致大壞兵政. 乃安祿山所用兵馬, 本來衆盛, 又因番人部落突厥阿布司爲回紇攻破, 安祿山誘降其衆, 所以他的部下, 兵精馬壯, 天下莫及.[289]

안녹산의 난이 일어난 당시 조정의 황제와 신하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서사화하면서 서술자는 자연스레 당의 軍制가 부병제에서 모병제로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한다. 특히 서술자는 독자들을 직접 불러냄으로써 이러한 설명이 직접적으로 독자들에게 역사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려는 시도임을 분명히 한다. 이때 서술자와 독자의 관계는 공연에서 나타나는 설화자와 청중의 관계를 모방한 것이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折沖府', '木契銅魚', '長從宿衛', '彍騎' 등의 역사적 용어에 대한 자세한 풀이, 제도의 변천과 그것이 가진 장단점,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등은 구술을 통해 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도 않을뿐더러 공연의 설화자와 청중이 관심 있어 하는 내용도 아니다. 이는 문인 작가가 기대 독자층을 향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연의 형식을 차용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준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자의 존재는 수당 계통 역사연의 가운데 《隋唐演義》에서

289) 褚人獲, 《隋唐演義》, 559-560쪽.

만 보이는 독특한 양상이다.

3.2. 질서와 균형을 갖춘 세계의 창조

《隋唐演義》는 이처럼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역사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서사 자체로 역사를 설명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당의 건국 과정에 대한 서사를 예로 들면 역사서사, 그 가운데서도 특히 편년체 통감류 사서를 모방한 《隋唐志傳》의 경우 이를 수많은 전투의 연속으로 서사화하였다. 즉 이세민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을 잇따른 전투의 승패가 만들어낸 결과로 풀어낸다. 이에 비해 《隋唐演義》의 경우 전투에 대한 서사는 대폭 줄어들고 그 자리를 이세민의 용맹한 성격이나 윤리적인 성품, 그리고 하늘이 정한 운명 등 천자가 될 수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강조하는 서사들로 대체한다. 다시 말해 《隋唐演義》는 역사적 사건을 묘사하기보다는 설명하고 해석하는 일에 치중하며 이 과정에서 역사적인 실제 증거보다는 서사의 합리성과 개연성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서사의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史書와 이전의 문헌기록에 없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일종의 후일담들이다. 《隋唐演義》에는 작가인 저인획이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대답으로 창작해서 만들어 넣은 서사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특히 《隋唐演義》 제58회부터 제70회까지에서는 이세민이 당을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이었던 李密, 劉武周, 竇建德, 王世充을 차례로 물리쳐 천하를 평정한 후 일어난 일종의 건국 후일담 성격의 서사들이 전개된다. 《隋唐演義》를 《隋煬帝艷史》와 《隋史遺文》을 원본으로 하는 전반부와 그 이후 고종부터 현종까지를 서사화하는 후반부로 나눌 때 이 부분은 전반부 서사에 대한 결말의 성격을 가진다. 주로 隋의 遺臣과 후궁들, 천하를 도모하다 실패한 영웅들, 그리고 이세민을 도와 당을 세운 개국공신들의 말로에 관한 서사로, 주요 역사적 사실들을 부정하거나 이와 충돌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隋의 황후였던 蕭后와 나머지 후궁들에 대한 후일담이다. 양제가 시해 당하기 전에 수의 멸망을 예견하고 궁을 나온 후궁들 가운데 일부는 양제의 아들인 趙王을 데리고 돌궐로 가고 나머지는 칼로 얼굴에 상처를 내 정절

을 증명하고 산으로 들어간다.[290] 이는 정통, 비정통 역사서사에 모두 없는 내용으로 작가는 이를 통해 양제의 사치와 향락을 서사적으로 완정하고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게 마무리 짓는다. 수 양제가 시해당하고 난 뒤 우문화급의 손에 살아남은 소후는 두건덕이 우문화급을 토벌한 후 돌궐로 보내진다. 소후와 우문화급, 두건덕 사이의 세부적인 일화들은 작가가 창작한 것이지만 이들을 거쳐 돌궐로 가게 되는 것은 《隋書·煬帝蕭皇后》의 기록과 일치한다. 그러나 《隋唐演義》는 소후를 다시 중원으로 불러들여 양제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자신의 도리를 마친 소후는 결국 당의 궁궐 안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다. 양제의 곁에서 충심을 다하며 간언을 서슴지 않았던 환관 王義 또한 趙王을 모시고 돌궐로 갔다가 소후와 함께 돌아와 양제의 제사를 지내고 난 후 그제야 자신의 책임이 끝났다고 여기고 그 자리에서 순절한다.[291]

이처럼 《隋唐演義》에서 서사화되는 역사의 후일담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문헌기록의 빈 곳을 작가가 상상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간혹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기도 한다. 딸인 두선랑과, 그녀와 자매의 연을 맺은 화목란에 의해 두건덕이 구명되는 제59회는 이러한 예에 속한다. 《資治通鑑》을 비롯한 모든 사서와 《隋唐志傳》, 《隋史遺文》에서 두건덕은 이세민에게 패한 후 참형을 받는다. 그러나 《隋唐演義》는 두건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며, 이는 그 뒤로 또 다른 사건들을 만들어낸다. 제59회에서 이세민에게 사로잡힌 후 장안으로 압송되어 온 두건덕을 처결하려던 이연은 두 명의 여인이 두 손을 스스로 결박하고 입에 칼을 문 채로 알현을 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여인을 부른다.

> 唐帝가 물었다. “너희 두 여인은 어디 사람인가? 무슨 일로 이런 모습으로 짐을 만나러 왔는가?” 竇線娘이 말했다. “臣妾은 竇氏로 叛臣 竇建德의 딸입니다. 저의 부친 두건덕은 천상의 법률을 어겨 그 죄를 용서받기 어려우니 제가 그 죄를 대신 받기를 원하여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폐하를 뵈러 왔습니다. 唐帝가 말하였다. “竇建德은 어찌 신하와 아들, 조카가 없어 너 같은 보잘 것 없는 여인네가 그를 대신하려 하느냐?” 두선랑이 대답

290) 褚人獲, 《隋唐演義》, 292-298쪽.

291) 褚人獲, 《隋唐演義》, 431-437쪽. 王義에 대한 서사는 본래 문언필기인 〈海山記〉와 〈迷樓記〉에 있던 것을 《隋煬帝艷史》가 확대시킨 것이다. 그러나 앞의 세 작품에서 왕의는 수가 망하기 전에 자결한다.

하였다. “忠臣과 良將은 이미 모두 순절하여 죽었습니다. 子侄에 대해 말하자면 가문이 쇠락하여 부친께서는 오직 저 하나만을 두셨습니다. 두터운 은혜를 베푸시면 반드시 이에 대한 보답을 받으실 것입니다. 게다가 왕세충은 군주를 시해하고 제위를 찬탈하였는데도 은혜를 입어 사면을 받았습니다. 저의 부친은 나라를 세워 스스로 지켰으나 일찍이 우문화급을 토벌하여 처음으로 煬帝를 위하여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전에 黎陽에서 전투를 할 때는 폐하의 동생인 李神通과 同安公主를 돌려보냈으니 왕세충과 비교하면 또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널리 황은을 베풀어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어 부친의 죄를 사하여 제가 대신하도록 해주신다면 이는 국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며 도리어 커다란 은혜가 두루 비추도록 하는 것이니 저는 죽어도 산 것과 같을 것입니다!” 唐帝가 말하였다. “네가 방금 두건덕이 너 하나만을 낳았다고 하였으니 저 여인은 또 누구인가?” 두선랑이 미처 대답하기 전에 화목란이 말하였다. “저의 성은 花이고 이름은 木蘭이며 河北 花弧의 딸입니다.” 그리고는 劉武周가 출병했을 때 부친을 대신하여 종군하였다가 두선랑과 자매의 연을 맺게 된 일까지 다 말하였다. 唐帝는 두 여인의 언사가 분명하고 유창함에 매우 감탄하였다. “놀랍구나, 두 효녀가! 聖僧께서는 둘 다 잘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셨거늘.” 이야기하는 중에 두 내감이 들어와 무릎을 꿇고 말했다. “마마께서 殿下를 궁으로 들어오시라 하십니다.” 이에 秦王 이세민은 일어나서 궁으로 들어갔다. 이 때 두건덕은 이미 조정으로 나와 꿇어앉아 두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唐帝가 그를 올라오라고 하여 말했다. “너는 무리를 지어 세상을 해롭게 했으니 본디 참수해야 마땅하다. 지금 너의 딸이 이를 대신하고자 간청하니 짐은 하늘의 好生之德을 실천해야지 어찌 주살할 수 있겠는가. 너는 죄가 있지만 예외로 해줄 것이다.” 그리고는 시위를 불러 두건덕의 형틀을 풀어주며 말하였다. “짐이 사면해주면 너는 풀려날 것이다. 다만 너 또한 호걸이니 짐이 너에게 작위를 내린다한들 너도 일찍이 남면하고 孤, 寡라고 칭했었는데 어찌 다른 사람 아래에 있으려 하겠는가. 짐이 만약 너를 서민으로 폐하면 네가 어찌 錦繡江山을 잊어 다시 헛된 꿈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두건덕이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신이 폐하의 특별한 인자함을 입어 용서하시어 살려주셨으니 이미 바라던 것 이상입니다. 어찌 감히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신은 사로잡힌 이후로 名利에 대한 생각을 모두 버렸습니다. 신이 지금 천만다행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 원컨대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 향불을 피우고 도를 닦아 황제의 뜻에 보답하겠사오니 다시는 감히 속세에 발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唐帝便問道: “你兩個女子, 是何處人氏? 爲何事這個樣子來見朕?” 竇線娘道: “臣妾竇氏, 系叛臣竇建德之女. 因妾父建德, 犯罪天條, 似難寬宥, 妾願以身代受典型, 故敢冒死上瀆天威.” 唐帝道: “竇建德豈無臣子子侄, 要你這個瑣瑣裙衩來替他?” 線娘道: “忠臣良將, 俱已

> 盡節捐軀. 若說子侄, 宗支衰落. 妾父止生妾一人, 罔極深恩, 在所必報. 況王世充篡位弑君, 尚邀恩赦. 臣妾父雖據國自守, 然當年曾討宇文化及, 首爲煬帝發喪. 前在黎陽軍旅之間, 又曾以陛下御弟神通並同安公主送還, 較之世充, 不亦遠乎? 倘皇恩浩蕩, 准臣妾所請, 赦父之罪, 加之妾身, 是亦國法之不弛, 而隆恩之普照, 則妾雖死而猶生矣!”唐帝道:“你剛才說竇建德止生得你, 那一個又是你何人?”綠娘未及回答, 木蘭便道:“臣妾姓花, 名木蘭, 系河北花弧之女.”便將劉武周出兵代父從軍, 直至與竇綠娘結義一段, 說將出來. 唐帝見他兩個言詞朗朗, 不勝贊歎道:“奇哉兩孝女! 聖僧所謂兩好最難能也.” 正說時, 只見兩個內監走來, 跪下奏道:“娘娘有旨, 宣殿下進宮.”秦王只得起身進宮去了. 時竇建德久已拿進朝, 跪在丹墀下, 聽那兩個女子對答, 唐帝叫上來說道:“你助黨爲虐, 本該斬首. 今因你女兒甘以身代, 朕體上天好生之德, 何忍加誅, 連你之罪, 法外有汝.”就叫侍衛去了建德的鎖鏈綁縛, 又對他說道:“朕赦便赦了你, 只是你也是一個豪傑, 若是朕賜你之爵, 你曾南面稱孤道寡, 豈肯屈居人下. 朕若廢你爲庶民, 你怎肯忘卻錦繡江山, 免不得又希圖妄想.” 建德叩首道:“臣蒙陛下法外施仁, 貸臣不死, 已出望外, 安敢又生他念? 臣自被逮之後, 名利之念, 雪化冰消, 臣今萬幸再生, 情願披剃入山, 焚修來世, 報答皇圖, 不敢再入塵網矣!”[292]

이처럼《隋唐演義》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달리 두건덕의 목숨을 살려주지만 결국 중이 되어 속세를 떠나는 것으로 상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함으로써 역사의 큰 흐름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를 통해 이연의 천자로서의 덕이 강조된다. 이제 이연과 唐朝의 천하제패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로 서사화되지 않으며, 두건덕은 전투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연의 德과 仁에 굴복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隋唐演義》는 서사적 완결과 도덕적 완성을 같이 실현한다. 이는 역사연의가 역사에 대한 서사이되 이전의 역사서사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역사연의로서《隋唐演義》는 역사적 사실을 서사화하는 동시에 도덕적 명분을 중시하며 이에 따른 우주 질서의 회복을 서사화한다.

이러한 서사적 특징은 와강채 영웅들의 말로에 대한 서사에서도 나타난다. 이밀이 거사에 실패한 후 왕세충에게 투항하였던 선웅신은 결국 왕세충이 이세민에게 패배하자 장안으로 압송되어 참형을 받게 된다. 선웅신과 의형제를 맺은 진숙보와 서세적, 정요금 등은 선웅신을 구명할 수 없게 되자 그의 가족을 돌볼 것을 맹세하고 특히 진숙보는 자신의 아들 진회옥과 선웅신의 딸 선애련의 혼인을 약

292) 褚人獲,《隋唐演義》, 376-377쪽.

속함으로써 와강채 영웅들 사이의 義를 완성한다.

《隋唐演義》에서 보이는 이러한 특징은 당의 개국 공신들에게 배필을 맺어주는 것으로 완성된다. 절에 들어가거나 시골로 들어가 은거하던 수의 후궁들은 당이 천하를 평정한 후 우연히 화우란을 만나 성지를 받고 장안으로 돌아온다. 이연은 그녀들을 짝이 없는 개국공신들의 배필로 맺어준다.

> 또 秦瓊이 아들 懷玉, 며느리 愛蓮을 데리고 와서 알현하였다. 唐帝는 진경을 보고 각별히 예를 다하며 말했다. "자네 부자는 일어서게." 그리고 애련을 가리키며 말했다. "경의 며느리 선씨는 혼례를 올렸소?" 진숙보가 대답했다.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唐帝가 배꽃처럼 흰 얼굴에 버들가지처럼 가는 허리, 얌전한 걸음걸이를 보니 과연 명문가의 딸이라, 이에 "훌륭한 여인이구나."하고 찬탄하였다. 이에 近侍를 불러 데리고 가서 竇后를 알현하게 했다. 다시 진숙보에게 물었다. "방금 竇線娘이 말하길, 일찍이 경의 며느리와 자매를 맺고서 그녀를 羅成과 맺어주라는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가?" 진숙보가 대답하였다. "그 때 두선랑이 나성의 편지를 고쳐서 보내왔지만 저의 아들은 이미 선애련과 혼인을 약속했었습니다. 저와 선웅신은 生死之交를 맺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어길 수 없어 아들을 혼인시키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唐帝가 말하였다. "경의 아들이 그녀와 배필을 맺으면 佳兒佳婦라 할 수 있을 것이오.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 혼례를 올리지 않았소?" 진숙보가 대답했다. "며느리 선애련은 집으로 돌아가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그 후에 혼례를 올리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당제가 "이 또한 훌륭한 생각이오. 내가 주선하여 여러 사람의 혼례를 올리는 김에 경의 아들도 혼례를 올리도록 해주겠소. 한 달이 지난 후 고향으로 돌아가 부친의 장례를 치르도록 해주겠소."하고는 近侍에게 말했다. "竇線娘에게 二品 관대를 내리고 다른 여인들에게는 모두 四品 관대를 내리겠으니 얼른 가서 그들을 나오라고 하여 좋은 때를 놓치지 말고 다 같이 화촉을 밝히도록 해라."
>
> 近侍는 가서 7명의 여인들을 데리고 나온다. 唐帝는 우선 魏徵, 徐世勣, 尉遲恭, 程知節을 불러 袁, 賈, 江, 羅 네 부인과 짝을 지어 서게 한 후 혼례를 축하하는 예물을 주었다. 네 쌍의 부부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주악소리 속에서 물러났다. 두 번째로는 秦懷玉과 單愛蓮이 예물을 받은 후 감사인사를 올리고 물러났다. 세 번째가 羅成이었으니 양쪽에 竇線娘과 花又蘭을 세우고 감사 인사를 올렸다. 唐帝가 웃으며 말했다. "羅成이 가장 좋게 되었군. 네가 당시 신중하였기 때문에 오늘 두 여인을 맞아들이게 되었다." 羅成과 두 미인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聖恩이 하해와 같이 넓어 소신이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의 처 두선랑은 황후마마의 조카가 되었으니 신과 같이 가서 감사인사를 올리도록 폐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又見秦瓊領了兒子懷玉、媳婦愛蓮，上前來朝見．唐帝見了秦瓊，分外優禮，便道:"愛卿父子平身."因指愛蓮道:"就是你媳婦單氏，可曾結褵否?"叔寶應道:"尚未."唐帝見此女梨花白面，楊柳纖腰，香塵穩重，居然大家，便贊道:"好個女子."即叫近侍亦引去見竇后．又對叔寶道:"剛才竇線娘說，曾與汝媳結爲姊妹，先有書薦此女與羅成，此言有之乎?"叔寶答道:"當初竇女改了羅成的書附來，臣兒已許婚單氏，因臣與單雄信有生死之交，不敢背盟，故以子許之."唐帝道:"卿子得配此女，可稱佳兒佳婦矣，爲何尚未成婚?"叔寶答道:"因兒媳單愛蓮，立意要歸家營葬父親，然後完婚."唐帝道:"這也難得，朕今做主，趁衆緣齊偶，賜汝子完婚，滿月後賜歸殯葬其父."對近侍道:"竇線娘給二品冠帶，諸女俱給四品冠帶，快去宣他們出來，莫負良辰，好去共諧花燭."

近侍進去領了七個女子出來，唐帝先叫魏徵、徐世勣、尉遲恭、程知節同袁、賈、江、羅四夫人成對站定，賜了花紅．四對夫婦謝了恩，就有鼓樂迎出苑去．第二起就是秦懷玉與單愛蓮，謝恩，迎送出去．第三起卻是羅成，兩旁站着竇線娘、花又蘭，謝恩下去．唐帝笑道:"羅成，大便宜了你，也虧你當時老成，今宵卻有聯壁相親."羅成同二佳人跪下說道:"聖恩浩蕩無涯，使小臣亦沐洪麻．但臣妻線娘，既爲聖母國戚，臣禮合同去謝恩，陛下可容臣叩謝否?"293)

이처럼 《隋唐演義》에서 당의 건국에 공을 세운 신하들은 혼인과 자손을 통해 대단원을 맺는다. 진숙보의 경우 아들 진회옥이 자신처럼 훌륭한 무장이 되고 어머니는 長壽를 누려 황제의 축하를 받는다. 魏徵, 徐世勣, 尉遲恭, 程知節은 아름다운 여인을 얻고 울지공의 아들 울지보림 또한 아버지처럼 무공을 세운다. 《隋唐演義》는 혼인과 장례를 통해 서사를 마무리 지을 뿐만 아니라 인과응보에 따라 역사적 사건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분명히 하여 도덕적 질서를 완성하고 짝이 없는 이들에게는 모두 배필을 맺어줌으로써 세상의 조화를 회복한다. 현실과 달리 《隋唐演義》의 세계에서는 모든 윤리적 질서와 균형이 회복되며 이로써 독자는 이후의 일들이 궁금하지 않게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와 같은 후일담들은 사서, 문언필기 나아가 공연기록까지 확인해보아도 전혀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도 배치된다. 또한 저

293) 褚人獲,《隋唐演義》, 403-404쪽.

인획의 출신과 교유·저작활동을 보아도 그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개입은 수당시기의 역사에 대해 비교적 정통하였던 저인획이 오히려 매우 의도적으로 서사를 만들어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역사적 사실보다 서사의 개연성을 중시하면서 의도적으로 역사를 비틀어 허구적인 플롯을 구현한 것이다.

《隋唐演義》의 이러한 특징이 가장 정점에 달하는 것은《隋唐演義》전체 서사의 처음과 끝[始終關目]을 구성하는 전생담이다. 마지막 회인 제100회에서 안사의 난으로 인해 서촉으로 피했다가 다시 장안으로 돌아온 현종은 죽은 양귀비와 매비를 그리워하고, 이에 도사 양통유는 양귀비와 매비의 영혼을 찾으러 떠난다.

張果가 말했다. “너는 上皇과 貴妃의 前因後果를 아는가?” 양통유가 대답했다. “弟子가 우매하여 모르는 것이 많으니 자세한 내용을 듣길 원합니다.” 張果가 말했다. “上皇은 전생에 元始孔升眞人으로 본래 우리와 같은 부류였소. 다만 太極宮에서 강의를 들을 때 蕊珠宮女와 서로 바라보고 웃어 계율을 어기니 이에 속세로 귀양을 가서 벌로 여인이 되어 帝王의 嬪妃가 되었으니 바로 隋宮의 朱貴兒요. 주귀아가 현생에 바로 大唐 開元天子가 된 것이요.” 양통유가 물었다. “주귀아는 어떤 연유로 천자로 환생한 것입니까?” 張果가 대답했다. “주귀아는 그 주인에게 충성하고 역적을 꾸짖다가 순절하여 죽었소. 하늘에서는 忠義를 가장 귀하게 여겨 반드시 그에 대한 보답을 하오. 하물며 謫仙은 본디 마땅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다만 그와 隋 煬帝가 본래부터 전생의 인연이 있었고 또 내생에 다시 배필을 맺기로 사사로이 맹세를 하였으니 그런 까닭에 천자로 환생하여 이러한 맹세를 완성하게 된 것이오.” 양통유가 말하였다. “주귀아와 수 양제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습니까?” 張果가 대답했다. “煬帝의 前生은 終南山의 괴물 쥐였소. 九華宮 皇甫眞君의 丹藥을 훔쳐 먹으니 眞君은 그 쥐를 석실에 일천삼백년 동안 묶어두었소. 그는 석실에서 潛心靜修하여 사람이 되어 인간세상의 부귀를 누리고자 하는 뜻을 세웠소. 孔升眞人은 우연히 九華宮을 지나다가 괴물 쥐가 여러 해 묶여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潛修를 이미 오래 한 것을 어여삐 여겨 皇甫眞君에게 그를 잠시 놓아주어 인간세상으로 가 부귀를 누려 그 숙원을 풀어주고 또 내생에서 悔過修行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고 권하였소. 이러한 권유가 있어 전생의 인연을 맺게 된 것이오. 이때 마침 隋朝의 운이 장차 다하려고 하는데 독고후의 투기가 심하니 上帝가 언짢아하였소. 이에 皇甫眞人은 괴물 쥐를 煬帝가 되게 하여 이로써 액운이 되게 하라고 상주하였소. 마침 孔升眞人 또한 죄를 지어 속세로 하강하여 朱貴兒가 되니 이에 전생의 인연으로 서로 만나게 되었고 또

뜻하지 않게 양제와 再世姻緣을 약속하여 이로 인해 당의 천자로 환생하게 되어 다시 신선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오.” 양통유가 말하였다. “주귀아가 환생하여 당의 천자가 되었다면 양제는 환생하여 누가 되었습니까?” 장과가 웃으며 말했다. “양제의 후신이 누구겠소? 바로 양귀비요! 양제는 제왕이었으나 괴이한 성질이 다시 드러나서 교만하고 황음무도하였소. 게다가 부친을 시해하였으니 상제는 진노하여 그에게 13년의 皇位만를 주어 일천삼백년의 靜修之志에 보답한 것이오. 또 잘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흰 천으로 목을 매어 죽도록 명하고 벌로 여인이 되게 하였으니 또다시 楊氏가 되었소. 朱貴兒의 환생과 악연을 끝내고 또다시 흰 천에 목매어 죽게 한 후 陰司로 가서 그 부친을 시해하고 황음폭악했던 죄를 매듭짓도록 하였소. 그가 귀비가 되었을 때 또 총애를 믿고서 재앙을 만드니 죄 위에 죄가 더해졌소. 지금 그의 혼백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으니 당신이 어디에 가서 그를 찾겠소?” 양통유가 말하였다. “원래 그러한 因果가 있었군요. 仙師의 指示가 아니었다면 弟子가 이를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弟子는 上皇의 명을 받들어 온 것이니 이제 이 말을 돌아가서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장과가 신음하며 대답하지 못하는데 葉法善이 말하였다. “上皇 또한 인간세상에 얼마 있지 못할 것이오. 그는 고로 곧 전생의 인연을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니 당신은 지금은 잠시 꾸며서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이요.”

張果道: “你可知上皇與貴妃的前因後果麼?” 通幽道: “弟子愚昧, 多所未知, 願聞其詳.” 張果道: “上皇宿世, 乃元始孔升眞人, 與我輩原是同道. 只因於太極宮中聽講, 不合與蕊珠宮女, 相視而笑, 犯下戒律, 謫墮塵凡, 罰作女身爲帝王嬪妃, 即隋宮中朱貴兒是也. 貴兒在世, 便是大唐開元天子了.” 通幽道: “朱貴兒何故便轉生爲天子?” 張果道: “貴兒忠於其主, 罵賊殉節而死. 天庭最重忠義, 應得福報, 況謫仙本宜即復還原位的, 只因他與隋煬帝本有宿緣, 又曾私相誓願, 來生再得配合, 故使轉生爲天子, 完此一段誓願.” 通幽道: “請問朱貴兒與隋煬帝有何宿緣?” 張果道: “煬帝前生, 乃終南山一個怪鼠, 因竊食了九華宮皇甫眞君的丹藥, 被眞君縛於石室中一千三百年. 他在石室潛心靜修, 立志欲作人身, 享人間富貴. 那孔升眞人偶過九華宮, 知怪鼠被縛多年, 憐他潛修已久, 力勸皇甫眞君, 暫放他往生人世, 享些富貴, 酬其夙志, 亦可鼓勵來生, 悔過修行之念. 有此一勸, 結下宿緣. 此時適當隋運將終, 獨孤后妒悍, 上帝不悅, 皇甫眞人因奏請將怪鼠托生爲煬帝, 以應劫運. 恰好孔升眞人亦得罪降謫爲朱貴兒, 遂以宿緣而得相聚, 不意又與煬帝結下再世姻緣, 因又轉生爲唐天子, 未能即復仙班.” 通幽道: “貴兒便轉生爲唐天子了, 那煬帝卻轉生爲何人?” 張果笑道: “你道煬帝的後身是誰, 即楊妃是也! 煬帝既爲帝王, 怪性復發, 驕淫暴虐. 況有殺逆之罪, 上帝震怒, 只判與十三年皇位, 酬其一千三百年靜修之志. 不許善終, 敕以白練系頸而死, 罰爲女身, 仍姓楊氏, 與朱貴兒後身完結孽緣, 仍以白練系死, 然後還去陰司, 候結那殺逆淫暴的罪案. 當

他爲妃時, 又恃寵造孽, 罪上加罪. 如今他的魂魄, 正好不得自在, 你那裏去尋他?”通幽道: “原來有這些因果, 非仙師指示, 弟子何由而知. 但弟子奉上皇之命而來, 如今怎好把這些話去回履?”張果沉吟未答, 葉法善道: “上皇也不久於人世了, 他身故後自然明白前因, 你今不妨姑飾辭以應之.”[294]

선계로 간 양통유는 張果, 葉法善, 羅公遠 세 신선을 만나게 되고 그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친 인연을 듣게 된다. 괴물 쥐가 속세에 내려와 수 양제가 되었다가 다시 양귀비로 환생하였고, 元始孔升眞人이 속세로 내려와 양제의 후궁 주귀아가 되었다가 다시 당 현종으로 환생하였다는 것이다. 《隋唐演義》의 이러한 인과응보 구조는 《隋唐演義》를 시간이 연속되며 처음과 끝이 열려있는 역사가 아닌, 처음과 끝이 분명한 닫혀있는 이야기 세계로 만드는 동시에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들 또한 이러한 처음에서 끝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로서 의미를 가지게 만든다. 수당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은 이제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의 한 점에 놓인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닫혀있는 완전한 세계의 일부가 되며 동시에 그 구조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隋唐演義》의 설명하고 해석하는 서사는 그러한 결과로 나아가는 과정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이제 《隋唐演義》는 역사적 사실과 분리되어 평행하게 달리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 세계가 되며 작가인 저인획은 질서와 균형을 가진 총체적이고 완정한 이야기 세계의 창조자가 된다. 그리고 독자는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여 텍스트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에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작업을 멈춘 채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제 독자들은 이전의 역사서사를 읽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읽기의 관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294) 褚人獲, 《隋唐演義》, 629-630쪽.

Ⅶ. 결론 : 演義化의 원리

이 글은 16세기 무렵 중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역사연의라는 새로운 서사양식에 주목하여 그것의 탄생 배경에서부터 실제 텍스트 창작까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전통시기 중국에서 역사는 초월적 신을 대신하여 '정치적·문화적 활동의 궁극적 심판의 의미'[295]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역사서사는 문자의 등장과 함께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 방대한 문헌을 남겼다. 여기에는 국가의 공인을 받아 경전적인 지위로까지 올라간 正史에서부터 역사를 기록한다는 태도로 기이한 일들을 적은 志怪까지 다양한 양식의 서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唐代 이후로 역사서사에 대한 개념과 범주가 보다 확고해지면서 정통으로 인정받은 역사서사와 그렇지 못한 역사서사 사이의 구분이 선명해지기는 하였으나 '述而不作'이라는 역사서사의 규범은 정통 역사서사인 正史뿐만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 野史, 雜錄, 筆記, 傳奇小說 등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양식의 비정통적 역사서사에도 두루 작용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역사서사 전통은 宋代에 이르러 편년체 사서인 《資治通鑑》의 등장으로 또 한 번의 轉機를 맞이하였다. 《資治通鑑》은 시간을 연속시키고 공간을 통합함으로써 정통 역사서사의 형식과 체제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변화를 주었다. 즉 과거와 더 먼 과거가 서로 연결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여러 종류의 인간 군상들이 통합된 공간에서 서로 얽히고설켜 사건을 만들어내면서 역사는 비로소 총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전의 역사서사는 과거의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 혹은 특정한 인물을 서사화하고 이러한 서사들의 총합으로서 역사를 이해하였다. 그러나 《資治通鑑》의 등장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긴 호흡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역사에 대한 달라진 인식과 그것의 근거가 되는 실물로서의 《資治通鑑》은 이 시기 꽃피기 시작한 공연전통과 만나 講史를 성행시켰고 이는 다시 平話의 출간을 이끌었다.

明代에 들어 달라진 문인 계층의 규모와 구성은 역사서사의 전통을 다시 한 번 변화시켰으며 여기에 출판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맞물리면서 16세기에 들어서

295) 민두기 編, 《중국의 역사인식 上》(창작과 비평사, 1993), 9쪽.

면 다양한 유형의 역사서적들이 대량으로 출간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通鑑類 史書들의 출간에 특화되었던 建陽 지역의 서방을 중심으로 역사연의가 출간되기 시작한다.

초기의 역사연의들은 '按鑑', '通俗' 그리고 '演義'라는 용어를 표제 안에 넣음으로써 자신들이 通鑑類 史書를 원천서사로 삼아 이를 쉽게 풀이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었으며 이후로 17세기 말까지 이러한 표제를 단 역사연의들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온다. 이 시기에 출간된 역사연의의 목록을 살펴보면 春秋戰國, 兩漢, 三國, 隋唐, 宋 등 한 朝代의 역사를 개괄하여 다룬 것이 가장 많으나 하나의 인물이나 가문을 중점적으로 서사화한 작품들도 종종 발견된다. 또 盤古의 천지개벽을 다룬 작품에서부터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적은 작품까지 거의 모든 시간에 대한 역사연의가 출현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 가운데 隋唐시기를 다룬 역사연의 네 편을 골라 상세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Ⅲ장에서는 초기 역사연의의 형태에 속하는 《隋唐志傳》을 분석하였다. 《隋唐志傳》은 체제와 내용 모두에서 《資治通鑑》과 《資治通鑑綱目》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먼저 《隋唐志傳》의 回目을 살펴보면 《資治通鑑綱目》의 綱에서 그대로 가져오거나 혹은 표현의 일부만을 바꾸어 수용한 것이 많았다. 본문의 경우 《資治通鑑》을 주요 원천서사로 삼아 여기에 대화를 삽입하거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다시 썼다. 일부 회차는 통감류 사서 외에 원 잡극의 대본 등을 수용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잡극에는 없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들을 추가하여 역사서사의 모습에 가깝도록 고쳤다.

《隋唐志傳》은 《資治通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隋唐의 왕조 교체 과정과 그 이후 일어난 변란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서사화하고 있으나 그와 구별되는 분명한 차이점도 보인다. 《資治通鑑》 등 편년체 사서의 플롯은 서사구조로 만들어진다기보다 연호, 계절, 달, 일의 시간 표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발생 순서대로 나열하는 편년체 그 자체에 의해 만들어진다. 사건의 인과로서의 플롯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서사는 개별적인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資治通鑑》의 의미는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기록하지 않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비해 《隋唐志傳》은 《資治通鑑》에 기록된 사건의 기본적인 정보는 바꾸지 않은 채 시간 표지를 생략하고 '却說',

‘原來’, ‘早有’, ‘當日’, ‘當夜’, ‘後至’ 등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사건들을 서로 연관지어 계열화함으로써 이를 자연스레 인과관계가 있는 서사로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定型化된 서사는 역사적 사건에 손쉽게 논리적 질서를 부여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을 고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朝代를 기준으로 통감류 사서를 풀어서 다시 쓴 초기의 역사연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변이를 낳는다. Ⅳ장에서 분석한 《隋煬帝艷史》는 황제의 傳記인 本紀라는 역사서사의 고전적 형식을 차용하였으며 또한 폭군의 사치와 향락, 그리고 그 결과로서 왕조의 패망이라는 매우 전통적인 서사구조를 이어받았다. 그러나 《隋煬帝艷史》의 세부적인 내용과 서사화방식은 이전의 역사서사뿐만 아니라 초기 역사연의와도 큰 차이를 갖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隋煬帝艷史》가 수용한 원천서사에 있다. 《隋煬帝艷史》는 정통 역사서사에서는 간략하게 언급되거나 혹은 황제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 상징적으로만 다루어지는 궁 안의 사치와 향락을 서사의 전면에 내세우는데, 이 사건들은 대부분 정통 역사서사가 아닌 당송대의 문언필기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隋煬帝艷史》는 역사에 관한 기존의 문헌기록을 원천서사로 삼아 이를 장회체로 다시 썼다는 점에서는 《隋唐志傳》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隋唐志傳》이 정통 역사서사를 원천서사로 삼고 부분적으로 원 잡극 등을 수용하였던 것과 달리 《隋煬帝艷史》는 정통 역사서사를 서사를 지탱하는 큰 틀로만 사용하고 네 편의 문언필기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주의할 것은 《隋煬帝艷史》가 이 네 편의 문언필기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소재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를 원천서사로 삼아 전면적으로 다시 쓰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구성했다는 사실이다.

《隋煬帝艷史》의 구체적인 서사화방식 또한 역사서사, 그리고 《隋唐志傳》과 차이를 가진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양제의 사치와 향락을 자세히 묘사하여 보여줌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미학적인 감상 혹은 오락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또 서사의 중간에 유락을 즐기는 등장인물이 읊는 시를 삽입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그의 정서를 공유하도록 만들었다. 한편 《隋煬帝艷史》는 원천서사인 문언필기에 기록된 사건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고치지는 않았다. 다만 사건의 배치를 바꾸거나 문언을 백화로 고쳐 쓰면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 인물 간의 대

화나 심리묘사를 추가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원천서사가 가졌던 본래의 의미에 균열을 만들어내었으며,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고정적이며 교훈적인 해석이 일시적으로 멈춰지고 다양한 읽기의 가능성이 열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Ⅴ장에서 분석한《隋史遺文》은 발생 경로 상의 차이로 인해《隋唐志傳》,《隋煬帝艷史》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 역사연의이다. 먼저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隋史遺文》의 '原本'을 재구해보면, 그것은 아마도 隋唐 교체기 여러 영웅호걸들의 무용담을 다룬 공연 텍스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隋史遺文》이 왕조 교체기를 다루면서 개국군주가 아닌 그를 보좌하는 영웅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이와 같은 원천서사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袁于令은 이를 열독을 위한 텍스트로 다시 쓰면서 이전의 역사연의와 달리 원천서사를 적극적으로 변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隋史遺文》이 원천서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충하거나 사건의 배치를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서사의 개연성에 따라 역사서사에는 전혀 기록이 없는 허구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이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인물의 공적보다는 그것의 바탕이 되는 품성을 드러내고, 겉으로 드러난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그러한 일이 일어난 까닭을 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작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隋史遺文》은 허구적 사건들을 통해 실존한 역사적 인물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는 동시에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보다 근본적인 동기들을 서사화하였다. 이는《隋史遺文》의 서사로 하여금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가리키는 동시에 그것의 심층에 놓인 원리를 지향하게 함으로써 텍스트의 의미를 한층 풍부하게 만들었다. 한편 이와 같은 허구적인 사건에 대한 사실적이고도 생생한 묘사에는 隋唐시기가 아닌 텍스트가 쓰인 당시의 현실 세계가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되게 된다. 이에《隋史遺文》에서는 明末의 개인적이며 집단적인 경험이 서사 안으로 직접 들어오면서 과거로서의 역사와 살아있는 현재가 겹쳐지게 된다.

Ⅵ장에서 분석한《隋唐演義》는《隋史遺文》과《隋煬帝艷史》를 '原本'으로 하고 그 외 隋唐에 관한 다수의 문헌기록들을 모아서 편집하여 하나의 서사를 구성하였다. 앞서 분석한 세 편의 작품에서 알 수 있듯 역사연의에서 원천서사는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나《隋唐演義》는 이러한 역

사연의의 텍스트 구성 방식과 17세기 강남의 문인들 사이에서 多讀과 博學을 과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유행하던 편집적 글쓰기가 만나 탄생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隋唐演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사 스스로 자신의 시작과 끝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이다. 정통 역사서사를 주요한 원천서사로 삼은 역사연의들은 자신만의 서사구조를 따로 가질 필요가 없었으며, 대개 하나의 왕조의 시작과 패망 혹은 인물의 탄생과 죽음을 그 시작과 끝으로 삼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시간 순으로 서사화하였다. 그러나 서사의 목적이 원천서사에 의거한 역사지식의 전달에서 원천서사를 활용한 감상과 오락 그리고 역사에 대한 설명과 해석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역사연의는 점차 자신만의 서사구조를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隋唐演義》의 서사를 지탱하며 처음, 중간, 끝을 이어주는 再世因緣과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각종 후일담은 《隋唐演義》가 자신만의 서사구조를 만드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제 역사에 대한 작가의 해석을 바탕으로 서사 안에서 모든 사건의 시작과 끝, 보상과 징벌이 결산된다. 왕조의 연대기적 시간은 논리적 인과에 따른 완정한 플롯으로 대치되고, 역사연의의 공간은 역사적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한 이민족의 땅과 冥界까지 확장된다. 서술자는 서사 안에서 역사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작가는 자신의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허구적 사건을 운용하여 질서와 균형을 갖춘 총체적이고 완정한 세계를 만들어낸다.

역사서사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라고 폭넓게 정의할 때 隋唐시기를 다룬 역사서사는 실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정통 역사서사로는 《隋書》와 《舊唐書》, 《新唐書》의 紀傳體 正史, 그리고 宋代에 편찬된 編年體 史書인 《資治通鑑》과 《資治通鑑綱目》이 있다. 이 외에 《隋唐嘉話》, 《唐國史補》 등 當代에 이미 쓰이기 시작하여 후대까지 이어진 역사를 보충하는 다양한 문언필기들과 明代에 편찬된 수많은 私撰史書들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당 현종과 양귀비의 애정고사를 다룬 白居易의 古體詩 〈長恨歌〉, 흔히 傳奇小說로 분류되는 陳鴻의 〈長恨歌傳〉, 그리고 元代에 나온 〈天寶遺事諸宮調〉의 예에서 보이듯 隋唐시기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서사는 운문과 산문, 문헌과 공연을 아울러 다양한 양식을 통해 전한다.

그렇다면 역사서사의 한 종류로서 隋唐 계통 역사연의는 장회체라는 형식적 특징 외에 다른 역사서사와 구별되는 양식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앞서 이루어진 隋唐 계통 역사연의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존재를 전제하고 그것의 원래 내용과 의미를 확장하거나 풀이하는 서술 방식을 가리키던 '演義'는 南宋 이후로 점차 하나의 문체로 자리 잡히기 시작하였으며, 明 중엽에 이르러서는 역사에까지 확장되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존의 서사를 다시 쓰는 역사연의라는 양식이 등장하게 된다. 초기의 역사연의들은《資治通鑑》을 '演義'한 按鑑演義의 형태로 출현하였으며《隋唐志傳》또한 이에 속한다. 그러나《隋唐志傳》은《資治通鑑》의 체제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사건만을 선택한 후 시간 표지를 지우고는 계열화를 통해 사건을 인과관계로 서사화하였다. 결국《隋唐志傳》은《資治通鑑》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임의대로 고치거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지는 않은 채 서사화 방식을 바꾸어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隋煬帝艷史》와《隋史遺文》은 각각 隋 煬帝와 秦叔寶라는 역사적 인물의 일생을 서사화함으로써 隋와 唐의 교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전에도 正史의 本紀와 列傳, 그리고 志人과 筆記 등 인물에 초점을 맞춘 역사서사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인물의 행위를 통해 거시적인 시야에서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는 없던 역사연의의 실험으로 보인다.《隋書》와《舊唐書》,《新唐書》의 경우 인물의 행위를 대개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로서 기록하며, 비정통 역사서사의 경우 단편적인 일화들을 나열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집중할 뿐 일관된 의미의 맥락을 형성하지 않는다. 영웅을 주인공으로 하는 원잡극의 경우 인물의 성격과 행위의 과정은 부각되지만 한정된 장면 위주로 전개되는 양식적 특성상 역사적인 맥락보다는 공연의 현장감이 강조된다. 그러나《隋煬帝艷史》와《隋史遺文》은 인물의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의 주체인 인물의 본성과 성격에 주의를 기울이고 행위의 배경, 의도, 목적, 과정 등을 서사화하면서 이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였다.《隋煬帝艷史》에서 隋의 패망은 煬帝의 사치와 향락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가 되고《隋史遺文》의 주인공인 秦叔寶는 李淵, 宇文述, 李密 등의 역사적 인물들과 얽히면서 煬帝의 태자위 찬탈, 대운하 착공,

고구려 원정, 瓦崗寨 기의 등의 역사적 순간마다 등장하여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허구적 사건을 통해 보여준다.

역사연의인《隋煬帝艷史》와《隋史遺文》을 '原本'으로 삼은《隋唐演義》는 두 작품의 특징을 이어받는 데서 더 나아가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이른다.《隋唐演義》는 서술자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원천서사들 사이의 여백에 허구적 사건을 만들어 넣는 방식으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역사적 사건 이후의 후일담들, 주요 인물들의 再世因緣 등을 통해 과거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균형을 맞추어 직접 造化를 창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로써 역사는 이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상과 벌, 인과응보가 마무리된 완결된 세계가 되어 다른 역사서사를 참조하거나 서사의 외부에서 따로 비평을 덧붙일 필요가 없게 된다.

이처럼 隋唐 계통의 역사연의는 원천서사인 기존의 역사서사를 자세하고 쉽게 풀어서 쓰는 데에서 시작하였으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사를 완전히 새로 구성하여 역사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典型에 이르러서는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역으로 허구적인 사건을 만들어내 자기 완결적인 서사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원천서사인 역사서사, 특히 정통 역사서사의 흔적은 흐릿해진다. 또한 완결적인 서사구조는 더 이상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별도의 비평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정통 역사서사의 史贊 형식을 모방하여 본문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간략하게 논평하던《隋唐志傳》의 回末總評이《隋煬帝艷史》,《隋史遺文》을 지나《隋唐演義》에 이르면서 점차 서사의 전개를 보충하거나 서사기교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은 이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隋唐 계통의 역사연의에서 단계적으로 보이는 다양한 演義化의 양상이 역사연의의 보편적인 模式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계통의 역사연의 또한 유사한 과정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하에 지금까지 隋唐 계통 역사연의를 분석한 결과를 역사연의라는 양식 전반으로 확장시켜 논의해보고자 한다. 16세기 무렵에 이르러 역사연의라는 새로운 서사양식이 등장한 것은 남아있는 기록과 실제 판본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연의

가 발생하면서 그것의 서사규범 혹은 典型이 바로 형성된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실험과 모색을 거치면서 역사연의는 다양한 모습을 드러냈으며 일정 시기에 이르러 역사서사와 완전히 구별되는 자신만의 서사구조와 의미발생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演義'란 원본을 다시-쓰는 서술 방식과 그 결과 만들어진 텍스트 모두를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발생 초기의 역사연의들 또한 정통 역사서사, 그 가운데서도 특히 《資治通鑑》을 필두로 한 통감류 사서를 핵심적인 원천서사로 삼아 이를 장회체와 쉬운 文言 혹은 白話로 다시-쓰는 작업, 즉 재서사화를 통해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물론 전대의 講史와 平話도 역사연의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三國演義》의 경우 元代에 출간된 《三國志平話》의 내용을 많이 수용하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연대기 순으로 다루는 講史와 平話 자체도 통감류 사서를 기반으로 연행되고 출간되었다고 할 수 있다. 《三國演義》 또한 《三國志平話》에서 소재와 내용을 참고한 부분이 많기는 하나 체제, 서사구조 그리고 주제면에서는 朱熹의 《資治通鑑綱目》과 훨씬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三國演義》가 겉으로는 정통 역사서사를 참조하여 《三國志平話》를 역사적 사실에 가깝도록 수정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심층에서는 蜀을 정통으로 삼고서 三國 사이의 전투를 균형적으로 다룬 《資治通鑑綱目》을 다시-쓰는 演義化의 원리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296]

역사서사를 역사연의로 다시-쓰는 演義化 과정에서 초기 역사연의의 작가가 중점적으로 추구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역사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이었다. 이에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는 한편 한정된 사건만을 채택하여 시간 표지를 대폭 삭제하고 대신 플롯을 부여하여 읽는 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단계의 역사연의들이 책의 표제와 서문에서 언급한 '通俗'은 대개 표현의 평

296) 《三國志平話》의 경우 텍스트 상단의 揷圖를 기준으로 서사가 전개되며 각각의 서사는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고 분절되어 있다. 또 劉備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만을 서사화하고 이 또한 역사적 사실과 달리 대부분 유비의 승리로 그리고 있다. 전체 분량도 《三國演義》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정원기 譯註, 《삼국지평화》(청양, 2000) 참고. 필자는 《三國演義》가 《三國志平話》를 주요한 원천서사로 삼은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三國演義》의 편찬 의도와 과정을 《三國志平話》에 대한 수정과 보충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함과 단순화된 인과관계, 그리고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통용되는 이해를 의미하였으며, 서사에 작가 자신의 관점이나 해석이 개입될 여지는 적었다.

그러나 역사연의는 儒家經典, 諸子書 그리고 詩集에 대한 演義와는 점차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다른 유형의 연의들은 대상 원본이 단일하고 고정적이었던 것에 비해 역사연의의 원천서사는 유동적이었다는 사실에 있다. 역사연의는 정통 역사서사 외에도 원천서사로 삼을 수 있는 다양한 역사서사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의 역사연의가 여러 편의 원천서사를 수용할 수 있었다. 게다가 역사연의는 그 발생에서부터 시장에 민감한 문화상품이었기에 작가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수많은 비정통적인 역사서사들 뿐만 아니라 공연서사들까지 원천서사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또 다른 원인은 역사연의의 경우 사건의 배치를 바꾸거나 문언을 백화로 고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원천서사에 변형을 줄 수 있음은 물론, 중간에 새로운 내용들을 삽입함으로써 원천서사를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역사연의의 작가는 원천서사를 다양하게 재서사화하여 원래의 의미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원래의 의미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굴절시킬 수도 있었다.

물론 역사연의가 아무런 제한 없이 서사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역사적 사실과 대등한 권위를 가진 정통 역사서사의 경우 사건을 기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였으나 역사연의는 정통 역사서사에서 멀어질수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사실로 증명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역사연의가 택한 방식은 논증이 아닌 서사화를 통한 설득이었다. 역사연의에서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역사연의의 작가는 이러한 사건들이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도록 서사화하여 읽는 이가 납득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隋가 패망하고 唐이 천하를 차지한 역사적 사실을《隋唐志傳》은 수많은 전투의 결과로서 서사화하였다. 그러나《隋唐志傳》의 경우《資治通鑑》을 핵심적인 원천서사로 삼았기에 이 전투들을 계열화하여 인과관계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였다. 이에 반해 문언필기를 주요 원천서사로 삼은《隋煬帝艷史》는 읽는 이가 隋의 패망이라는 결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양제의 사치와 향락을 서사화하는 데에《隋唐志傳》보다 훨씬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隋煬帝艷史》는 핍진한 묘사를 통해 양제의 화려한 생활

을 보여주고 대화나 독백을 많이 보충하여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내는 등 여러 가지 서사적 방법들을 시도하였다. 더 나아가 《隋史遺文》의 경우 같은 내용을 국정의 중심인 황제가 아닌 秦叔寶라는 초야의 영웅을 통해 서사화하였기 때문에 개연성을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급기야 서사에 허구적인 사건을 만들어 넣기에 이른다. 서사의 초반부터 이어지는 秦叔寶, 宇文述, 李淵 사이의 인연은 역사서사에는 전혀 기록이 없는 허구적 사건이지만 읽는 이로 하여금 隋가 패망하고 唐이 천하를 통일한 과정을 어떠한 역사서사보다도 진실하게 수용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역사에 대한 작가의 해석이 역사연의의 서사구조를 만드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작가의 해석에 따라 서사의 개연성이 생겨나고 다시 그 개연성을 따라 허구적 사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종류의 서사에는 작가의 이해가 들어가 있다. 그러나 사실의 기록에 집중하는 正史는 서사의 외부에 '贊曰'을 따로 두어 편찬자의 견해를 드러내며 《資治通鑑》 또한 '臣光曰'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사실의 기록 못지않게 도덕적 명분을 중시한 《春秋》와 《資治通鑑綱目》의 경우 연호와 표현 등을 신중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포폄을 밝혔으나 마찬가지로 사건의 줄거리를 고치지는 않았다. 반면 이러한 역사서사들과 달리 역사연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작가의 해석을 오로지 서사를 통해서만 드러내며 이에 역사연의는 점차 역사서사와는 구별되는 서사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제 역사적 인물들은 자신의 성격과 신념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고 역사적 사건들은 기승전결을 따라 분명하게 시작되어 명확하게 끝을 맺으며 전체 서사는 내적 일관성을 갖추게 된다. 그리하여 《隋唐演義》와 같은 역사연의의 典型에 이르면 역사에 대한 서사이되 역사적 사실과는 별개인 완결된 세계가 출현하게 된다.

한편 역사연의의 서사구조를 통해 점차 드러나는 작가의 역사 이해를 들여다보면 역사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행위의 주체자로서 인물에 대한 강조이다. 사건을 위주로 기록하는 《資治通鑑》에서는 인물이 잘 부각되지 않으며 正史의 本紀와 列傳의 경우에도 대부분 出仕나 功績 등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기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297] 그러나 역사연의에서 인물들은 행위의 주체자로 등장한다. 《隋唐志傳》의

경우 전투에서 개인의 용맹과 지략이 강조되는 등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사건에서 인물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隋煬帝艷史》와 《隋史遺文》에서는 인물의 행위가 역사를 결정하며 그러한 행위는 다시 인물의 성격과 도덕성, 신념에 의해 결정된다. 《隋煬帝艷史》는 역사적 사실을 인물의 구체적 행위의 결과로서 서사화하며 《隋史遺文》에 이르면 인물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바탕이 되는 그의 품성까지 허구적 사건을 통해 서사화되어 역사적 사실을 보충한다.

《三國演義》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三國演義》가 이전의 수많은 三國 계통 역사서사와 구별되는 지점은 유비, 조조, 손권 등의 군주를 비롯하여 동탁, 여포, 관우, 장비, 조자룡, 제갈량, 주유 등등의 인물들을 형상화하는 데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사실이다. 이에 《三國演義》에서 三國의 분열과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이들 인물들의 신념과 고뇌, 야망과 분노, 용맹과 지혜로 인해 결정된다. 역사연의는 역사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전투에서 누가 이겼는지를 기록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누가 신묘한 전략을 짜고 누가 용맹하게 기선을 제압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사화함으로써 읽는 이가 역사적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한다. 《三國演義》가 역사적 사실을 고쳐서 서술한 부분들 또한 대부분 인물의 성격과 행위를 강조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역사를 더욱 납득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298] 이 시기 역사연의들이 이처럼 역사에서 행위의 주체로서 인물의 역할을 강조하고 인물의 형상화에 정성을 기울인 것은 당시의 사회구조와 사상의 변화 혹은 역사연의의 작가층인 문인의 자기 반영 내지는 자기 반성 등 여러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서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양식적 속성을 가진 역사연의가 역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인을 인물에서 찾기 시작하였으며 역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서사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계열의 역사연의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演義化 양상을 단계별로 거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과정을 축약하여 단번에 전형적인 형태

297) 이 글의 正史에 대한 모든 논의에서 《史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史記》가 正史의 편찬규범이 형성되기 이전에 나왔으며 편찬자인 司馬遷 또한 국가의 제도 아래에 있던 史官이 아니었고 편찬과정도 실제로는 私撰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다.

298) 대표적인 예로 三顧草廬와 赤壁大戰을 들 수 있다.

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 중간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멈추었을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역사연의 텍스트에 여러 단계의 모습이 겹쳐져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模式을 통해 역사연의가 변화하는 방향과 규칙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즉 經典的 권위를 가진 텍스트를 풀어서 다시 쓰는 '演義'의 양식적 속성을 이어받은 초기의 역사연의는 역사적 사실과 동일시되었던 정통 역서서사를 원천서사로 삼아 이를 읽는 이가 수용하기 쉽도록 다시 썼으나 역사연의만의 서사구조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점차 역사에 대한 이해가 서사 안으로 들어오면서 역사연의는 개연성을 따라 사건의 배치를 바꾸고 허구적 사건을 삽입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만의 서사구조를 만들어나갔으며 결국 역사서사와 구별되는 역사연의만의 자기 완결적인 서사구조를 탄생시켰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역사에 대한 해석을 넘어서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고쳐 造化를 회복하는 데에까지 나아가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演義化의 양상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서사적 실험들은 이후 장편 백화소설에서 폭넓게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통해 역사연의의 양식적 속성을 통속성과 허구성으로 정리하는 소설사의 일반적인 견해에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과 보충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역사연의의 통속성과 허구성은 역사연의가 처음부터 의도한 목적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서사의 변화로 인해 밖으로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실제 독자층의 변화와 이들을 위한 편찬 목적의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역사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역사연의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서적의 가격은 일반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으며 여러 권으로 이루어진 역사연의의 경우 더욱 그러하였으리라 여겨진다. 역사연의는 소재와 주제 등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든 서적의 장정과 삽화, 가격 등의 외형적인 측면에서 보든 실제로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문학이라기보다는 문인들의 일종의 비주류 문학 혹은 하위 문학에 가까우며, 이것이 널리 보급되면서 일반 서민들도 부분적으로 향유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연의의 허구성 또한 역사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확장되면서 가져온 결과로 사실의 대립항이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부연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역사연의에서 허구적 사건을 불러온 개연성이란 결국 실존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며 허구적 사건은 이러한 현실 이면의 힘들을 추적하고 상상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현실 세계를 회의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물론 허구적 사건의 서사화는 역사연의만의 차별적인 서사구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의미심장한 변화를 가져왔으리라 추측된다. 《隋史遺文》의 서문을 비롯하여 이 시기 여러 문장에서 보이는 허구에 대한 논의들과 《三國演義》를 '七實三虛'라고 한 章學誠의 언급은[299] 역사연의 혹은 허구성에 대한 평가들과는 별개로 당시의 문인 독자들이 역사연의의 허구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는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균열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제 《資治通鑑》을 읽을 때와 《隋唐演義》를 읽을 때의 문인 독자는 각기 다른 해석 과정을 거치게 되었을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 주장하는 것은 당시 허구에 대한 인식론적인 전환이 서사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허구적 사건들을 불러왔으며, 허구가 현실의 존재론적 모순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창작되기 위해서는 《紅樓夢》의 등장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글은 隋唐 계통 역사연의의 텍스트 분석에서 시작하여 역사연의 일반에 대한 논의로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역량으로 인해 모든 텍스트를 다루지는 못하였다. 특히 隋唐 계열 역사연의 가운데 明末 공연전통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大唐秦王詞話》와 18세기에 출간된 《說唐全傳》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계통의 역사연의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때 이 글에서 논한 역사연의 일반론이 더욱 완정해질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

299) "다만 《三國演義》는 7할이 사실이고 3할이 허구여서 보는 이들이 종종 미혹되는 바가 된다.(惟《三國演義》則七分實事, 三分虛構, 以致觀者往往爲所惑亂.)" 章學誠, 《乙卯劄記·丙辰劄記·知非劄記》(中華書局, 1986), 90쪽.

참고문헌

1. 일차자료

羅貫中, 《隋唐兩朝史傳》, 《古本小說集成》, v.601-v.603,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4.

羅貫中, 《隋唐兩朝史傳》, 北京 : 群衆出版社, 1997.

熊大木, 《唐書志傳通俗演義》, 《古本小說叢刊》, 第四輯, 北京 : 中華書局, 1990.

熊大木, 《唐書志傳題評》, 《古本小說叢刊》, 第二八輯, 北京 : 中華書局, 1991.

齊東野人, 《隋煬帝艷史》, 《古本小說集成》, v.572-v.574,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4.

齊東野人, 《隋煬帝艷史》, 北京 : 中國戲劇出版社, 2000.

袁于令, 《隋史遺文》, 《古本小說集成》, v.561-v.563,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4.

袁于令, 《隋史遺文》, 北京 : 人民文學出版社, 2006(2판1쇄).

褚人獲, 《隋唐演義》, 《古本小說集成》, v.619-v.623,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4.

褚人獲, 《隋唐演義》, 杭州 : 浙江古籍出版社, 2011.

褚人獲 著, 김월성 譯, 《수당연의 1-5》, 서울 : 강천, 1996.

《史記》, 《二十四史全釋》, 北京 : 漢語大詞典出版社, 2003.

《漢書》, 《二十四史全釋》, 北京 : 漢語大詞典出版社, 2003.

《晉書》, 《二十四史全釋》, 北京 : 漢語大詞典出版社, 2003.

《隋書》, 《二十四史全釋》, 北京 : 漢語大詞典出版社, 2003.

《舊唐書》, 《二十四史全釋》, 北京 : 漢語大詞典出版社, 2003.

《新唐書》, 《二十四史全釋》, 北京 : 漢語大詞典出版社, 2003.

《古本戲曲叢刊》, 北京 : 国家图书馆出版社, 1958.

《孟子注疏》, 北京 : 北京大學出版社, 2000.

《周易正義》, 北京 : 北京大學出版社, 2000.

공상임 著, 이정재 譯, 《도화선》, 서울 : 을유문화사, 2008.

司馬光, 《資治通鑑》, 北京 : 中華書局, 2007.

笑笑生, 《金瓶梅》, 臺北 : 里仁書局, 2007.

楊愼,《楊愼詞曲集》, 成都 : 四川人民出版社, 1984.
李昉 等編,《太平廣記》, 北京 : 中華書局, 1961(1986 printing).
李玉,《李玉戲曲集·麒麟閣》,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2004.
章學誠,《乙卯劄記·丙辰劄記·知非劄記》, 北京 : 中華書局, 1986.
丁錫根 編著,《中國歷代小說序跋集》, 北京 : 人民文學出版社, 1996.
정원기 譯註,《삼국지평화》, 서울 : 청양, 2000.
朱熹,《資治通鑑綱目》,《朱子全書》,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 合肥 : 安徽教育出版社, 2002.
羅貫中,《三國演義》明嘉靖元年刻本, (中國基本古籍庫 [electronic resource])
陶宗儀,《說郛》(中國基本古籍庫 [electronic resource])
劉斧,《青瑣高議》(中國基本古籍庫 [electronic resource])
李肇,《唐國史補》(中國基本古籍庫 [electronic resource])

2. 단행본

고지마 쓰요시 著, 신현승 譯,《사대부의 시대 : 주자학과 양명학 새롭게 읽기》, 서울 : 동아시아, 2004.
김기현,《대학 : 진보의 동아시아적 의미》, 서울 : 사계절, 2002.
김문경,《삼국지의 영광》, 서울 : 사계절, 2002.
김병길,《역사소설, 자미에 빠지다 : 새로 쓰는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계보학》, 서울 : 삼인, 2011.
_____,《역사문학, 속과 통하다 : 한국 근현대 역사문학의 갈래와 전개 양상》, 서울 : 삼인, 2013.
김영구·이창숙·김우석·이정재,《중국공연예술》,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9.
김월회 外,《문명장치로서의 이야기 : 이야기의 형성하는 힘 그리고 중국》, 서울 : 소명, 2018.
김진곤 편역,《이야기 小說 Novel》, 서울 : 예문서원, 2001.
나인호,《개념사란 무엇인가 :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서울 : 역사비평사, 2011.

나카스나 아키노리 著, 강길중, 김지영, 장원철 譯,《우아함의 탄생 : 중국 강남 문화사》, 서울: 민음사, 2009.

누노메 조후·구리하라 마쓰오 著, 임대희 譯,《중국의 역사 : 수당오대》, 서울 : 혜안, 2001.

David Rolston 著, 조관희 譯,《중국 고대소설과 소설 평점 : 행간 읽기와 쓰기》, 서울 : 소명, 2009.

레이 황 著, 김한식 외 譯,《만력 15년 아무일도 없었던 해》, 서울 : 새물결, 2004.

로버트 숄즈·로버트 켈로그·제임스 펠란 著, 임병권 譯,《서사문학의 본질》, 서울 : 예림기획, 2007.

로이드 E. 이스트만 著, 이승휘 譯,《중국 사회의 지속과 변화 : 중국 사회경제사 1550～1949》, 서울 : 돌베개, 1999.

루샤오펑 著, 조미원·박계화·손수영 譯,《역사에서 허구로 : 중국의 서사학》, 강릉 : 길, 2001.

루쉰 著, 조관희 譯,《中國小說史》, 서울 : 소명, 2004.

미야자키 이치사다 著, 차혜원 譯,《중국사의 大家, 수호전을 歷史로 읽다》, 서울 : 푸른역사, 2006.

_____, 전혜선 譯,《수양제 : 전쟁과 대운하에 미친 중국 최악의 폭군》, 서울 : 역사비평사, 2015.

미조구찌 유조 著, 동국대동양사연구실 譯,《중국의 예치 시스템》, 수원 : 청계, 2001.

미케 발 著, 한용환·강덕화 譯,《서사란 무엇인가》, 서울 : 문예출판사,1999.

민두기 編,《중국의 역사인식 상·하》,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93.

박재연,《중국 고소설과 문헌학》, 서울 : 역락, 2012.

박주식,《탈모더니즘 시대의 인문학》,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3.

方正耀 著, 홍상훈 譯,《중국소설비평사략》, 서울 : 을유문화사, 1994.

벤저민 엘먼 著, 양휘웅 譯,《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서울 : 예문서원, 2004.

브라이언 보이드 著, 남경태 譯,《이야기의 기원 : 인간은 왜 스토리텔링에 탐닉하는가》, 서울 : 휴머니스트, 2013.

서경호,《중국소설사》,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_____,《중국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서울 : 문학과지성사, 2004.

오오키 야스시 著, 노경희 譯,《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서울 : 소명, 2007.

_____, 고인덕 譯,《중국 명말의 미디어 혁명 : 서민이 책을 읽다》,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우런수 著, 김의정 外 譯,《사치의 제국 : 명말 사대부의 사치와 유행의 문화사》, 파주 : 글항아리, 2019

윌리엄 T. 로 著, 기세찬 譯,《(하버드 중국사 청) 중국 최후의 제국》, 서울 : 너머북스, 2014.

월터 J. 옹 著, 이기우·임명진 譯,《구술문화와 문자문화 : 언어를 다루는 기술》, 서울 : 文藝出版社, 1995.

유엽추 著, 김장환 譯,《중국역대필기》, 서울 : 신서원, 2007.

劉節 著, 신태갑 譯,《중국사학사 강의》, 서울 : 신서원, 2000.

이나미 리츠코 著, 김석희 譯,《삼국지 깊이 읽기》, 서울 : 작가정신, 2007.

이은상,《장강의 르네상스 : 16·17세기 중국 장강 이남의 예술과 문화》, 서울 : 민속원, 2009.

임성래,《완판 영웅소설의 대중성》, 서울 : 소명, 2007.

錢穆 著, 이윤화 譯,《사학명저강의》, 서울 : 신서원, 2006.

程毅中 著, 고숙희·이현서·정유선 譯,《송원화본》, 서울 : 學古房, 2012.

조관희 역주,《중국 고대소설 독법》, 서울 : 보고사, 2012.

조너선 갓셜 著, 노승영 譯,《스토리텔링 애니멀》, 서울 : 민음사, 2014.

조너선 D. 스펜스 著, 이준갑 譯,《룽산으로의 귀환 : 장다이가 들려주는 명말청초 이야기》, 서울 : 이산, 2010.

조현우,《고전서사의 허구성과 유가적 사유》, 서울 : 보고사, 2007.

존 헨더슨 著, 문중양 譯,《중국의 우주론과 청대의 과학혁명》, 서울 : 소명출판, 2004.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 著, 김정아 譯,《역사 : 끝에서 두번째 세계》, 파주 : 문학동네, 2012.

채트먼 著, 한용환 譯,《이야기와 담론》, 서울 : 푸른사상, 2003.

최형섭,《개인의식의 성장과 중국소설 : 四大奇書부터 紅樓夢까지》,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타카시마 토시오, 우메하라 카오루, 테라다 타카노부 共著, 김정희 譯,《마지막 황제》, 서울 : 솔, 2002.

티모시 브룩 著, 이정·강인황 譯,《쾌락의 혼돈 : 중국 명대의 상업과 문화》, 서울 :

이산, 2005.

티모시 브룩 著, 조영헌 譯,《(하버드 중국사 원·명) 곤경에 빠진 제국》, 서울 : 너머북스, 2014.

패트릭 오닐 著, 이호 譯,《담화의 허구 : 서사 이론 읽기》, 서울 : 예림기획, 2004.

패트릭 하난 著, 김진곤 譯,《중국백화소설》, 서울 : 차이나하우스, 2007.

폴 리쾨르 著, 김윤성·조현범 譯,《해석 이론》, 서울 : 서광사, 1998.

_____, 김한식·이경래 譯,《시간과 이야기 1 : 줄거리와 역사 이야기》,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99.

_____, 김한식·이경래 譯,《시간과 이야기 2 : 허구 이야기에서의 형상화》, 서울 : 문학과지성사, 2000.

_____, 김한식 譯,《시간과 이야기 3 : 이야기된 시간》, 서울 : 문학과지성사, 2004.

폴 벤느 著, 김운비 譯,《그리스인들은 신화를 믿었는가? : 구성적 상상력에 대한 논고》, 서울 : 이학사, 2002.

폴 A. 코헨 著, 이남희 譯,《학문의 제국주의 : 오리엔탈리즘과 중국사》, 서울 : 산해, 2003.

프랑수아 줄리앙 著, 박희영 譯,《사물의 성향 : 중국인의 사유 방식》, 파주 : 한울, 2009.

홍상훈,《전통 시기 중국의 서사론》, 서울 : 소명, 2004.

H. 포터 애벗 著, 우찬제 외 譯,《서사학 강의 :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서울 : 문학과지성사, 2010.

喬治忠,《中國官方史學與私家史學》, 北京 : 北京圖書館出版社, 2008.

邱江宁,《清初才子佳人小说叙事模式研究》, 上海 : 上海三联書店, 2005.

紀德君,《明清歷史演義小說藝術論》, 北京 : 北京師大出版社 , 2000.

_____,《中國歷史小說的藝術流變》, 北京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2.

鄧宏順·周文業,《三國志演義文史對照本》, 河南 :中州古籍出版社, 2013.

北京大學中文系 編,《中國小說史》, 北京 : 人民大學出版社, 1978.

石昌渝,《中國小說源流論》, 北京 : 三聯書店, 1994.

孫楷第,《日本東京所見小說書目》, 北京 : 人民文學出版社, 1958.

_____,《中國通俗小說書目》, 北京 : 人民文學出版社, 1982.

_____,《戲曲小說書錄解題》, 北京 : 人民文學出版社, 1990.

倪鍾之,《中國曲藝史》, 瀋陽 : 春風文藝出版社, 1991.

王淸原, 牟仁隆, 韓錫鐸 編纂,《小說書坊錄》, 北京 : 北京圖書館, 2002.

李忠明,《17世紀中國通俗小說編年史》, 合肥 : 安徽大學出版社, 2003.

張俊,《淸代小說史》, 杭州 : 浙江古籍出版社, 1997.

齊裕焜,《中國古代小說演變史》, 蘭州 : 敦煌文藝出版社, 1991.

_____,《明代小說史》, 杭州 : 浙江古籍出版社, 1997.

_____,《中國歷史小說通史》, 南京 : 江蘇敎育出版社, 2000.

_____,《隋唐演義系列小說》, 瀋陽 : 遼寧敎育出版社, 2000.

陳大康,《明代小說史》, 上海 : 上海文藝出版社, 2000.

黃鎭偉,《坊刻本》, 南京 : 江蘇古籍出版社, 2002.

Andrew H. Plaks ed., *Chinese narrative : critical and theoretical essays*,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c1977.

Cynthia J. Brokaw and Kai-wing Chow ed., *Printing and book culture in late Imperial China*,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2005.

Lucille Chia, *Printing for profit : the commercial publishers of Jianyang, Fujian(11th-17th centuries)*,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Robert E. Hegel, *The novel in seventh century China*,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_____, *Reading Illustrated Fiction in Late Imperial China*, California : Stanford Univ. Press, 1998.

Shelley Hsueh-lun Chang, *History and legend : ideas and images in the Ming historical novels*,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c1989.

3. 학위논문

김도경, 《元 雜劇의 文學的 定着에 대한 硏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우석,《諸宮調 硏究 : 연행예술적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김진곤,《宋元 平話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민경욱,《《三國演義》體制 硏究 : 틀의 형성과 그 틀의 해석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신주리,《16-17세기 江南의 周邊部 文人 硏究 : 陳繼儒와 李漁의 상업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신지영,《元雜劇 水滸戱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양중석,《《漢書》의《史記》變容 樣相을 通해 본 史官의 글쓰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이소영,《전통시기 中國의 書面語와 글쓰기의 상관성 연구 : 白話의 발생과 小說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이정재,《鼓詞系 講唱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정지현,《兩漢書의 神異 敍事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최수경,《淸代 才子佳人小說의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金正恩,《明代歷史演義小說在韓國的傳播硏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4.

徐燕,《隋唐故事考論》, 揚州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宋眞英,《明淸世情小說的敍事特徵硏究》, 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1996.

楊華慧,《熊大木《大宋中興通俗演義》硏究》, 福建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王琦,《袁于令硏究》,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王亞婷,《隋煬帝艷史 硏究》, 廣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劉莉,《隋煬帝故事的文本演變與文化內涵》,南開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尹賢淑,《李玉時事劇硏究》, 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1996.

李正心,《隋煬帝艷史 硏究》, 福建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張平仁,《明末淸初時事小說硏究》, 南京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2.

左桂秋,《明代通鑑學硏究》, 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Robert Hegel, *SUI T'ANG YEN-I : The Sources and Narrative Techniques of a Traditional Chinese Novel*, Columbia University Ph.D. diss. 1973.

4. 연구논문

강계철,〈元雜劇 三國戱 硏究 綜述〉,《중국학연구》, Vol. 12, 1997.

강상순, 〈필기와 전기의 거리〉, 《고전과 해석》, Vol.22, 2017.

공임순, 〈역사소설의 개념과 장르적 유형론〉, 《대중서사연구》, Vol.7(1), 2002.

김남일, 〈주자의 《자치통감강목》의 凡例와 화서학파의 《송원화동사합편강목》의 書法 비교〉, 《한국사학사학보》, Vol.22, 2010.

_____, 〈조선 초기 관찬 역사서에 있어서 《자치통감강목》 書法의 영향〉, 《한국사학사학보》, Vol.29, 2014.

김병길, 〈역사, 역사소설, 역사소설론에 대한 네거티브〉, 《현대문학의 연구》, Vol.24, 2004.

김수현, 〈명청 서적 삽화 연구의 의미와 과제〉, 《中國語文論叢》, Vol.64, 2015.

김정은, 〈《수당연의》 계열 구활자본 고소설 연구〉, 《어문론집》, Vol.55, 2013.

김진곤, 〈中國 民間 古典文學의 記錄 傳統과 公演 傳統 －水滸 이야기의 생성·전래·정착·공연화 과정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Vol. 9, 1999.

_____, 〈역사 인식의 변환과 역사소설의 창작〉, 《중국소설논총》, Vol.28, 2008.

김태환, 〈누구에게 소설의 속편을 쓸 권리가 있는가? －허구세계에 관한 연구〉, 《獨逸文學》, Vol.145, 2018.

_____, 〈서사적 과거와 화자의 이론〉, 《인문논총》, Vol.75, 2018.

로버트 헤겔 著, 조관희·홍상훈 譯, 〈명청 시기 소설의 틈새시장〉, 《중국소설연구회보》, Vol.74, 2008.

루실 쟈 著, 이지원·조관희·김효민 譯, 〈싼산제(三山街) : 명대 난징의 상업 출판업자〉, 《중국소설연구회보》, Vol.70, 2008.

류은영,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 문학에서 문화콘텐츠로〉, 《인문콘텐츠》, Vol.14, 2009.

민관동, 〈西漢演義 硏究 －국내 유입과 번역 및 출판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Vol.15, 2002.

박경남, 〈《列國志》의 조선 수용과 역사적 진실의 문제〉, 《한국한문학연구》, Vol.69, 2018.

박계화, 〈明末 餘象鬥의 상업 출판 : 법률관계 서적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Vol.42, 2014.

박소현, 〈텍스트의 생산과 인쇄, 그리고 독서 관습의 관계에 관하여-包公 이야기를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Vol.21, 2005.

_____, 〈그들이 범죄소설을 읽은 까닭은? : 공안소설과 명청시기 중국의 법률문

화〉,《중국소설논총》, Vol.31, 2010.

_____, 〈진실의 수사학 ―《欽欽新書》와 公案小說의 관계를 중심으로〉,《중국문학》, Vol.69, 2011. 계화, 〈明末 福建 建陽지역의 公案小說集 출판과 법률문화〉,《중국소설논총》, Vol.42, 2014.

서성, 〈《수양제염사》에 나타난 삽시(揷詩)의 표현 효과〉, 《인문과학연구논총》, Vol.39, 2018.

신상필, 〈필기 양식의 기록성과 그 미의식의 전개 양상〉,《동방한문학》, Vol.49, 2011.

안병직, 〈픽션으로서의 역사 : 헤이든 화이트의 역사론〉,《인문논총》, Vol.51, 2004.

안숭범, 〈이야기공학으로서 스토리텔링학의 체계화를 위한 고찰〉,《대중서사연구》, Vol. 28, 2012.

안예선, 〈宋代 문인의 野史 편찬 배경 고찰〉,《중국어문논총》, Vol.46, 2010.

_____, 〈《資治通鑑考異》를 통해 본 '歷史'의 경계 ―〈唐紀〉를 중심으로〉,《중국어문논총》, Vol.85, 2018.

앤 매클라렌 著, 이지원·조관희·김효민 譯, 〈명말 새로운 독자층의 형성〉,《중국소설연구회보》, Vol.73, 2008.

양승민, 〈《遼海丹忠錄》을 통해 본 명청교체기의 중국과 조선〉, 《고전과 해석》, Vol.2, 2007.

양중석, 〈사마천이 서술한 여태후 이야기 ―《한서·고후기》와의 비교를 통한《사기·여태후본기》읽기〉,《중국문학》, Vol.76, 2013.

오항녕, 〈성리학적 역사관의 성립 : 초월에서 현실로〉,《조선시대사학보》, Vol.9, 1999.

_____, 〈성리학 역사서의 형성과 구조〉,《한국실학연구》, Vol.6, 2003.

유강하, 〈틈새를 메우는 문학적 상상력 '리텔링' - '王昭君 故事'의 리텔링을 例로〉,《중국어문학논집》,《중국어문학연구회》, 63호, 2010.

이성규, 〈《史記》 역사서술의 특성〉,《외국문학》, Vol.3, 1984.

_____, 〈司馬遷 시간관념과《史記》의 서술〉,《동방학지》, Vol.70, 1991.

이시찬, 〈北宋 小說集《靑瑣高議》小考〉,《중국소설논총》, 제35집, 2011.

_____, 〈역사와 소설의 경계에 대한 고찰 ―《荊軻傳》과《燕丹子》를 중심으로〉,《중국문학연구》, Vol.53, 2013.

이은상, 〈명말 강남 문인들의 물질문화 담론에 관한 試論〉,《중국학》, Vol.36,

2010.

이은영, 〈《封神演義》의 成書過程에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작품 《列國志傳》〉, 《中國小說論叢》, Vol.26, 2007.

이정재, 〈彈詞認識의 問題點과 彈詞槪念의 再定立〉, 《중국문학》, Vol.57, 2008.

이주노, 〈서사매체의 차이에 따른 梁祝故事의 변용 양상 연구 －文人의 筆記類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Vol.74, 2013.

이지원, 〈《隋史遺文》을 통해 본 袁于令의 서사론〉, 《중국문학》, Vol.96, 2018.

이창숙, 〈명청(明淸) 소설 희곡 담론의 현실과 허구에 대한 인식〉, 《중국학보》, Vol.54, 2006.

임이랑, 〈중국 마조(媽祖) 신화의 서사적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Vol.49, 2018.

전진성, 〈시간의 형상화 : 역사서술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이론적 접근〉, 《역사교육》, Vol.93, 2005.

정구복, 〈朝鮮前期의 歷史敍述〉, 《창작과비평》, Vol.41, 1976.

정민경, 〈필기소설의 개념에 대한 소고〉, 《중국어문학지》, Vol.14, 2003.

정일남, 〈〈虯髯客傳〉에 대한 中韓 학자들의 이해 －작품의 저자와 규염객의 원형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Vol.71, 2017.

정지현, 〈《漢書評林》 眉注 初探〉, 《중국문학》, Vol.97, 2018.

조관희, 〈중국소설의 본질과 중국소설사의 유형론적 기술에 대하여〉, 《중국어문학논집》, Vol.9, 1997.

_____, 〈새로운 중국소설사 기술을 위한 이론적 탐색〉, 《중국어문학논집》, Vol.15, 2000.

_____, 〈이야기와 역사〉, 《중국소설논총》, Vol.20, 2004.

조현우, 〈"초기소설사"에서의 역사와 허구의 관련 양상〉, 《고소설연구》, Vol.24, 2007.

진경환, 〈영웅소설의 통속성 재론 : 《유충열전》을 중심으로 한 시론〉, 《민족문학사연구》, Vol.3, 1993.

차충환, 〈조선시대 중국소설의 수용과 비평에 관한 연구〉, 《인문학연구》, Vol.38, 2018.

천대진, 〈《大宋宣和遺事》의 체제와 내용 연구〉, 《동아인문학》, Vol.43, 2018.

최성철, 〈역사에서의 시간 : 코젤렉과 리쾨르의 시간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제32권, 2015.

최수경, 〈明代 後期 상업출판물 속의 '物' : '爭奇' 시리즈를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Vol.60, 2015.

최형섭, 〈출판문화의 보급과 지식의 성격 그리고 17세기 時事 小說〉, 《중국문학》, Vol.59, 2009.

_____, 〈출판문화의 보급과 텍스트, 저자, 독자, 그리고 독서 관습〉, 《중국소설논총》, Vol.29, 2009.

홍상훈, 〈전통시기 강남지역에서 독서시장의 형성과 변천 : 소설 작품의 생산과 유통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Vol.41, 2004.

_____, 〈《삼국연의》의 정통성에 관한 고찰〉, 《중국문학》, Vol.47, 2006.

_____, 〈고대 중국에서 서사 구조 변천의 특성〉, 《중국문학》, Vol.61, 2009.

_____, 〈《紅樓夢》과 明·淸 章回小說의 전통 : 최근 중국의 연구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겸하여〉, 《중국문학》, Vol.78, 2014.

郭鵬, 〈歷史演義小說情節"移植"的文化土壤〉, 《集寧師範學院學報》, 第1期, 2017.

郭紹林, 〈舊題唐代無名氏小說《海山記》著作朝代及相關問題辨正〉, 《洛陽師專學報》, 第1期, 1998.

喬治忠, 〈明代史學發展的普及性潮流〉, 《中國社會歷史評論》, 第四卷, 商務印書館, 2002.

歐陽健, 〈《隋唐演義》"綴集成帙"考〉, 《文獻》, 第2期, 1988.

_____, 〈統一王朝的全史演義 ―論《隋唐兩朝志傳》成書及文體創新〉, 《福州大學學報》, 第1期, 2004.

紀德君·洪哲雄, 〈試論《資治通鑑》、《資治通鑑綱目》與按鑑演義小說之關系〉,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第2期, 1999.

紀德君, 〈"通鑑"類史書 : 中國講史小說之前源〉, 《社會科學》, 第8期, 2003.

_____, 〈明代"通鑑"類史書之普及與通俗歷史教育之風行〉, 《中國文化研究》, 春之卷, 2004.

_____, 〈明淸歷史演義小說的編創方式及其演變〉, 《社會科學》, 第7期, 2008.

羅炳良, 〈論中國古代史書體裁之辯證發展〉, 《史學月刊》, 第5期, 1997.

羅書華, 〈講史的文體形式及其在章回小說生成史上的重要作用〉, 《南京師大學報》, 第1期, 2008.

羅陳霞, 〈《唐書志傳》《兩朝志傳》的史傳傾向分析〉, 《鹽城師專學報》, 第一期, 1998.

_____, 〈《隋史遺文》對傳奇化英雄的凸現〉, 《明淸小說研究》, 第4期, 1998.

_____，〈奇趣雅韻 ―論《隋唐演義》走向世俗化〉，《固原師專學報》，第5期，1999.

雷勇，〈失意文人的亡國記憶 ―關於《隋唐演義》思想傾向的思考〉，《明清小說研究》，第1期，2009.

____，〈《隋唐志傳》的文體探索及其小說史意義〉，《陝西理工學院學報》，第1期，2009.

____，〈《隋唐演義》與《隋史遺文》的關系考論〉，《廣東技術師範學院學報》，第4期，2010.

____，〈《隋唐演義》素材來源再探〉，《內江師範學院學報》，第7期，2010.

____，〈《隋史遺文》與小說家文體意識的自覺〉，《明清小說研究》，第4期，2011.

____，〈《隋唐演義》：文人化的歷史敘事〉，《南開學報》，第1期，2016.

____，〈《隋唐演義》對《隋煬帝艷史》的襲用、整合與超越〉，《文學與文化》，第3期，2017.

____，〈近三十年《隋唐演義》研究的回顧與展望〉，《陝西理工大學學報》，第4期，2017.

單文峰，〈生活化的英雄 ―論《隋唐演義》中的英雄形象〉，《和田師範專科學校學報》，第57期，2009.

譚帆，〈"演義"考〉，《文學遺產》，第二期，2002.

黨巍，〈《隋唐演義》成書探源〉，《大衆文藝》，第17期，2013.

戴健·李昌集，〈明下葉吳越刊刻中心與通俗小說〉，《明清小說研究》，第2期，2003.

塗秀虹，〈明代"按鑑"演義與建陽刻書背景〉，《中國典籍與文化》，第4期，2009.

_____，〈"按鑑"：明代歷史演義的編撰方式及其意義〉，《福建師範大學學報》，第1期，2011.

_____，〈《精忠錄》：岳飛故事流傳過程中一部重要的資料選編〉，《文獻》，第3期，2014.

杜長朋，〈《隋唐演義》中的英雄形象〉，《語文學刊》，第11期，2009.

馬孟晶(臺)，〈《隋煬帝艷史》的圖飾評點與晚明出版文化〉，《全球化下明史研究之新視野論文集》，第2冊，2011.

文革紅，〈《四雪草堂重訂通俗隋唐演義》版本考辨〉，《明清小說研究》，第2期，2008.

龐金殿，〈明清歷史演義小說的創作特點〉，《長春大學學報》，第1期，2008.

方盛漢，〈古代戲曲"關目"發展及其演變〉，《文化遺產》，第1期，2018.

傅劍平，〈褚人獲四雪草堂《隋唐演義》初刻本疑年考辨〉，《華南師範大學學報》，第2期，2008.

付洪偉，〈略論《隋煬帝艷史》對《紅樓夢》創作的影響〉，《廣州廣播電視大學學報》，第5期，2014.

徐燕，〈《隋史遺文》《麒麟閣》《說唐全傳》淵源新論　－以小說戲曲文化生態共生爲視角〉，《安徽大學學報》，第6期，2013.

石雷，〈史爲我用 ： 論《隋史遺文》創作主旨及與時代之關系〉，《南京師大學報》，第4期，2011.

____，〈《隋史遺文》： 明清之際隋唐講史題材的新變〉，《中山大學學報》，第1期，2015.

蘇丹霞，〈建陽書坊歷史演義小說刊刻盛衰研究〉，《黑河學刊》，第6期，2018.

蘇燾，〈論《隋唐志傳》的創作結構及對明後期歷史類小說的影響〉，《文獻季刊》，第3期，2009.

蘇宇鵬，〈以史爲鑑 面向未來 －讀《隋唐演義》有感〉，《啟迪與智慧》，第6期，2014.

孫欣洋，〈論《隋唐演義》中志怪情節的藝術功能〉，《九江學院學報》，第3期，2018.

楊龍，〈論《隋煬帝艷史》在隋唐小說演變中的價值〉，《忻州師範學院學報》，第6期，2008.

楊滿仁，〈從歷史的敘事到文學的敘事 －兼論歷史小說的創作規律〉，《淮陰師範學院學報》，第4期，2007.

楊緒容，〈事·文·義 ： 從歷史到演義〉，《貴陽學院學報》，第1期，2013.

梁亞茹，〈試論《隋唐演義》對歷史演義小說創作的創新〉，《中國環境管理幹部學院學報》，第2期，2008.

倪愛珍，〈史傳與中國文學敘事傳統 －作爲紀實型敘事體裁的史傳〉，《中國比較文學》，第4期，2014.

溫慶新，〈明人對歷史演義小說的文體定位及啟示〉，《內江師範學院學報》，第3期，2019.

王菊芹，〈論書坊主對明代歷史演義小說的影響〉，《殷都學刊》，第2期，2009.

王亞婷，〈《隋煬帝艷史》研究綜述〉，《安徽文學》，第9期，2008.

王安葵，〈論戲曲"關目"〉，《藝術百家》，第3期，2011.

王永青，〈《隋唐演義》中的夢境描寫與帝王意識〉，《時代文學》，第6期，2009.

王獻峰，〈《隋唐演義》中的志怪因素及成因〉，《河北北方學院學報》，第3期，2016.

王會婷,〈袁于令〈西遊記題詞〉研究〉，《語文學刊》，第1期，2010.

于盛庭，〈褚人獲的生平及《隋唐演義》自序問題〉，《明清小說研究》，第4期，1988.

于志斌，〈論《隋煬帝艷史》的主題思想〉，《安徽大學學報》，第5期，1997.

劉軍，〈論歷史演義的虛構性〉，《南京理工大學學報》，第6期，2003.

劉雲霞，〈試析明代史鈔繁盛的原因〉，《新鄉學院學報(社會科學版)》，第2期，2012.

劉曉軍，〈“按鑑”考〉，《明清小說研究》，第3期，2006.

_____，〈在小說與史傳之間 －論明代歷史演義的敘事模式〉，《文藝理論研究》，第3期，2008.

李劍國，〈《大業拾遺記》等五篇傳奇寫作時代的再討論〉，《文學遺產》，第1期，2009.

李明清，〈明代講史小說 ： 從“講史”向“小說”的演變〉，《山西師大學報》，第2期，2016.

李小菊，〈論《隋唐兩朝志傳》中的詩詞歌賦〉，《明清小說研究》，第1期，2003.

李小樹，〈封建傳統史學的沒落與通俗史學的興盛 －明代史學探論〉，《北京社會科學》，第1期，1999.

李正心，〈論《隋煬帝艷史》的結構與體制〉，《韶關學院學報》，第3期，2012.

_____，〈論《隋煬帝艷史》的素材處理方式〉，《湖北廣播電視大學學報》，第7期，2012.

_____，〈論《隋煬帝艷史》的歷史影響〉，《湖北廣播電視大學學報》，第5期，2013.

_____，〈論歷史演義小說人情化傾向的影響 －以《隋煬帝艷史》爲例〉，《蘭州教育學院學報》，第12期，2013.

_____，〈故事連綴 語皆有本 －《隋煬帝艷史》與唐宋傳奇筆記諸小說之關系〉，《長春教育學院學報》，第20期，2014.

李昌淑(韓)，〈明淸小說戲曲批評中的虛實論〉，《中華戲曲》，第1期，2006.

李秋晨，〈明淸歷史演義小說的歷史衍變〉，《內江師範學院學報》，第7期，2010.

張玉，〈論《隋史遺文》在隋唐系列小說發展演變中的貢獻〉，《現代語文》，第6期，2008.

張清發(臺)，〈民間英雄的基型 －從型塑英雄的視角析論《隋史遺文》中的秦瓊〉，《新竹教育大學人文社會學報》，3卷2期，2010.

_____，〈《隋唐演義》中的天命因果與再世因緣〉，《玄奘人文學報》，11期，2011.

蔣興立(臺)，〈論〈虯髯客傳〉的人物虛實〉，《東方人文學誌》，8卷4期，2009.

程毅中，〈試探《隋唐兩朝志傳》的淵源〉，《內蒙古民族大學學報》，第3期，2008.

曹鵬程，〈宋代紀傳、編年二體優劣論〉，《史學史研究》，第1期，2011.

左桂秋，〈科舉功能下的史學普及 ： 析明代綱鑑史書〉，《山東社會科學》，第7期，2012.

朱潔，〈論袁于令的小說創作觀 －從《隋史遺文》總評說起〉，《江西社會科學》，第8期，2012.

陳遼，〈歷史演義小說 ： 中國小說家的一大發明〉，《鹽城工學院學報》，第1期，2002.

陳文新，〈論《隋唐演義》的基本品格及其小說史演義〉，《武漢大學學報》，第4期，2003.

陳蘇梅，〈論《隋史遺文》的敘事藝術特色〉，《皖西學院學報》，第3期，2015.

陳雙蓉,〈《隋唐演義》中女性形象分析〉,《作家》,第16期,2013.

蔡卿,〈《隋唐演義》的成書過程小考〉,《北京化工大學學報》,第2期,2005.

沈伯俊,〈《隋唐兩朝志傳》非羅貫中所作〉,《明清小說研究》,第4期,1997.

彭知輝,〈《隋史遺文》與晚明評話及民衆心態〉,《湖南第一師範學報》,第1期,2001.

_____,〈《隋唐演義》材料來源考辨〉,《明清小說研究》,第2期,2002.

_____,〈《隋唐志傳》成書年代考 一兼論明前期的"抄本小說"〉,《東南大學學報》, 第6期,2004.

_____,〈論元雜劇中的隋唐故事〉,《中南大學學報》,第6期,2004.

_____, 〈論《隋唐志傳》對《三國演義》的抄襲與模仿〉, 《阜陽師範學院學報》, 第6期,2006.

_____,〈《唐書志傳》"按鑑演義"考辨〉,《山西師大學報》,第4期,2007.

_____, 〈論正史與歷史演義小說 : 以隋唐題材爲例〉, 《阜陽師範學院學報》, 第6期,2009.

馮慧敏,〈從〈隋史遺文序〉看袁于令的小說理論〉,《文學界》,第7期,2012.

夏秀麗,〈《大業拾遺記》與《隋煬三記》淺析〉,《萍鄉高等專科學校學報》,第5期,2010.

韓亞光〈羅貫中與《隋唐志傳》等四部小說的真實關系〉,《前沿》,第6期,2018.

許軍,〈明清時事小說概念考〉,《瀋陽教育學院學報》,第3期,2006.

胡海義,〈明代早期歷史演義小說回目考論〉,《文史哲》,第3期,2014.

黃乾殷(臺),〈明清小說中單雄信負面形象成因探究〉,《問學》,20期,2016.

黃霖·楊緒容,〈'演義'辨略〉,《文學評論》,第6期,2003.

黃晉,〈《三國演義》版本流傳考證〉,《學術論壇》,第3期,2012.

侯忠義,〈論歷史演義小說〉,《明清小說研究》,第3期,1996.

Abstract

A Study on the Romanticization (演義化) of *Sui-Tang* Historical Narratives

Lee Jiwon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ims to infer the general constitutive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historical romance, or *lishi yanyi* (歷史演義) by analyzing various historical romances dealing with the *Sui-Tang era*. Previous studies have classified the historical romance as a novel and limited its origin to the record of verbal accounts of the past. Contrary to this previous categorization, my study regards historical romance as a form of historical narrative and examines broader aspects of the genre to grasp its generic features and inner structure.

The tradition of historical narratives began very early in the Imperial China, and produced various types of written records from Official History (正史) to *Zhiguai* (志怪). During the Tang Dynasty, historical narratives developed a more prescriptive and systematic tradition of historiography and once again had a turning point with the compilation of *Zizhi Tongjian* (資治通鑑) in the Song Dynasty. *Zizhi Tongjian* not only

realized the totality of history with a chronologically ordered time and integrated space, but also brought about the popularity of chronological history (通鑑類 史書) supported by historical studies's changing trend and the explosive expansion of the publishing market during the Ming Dynasty. As a result, from the 16th century onwards, historical romance began to be published in *Jianyang* (建陽) region bookstores, which specialized in the publication of chronological history.

Sui Tang Zhi Zhuan (隋唐志傳), or *The Story of the Sui and Tang Dynasties*, an early form of historical romance, actively embraced *Zizhi Tongjian* and *Zizhi Tongjian Gangmu* (資治通鑑綱目) both in form and content, but showed a distinct difference. *Zizhi Tongjian* and *Zizhi Tongjian Gangmu* adopted chronological form (編年體), which listed events in order based on time signs. However, *Sui Tang Zhi Zhuan* omitted the time signs and reconstructed the narrative by grouping related events together and weaving them into a causal narrative. During this process, a certain narrative pattern was developed, which gave historical events a logical order and helped readers understand them.

The earliest historical romances, which rewrote chronological history, gradually changed into various forms. *Sui Yangdi Yanshi* (隋煬帝艷史), or *The Love Story of Emperor Yang of the Sui Dynasty* adopted the classic form of a historical narrative called *Zhuanji* (傳記; biography), but its content was more a rewriting of *Wenyan biji* (文言筆記; literary sketches) of the *Sui-Tang* period rather than the official historical narrative of *Zhuanji*. *Sui Yangdi Yanshi* described the dissipation and extravagance of the emperor in detail, making historical facts an object of entertainment and aesthetic appreciation. In addition, it changed the layout of events to create a context of the narrative and added dialogues and psychological depictions by using Vernacular Chinese (白話) instead of Literary Chinese

(文言). In this manner, *Sui Yangdi Yanshi* rewrote the history of the transition of *Sui-Tang* dynasties through the biographical narrative of the emperor fissuring the established, instructive interpretation of historical events and figures.

Suishi Yiwen (隋史遺文), or *The Unofficial History of Sui Dynasty* is a text that rewrote the scripts of oral performances into historical romances. One of the most notable characteristics of this process is that it created fictional events based on their probability and expanded and developed them. The author's intention was to reveal the underlying personality rather than the exploits of a historical figure, and to portray historical facts as well as the personal motivations that drove such events to take place. The realistic and vivid descriptions of such fictional events also enabled the text to reflect the present history of the end of the Ming Dynasty through the past history of *Sui-Tang*.

Sui Tang Yanyi (隋唐演義), or *the Romance of Sui and Tang Dynasties* is a collection of *Sui-Tang* historical narratives: it used *Suishi Yiwen* and *Sui Yangdi Yanshi* as primary texts for its adaptation and added a number of edited versions of written records on *Sui-Tang*. *Sui Tang Yanyi* is a typical example of *Sui-Tang* historical romance, which recreates history into a self-completed narrative. Narrating the story about *Sui Yangdi* (隋煬帝) and *Yang Guifei* (楊貴妃) and various subsequent stories about historical figures and events, *Sui Tang Yanyi* replaces the chronicle of the dynasty with a plot based on logical and moral causalities. Causalities are explained and punishments and rewards for all cases are settled within the narrative. The narrator directly comments on the events, revealing his interpretations of them, and the author creates a complete world of order and balance through the fictional events.

The *Sui Tang* historical romances began as a more detailed and easy to

read translation of existing history but evolved into an active interpretation of the history by rewriting it into a new narrative. In its most typical, full-fledged form, historical romance created a fictional event with a self-completed narrative structure to reinterpret historical events and critically comment on them. In other words, at a certain pointhistorical romance, which was produced in various forms over the course of its development, established its own narrative and semantic structure distinct from the historical narrative.

Not all historical romances have taken the same trajectory of romanticization that this dissertation discusses. However, the texts that I have examined enable us to infer significant generic features and constitutive principles that historical romance has developed. Starting as an explanatory rewriting of official history, historical romance proceeded to create its own narrative and semantic structure distinguishing it from historical narratives. In some cases, this was not just an understanding of history but a creation of a new fictional world by rectifying obvious historical facts. Many of the narrative experiments that appeared in this process are widely used in feature-length novels later.

Key words: historical narrative, historical romance, *The Story of the Sui and Tang Dynasties*, *The Love Story of Emperor Yang of the Sui Dynasty*, *The Unofficial History of Sui Dynasty*, *the Romance of Sui and Tang Dynasties*, *Zizhi Tongjian*

Student Number : 2004-30016